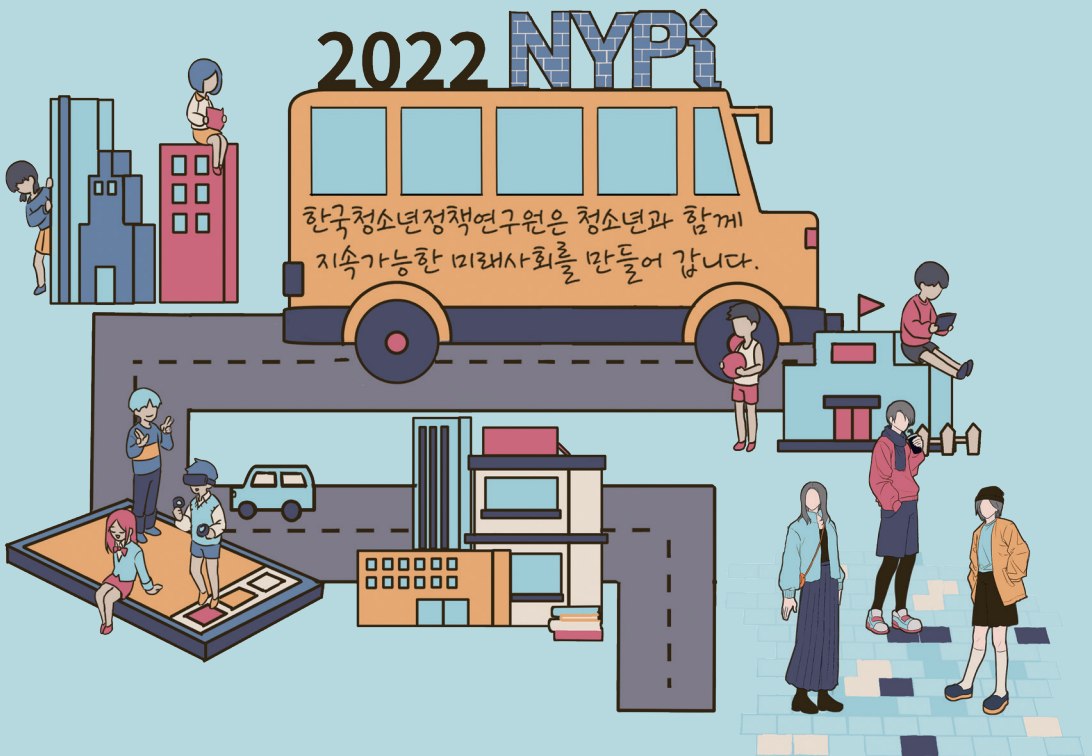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최정원 · 이지연 · 김현수 · 박지숙





---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저 자 최정원, 이지연, 김현수, 박지숙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현수(창원대학교 교수)  
\_박지숙(공주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_구본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보고서를 펴내며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로 뜻풀이되지만 정작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질이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만큼 사회성의 의미가 다차원적이며 사회성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 또한 시대, 문화, 세대에 따라 다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의 속성은 결코 하나의 표준화된 잣대로 우열과 시비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회 환경에서 MZ세대의 사회성 위축을 우려 또는 기정사실화하기에 앞서 사회성의 다차원성과 유동성에 대해 얼마나 깊게 고민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MZ세대의 사회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고 우리사회가 비단 MZ세대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사회성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연구란 주제가 아닌 함께 하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고민의 시작부터 대안의 모색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이지연 박사님, 김현수 교수님, 박지숙 박사님, 구본호 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중요한 순간마다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상준 연구사님, 이다현 센터장님, 이민영 소장님, 박영옥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2년 12월 연구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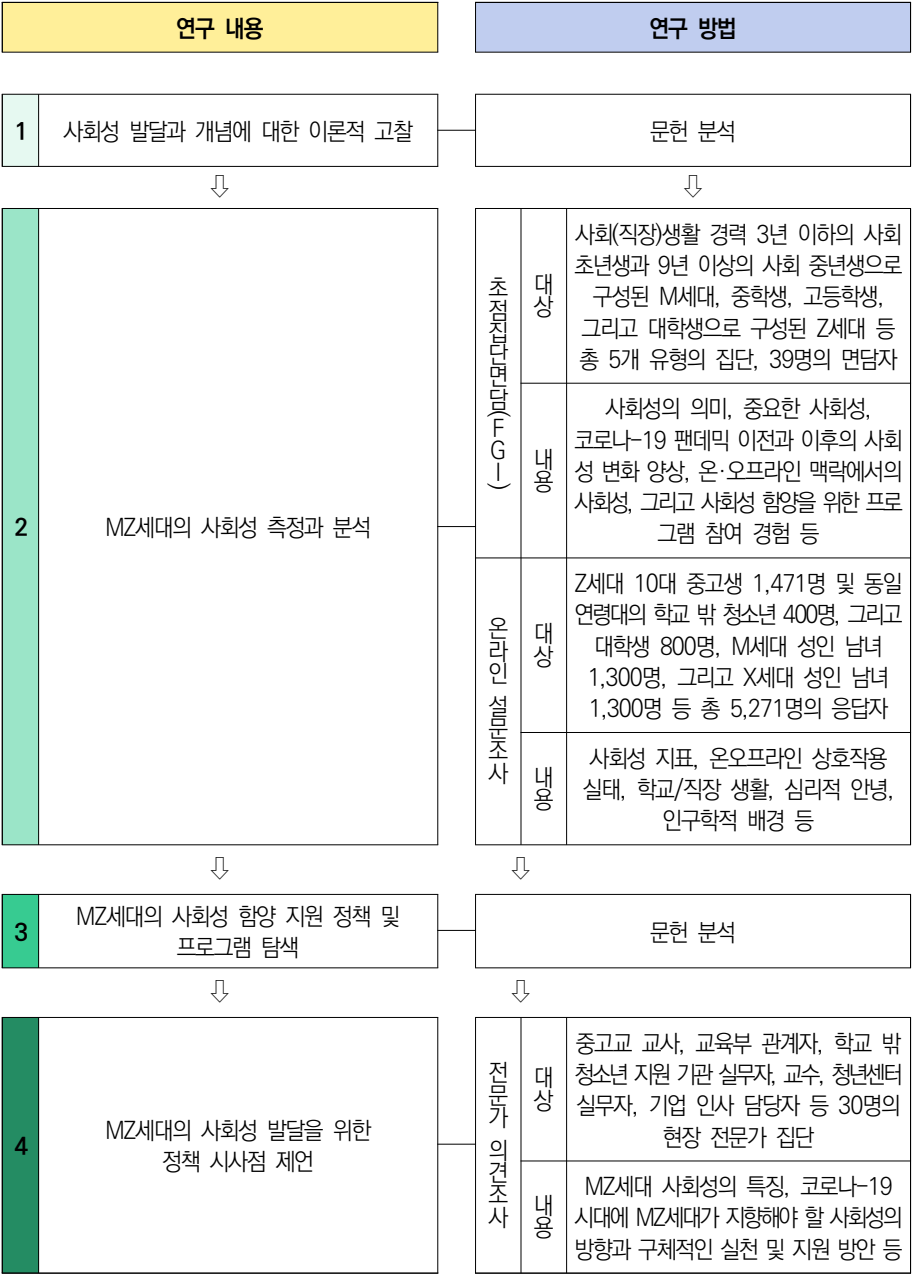
최정원

## 연구 요약

###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MZ세대가 학교와 직장에서 교사와 또래집단, 상사와 동료 등과의 온전한 상호작용 기회를 누리지 못하여 사회성 위축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존재함.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또는 청년기)의 사회성 위축 및 결핍은 비단 해당 시기만의 발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주기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작금의 팬데믹 상황이 MZ세대의 사회성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는 기우로만 치부하기 어려움.
- 본 연구는 한편으로 이러한 우려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의 MZ세대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실제 사회성 함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함.
  - 사회성은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며, 우리가 타인과 사회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방식도 대면 접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임.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MZ세대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계는 결코 오프라인상의 대면 관계에 국한되지 않음. 이들은 오프라인상의 대면 소통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비대면 소통, 관계를 함께 병행하므로 코로나-19 기간 대면 교류 활동의 제약, 원격 학습과 재택근무 등이 이들 세대의 사회성 발달을 위축시키거나 사회성의 결핍을 초래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오프라인상에서의 대면 활동과 교류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회성이 형성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들의 사회성 발달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 연구 내용과 방법



## ■ 연구 결과

### 주요 연구 결과

#### ● 사회성 발달 이론과 개념에 대한 문헌 고찰

- 사회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됨. 발달적 관점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관점은 '사회 속의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문화, 규칙 및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성의 기준으로 삼음.
- 발달적 관점의 인지적 측면은 Selman(1980)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 측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한 대표적 이론인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습득 및 적용 수준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사회적 관점은 사회성을 사회화의 과정 및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외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 및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사회성 구성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공감, 근면성, 대인관계, 사교성, 안정성, 자기조절, 자율성, 준법성, 리더십, 책임감, 협동성, 주장성, 의사소통 능력 등 총 13개 요인으로 구분됨.

#### ● MZ세대의 사회성 측정과 분석

##### ● 초점집단면담(FGI)

- MZ세대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이외의 집단 또는 조직을 전제로, 그 안에서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것을 '사회성'으로 인식함.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회성이 특별히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음. 사회성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달리 발휘되는 속성으로 생각함.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중심의 교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온라인 중심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함.

● 실태조사

- 현재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X세대와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점수가 가장 낮음.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자신의 사회성에 생긴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사회성 전반은 물론 사회성을 구성하는 13개 하위 요인 대부분에서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음.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평정 척도를 이용해 각 사회성 영역의 발달 수준을 실측했을 때 학생 청소년 집단은 자기조절, 주장성, 의사소통, 리더십, 공감 등의 영역에서 여타 세대 집단을 상회함.
- 사회성 수준의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환산 시 Z세대는 근면성,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성이, M세대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X세대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함.
- 사회성 수준의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환산 시 Z세대는 근면성,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성이, M세대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X세대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함. 세대 집단의 전반적인 점수 분포 양상을 보면 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은 M, X세대와 다르며 특히 세대 간 차이는 정반대의 발달 양상을 보여주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 사이에서 가장 명확함.
- 수평적(또는 민주적) 인간관계의 가치 지향,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확대, 자아 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제고, 그리고 가족건강성 제고 등은 전 세대를 아울러 그리고 사회성 전반에 걸쳐 정적 상관을 보임.
-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오프라인 교류자본의 유의한 정적 상관성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됐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인 M, X세대 성인 집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음.
- 사회성 발달과 온라인 활동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X세대에게서만 일관되게 나타남.
- 모든 세대에서 ①'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②'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③'비

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의 3가지 사회성 발달 유형이 발견되었음.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학생 청소년의 52%가 해당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7%만이 이에 해당하였음. 또한,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43%, 후기 M세대가 42%인 것으로 나타남.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탐색

##### ● Z세대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청소년 Z세대 사회성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교육부의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있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성 함양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및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사회성과 관련 있는 인성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축소 또는 불규칙적 등교로 인해 사회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각 지역에서 특별 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단,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의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강화한 형태로 계획되었고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비중이 컸음.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 청년의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단위 대학 및 단위 청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함.

##### ● M세대

- M세대에 속하는 학령기 기준 1980년생부터 빠른 1993년생까지는 제6차

교육과정을 경험하였음. 이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방침 중 사회성 함양과 가장 근접한 내용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임.

- 성인기 M세대가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은 평생교육기관이 전부임.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시민 의식, 매너 및 직장 생활 관계 기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함.

#### ● 해외 사례

- 일본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이 돋보임. 고치현(高知縣) 교육위원회와 국립대학법인 도쿠시마대학(徳島大學)이 2015년 공동 개발한 '청년 날개 프로그램'은 전국에 보급되어, 학교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사회성을 함양하여 사회적 자립 촉진을 지원함. 또한 중학생(주로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진로 교육 연계 체험 활동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의식과 사회성을 고양하여 장래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은 비영리단체 CASEL에서 추진하는 사회성·감성 학습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함.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회성·감성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능력, 책임 있는 의사 결정으로, 이를 함양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 실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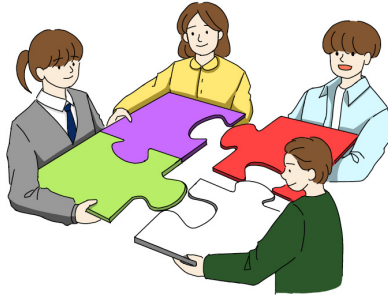
## ■ 핵심 정책 제언

### 핵심 정책 제언

- 사회성 발달을 위한 과학적, 유기적 정책 지원 환경 구축
  - 증거 기반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수립:  
다양한 미래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및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진단과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
  -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정책 수립: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 지원에 편중된 현행 정책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소년기와 청년기 사회성 발달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야 함.
- 사회성의 다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제고:  
특정 세대의 사회화 경험과 가치관이 바람직한 사회성이 무엇인지를 정형화하고 재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됨.
  - 교육·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 활동 강화:  
MZ세대와 X세대가 서로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교류 활동이 교육 현장과 직무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함.
- 사회성 취약 집단 지원 및 사회성 함양의 패러다임 전환
  - 전(全) 세대 사회성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세대 간 대결 구도에 가려진 세대 내 이질성에 주목하여 사회성이 취약한 '세대'가 아니라 사회성이 취약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함.
  -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오프라인 공간 못지않게 온라인 공간 또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성 함양에 관한 기존의 지식들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3개 정책 목표와 6개 정책과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과학적,  
유기적 정책 지원 환경 구축

- 과제 1. 증거 기반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수립
- 과제 2.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정책 수립

사회성의 다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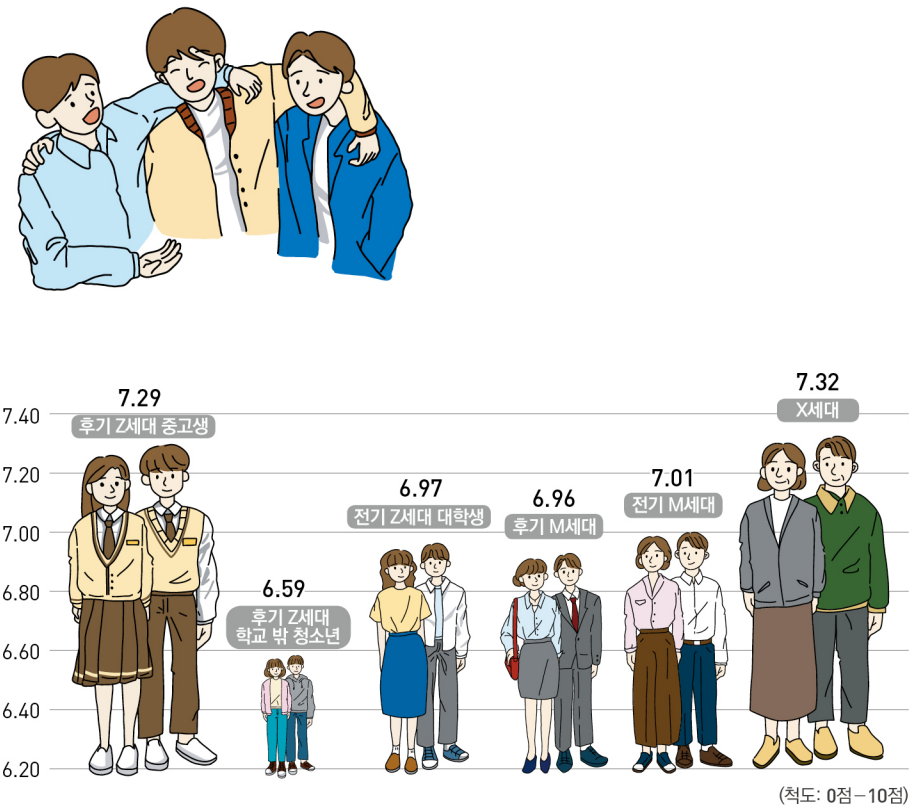
- 과제 1.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제고
- 과제 2. 교육·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 활동 강화

사회성 취약집단 지원 및  
사회성 함양의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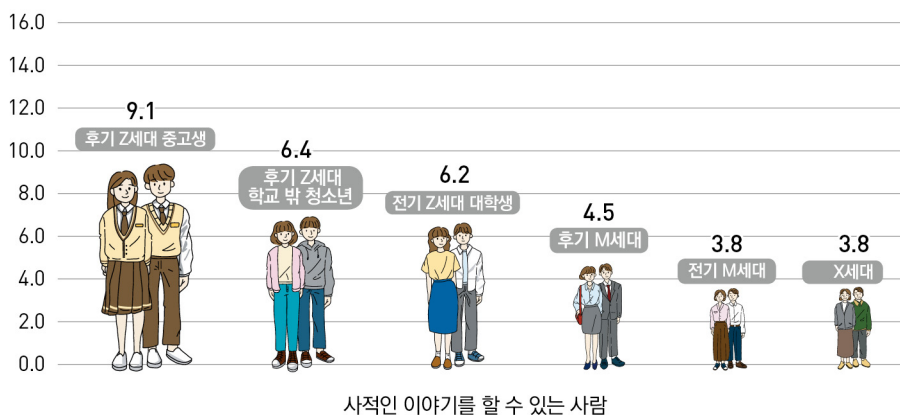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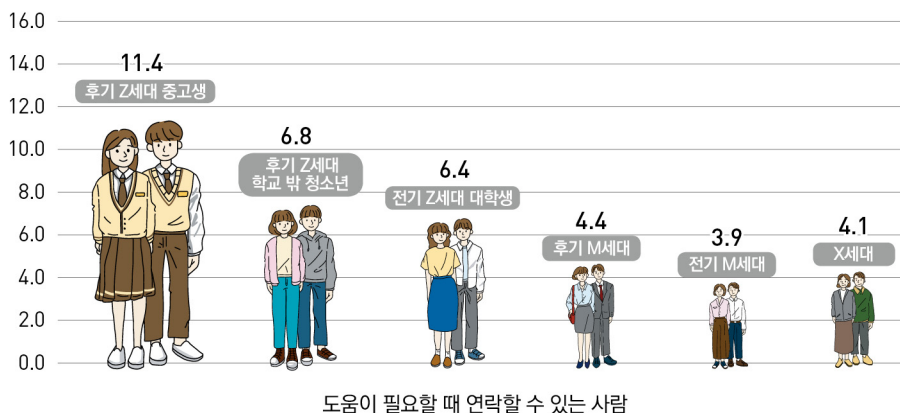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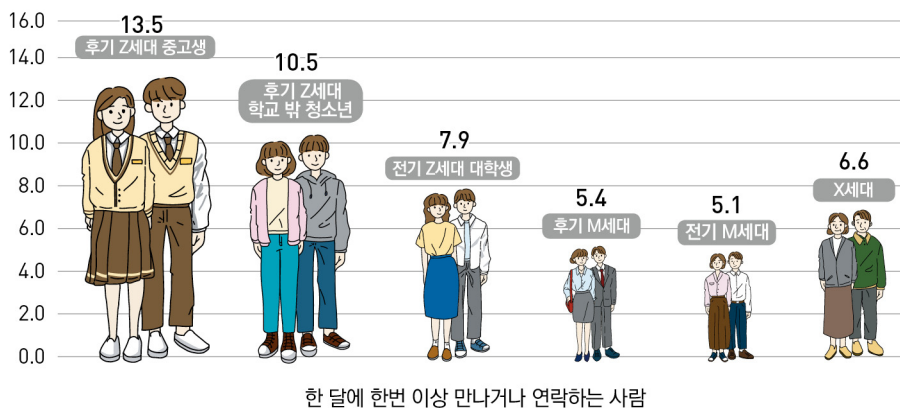
- 과제 1. 전(全) 세대 사회성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및 지원
- 과제 2.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MZ세대의 사회성 특징

나의 사회성 점수 (단위: 점)



## 사회적 관계망 크기 (단위: 명)



### 조직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1-3 순위 (단위: 점)

평정방식: 총 130점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에 점수 배분

|   | 후기 Z세대 중고생                                                                                         |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전기 Z세대 대학생                                                                                        | 후기 M세대                                                                                             | 전기 M세대                                                                                             | X세대                                                                                                 |
|---|----------------------------------------------------------------------------------------------------|------------------------------------------------------------------------------------------------------|---------------------------------------------------------------------------------------------------|----------------------------------------------------------------------------------------------------|----------------------------------------------------------------------------------------------------|-----------------------------------------------------------------------------------------------------|
|   |                   |                     |                  |                   |                   |                   |
| 1 | 공감<br><br>13.36   | 공감<br><br>14.86     | 사교성<br><br>14.89 | 공감<br><br>15.67   | 공감<br><br>16.22   | 공감<br><br>16.09   |
| 2 | 사교성<br><br>12.63  | 의사소통능력<br><br>13.26 | 협동성<br><br>13.59 | 자기조절<br><br>13.96 | 자기조절<br><br>14.42 | 자기조절<br><br>14.20 |
| 3 | 대인관계<br><br>11.99 | 사교성<br><br>12.54    | 공감<br><br>13.18  | 협동성<br><br>13.00  | 협동성<br><br>13.04  | 협동성<br><br>13.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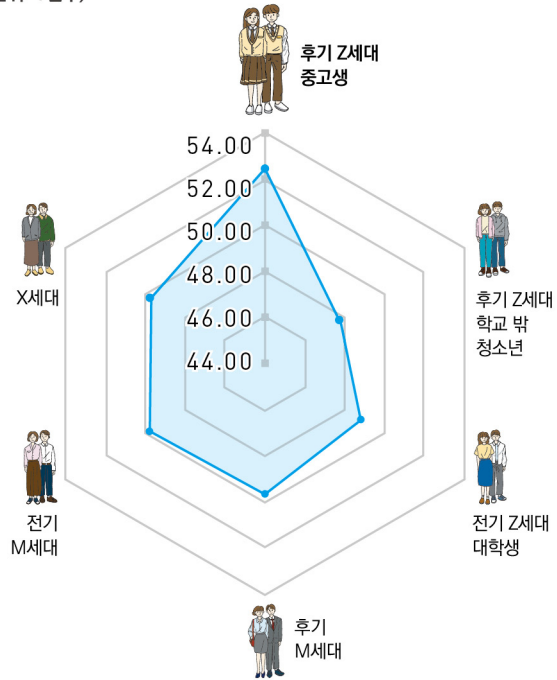
### 조직 밖에서 중요한 사회성 1-3 순위 (단위: 점)

평정방식: 총 130점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에 점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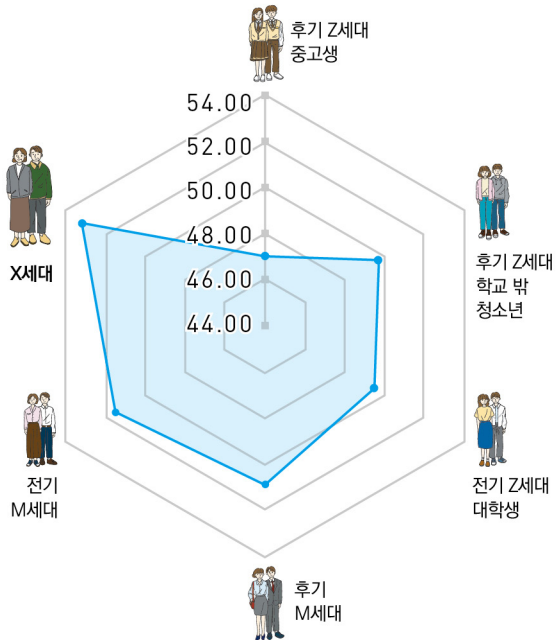
|   | 후기 Z세대 중고생                                                                                             |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전기 Z세대 대학생                                                                                             | 후기 M세대                                                                                                 | 전기 M세대                                                                                                 | X세대                                                                                                     |
|---|--------------------------------------------------------------------------------------------------------|--------------------------------------------------------------------------------------------------------|--------------------------------------------------------------------------------------------------------|--------------------------------------------------------------------------------------------------------|--------------------------------------------------------------------------------------------------------|---------------------------------------------------------------------------------------------------------|
|   |                      |                      |                      |                      |                      |                      |
| 1 | 공감<br><br>15.54     | 공감<br><br>17.01     | 사교성<br><br>18.03    | 공감<br><br>21.96     | 공감<br><br>21.62     | 공감<br><br>19.67     |
| 2 | 의사소통능력<br><br>13.51 | 의사소통능력<br><br>15.54 | 공감<br><br>17.85     | 사교성<br><br>16.67    | 의사소통능력<br><br>16.08 | 대인관계<br><br>14.18   |
| 3 | 사교성<br><br>13.42    | 대인관계<br><br>14.00   | 의사소통능력<br><br>16.96 | 의사소통능력<br><br>16.39 | 사교성<br><br>15.67    | 의사소통능력<br><br>13.76 |

\*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별 집단 평균 비교(단위: T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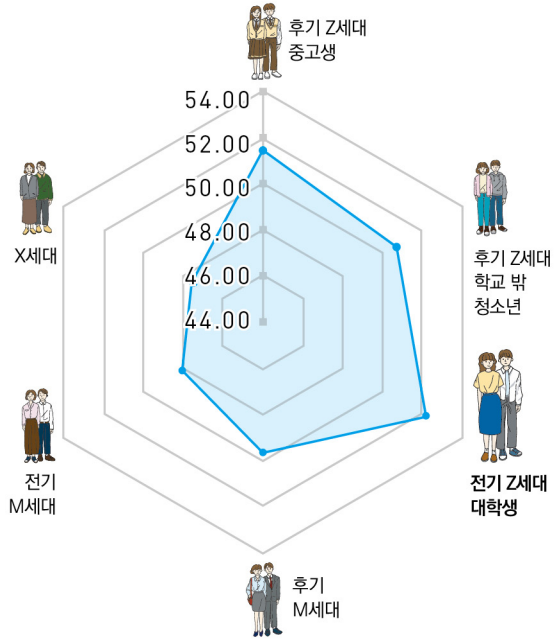
주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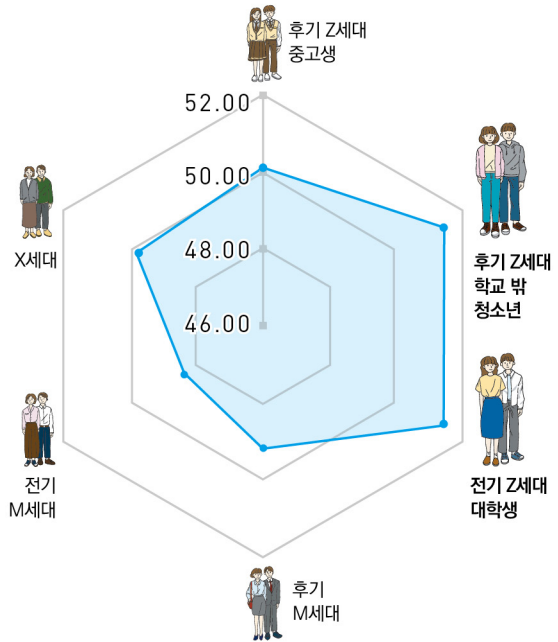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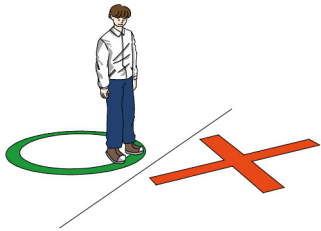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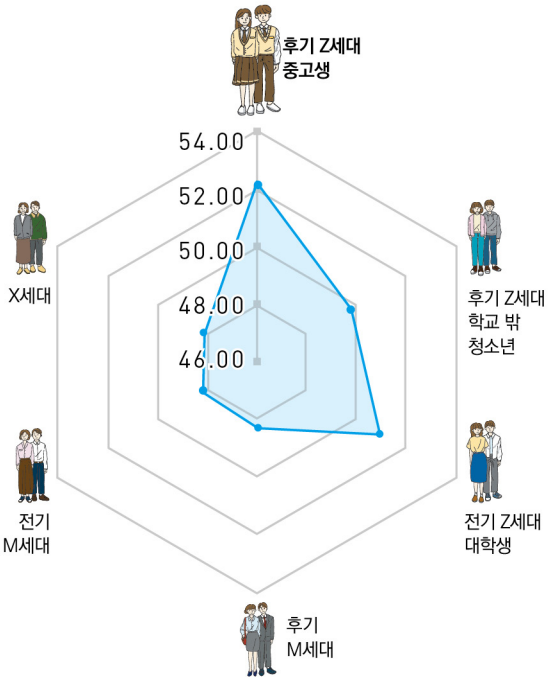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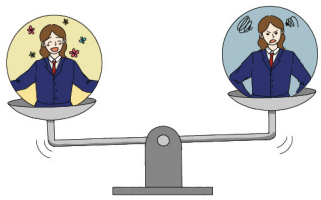
# 의사소통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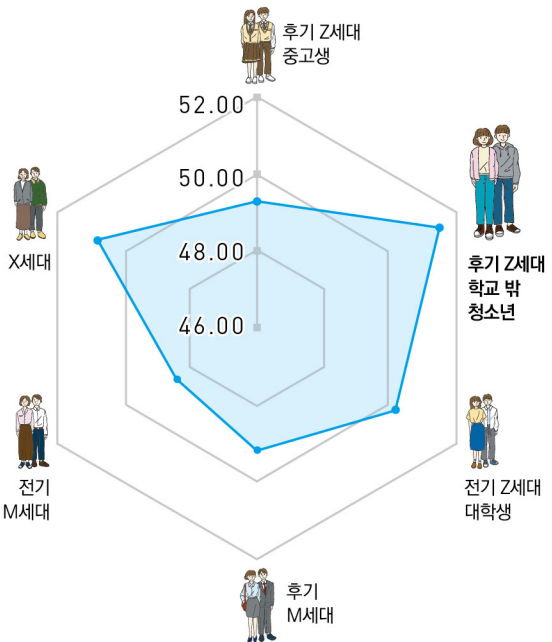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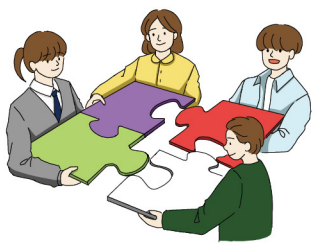
# 준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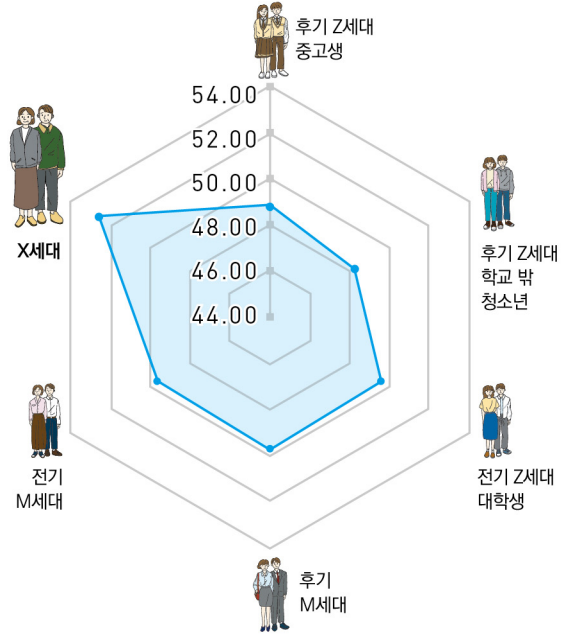
## 자기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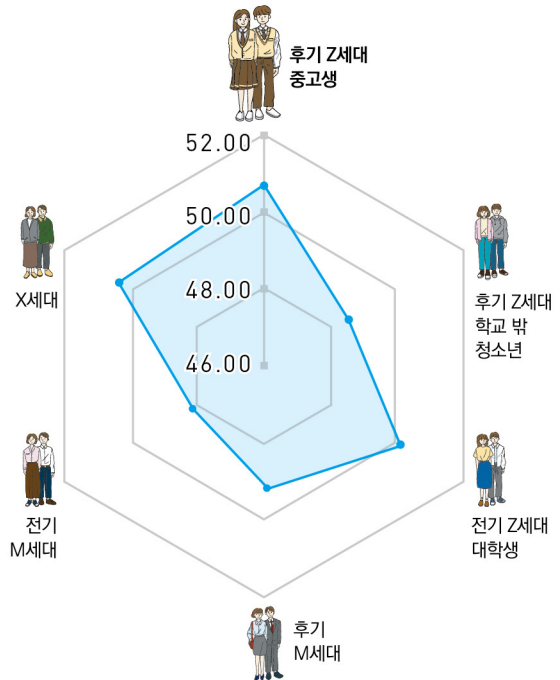
협동성



## 근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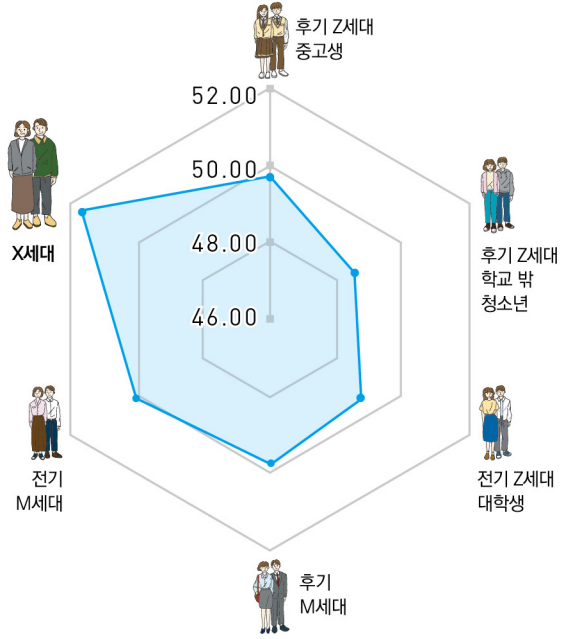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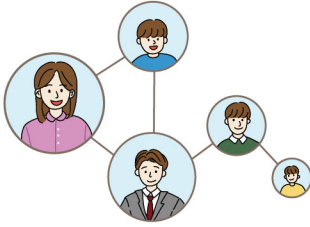


##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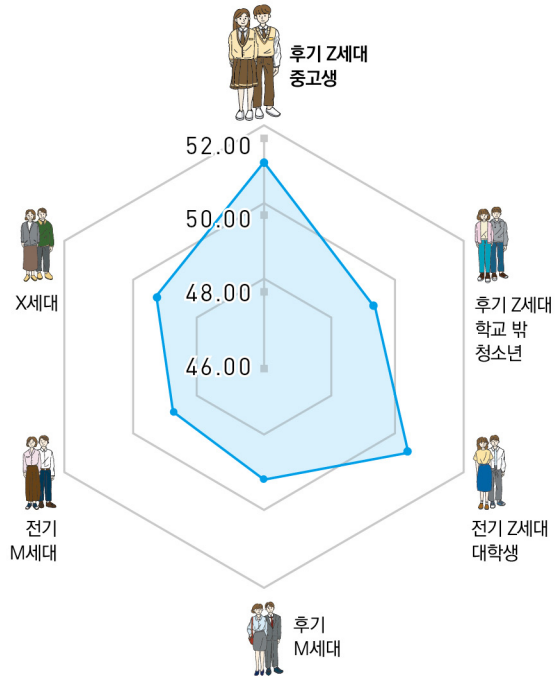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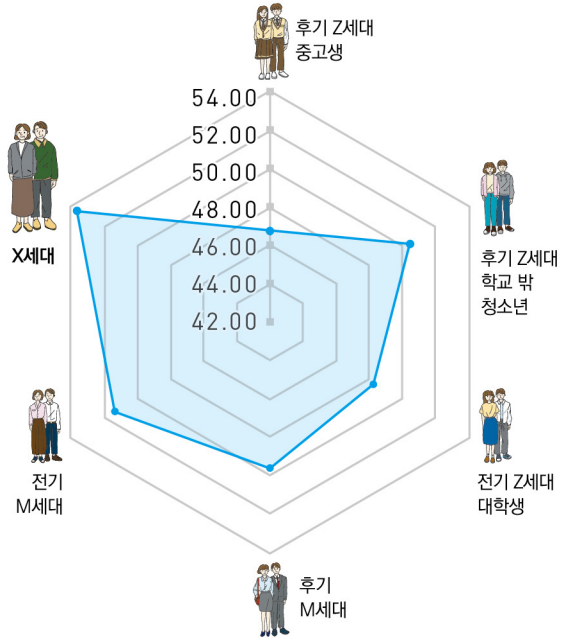
##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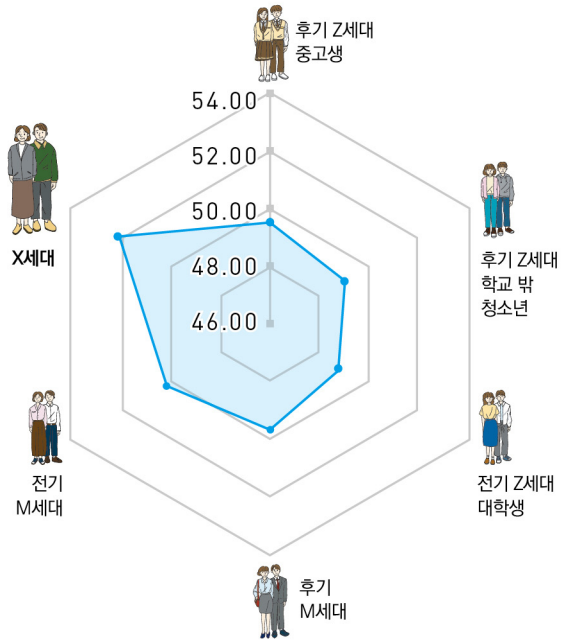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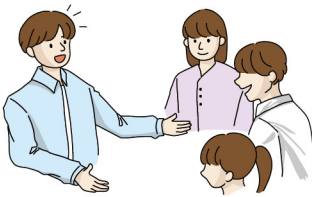
##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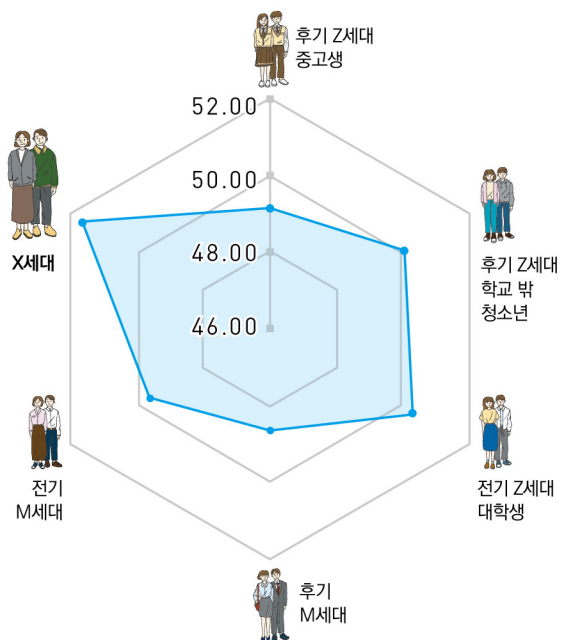
#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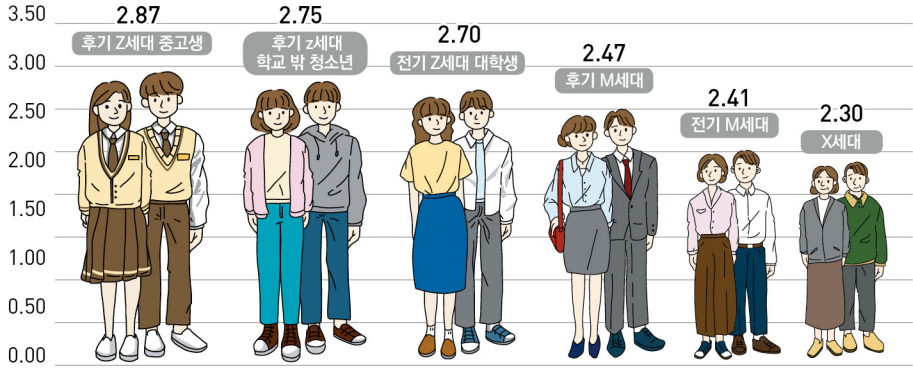
# 사교성



##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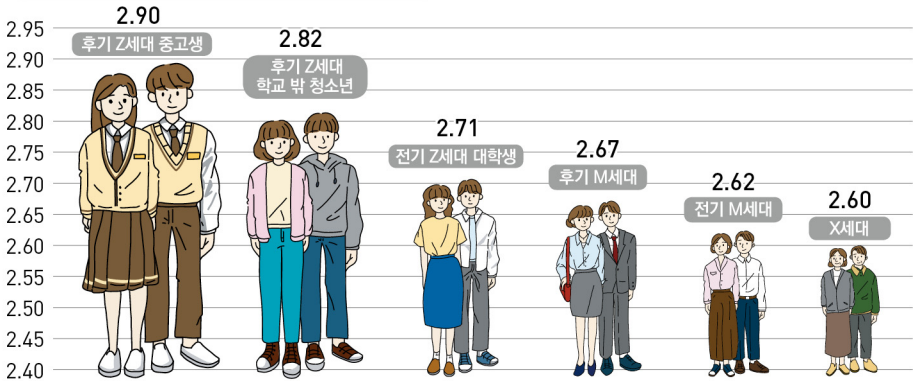


### 일상 속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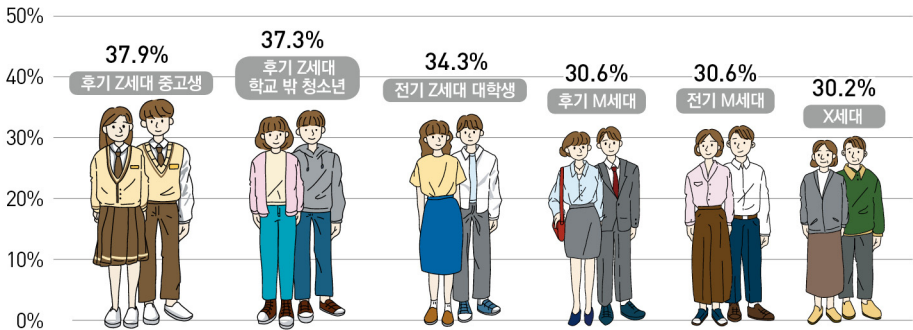
(척도: 1=매우 조금한다 2=조금하는 편이다 3=많이 하는 편이다 4=매우 많이 한다)

### 일상 속 온라인 상호작용의 중요도 (단위: 점)



(척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중요한 편이다 4=매우 중요하다)

###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집단 내 비율)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연구보고 22-기본03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 2. 연구 내용과 방법 ..... 12

## II. 사회성 발달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사회성 이론 ..... 21
- 2. 사회성 개념 ..... 31
- 3. 소결 ..... 39

## III. MZ세대의 사회성 측정과 분석

- 1. 초점집단면담(FGI) ..... 45
- 2. 실태조사 ..... 57

## IV.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탐색

- 1. Z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182
- 2. M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190
- 3. 해외 사례 ..... 192
- 4. 시사점 ..... 196

## **V. 정책 제언**

1. 정책 과제 도출 과정 개요 ..... 201
2. 정책 목표와 과제 ..... 202

**참고문헌** ..... 213

**부    록** ..... 229

**Abstract** ..... 273

## 표 목차

|                                                                            |     |
|----------------------------------------------------------------------------|-----|
| 표 Ⅰ-1. 세대 구분 비교 .....                                                      | 10  |
| 표 Ⅰ-2. 사회성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 14  |
| 표 Ⅰ-3. 교육 및 직무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 16  |
| 표 Ⅱ-1. Selman의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                                    | 22  |
| 표 Ⅱ-2.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                                   | 24  |
| 표 Ⅱ-3. 사회적 기술 분류(Caldarella & Merrell, 1997) .....                         | 25  |
| 표 Ⅱ-4. 사회성 개념 .....                                                        | 33  |
| 표 Ⅱ-5. 사회성 구성 요인 .....                                                     | 37  |
| 표 Ⅲ-1. 초점집단면담 개요 .....                                                     | 46  |
| 표 Ⅲ-2. 실태조사 개요 .....                                                       | 58  |
| 표 Ⅲ-3. 조사 영역별(기타 영역 제외) 측정 도구 개요 .....                                     | 76  |
| 표 Ⅲ-4. 설문 열개 .....                                                         | 78  |
| 표 Ⅲ-5.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양상 평가에 대한<br>영역별 집단 비교 .....                       | 82  |
| 표 Ⅲ-6. 코로나-19로 사회적 조치가 사회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br>세대 간 응답 교차분석 결과(수정된 표준화 잔차) ..... | 83  |
| 표 Ⅲ-7. 공감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 89  |
| 표 Ⅲ-8. 자기조절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 90  |
| 표 Ⅲ-9. 주장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 91  |
| 표 Ⅲ-10. 협동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 92  |
| 표 Ⅲ-11. 근면성의 집단 간 비교 .....                                                 | 95  |
| 표 Ⅲ-12. 준법성의 집단 간 비교 .....                                                 | 96  |
| 표 Ⅲ-13. 책임감의 집단 간 비교 .....                                                 | 98  |
| 표 Ⅲ-14. 안정성의 집단 간 비교 .....                                                 | 100 |
| 표 Ⅲ-15. 자율성의 집단 간 비교 .....                                                 | 101 |
| 표 Ⅲ-16. 리더십의 집단 간 비교 .....                                                 | 102 |
| 표 Ⅲ-17. 사교성의 집단 간 비교 .....                                                 | 104 |
| 표 Ⅲ-18. 의사소통 능력의 집단 간 비교 .....                                             | 105 |
| 표 Ⅲ-19. 대인관계의 집단 간 비교 .....                                                | 106 |

|                                                                    |     |
|--------------------------------------------------------------------|-----|
| 표 III-2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집단 간 비교 .....                                 | 108 |
| 표 III-21. 사회성 개발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실태<br>(다중 응답, 단위: %) .....          | 109 |
| 표 III-22. 참여 프로그램의 사회성 향상 기여 정도(단위: 점) .....                       | 110 |
| 표 III-23.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집단 간 비교 .....                                | 118 |
| 표 III-24.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중요도, 오프라인<br>상호작용과의 차이 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 121 |
| 표 III-25.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 122 |
| 표 III-26.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한 집단별 온·오프라인<br>교류자본 수준 비교 .....            | 124 |
| 표 III-27.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비교 .....                                     | 128 |
| 표 III-28. 자아효능감의 집단 간 비교 .....                                     | 129 |
| 표 III-29. 삶의 만족도 집단 간 비교 .....                                     | 131 |
| 표 III-30. 가족건강성의 집단 간 비교 .....                                     | 132 |
| 표 III-31. T점수 기준 평균(50점)에 못 미치는<br>사회성 영역의 세대별 구분 결과 .....         | 134 |
| 표 III-32.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br>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38 |
| 표 III-33.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br>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41 |
| 표 III-34. 전기 Z세대 대학생의 사회성 관련<br>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43 |
| 표 III-35. 후기 M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45 |
| 표 III-36. 전기 M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48 |
| 표 III-37. X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150 |
| 표 III-38. 사회성 하위 요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 .....                            | 155 |
| 표 III-39. 세대별 사회성 잠재프로파일 모형별<br>적합도 지수 비교 및 3개 프로파일 모형 정보 .....    | 159 |
| 표 III-40. 세대에 따른 사회성 지표의 유형별 추정 평균 .....                           | 164 |
| 표 III-41. 사회성 유형 예측 요인 .....                                       | 169 |
| 표 III-42.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br>상호작용 평균 차이 .....                | 170 |
| 표 III-43.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조직 문화,<br>가족건강성 및 심리적 복지감 평균 차이 .....     | 173 |
| 표 IV-1.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의 사회성 지원 관련 과제 .....                            | 183 |
| 표 IV-2. 사도교육청 사회성 함양 관련 사업 예시 .....                                | 184 |



|                                                      |     |
|------------------------------------------------------|-----|
| 표 IV-3.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의<br>사회성 지원 관련 과제 .....      | 186 |
| 표 IV-4.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종합 추진 방안 내<br>사회성 함양 관련 사업 ..... | 187 |
| 표 IV-5. 전국 청년센터의 청년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 188 |
| 표 IV-6. 대학 부속 기관 운영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 189 |
| 표 IV-7.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 교양 필수 과정 .....                | 190 |
| 표 IV-8. 제6차 교육과정 내 사회성 함양 관련 과목 및 내용 .....           | 191 |
| 표 IV-9. 평생교육기관 운영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 192 |
| 표 IV-10. 청년 날개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술 트레이닝'<br>주요 내용 .....    | 193 |
| 표 IV-11. CASEL의 사회성·감성 학습 프로그램<br>(중·고등학생 대상) .....  | 19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Ⅰ-1.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사회성 함양에 대한<br>응답자 태도 비교 .....                     | 5   |
| 그림 Ⅰ-2. 세대 주제어 온라인 검색 추이 비교(2016~2021) .....                           | 7   |
| 그림 Ⅰ-3. 연구 내용과 방법 개요 .....                                             | 12  |
| 그림 Ⅲ-1. 집단별 사회성 종합 수준(단위: 점) .....                                     | 81  |
| 그림 Ⅲ-2. 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수준(단위: 점) .....                           | 81  |
| 그림 Ⅲ-3. 학교/센터/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br>(세대 기준, 단위: 점) .....                | 85  |
| 그림 Ⅲ-4. 학교/센터/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br>(사회성 영역 기준, 단위: 점) .....            | 86  |
| 그림 Ⅲ-5. 학교/센터/직장 밖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한<br>평정 결과(집단 기준, 단위: 점) .....       | 87  |
| 그림 Ⅲ-6. 학교/센터/직장 밖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한<br>평정 결과(영역 기준, 단위: 점) .....       | 88  |
| 그림 Ⅲ-7. 공감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                            | 89  |
| 그림 Ⅲ-8. 자기조절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                             | 90  |
| 그림 Ⅲ-9. 주장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                           | 91  |
| 그림 Ⅲ-10. 협동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                             | 92  |
| 그림 Ⅲ-11.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수준(빈도) 및<br>중요도 점수 종합 (영역 기준, 단위: 점) ..... | 93  |
| 그림 Ⅲ-12.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수준(빈도) 점수 종합<br>(집단 기준, 단위: 점) .....       | 94  |
| 그림 Ⅲ-13. 집단별 근면성 점수(단위: 점) .....                                       | 95  |
| 그림 Ⅲ-14. 집단별 준법성 점수(단위: 점) .....                                       | 96  |
| 그림 Ⅲ-15. 집단별 책임감 점수(단위: 점) .....                                       | 97  |
| 그림 Ⅲ-16.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점수 종합<br>(집단 기준, 단위: 점) .....                   | 98  |
| 그림 Ⅲ-17. 집단별 안정성 점수(단위: 점) .....                                       | 99  |
| 그림 Ⅲ-18. 집단별 자율성 점수(단위: 점) .....                                       | 100 |

|                                                                  |     |
|------------------------------------------------------------------|-----|
| 그림 III-19. 집단별 리더십 점수(단위: 점) .....                               | 102 |
| 그림 III-20.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점수 종합<br>(집단 기준, 단위: 점) .....           | 103 |
| 그림 III-21. 집단별 사고성 점수(단위: 점) .....                               | 103 |
| 그림 III-22. 집단별 의사소통 능력 점수(단위: 점) .....                           | 105 |
| 그림 III-23. 집단별 대인관계 점수(단위: 점) .....                              | 106 |
| 그림 III-24. 집단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점수(단위: 점) .....                     | 107 |
| 그림 III-25. 프로그램별 사회성 개선 기여 정도(단위: 점) .....                       | 112 |
| 그림 III-26.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br>(후기 Z세대 중고생, 단위: %) .....      | 113 |
| 그림 III-27.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br>(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단위: %) ..... | 114 |
| 그림 III-28.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br>(전기 Z세대 대학생, 단위: %) .....      | 115 |
| 그림 III-29.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br>(후기 M세대, 단위: %) .....          | 115 |
| 그림 III-30.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br>(전기 M세대, 단위: %) .....          | 116 |
| 그림 III-31. 프로그램별 사회성 개선 효과 영역(X세대, 단위: %) ..                     | 116 |
| 그림 III-32. 집단별 사회적 관계망 크기(단위: 명) .....                           | 118 |
| 그림 III-33. 집단별 온라인 상호작용 빈도(단위: 점) .....                          | 119 |
| 그림 III-34. 집단별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단위: 점) .....                         | 119 |
| 그림 III-35. 집단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단위: 점) .....                       | 120 |
| 그림 III-36. 집단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유무(단위: %) ..                       | 120 |
| 그림 III-37. 집단별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단위: 점) .....                      | 122 |
| 그림 III-38. 집단별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단위: 점) ....                     | 123 |
| 그림 III-39. 집단별 온·오프라인 교류자본(단위: 점) .....                          | 124 |
| 그림 III-40. 학업 성적/업무 성과 수준 및 이에 대한<br>만족도(단위: 점) .....            | 125 |
| 그림 III-41. 학교 문화의 민주성과 직장 문화의 관계<br>지향성 평정 결과(단위: 점) .....       | 126 |
| 그림 III-42. 집단별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단위: 점) .....                         | 127 |
| 그림 III-43. 집단별 자아존중감(단위: 점) .....                                | 127 |
| 그림 III-44. 집단별 자아효능감(단위: 점) .....                                | 128 |
| 그림 III-45. 삶의 만족도 평정 결과(단위: 점) .....                             | 130 |
| 그림 III-46. 삶의 만족도 수준별 분포 현황(단위: %) .....                         | 130 |

|                                                                |     |
|----------------------------------------------------------------|-----|
| 그림 Ⅲ-47. 가족건강성(단위: 점) .....                                    | 132 |
| 그림 Ⅲ-48. 집단별 사회성 발달 수준 평정 결과 종합<br>(단위: T점수) .....             | 133 |
| 그림 Ⅲ-49.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br>사회성 발달 양상 비교(단위: T점수) ..... | 135 |
| 그림 Ⅲ-50. 세대별 사회성 잠재프로파일 수 변화에 따른<br>모형적합도 변화 .....             | 161 |
| 그림 Ⅲ-51. 세대에 따른 사회성 지표의 유형별 추정 평균 .....                        | 163 |
| 그림 Ⅲ-52. 세대별 사회성 유형 분포(단위: %) .....                            | 165 |
| 그림 Ⅲ-53. 사회성 유형별 사회성 지표의 세대 간 비교 .....                         | 166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 연구 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미증유의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맞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2022)된 이후로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반복하며 초기 형태보다 더 강한 전파력으로 우리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sup>2)</sup> 위기에 직면한 것은 공중 보건만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내수 경제 타격에 따른 경제성장을 하락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박영주, 2021),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거나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등(박선혜, 2021) 팬데믹 사태는 우리 사회에 예기치 못한 피해이자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중반 사이의 출생 코호트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의 출생 코호트인 Z세대를 통칭하는 세대 용어) 또한 지금의 위기적 사회 변화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한창 중등교육을 받아야 할 Z세대는 등교 수업의 잦은 중단과 원만하지 못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학력 저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MZ세대의 경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업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경아, 손희원,

1)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2021; 인효연, 이정신, 김수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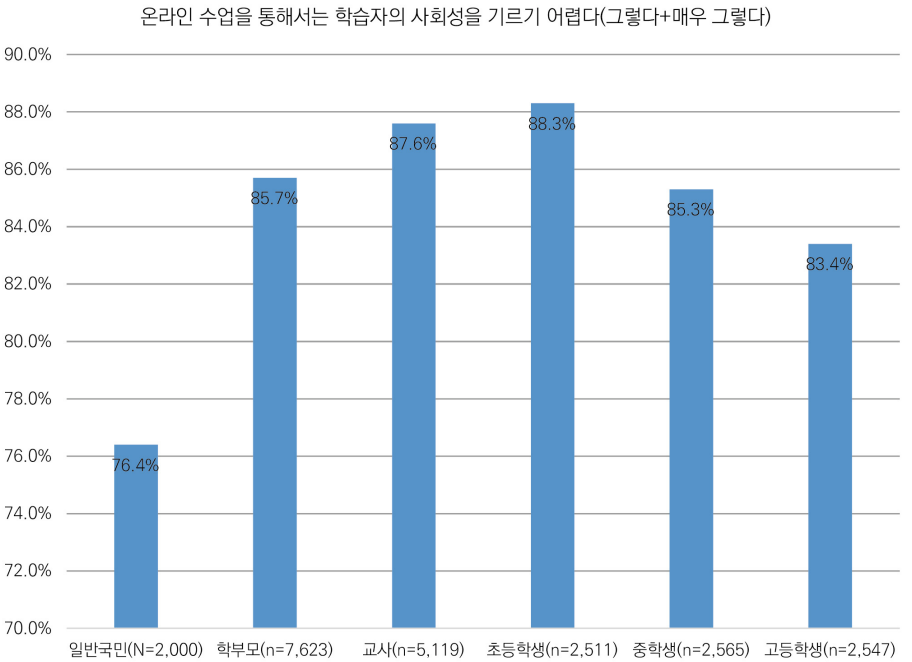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교사 및 또래집단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MZ세대의 심리사회적 건강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한국 청소년재단과 코리아픽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전후를 대비했을 때 친구 관계, 가족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등 삶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10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았다. 코로나-19 발생 후 일상에서 느끼는 지배적 감정으로 답답함, 불안과 걱정, 우울,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90%를 상회하였다(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픽스, 2020).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30대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응답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훈진, 김주연, 민나리, 윤연정, 2022).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거나 성장기를 보낸 MZ세대는 이전의 모든 세대보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가장 능숙하게 다루고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성장해왔다(Prensky, 2001).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학습과 관계 맺기 또한 축소되거나 제한되면서 학습적, 정서적 결핍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이 요원해지면서(김운섭, 2022), MZ세대의 역량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Z세대가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당장의 학습 능력 저하와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MZ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학교나 직장 같은 보편적인 사회화 기관에서 교사와 또래집단, 상사와 동료 등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발달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MZ세대가 학교와 직장에서 교사와 또래집단, 상사와 동료 등과의 대면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학습하는 전통적 사회화 기제의 단속(斷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언론에서는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비대면 시대의 인터넷 몰입, 사회성 손실 등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인희, 2021; 홍석재, 2021; 뉴스EBS, 2020). 국가교육회의가 2020년 10월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각 응답 집단의 절반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환경이 학습자의 사회성 함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그림 I-1】). 교육부 또한 2021년 7월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계획에 등교 수업의 축소로 인한 청소년의 사회성 위축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아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교육부, 2021).



\* 출처: 국가교육회의 (2020).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교육회의.

※ 연구자가 설문 결과를 그래프로 재구성함.

그림 I-1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사회성 함양에 대한 응답자 태도 비교

인간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또는 청년기)의 사회성 위축 및 결핍은 비단 해당 시기만의 발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주기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Erikson, 1963). 만약 팬데믹 상황이 MZ세대의 사회성 함양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의 MZ세대가 실제로 사회성 함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문적 영역에서 사회성은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며, 사회적 관계 맺기의 방식도 대면 접촉에 한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현실을 진단하여 필요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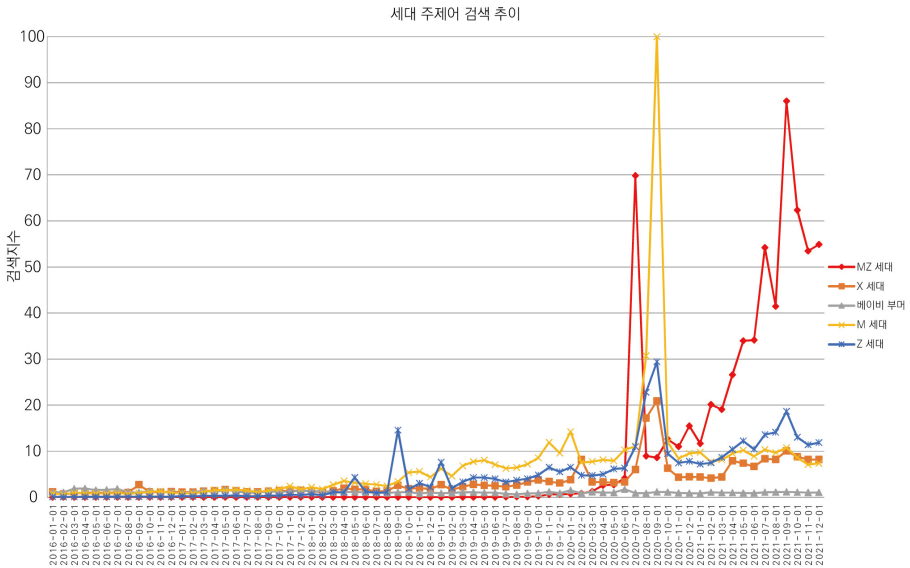
## 1) MZ세대의 구분

MZ세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다. MZ세대를 주제로 한 뉴스와 콘텐츠가 연신 매체에 등장하고 도서 시장에는 MZ세대에 관한 서적이 경쟁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온라인 검색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네이버를 통해 세대 관련 주제가 검색된 추이를 살펴보면 MZ세대 관련 주제의 검색 빈도가 다른 세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간 중 MZ세대 관련 주제의 검색 빈도는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2021년 9월에 최고조에 이른다.

이처럼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8개월 남짓한 기간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이하 M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다. 세대론적 구분에 따라 M, Z세대는 위대한 세대(Greatest Generation)를 필두로 침묵의 세대(Silent Generation), 베이비 붐 세대(Baby Boomers), 그리고 X세대(X Generation)로 이어져 온 20세기 세대 계보의 마지막을 장식한 출생 코호트다. 일반적으로 M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중반 사이에, Z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를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 세대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 간 경계가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 정책 연구 기관(think-tank)인 Pew Research Center는 1928년부터 1945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를 침묵의 세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 붐 세대, 1965년부터 1980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X세대,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M세대, 그리고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Z세대로 구분한다(Pew Research Center, 2019). 반면, McCrindle(2021:11)은 1965년부터 1979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X 세대,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M세대, 그리고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Z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McCrindle은 더 나아가 2010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에 대해서는

Z세대가 아닌 알파세대(Alpha Generation)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에서는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 붐 세대로, 1965년에서 198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X세대로, 그리고 1985년에서 200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를 M세대로 규정한다(Masnick, 2017).



\*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2N\\_0c5e9a9c5d47ee115bee8a09931e36ad](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2N_0c5e9a9c5d47ee115bee8a09931e36ad)  
에서 2022년 1월 24일 인출.

※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 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냄.

그림 1-2 세대 주제어 온라인 검색 추이 비교(2016~2021)

세대 구분에 관한 공공 행정 기관의 입장도 존재한다. 미국의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은 정부 기관으로서 미국 인구의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주관하고 있지만 미국의 세대와 관련해 오직 베이비 부머(1946년~1964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의 존재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Colby & Ortman, 2014; Colby, 2015). 물론, 베이비 부머 외에 다른 세대의 존재를 언급한 인구조사국의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2014년 12월 4일에는 M세대의 인구 현황을 다룬 보도 자료를 공표하기도 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 M세대는 단순히 ‘젊은

어른(young adults)', 즉, 2014년 기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인구 집단으로 소개될 뿐 베이비 붐 세대처럼 역사적, 인구학적 특수성이 인정된 출생 코호트의 개념은 아니었다.

이처럼 세대 구분을 둘러싼 논의는 주로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의 역사적, 인구학적 맥락에서 개진돼 왔다. 만약 미국과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발달 궤도를 걸어온 사회가 있다면 미국식 세대 구분 기준은 해당 사회의 세대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식 세대 구분의 필요성을 역설한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은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 X세대를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 M세대를 1986년부터 1996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 그리고 Z세대를 1997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로 규정하고 있다(조영태, 2021:163). 이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는 다시 1세대(1955년~1964년)와 2세대(1965년~1974년)로 구분된다. Z세대의 후속 세대인 알파세대의 존재도 언급하고는 있으나 두 세대 간의 구체적인 경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상태이다(조영태, 2021:175). 2018년부터 매년 MZ세대의 트렌드 분석 결과 보고서를 출간해 온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8, 2019, 2020, 2021) 또한 한국의 세대를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X세대를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로, M세대를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의 출생 코호트로, 그리고 Z세대를 1996년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의 출생 코호트로 구분하였다(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21:16). 이 중 M세대는 다시 전기(1981년~1988년)와 후기(1989년~1995년)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처럼 세대 간 경계 설정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또는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세기 침묵의 세대를 필두로 지금의 알파세대에 이르는 계보 자체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통용되더라도 각 세대를 구성하는 출생 코호트의 구분은 해당 사회가 걸어온 인구학적, 사회적, 역사적 발달 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이로 인해 유사한 의식, 태도, 및 행위 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cohort)인 세대는(박재홍, 2003:12) 사회의 연속적이고 거시적인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것은 분명하다(Pew Research Center, 2019). 그러나 말 그대로 세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세대 간 경계를 찾는 것이 정밀한 과학이거나 특별한 공식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Pew Research Center,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에서 중첩되는 M, Z세대의 범주(〈표 I-1〉 참조)를 토대로 각 세대의 주요 성원을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

로 Z세대의 주요 성원은 10대부터 20대 전기에 이르는 청소년(중고생과 대학생)으로, M세대의 주요 성원은 20대 후기부터 30대에 이르는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M, Z세대의 세대 내 터울은 12~13년, 세대 간 터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9년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가 간과된 채 매체와 서적 등에서 ‘MZ세대’라는 단어가 남용, 남발되어 두 세대가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유사 또는 동일한 세대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박민영, 문병길, 2022; 최예린, 2021; 정다운, 반진욱, 202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M세대와 Z세대의 사회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1-1 세대 구분 비교

|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2020년대 |
|---|------------|--------|--------|------------|--------|--------|
| ① | 베이비 붐      |        |        | X          | M      | Z      |
| ② |            |        |        | X          | M      | A      |
| ③ | 베이비 붐      |        |        | X          | M      |        |
| ④ | 베이비 붐      |        |        |            |        |        |
| ⑤ | 베이비 붐(1세대) |        |        | 베이비 붐(2세대) | X      | M      |
| ⑥ |            |        |        | X          | M(전기)  | M(후기)  |
| ⑦ |            |        |        |            | M      | Z      |

① Pew Research Center(2019)

/ Z세대: 1997년~2012년, 침묵의 세대: 1928년~1945년

② McCrindle(2021)

/ A세대: 2010년 이후

③ Harvard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Masnick, 2017)

④ United States Census Bureau(Colby & Ortman, 2014; Colby, 2015)

⑤ 서울대학교 인구학연구실(조영태, 2021)

/ Z세대: 1997년 이후

⑥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

/ Z세대: 1996년~2010년대 초반

⑦ 본 연구

\*만 나이는 2022년 기준으로 계산.

\*학년 구분은 2022년 초등학교 입학생(2015년 출생자)을 기준으로 계산.

## 2) 사회성의 다층성

사회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이며,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관계의 원만성 따위’를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2). 사회성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성(sociality), 사교성(sociability),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관련 개념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사교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수줍음(shyness)과 대비하여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사교성을 정의하고 측정한다(Cheek & Buss, 1981). 이때의 사회성은 외향성의 구성 요소로 사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oward & Howard, 2018:177). 반면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성이나 역량, 반사회적 행동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Gresham과 Elliott(1990)의 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은 협동, 자기주장, 자기조절을 하위 영역으로 하는 사회적 역량과 내재화 문제, 외재화 문제, 과잉 행동을 하위 영역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국내연구에서도 공감 및 호의, 분노 조절 및 비판 수용하기, 대화하기, 주장하기, 그리고 요청하기를 사회성 측정 도구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거나(윤지원, 2006),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연구(백예은, 박지연, 2020)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볼 때 사회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MZ세대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다변화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에 따른 반향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성장하였고 이들에게 비대면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이전 세대가 대면으로 맺던 사회적 관계만큼이나 의미가 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증가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관계적 시청’ 현상을 다룬 연구(최윤정, 2020)나 MZ세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한국콘텐츠진흥원, 2019:106-107),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Papacharissi(2011)의 ‘연결된 자아(networked self)’ 개념 등은 MZ세대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사회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고 학문적으로 사회성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영역이 다양하다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이 우려된다는 일반의 피상적인 의견이 사실 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필요 대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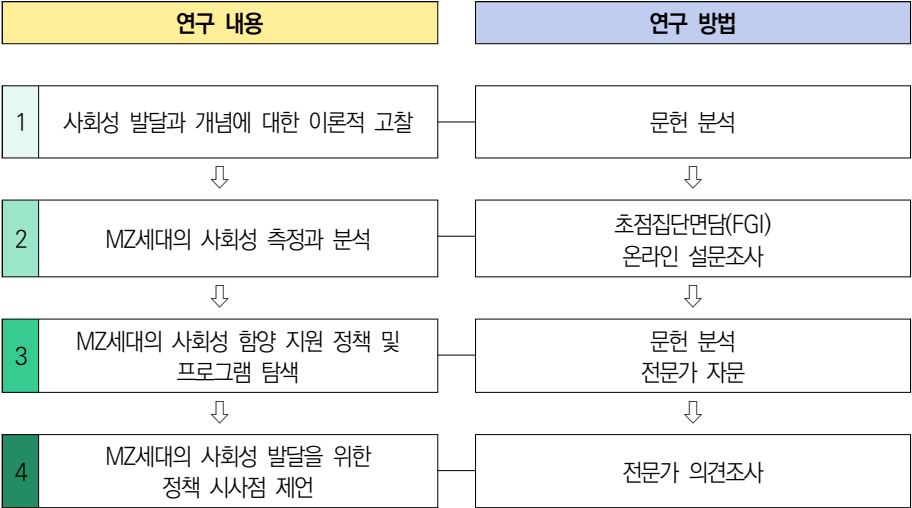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 내용과 방법 개요

1) 사회성 발달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성 발달 이론을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발달적 관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문화, 규칙 및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관계망의 양과 질에 초점을 둔다. 사회성 발달 이론에 관한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성의 다양한 개념과 구성 요인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성 발달 이론과 사회성 개념에 대한 고찰 결과가 MZ세대의 사회성, 즉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사회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MZ세대의 사회성 측정과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각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 Z세대의 사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조사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MZ세대가 생각하는 사회성은 무엇인가?

MZ세대의 사회성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개념에 관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사회에 태어나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학습하고 함양하는 모든 역량과 기술의 결정체를 사회성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성과 외향성을 사회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세대나 문화권에 따라 사회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실제 MZ세대 당사자가 생각하는 사회성의 의미와 차원 및 영역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FGI에 사용할 질문은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정리한 사회성의 다양한 의미와 차원(사회적 기술, 사회적 유능성 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 (2)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은 어떠하며 코로나-19를 전후로 이들의 사회성 발달 양상에 변화가 있는가?

MZ세대의 사회성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린 이후에는 이들의 사회성을 측정할 조사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초점은 첫째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로 코로나-19를 전후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2 사회성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및 표본 수 <sup>3)</sup> | 후기 Z세대(2004년~2009년생) 1,871명<br>13~18세 중고생 1,471명<br>13~18세 학교 밖 청소년 400명<br>전기 Z세대(1996년~2003년생) 800명<br>후기 M세대(1989년~1995년생) 800명<br>전기 M세대(1983년~1988년생) 500명<br>X세대(1965년~1982년생) 1,300명 |
| 표집 틀                    | 학생 청소년의 경우 2021 교육통계 연보<br>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2021 꿈드림 센터 등록 현황<br>여타 세대는 조사업체의 패널 리스트                                                                                                            |
| 조사 시기                   | 2022년 6월~7월                                                                                                                                                                                 |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 주요 내용                   | 사회성 지표, 상호작용, 학교생활, 심리적 안녕, 배경 질문 등                                                                                                                                                         |

조사 내용과 관련해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 고찰, 전문가 자문, 그리고 FGI 결과 등을 종합해 사회성 측정 문항을 선별하였고 이를 통해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고자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코로나-19 전과 후의 사회성을 비교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방식이 대면 접촉에 한정되지 않는 점,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불릴 만큼 온라인 문화와 기술을 일상에서 능수능란하게 향유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중요도, 현존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자본의 발달 수준 등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성 발달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학교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자존감, 자아효능감, 가족건강성 등) 등을 살펴보고자 관련 문항들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에 배태된 특수성과 보편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들 세대의 사회성 위축 여부 등을 세대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X세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3) 가중치 적용 후 크기

### 3)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탐색

주어진 맥락과 문화 내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인간관계에서의 목적과 사회적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사고,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은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작적 정의 중 하나다.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적 환경에서 평화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기능하길 희망하는 인간이 일생 동안 함양해야 할 지식과 기술로 여겨진다(Orpinas & Horne, 2006:108). 생애주기별로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age-appropriate knowledge and skills)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사회성 또는 사회적 유능성의 가치와 중요성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M, Z세대의 사회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일례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청소년의 사회성 결손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기반의 또래 활동과 교외 체험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사회 활동을 앞두거나 사회 활동을 시작한 20~30대 M세대의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 4) MZ세대의 사회성 지원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언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오랜 기간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변화한 MZ세대의 사회적 관계 맺기 방식과 사회성 발달의 방향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MZ세대의 사회성을 이해함에 있어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파급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물론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MZ세대의 사회성과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직장 그리고 유관 기관<sup>4)</sup> 등에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기관의 전문가 집단(중고교 교사, 교육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4)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 청년센터를 지칭

기관 실무자, 교수, 청년센터 실무자, 기업 인사 담당자 등)에게 MZ세대 사회성의 특징, 코로나-19 시대에 MZ세대가 지향해야 할 사회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및 지원 방안 등을 자문했다.

표 1-3 교육 및 직무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고등학교 교사</li><li>• 교육부 관계자</li><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li><li>• 대학교 교수</li><li>• 기업 인사 담당자(HR)</li></ul> |
| 규모    | 30명                                                                                                                                                |
| 조사 시기 | 2022년 9월                                                                                                                                           |
| 조사 방법 | 이메일 의견조사                                                                                                                                           |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시대 MZ세대가 지향해야 할 사회성의 방향과 실천 및 지원 방안 등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실태조사, FGI 등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적 현실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 ○ — 제2장 사회성 발달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사회성 이론
- 2. 사회성 개념
- 3. 소결

## 2장 개요

### 연구 방법

- 사회성 발달과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주요 내용

#### 1. 사회성 이론

- 사회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크게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발달적 관점은 크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둠.
- 사회적 관점은 '사회 속의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문화, 규칙 및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사회성의 기준으로 삼음.
- 발달적 관점의 인지적 측면은 Selman(1980)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정서적 측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한 대표적 이론인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습득 및 적용 수준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적 관점은 먼저 사회화의 과정 및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회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이기보다 개인 외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 및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다음으로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 참여 정도 또는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2. 사회성 개념

- 선행 연구의 다양한 관점을 취합하여 사회성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성이란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이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임.
-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사회성 구성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공감, 근면성, 대인관계, 사교성, 안정성, 자기조절, 자율성, 준법성, 리더십, 책임감, 협동성, 주장성, 의사소통 능력 등 총 13개로 집약됨.
-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나이가 타인의 입장에서 그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곧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요하는 요소로 사회성 발달의 인지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을 뜻하는 말로 정서적 성숙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으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자율성은 스스로 행위를 통제하며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특성으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리더십(주도성, 지도성)은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발전적이며 진보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감정이나 의지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둠.
- 근면성은 부지런하고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강점으로,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둠.

- 자기조절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행동을, 협동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규칙 혹은 지시를 따르는 행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협동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규칙 혹은 지시를 따르는 행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장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부탁할 줄 아는 행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으로, 사회성 발달의 행동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준법성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감정이나 의지로, 사회화의 관점에서 사회성을 정의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로,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 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근거함.
- 사교성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으로,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 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근거함.

### 정책 시사점

-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발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해야 함.
-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모두 주요 사회 장면의 변화가 진행되므로, 소속된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가는 사회화 과정을 고려해야 함.
- MZ세대의 사회성은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대면 소통뿐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 온라인상의 비대면 관계망까지 포함하여 그 양과 질,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선호하는 성향을 살펴보아야 함.





## 1. 사회성 이론

사회성(sociality)은 다면적인 개념이다. 사회성에 초점을 두는 이론들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사회성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회성 이론을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이때, 두 관점은 사회성 발달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구분하였다. 먼저 발달적 관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둔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은 ‘사회 속의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문화, 규칙 및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관계망의 양과 질을 사회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 1) 발달적 관점

#### (1) 인지적 측면

사회성의 인지적 측면은 Selman(1980)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social perspective taking ability)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분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획득을 통해 개인은 비로소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의도나 태도, 그리고 감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5) 본 장을 집필한 사람: 김현수(창원대학교)

Selman(1980)이 제안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 단계는 다음 <표 II-1>과 같다. 0단계는 타인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단계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본다. 1단계는 타인의 조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2단계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3단계는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제3자의 입장에서 상호작용을 바라볼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뿐 아니라 수용할 수 있고 자신이 타인의 조망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표 II-1 Selman의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발달 단계

| 단계                             | 특징                                                                                 |
|--------------------------------|------------------------------------------------------------------------------------|
| 0단계: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 단계<br>(3~6세)  |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타인을 바라봄<br>타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                       |
| 1단계: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br>(5~9세)    | 하나의 상황에 대해 자신과 타인의 조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br>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함                      |
| 2단계: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br>(7~12세) | 타인의 조망을 고려할 뿐 아니라 타인도 자신의 조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                                     |
| 3단계: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br>(10~15세)  | 동시에 상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이해할 수 있음<br>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br>추론할 수 있음 |
| 4단계: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br>(12세~성인)  | 하나의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는 타인의 조망을 틀렸다고 인식하지 않음<br>자신이 타인의 조망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함    |

\* 출처: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pp.37~40.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연구는 주로 자기중심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인에게까지 조망이 확대되는 변화의 단계, 곧 영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운선, 이경화, 2010; 신효현, 2020; 최미숙, 최선미, 2015). 하지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은 영유아기 발달의 이해에만 국한되는 개념이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다양한 대상의 인지적 수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연구는 영유아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조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단계인 아동(서보운, 2021) 및 초기 청소년(Edwards & 하영희, 2005)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조망 수용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심서영, 손영우, 2013;

최용득, 조영삼,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영유아 대상 연구를 통해 또래활동 프로그램(최미숙, 최선미, 2015), 또래 교수(신효현, 2020),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소재로 삼는 창의 동화 읽어주기(권운선, 이경화, 2010)와 같은 활동이 영유아의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는 영유아기 연구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능동성 및 자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등학교 대상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자발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고(서보운, 2021), 초기 청소년의 경우 조망 수용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밝혔다(Edwards & 하영희, 2005). 마지막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발휘하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에 초점을 둔다. 성인 대상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 정서를 경험한 경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경향이 높았고(심서영, 손영우, 2013), 조직에 소속된 성인의 경우 조직 구성원으로서 리더의 조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확인됐다(최용득, 조영삼, 2021).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에 대한 연구가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게까지 확장된 경향은 사회적 관계에서 조망 수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Selman(1980)은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능력으로, 실제 연령에 관계없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성인이나 청소년도 1단계의 주관적 조망 수용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 (2) 정서적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발달을 설명한 대표적 이론인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사회성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 Erikson (1963)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은 각 단계마다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psychological crisis)를 해결 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때,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다음 <표 II-2>와 같이 총 8단계로, 개인은 각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연령에 따라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개인은 긍정적 결과로서 덕목을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Erikson, 1963). 예를 들어, 또래집단이나 리더십의 역할 모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유한 특성 및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수용한다. 5단계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성장한 개인은 성실, 충성과 같은 덕목을 획득하여 이를 사회적 관계에서 발휘하며 살아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초기 성인기는 친구, 연인, 동료와 같은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며,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사랑과 같은 덕목을 획득하게 된다.

표 II-2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 단계  | 심리사회적 위기        | 연령      | 주요 관계           | 획득 덕목  |
|-----|-----------------|---------|-----------------|--------|
| 1단계 | 신뢰 대 불신         | 출생~18개월 | 어머니(양육자)        | 신뢰, 희망 |
| 2단계 | 자율성 대 수치심 및 회의감 | 18개월~3세 | 부모              | 의지     |
| 3단계 | 주도성 대 죄책감       | 3~6세    | 가족              | 목적, 의도 |
| 4단계 | 근면성 대 열등감       | 6~12세   | 이웃, 학교          | 유능감    |
| 5단계 |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   | 청소년기    | 또래집단, 리더십 역할 모델 | 성실, 충성 |
| 6단계 | 친밀성 대 고립감       | 성인 전기   | 친구, 연인, 동료      | 사랑     |
| 7단계 | 생산성 대 침체감       | 성인 중기   | 직장, 확대 가족       | 배려     |
| 8단계 | 통합성 대 절망감       | 노년기     | 인류              | 지혜     |

\* 출처: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3rd ed). New York: Norton. pp.251-269.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기반 삼아 다수의 청소년 및 초기 성인 대상 연구에서 자아정체감과 친밀감이 심도 있게 다뤄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신뢰나 소외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화, 2018). 또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이송이, 2014).

한편, 발달의 연속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연관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적지 않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이 초기 성인기 대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만족도는 다시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한 연구(이현경, 김정민, 2017), 청소년기 대인 외상 경험이 초기 성인기의 친밀감에 미치는 부정적 상관을 확인한 연구(이은지, 하정희, 2019)가 대표 사례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장하여 온라인상의 활동에 따라 청소년과 초기 성인의 자아 정체감과 친밀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연구도 있다(강민주, 2013). 강민주(2013)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은 자아정체감이나 친밀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3) 행동적 측면

사회성 발달의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습득 및 적용 수준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은 학습된 행동으로,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들이다(Gresham, Elliott, Vance & Cook, 2011:29). 다시 말해, 행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사회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합한 행동들을 사회적 맥락에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Caldarella와 Merrell(1997)은 선행 연구에서 다뤄진 사회적 기술의 유형을 <표 II-3>과 같이 ‘또래 관계’, ‘자기 관리’, ‘학업’, ‘규정 준수’, 그리고 ‘주장’ 등 5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I-3 사회적 기술 분류(Caldarella & Merrell, 1997)

| 차원    | 사회적 기술                                                                                                                                                                                                                                                                                                                                                                                      |
|-------|---------------------------------------------------------------------------------------------------------------------------------------------------------------------------------------------------------------------------------------------------------------------------------------------------------------------------------------------------------------------------------------------|
| 또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찬하기</li> <li>• 필요할 때 또래에게 도움 제공하기</li> <li>• 놀이에 또래 초대하기</li> <li>• 토론에 참여하여 오랜 시간 대화하기</li> <li>• 또래의 권리를 옹호하기</li> <li>• 동료들이 함께 활동하고자 함</li> <li>• 또래들이 좋아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능숙하게 참여하기</li> <li>• 또래와의 대화를 능숙하게 시작하거나 참여하기</li> <li>• 또래의 감정에 민감하게 공감하기</li> <li>• 또래 활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li> <li>• 친구를 쉽게 사귀고 친구가 많음</li> <li>• 유머 감각이 있음</li> </ul> |

| 차원    | 사회적 기술                                                                                                                                                                                                                                                                                                           |
|-------|------------------------------------------------------------------------------------------------------------------------------------------------------------------------------------------------------------------------------------------------------------------------------------------------------------------|
| 자기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발생 시 침착함을 유지하고 분노를 조절하기</li> <li>• 규칙을 따르고 제한을 받아들이기</li> <li>• 갈등이 있을 때 적절한 때 타협하기</li> <li>• 타인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기</li> <li>• 또래의 놀림에 적절하게 무시하거나 반응하기</li> <li>•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 협력하기</li> </ul>                                                                            |
| 학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기</li> <li>• 개별적으로 부과된 과업을 완성하기</li> <li>• 교사의 지시를 듣고 따르기</li> <li>• 능력 수준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기</li> <li>•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li> <li>• 준비물을 챙기고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등 개인 관리하기</li> <li>•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하기</li> <li>• 또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기</li> </ul>                       |
| 규정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시를 따르기</li> <li>• 규칙 따르기</li> <li>•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li> <li>• 놀잇감이나 물건을 공유하기</li> <li>• 과제를 완수하기</li> <li>• 정리하기</li> <li>• 건설적인 비판이나 수정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li> </ul>                                                                                                     |
| 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기</li> <li>• 칭찬을 수용하기</li> <li>• 놀이에 또래를 초대하기</li> <li>• 스스로를 칭찬하기</li> <li>• 친구 사귀기</li> <li>• 공정하지 않은 규칙에 대해 질문하기</li> <li>• 새로운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li> <li>• 이성에게 자신감 보이기</li> <li>•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감정을 표현하기</li> <li>• 진행 중인 활동이나 모임에 적절하게 참여하기</li> </ul> |

\* 출처: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pp.264-278.

사회적 기술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Gresham과 Elliot(1990)은 사회적 기술을 협동성(cooperation), 주장성(assertion), 공감(empathy), 자기조절(self-control) 등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술 척도(SSRS)를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는데, 청소년(문성원, 2003)과 초기 성인(문성원, 2002) 척도 모두 Gresham과 Elliot(1990)의 네 가지 영역을 따른다. 요컨대 행동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 협동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의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도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가정 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유아 및 아동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김태윤, 여종일, 2018), 공감 활동(최선향, 김희태, 2019)이나 또래 놀이 상호작용(오현미, 이유미, 2020)을 통한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검증한 연구들은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습득 및 발휘된다고 가정한다.

한편,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과 관련 있는 요인을 밝히는 소수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연구에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기술 중 공감과 자기주장이 향상되었다(조현정, 강원국, 김옥진, 2020).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비행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계 및 또래 관계의 영향을 매개하는 사회적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김동하, 2013).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사회적 기술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대학생의 사회적 기술은 애착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되었고(박미리, 김영미, 천성문, 2016), 청소년 멘토링 활동(황동주, 김진호, 2016), 심리 운동 프로그램(김희수, 이민규, 2008)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한 결과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술의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기술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대상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 및 공감하고, 나아가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김희수, 이민규, 2008; 박미리 외, 2016; 조현정 외, 2020; 황동주, 김진호, 2016). 이 같은 연구는 연습 및 훈련을 통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발휘는 영유아기 및 아동기만의 과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2) 사회적 관점

### (1) 사회화

사회성을 사회화의 과정 및 결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이기보다 개인 외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 및 결과로 이해된다. Coates, Pusser and Goodman (1976)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치며

사회화되고, 이 과정에서 인간성으로서의 사회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성을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이라 정의하는 연구에서 사회성 개념은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상호작용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 가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확장된다(김은희, 2016; 이에스터, 박미정, 2013; 박선희, 2014).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규칙 또는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준법성을 사회성의 하위 요인으로 정의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박선희, 2014; 박현주, 2014).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다. 청소년기 개인은 가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또래집단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업을 이행한다(Christie & Viner, 2005:300). 또한 청소년기의 과업 이행을 바탕으로 초기 성인기의 개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과업을 이행한다(Christie & Viner, 2005:300). 이처럼 사회화의 맥락이 되는 주요 사회적 장면과 과업은 개인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직업 선택에 따라 각 조직에 소속되는 성인 대상 연구의 경우 사회화 맥락을 조직 차원으로 특정한다. 성인기의 사회화는 상호적 관계를 통해 해당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할 뿐 아니라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생산성 있는 일원이 되어가는 조직 사회화에 초점을 둔다(권성복, 광명희, 2018; 박세진, 홍아정, 2017).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또래집단, 지역 사회 및 미디어를 들 수 있다(김현철 외, 2006:5-6). 부모의 양육 태도나 가족 구조 같은 가족 내 사회화 환경(김지연, 2010)과 또래집단(김현철, 김은정, 2007)은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김지연(2010)은 청소년이 주 양육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의 가치나 규범에 동화하는 사회화를 경험하며 그 결과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이 가족으로부터 또래로 크게 전환되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고 실제적인 상호작용 방법들을 익혀나간다. 김현철과 김은정(2007)은 또래 관계의 밀도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한편, 폐쇄적 또래 관계가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들, 예컨대 괴롭힘 문제의 장기화 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주요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 역시도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진구, 신희영, 2018). 나아가 청소년이 경험하는 미디어 역시 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일상화가 된 지금의 청소년은 미디어의 영향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가치나 규범의 습득과 같은 사회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일권, 2019). 정일권(201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탈규범 행동 제재를 많이 관찰할수록 온라인상의 탈규범 행동에 대한 제재 행동에 동참할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아닌 탈규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탈규범 행동 제재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주요 사회적 장면이 소속 조직으로 전환되는 성인기 대상 연구는 해당 조직에서의 사회화에 초점을 둔다.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의 조직 사회화와 관련이 있는 요인과 관련해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지식 공유 활동, 멘토링 등의 개인 외적 요인인 직접적 상호작용을 지적하였다(권성복, 광명희, 2018; 박세진, 홍아정, 2017; 차종석, 2011).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셀프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 사회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성복, 광명희, 2018). 이때, 셀프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고와 행동 전략(권성복, 광명희, 2018)'이다. 이러한 정의는 리더십을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해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다(Manz & Sims, 1980). 자기효능감 역시 조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차종석, 2011). 개인 외적 요인도 조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직에서의 초기 적응을 돕고 새로운 조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활동을 지원해주는 멘토와의 관계(차종석, 2011)나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 공유 활동(박세진, 홍아정, 2017) 역시 개인의 조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개인이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며 적응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2) 사회적 관계 참여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 참여 정도 또는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 사회적 관계망 파악을 통해 사회성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접촉하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를 포함'하는데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사적 관계뿐 아니라, 공적 관계, 예를 들어 지역 사회의 민간 지원 단체나 성직자 등과의 연결까지 포함한다(Ell, 1984:134).

사회적 관계망의 차원은 크게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된다(O'Reilly,

1988).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전혜빈, 박혜경, 2019)나 연결 정도(김진구, 강은영, 2020)와 같은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적 압박감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빈, 박혜경, 2019).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적 특성에 무게중심이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관계망의 결속적 관계망과 교량적 관계망이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있다(김은미, 양소은, 2017). 여기서 결속적(bonding) 관계망은 서로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교적 배타적인 관계를, 반대로 교량적(bridging) 관계망은 깊이보다는 관계의 폭에 초점을 둔 포괄적 관계를 의미한다(Putnam, 2000, Williams, 2006에서 재인용). 이 중 교량적 관계망은 청소년의 온라인 관계 형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Granovetter(1974)는 이 같은 관계의 특징을 약한 유대(weak tie)라 정의한 바 있다(Williams, 2006에서 재인용). 교량적 관계망에서 경험하는 약한 유대는 결속적 관계망과 비교해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의 수준은 낮다는 약점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계망의 넓은 폭을 통해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ranovetter, 1973).

한편,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인 사교성은 흔히 수줍음(shynes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성을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정의하는 관점이 그 예이다(Cheek & Buss, 1981). 사교성을 사회성의 한 요인으로 정의하는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사회성이 ‘인성의 한 특성으로 타인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김광호, 2021)’으로 정의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사회 활동과 집단생활을 통해,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돌이 적은 특성(이재철, 2014)’, 즉 개인의 적극적 성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연구에서는 사회성의 개념에 사회적 관계 참여에 적극적인 개인의 외향적 특성이 포함돼 있다(Howard & Howard, 2018:177). 사회성을 사교성으로 정의하는 연구에서는 신체, 정서, 봉사 등의 청소년 활동(김광호, 2021)이나 청소년 단체 활동(이재철, 2014)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관계 경험이 사회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사회적 관계 참여 연구는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대면 관계를 넘어 온라인까지 확장되었다(손강숙, 주영아, 2015; 이관용, 허윤

정, 2008; Wong, 2020). 사회성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관용, 허운정, 2008)’으로 정의하는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에서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관용과 허운정(2008)은 온라인 게임 장면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단순한 재미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또래와 소통하고 관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상호작용은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교류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류를 확장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한 연구(김구, 2010), 대학생의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과 진로자기효능감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손강숙, 주영아, 2015),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참여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구(Wong, 2020) 모두 맥락을 같이 한다.

## 2. 사회성 개념

### 1) 조작적 정의

사회성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회성에 대해 연구한 국내 문헌에서 제안하는 정의를 살펴보아도 사회성은 다차원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표 II-4) 참조). 사회성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성향이나 능력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김현철, 황금주, 이일한, 2017; 우덕상, 손윤영, 남현우, 2019; 이경임, 정경순, 2021; 이에스더, 박미정 2013; 장현정, 2021). 이 경우 사회성이란 대인관계에서의 원만함이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 형성뿐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로 정의하는 연구가 있다(김경희, 2015; 김병년, 2013; 김주미, 김재현, 2017; 이재철, 2014; 차은선, 김택호, 2013; 이수민, 노남숙, 2017). 이때 사회성은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성향 및 능력일 뿐 아니라,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환경 또는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셋째는 사회성을 사회적 적응의 정도로 국한하여 정의하는 관점이다(김경숙, 박희서, 2014;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1). 이 경우 사회성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적절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적응 정도로 정의되는데, 이 관점 역시도 ‘사회생활’을 사회나 집단 내의 대인관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넷째는 사회성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

성격으로 정의하는 관점이다(김광호, 2021; 김은희, 2016; 박선희, 2014; 원세정, 2013; 이덕남, 2014; 정경순, 박의정, 2021; 황선환, 김홍설, 2014). 이 같은 관점에서 사회성은 원만한 대인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나 적절한 행동의 내면화, 그리고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생활 양식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사회성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박해완, 채재성, 2015; 홍혜전, 2020). 이 경우 사회성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나아가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한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사회성의 개념은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성 개념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습득되고 발휘된다. 사회적 맥락은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개인적 상호작용과 사회라는 넓은 범위, 곧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사회성은 개인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한 사교성과 같은 성격 특성일 뿐 아니라(김현철 외, 2017; 이예스더, 박미정, 2013),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적응 능력 및 성향이기도 하다(원세정, 2013; 정경순, 박의정, 2021).

둘째, 사회성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일 뿐 아니라 행동적 요인이다. 사회성은 대인관계에 대한 선호나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김경희, 2015; 원세정, 2013),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갈등 해결 기술(장현정, 2021; 홍혜전, 2020)과 나아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습득하고 발휘하는 것(김광호, 2021; 박선희, 2014)과 같은 행동적 요인을 포괄한다.

셋째, 사회성은 발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사회 적응의 과정과 그 수준이다. 사회성은 사회적 맥락에서 습득한 대인관계에서의 원만성이나 사교성, 체득한 사회의 생활 양식, 행동 기술 등의 성향 및 행동일 뿐 아니라(김현철 외, 2017; 이재철, 2014; 홍혜전, 2020; 황선환, 김홍설, 2014), 이 같은 요인을 발휘하며 소속된 사회 또는 집단에 적응해가는 과정 또는 그 정도를 포괄한다(김병년, 2013; 김경민 외, 2021).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다양한 관점을 취합하며 사회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성이란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이다. 또한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Wong, 2020), 사회

성 개념에서 전제하는 사회적 맥락을 오프라인상의 상호작용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에까지 확대하였다.

표 II-4 사회성 개념

| 출처                   | 사회성 개념                                                                                                                                                                                |
|----------------------|---------------------------------------------------------------------------------------------------------------------------------------------------------------------------------------|
| 김현철, 황금주, 이일한 (2017) | 사회성은 학생이 접하는 학교, 또래집단의 생활에서 친구와 잘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근본 성질이나 성격, 대인관계의 원만성 등을 의미한다.                                                                                                       |
| 우덕상, 손윤영, 남현우 (2019) | 사회성이란 한 개인의 사회 적응의 정도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며, 특정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뜻하면서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하며, 사회성 증진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
| 이경임, 정경순(2021)       | 사회성은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해 나가는 능력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
| 이에스더, 박미정 (2013)     | 사회성이란 남과 쉽게 사귀고 집단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을 즐기면서 참여하고, 또한 성격이 원만하여 의견 충돌이 없으며 친구가 많아 우호적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 장현정(2021)            | 사회성은 한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나 집단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과 그로 인한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
| 김경희(2015)            | 사회성(sociability)의 개념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특성', '남과 잘 사귀는 성질'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회생활을 위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는 동정, 친애,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
| 김병년(2013)            | 사회성은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적응 정도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다양한 사람과 사귀 수 있는 능력 즉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
| 김주미, 김재현(2017)       | 사회성이란 첫째,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성질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성격, 인성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험을 통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 이재철(2014)            | 사회성을 '사회 활동과 집단생활을 통해,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돌이 적은 특성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
| 차은선, 김택호(2013)       |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 의식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다른 사람과 사귀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사회적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 이수민, 노남숙(2017)       | 사회성이란 인간이 타인과 자신의 주위 환경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행동을 뜻한다.                                                                                                |

| 출처                   | 사회성 개념                                                                                                                                                                                                  |
|----------------------|---------------------------------------------------------------------------------------------------------------------------------------------------------------------------------------------------------|
| 홍혜전(2020)            | 사회성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
| 김경숙, 박희서(2014)       | 사회성이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과 관계를 가지며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대인관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
|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1) | 사회성이란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의 적응 정도를 의미한다.                                                                                                                         |
| 김광호(2021)            | 사회성이란 인성의 한 특성으로 타인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이며, 타인, 공공 사물, 법률, 습관과 관계 속에서의 행동이 잘 적응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말한다.                                                                                                    |
| 김은희(2016)            | 사회성은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개인에게 내재화된다.                                                                                                                                           |
| 박선희(2014)            | 인간이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반응(적응)해 나가는 적응력'을 사회성이라고 하며, 사회성은 적응하는 성질 또는 사회관계 의식을 의미한다. 사회성이란 또한 '사회적 행동이 내면화된 것'이며 이것은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 경험으로 습득한 사회적 습관군, 나아가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 되는 것이다. |
| 원세정(2013)            | 사회성은 타인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 친구, 학교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어 동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화되며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
| 이덕남(2014)            | 사회 속에서 사람은 여러 형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
| 정경순, 박의정(2021)       | 사회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는 능력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집단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
| 황선환, 김홍설(2014)       | 사회성은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용어로서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그 사회를 인식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해 가면서 사회의 생활 양식을 체득하고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 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 박해완, 채재성(2015)       | 사회성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성질이며 사회성 발달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양식을 의미한다.                                                                                                                                    |
| 홍혜전(2020)            | 사회성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대인관계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단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

## 2) 사회성 구성 요인

사회성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성 구성 요인 분석 결과 빈도 4 이상의 하위 개념인 공감, 근면성, 대인관계, 사교성, 안정성, 자기조절, 자율성, 준법성, 리더십, 책임감, 협동성, 주장성, 의사소통 능력의 총 13개 요인을 사회성 구성 요인으로 추출하였다(〈표 II-5〉 참조). 이때, 유사 개념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산정했다. 가령 ‘대인관계’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 교사 관계, 친구 관계(김경민 외, 2021; 임수진, 2020)’ 등을, ‘리더십’ 개념은 ‘지배성, 지도성(이세나, 배준용, 안병주, 2017; 이재철, 2014; 박해완, 채재성, 2015)’ 등을, ‘협동성’은 ‘협력, 협동심, 협력하기(이지경, 2021; 고현, 신명신, 2013)’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간주하였다.

부연하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동조하며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이다(Gresham, 2001). 공감은 타인의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를 전제로 한다(Oswald, 1996). 다시 말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뿐 아니라, 나아가 타인의 입장에서 그의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Hoffman, 1993). 사회성의 하위 요인인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곧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을 요하는 요소로 사회성 발달의 인지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구성한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주도성, 지도성), 근면성과 같은 하위 요인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김동환, 1992:22). 안정성이란 정서적 안정성을 뜻하는 말로 정서적 성숙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이다(이재철, 2014; 김은희, 2016).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1단계, 곧 신뢰 대 불신의 위기를 경험한 영아는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을 토대로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신뢰감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추후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의 토대가 된다(장휘숙, 2000).

자율성은 ‘스스로 행위를 통제하며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특성(이재철, 2014)’이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2단계는 영아가 겪게 되는 자율성 대 수치심 및 회의감의 위기에 집중한다. 이 시기 영아가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며 획득한 자율성은 이후 진로 발달의 한 영역이자(안창규, 안현희, 2005, 김미한 외, 2013에서 재인용) 나아가 직무에서 발휘하는 자율성(고득영, 유태용, 2012)의 바탕이 된다.

리더십(주도성, 지도성)은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발전적이며 진보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감정이나 의지(김동환, 1992)’이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유아가 주도성 및 죄책감의 발달적 위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목적이라는 덕목을 획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주도성 또는 지도성은 성인기의 경력 개발뿐 아니라(황애영, 탁진국, 2011),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권성옥, 2017).

근면성은 ‘부지런하고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강점(김현철 외, 2017)’이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의 4단계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근면성을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근면성은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는데(김현철 외, 2017),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자기조절 즉 자기 관찰과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임규혁 외, 2010, 김현철 외, 2017에서 재인용)’를 의미한다.

자기조절, 협동성, 주장성,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등의 하위 요인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행동적 측면, 곧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다(Gresham, et al., 2011:29). 자기조절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행동’을, 협동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규칙 혹은 지시를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고, 주장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부탁할 줄 아는 행동’을 뜻한다(Gresham, 2001). 또한 책임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의미한다(Gresham, 2001). 자기조절, 협동성, 주장성,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은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행동 기술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주요 요소가 된다(Gresham & Elliott, 1990).

준법성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감정이나 의지(박선희, 2014)’이다. 이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범, 가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 주로 사회화의 관점에서 사회성을 정의하는 연구에서 부각되는 요인이다(박선희, 2014; 박현주, 2014).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도종수, 성준모, 2013)’를, 사교성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재철, 2014)’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관계 맺기를 선호하는 개인의 특성을 사회성의 하위 요인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는 사회성을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 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성향으로 바라본다.

표 II-5 사회성 구성 요인

| 구분                                                   | 공감<br>(5) | 안정성<br>(5) | 자율성<br>(8) | 리더십<br>(10) | 근면성<br>(6) | 책임감<br>(5) | 자기조절<br>(9) | 주장성<br>(8) | 협동성<br>(15) | 준법성<br>(5) | 의사소통<br>(5) | 사교성<br>(14) | 대인관계<br>(10) |
|------------------------------------------------------|-----------|------------|------------|-------------|------------|------------|-------------|------------|-------------|------------|-------------|-------------|--------------|
|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br>(2021)                              |           |            |            |             |            |            |             |            | ○           |            |             |             | ○            |
| 박선희(2014)                                            |           | ○          | ○          |             |            |            |             |            |             | ○          |             |             |              |
| 주희현, 서경현(2013)                                       |           |            |            |             |            |            |             |            |             |            |             |             | ○            |
| 도종수, 성준모(2013)                                       |           |            |            |             |            |            |             |            |             |            | ○           |             | ○            |
| 이지경(2021)                                            |           |            |            |             |            |            |             |            | ○           |            | ○           |             |              |
| 김광호(2021)                                            |           |            |            |             |            |            |             |            |             |            |             | ○           |              |
| 진미령, 김윤주(2021)                                       |           |            |            |             |            |            | ○           | ○          | ○           |            |             |             |              |
| 임수진(2020)                                            |           |            |            |             |            |            |             |            |             |            |             |             | ○            |
| 한윤선, 전수아, 이택호,<br>허소담(2020)                          | ○         |            |            |             |            |            | ○           | ○          | ○           |            |             |             |              |
| 김여정, 박미영,<br>Adiyaantsa<br>Otoonbayar, 천성문<br>(2019) |           |            |            |             |            |            | ○           | ○          | ○           |            |             |             |              |
| 우덕상, 손윤영, 남현우<br>(2019)                              |           |            |            | ○           | ○          |            |             |            |             | ○          |             | ○           |              |
| 김선희(2019)                                            | ○         |            |            |             |            | ○          | ○           | ○          | ○           |            | ○           |             |              |
| 김주미, 김재현(2017)                                       |           |            | ○          |             | ○          |            |             |            | ○           | ○          |             |             | ○            |
| 이세나, 배준용, 안병주<br>(2017)                              |           | ○          | ○          | ○           |            |            |             |            |             |            |             | ○           |              |

| 구분                      | 공감<br>(5) | 안정성<br>(5) | 자율성<br>(8) | 리더십<br>(10) | 근면성<br>(6) | 책임감<br>(5) | 자기조절<br>(9) | 주장성<br>(8) | 협동성<br>(15) | 준법성<br>(5) | 의사소통<br>(5) | 사교성<br>(14) | 대인관계<br>(10) |
|-------------------------|-----------|------------|------------|-------------|------------|------------|-------------|------------|-------------|------------|-------------|-------------|--------------|
| 권성욱(2017)               |           |            |            | ○           |            |            |             |            |             |            |             |             |              |
| 윤정미(2017)               | ○         |            |            |             |            |            | ○           | ○          | ○           |            |             |             |              |
| 이수민, 노남숙(2017)          |           |            |            |             |            |            | ○           |            |             |            |             |             |              |
| 우희순, 원성윤(2016)          |           |            |            |             |            |            |             |            |             |            | ○           |             | ○            |
| 장호일, 신정택, 황재욱<br>(2016) |           |            | ○          | ○           |            |            |             |            |             |            |             | ○           |              |
| 박해완, 채재성(2015)          |           |            |            | ○           |            |            |             |            |             |            |             |             |              |
| 정은주, 정경은(2015)          |           | ○          | ○          | ○           | ○          | ○          |             |            |             |            |             | ○           |              |
| 이재철(2014)               |           | ○          | ○          | ○           |            |            |             |            |             |            |             | ○           |              |
| 황선환, 김홍설(2014)          |           |            | ○          |             |            | ○          |             |            | ○           |            |             |             |              |
| 이덕남(2014)               |           |            |            | ○           |            |            |             |            |             |            |             | ○           |              |
| 박현주(2014)               |           |            |            |             |            |            |             |            | ○           | ○          |             | ○           |              |
| 고현, 신명신(2013)           |           |            |            |             |            |            | ○           | ○          | ○           |            |             |             |              |
| 이예스더, 박미정(2013)         | ○         |            |            |             |            |            | ○           | ○          | ○           |            |             |             |              |
| 김성수(2013)               |           |            |            |             | ○          | ○          |             |            | ○           |            |             |             | ○            |
| 김병년(2013)               |           |            |            |             |            |            |             |            |             |            |             | ○           | ○            |
| 차은선, 김택호(2013)          | ○         |            |            |             |            |            | ○           | ○          | ○           |            |             |             |              |
| 정미경, 김갑숙(2013)          |           |            |            |             |            |            |             |            | ○           | ○          |             | ○           |              |
| 원세정(2013)               |           |            |            |             |            |            |             |            |             |            |             | ○           |              |
| 김경희(2015)               |           |            |            |             |            |            |             |            |             |            |             | ○           | ○            |
| 김은희(2016)               |           | ○          | ○          | ○           | ○          | ○          |             |            |             |            |             | ○           |              |
| 김현철, 황금주, 이일한<br>(2017) |           |            |            |             | ○          |            |             |            |             |            |             |             | ○            |
| 이난(2018)                |           |            |            | ○           |            |            |             |            |             |            |             | ○           |              |
| 김희수(2020)               |           |            |            |             |            |            |             |            |             |            | ○           |             |              |

### 3. 소결

지금까지 본 연구는 발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라는 틀에서 사회성 개념과 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여 사회성의 개념과 사회성의 하위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발달적 관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발달을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두어 사회성을 설명한다. 사회성의 인지적 측면은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분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서로 다른 관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 공감과 같은 사회성 하위 요인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정서적 측면은 발달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형성하게 된 건강한 성격으로,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근면성과 같은 요인의 근거가 된다. 행동적 측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합한 행동들을 사회적 맥락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기술은 자기조절, 협동성, 주장성,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문화, 규칙 및 규범을 습득하는 사회화 정도뿐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을 사회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화 과정 및 결과로서의 사회성은 개인 외부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한 성격 특성으로, 준법성과 같은 하위 요인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사회적 관계 참여는 개인이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참여를 선호하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사교성, 대인관계 등의 사회성 하위 요인의 근거가 된다.

사회성은 다양한 측면은 분절적이지 않다. 사회성은 개인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특성일 뿐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적응 능력 및 성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 수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성은 이러한 성격 특성이나 적응 능력, 행동 기술, 생활 양식 등을 토대로 소속 집단에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사회성은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이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종합을 토대로 현재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 세대의 사회성 분석에서 유의할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발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은지, 하정희, 2019; 이현경, 김정민, 2017).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특정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인지적 능력을 습득 및 발휘하고(서보윤, 2021; 최용득, 조영삼, 2021),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의미 있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간다(강민주, 2013). 사회적 기술 역시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연습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조현정 외, 2020; 박미리 외, 2016).

둘째, 두 시기 모두 주요 사회 장면의 변화가 진행된다. 청소년기는 청소년이 가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며 사회적 관계의 중심축이 또래집단으로 옮겨가는 시기며, 초기 성인기의 경우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과업이 이행되는 시기다(Christie & Viner, 2005). 나아가 직업 선택을 통해 특정 조직의 일원이 되는 변화 또한 초기 성인기에 이루어진다(권성복, 광명희, 2018; 박세진, 홍아정, 2017). 소속된 조직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가는 사회화 과정은 주요 사회 장면이 크게 변화하는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의 사회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셋째, 지금의 M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 곧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MZ세대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계는 결코 오프라인상의 대면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Wong, 2020). 청소년 및 초기 성인의 온라인 관계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관용, 허윤정, 2008)과 소셜네트워크 등의 온라인 관계망(김구, 2010; 손강숙, 주영아, 2015)은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 초기 성인의 사회적 교류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MZ세대의 사회성은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대면 소통뿐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된 온라인상의 비대면 관계망까지 포함하여 그 양과 질,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선호하는 성향을 살펴볼아야 한다(Wong, 2020).



## 제3장 MZ세대의 사회성 측정과 분석

- 1. 초점집단면담(FGI)
- 2. 실태조사

## 3장 개요

### 연구 방법

- 초점집단면담(FGI): 사회(직장)생활 경력 3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과 9년 이상의 사회 중년생으로 구성된 M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Z세대 등 총 5개 유형의 집단, 39명의 면담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집단 유형별로 2회씩)의 면담을 실시함.
- 실태조사: 전국에서 총 5,271명의 응답자(Z세대에 해당하는 10대 중고생 1,471명,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400명, 그리고 대학생 800명, M세대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1,300명, 그리고 MZ세대의 기성세대인 X세대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1,300명)를 표집하여 이들의 사회성 함양 실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행태와 이에 대한 가치관, 소속 조직과 일상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을 조사함.

### 주요 내용

#### 1. 초점집단면담(FGI)

##### 1) 사회성에 대한 집단별 인식

- (중학생) 사회성과 관련하여 '친구 관계'를 상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사회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사회성에 대한 교육이 부모를 포함한 주변 성인 세대로부터 생활 속에서 무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비대면 관계 맺음에 익숙하기 때문임. 단 그러한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임.
- (고등학생) 친구를 포함한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성이 작동하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또한 비대면 중심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임.
- (대학생) 넓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성이 작동하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성을 특정한 능력으로 인식하여 그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특징적인 것은 사회성을 도덕성과 비교하며 사회성은 보다 상황에 맞는 유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주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사조에 맞게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것도 사회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사회 초년생)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특성상 '회사 생활'을 전제하고, 이를 원만히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사회성으로 정의하고 있었음. 회사 내외의 인간관계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양상을 보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명확한 의사소통 및 배려가 강조되며, 회사에서의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함. 회사 내 '회식'에 대해서는 참가가 강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사회 중년생) '회사 생활'을 전제하고 사회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사회성에 대한 의견이 매우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었음. 즉 기성세대가 회사 생활에서 중시하는 특성에는 반대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그것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수행이므로, 사회성과 직무 역량을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성의 저하 또는 향상 여부보다는 이미 사회·기술 변화로 다양한 관계 맺음과 의사소통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를 발휘·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인식을 보임.

## 2) 사회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첫째, 사회성은 관계 맺기와 관련된 다양한 능력이라는 인식을 보임. 둘째, 사회성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이기보다는, 여러 상황과 장면에 따라 발휘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임. 셋째, 온라인 중심의 관계는 강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임.
- (차이점) 첫째, 집단에 따라 사회성을 학업 및 업무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차이가 나타남. 사회 중년생 집단은 사회적 능력을 업무 능력의 일환으로 보았으나, 사회 초년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음. 또한 대학생 집단은 개인주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사회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임. 둘째, 집단 특성이 같은 경우(학생, 사회인), 어린 세대일수록 가정세대가 강조하거나 가정세대로부터 배운 사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동의하는 입장을 보임.

## 2. 실태조사

### 1) 사회성 발달 실태

- 현재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X세대와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점수가 가장 낮음.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자신의 사회성에 생긴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사회성 전반은 물론 사회성을 구성하는 13개 하위 요인 대부분에서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음.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평정 척도를 이용해 각 사회성 영역의 발달 수준을 실측했을 때 학생 청소년 집단은 자기조절, 주장성, 의사소통, 리더십, 공감 등의 영역에서 여타 세대 집단을 상회함.
- 사회성 수준의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환산 시 Z세대는 근면성,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성이, M세대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X세대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함.
- 사회성 수준의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환산 시 Z세대는 근면성,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성이, M세대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X세대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함. 세대 집단의 전반적인 점수 분포 양상을 보면 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은 M, X세대와 다르며 특히 세대 간 다름은 정반대의 발달 양상을 보여주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 사이에서 가장 명확함.

### 2) 사회성과 관련 변인의 관계

- 수평적(또는 민주적) 인간관계의 가치 지향,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확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제고, 그리고 가족건강성 제고 등은 전 세대를 아울러 그리고 사회성 전반에 걸쳐 정적 상관을 보임.
-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오프라인 교류자본의 유의한 정적 상관성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됐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인 M, X세대 성인 집단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음.
- 사회성 발달과 온라인 활동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X세대에게서만 일관되게 나타남.

### 3) 사회성 발달 유형에 대한 집단별 프로파일링

- 모든 세대에서 ①'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②'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③'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의 3가지 사회성 발달 유형이 발견되었음.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학생 청소년의 52%가 해당하였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7%만이 이에 해당하였음. 또한,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43%, 후기 M세대가 42%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Z세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제한으로 사회성이 위축 또는 결핍됐을 것이라고 생각된 학생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위기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코로나-19로 교육 및 직무 현장에서의 대면 교류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MZ세대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공간과 대상은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음.
- 사회성 발달 기저에 대한 특정 세대의 관점과 기준으로 다른 세대가 가진 사회성의 발달 수준을 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성의 유동성과 다차원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임.
- 수평적(또는 민주적) 인간관계의 가치 지향, 사회적 지지의 확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제고, 그리고 가족건강성 제고 등은 전 세대를 아울러 그리고 사회성 전반에 걸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므로 사회성 함양과 관련하여 이러한 변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성 발달과 오프라인 교류자본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됐음.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주위의 또래집단이나 청소년 지도자(멘토) 등과 함께 건강한 교류자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활동을 제공해야 함.
- 사회성 발달과 온라인 활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X세대에게서만 일관되게 나타남. 이는 온라인 활동의 일상성, 즐거움, 공동체 의식 등이 결코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M, Z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의미함. 기성세대인 X세대는 사회성 발달의 여건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활동과 교류로 제한하지 않고 온라인 활동과 교류로 확장하는 열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
- 사회성 취약 집단은 모든 세대에서 발견되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문제를 겪는 것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어려움이 아님. 따라서 특정 세대의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는 세대 분절적 접근보다는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온라인 공간 또한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해 기존의 자식들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조치 마련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1. 초점집단면담(FGI)

### 1)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에 대한 질적 고찰을 위해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다<sup>7)</sup>. 면담은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사회(직장)생활 경력 3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과 9년 이상의 사회 중년생으로 구성된 M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Z세대 등 총 5개 유형의 집단, 39명의 면담자를 대상으로 총 10회기(집단 유형별로 2회씩)에 걸쳐 진행됐다. 매 회기 3-5명의 남녀 면담자가 참석하였고 2시간 남짓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성의 의미, 중시하는 사회성의 하위 요인<sup>8)</sup>,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사회성 변화 양상, 온·오프라인 맥락에서의 사회성, 그리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초점집단면담 개요를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본 연구는 면담 녹취록을 토대로 각 질문에 대한 집단별 답변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6)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수(창원대학교), 박지숙(공주대학교)

7) 초점집단면담 IRB 승인 번호: 202203-HR-고유-002 / 승인 일자: 2022.3.22.

8)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은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이다.

표 III-1 초점집단면담 개요

| 참여집단(인원)   |        | 참여자                | 참여 일시      |
|------------|--------|--------------------|------------|
| 중학생(6)     | 1그룹(3) | A, B, C            | 22년 4월 토요일 |
|            | 2그룹(3) | 1, 2, 3            | 22년 5월 토요일 |
| 고등학생(7)    | 1그룹(4) | 4, 5, 6, 7         | 22년 4월 토요일 |
|            | 2그룹(3) | 8, 9, 10           | 22년 5월 토요일 |
| 대학생(10)    | 1그룹(5) | D, E, F, G, H      | 22년 4월 토요일 |
|            | 2그룹(5) | 16, 17, 18, 19, 20 | 22년 5월 월요일 |
| 사회 초년생(8)* | 1그룹(4) | I, J, K, L         | 22년 4월 토요일 |
|            | 2그룹(4) | 21, 22, 23, 24     | 22년 5월 토요일 |
| 사회 중년생(8)* | 1그룹(4) | M, N, O, P         | 22년 3월 화요일 |
|            | 2그룹(4) | 25, 26, 27, 28     | 22년 5월 월요일 |

주요 질문

1.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성의 의미와 그 이유
2.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성의 구성 요인과 그 이유
3. 본인이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
4. 본인이 학교나 직장에서 과제/과업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과 그 이유
5. (직장인)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연차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성의 의미와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차이 유무와 그 이유
6.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의 참여 경험과 효과성
7. 코로나-19 시대 본인의 사회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 전/후 상황 비교
8. 코로나-19 시대 본인 세대에게 필요한 사회성과 지원 방안
9. 온라인에서 타인과 교류 시 상대방에게 느끼는 친밀감
10. 온라인에서 타인과 소통 시 소통의 효율성
11. 오프라인 친구 대비 온라인 친구에 대한 친밀감
12. 온라인 기반 사회적 관계의 오프라인 기반 사회적 관계의 대체 가능성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 제외

## 2) 초점집단면담(FGI) 분석 결과

초점집단면담 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MZ세대는 사회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다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 (1) 중학생

첫째, 중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주로 ‘친구 관계’를 상정하고 응답하였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회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참여자 C), “눈치도 빠르고 친구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 해주는 것”(참여자 A), “서로 도와주면서 친근하게 지내는 것”(참여자 1) 등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것’ 또는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사회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떠한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성취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이러한 특성을 ‘사회성’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교육’은 ‘교수’ 활동에 의한 학습보다는 부모를 포함한 주변 성인 세대로부터 생활 속에서 무형식적으로 사회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변에서도 사회성을 가르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는 걸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진행자: 부모님의 영향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삼촌들 (참여자 C)
- 어른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회성과 저희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회성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B)

셋째, 중학생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중학생’이라는 연령대에서 기인한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다. 반대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대면의 기회가 줄어들긴 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학생들은 비대면 접촉을 도와주는 매체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관계를 생성, 유지, 확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대면 접촉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매체에 쉽게 적응한 Z세대 중학생들은 대면 접촉 기회의 감소가 사회성의 저하를 야기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남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여기고 있었다.

- 코로나 때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떨어져 지냈는데 줌이나 그런 걸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놀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유지돼서 아직도 사회성이 [괜찮아요] (참여자 1)
-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앱, 매개체들이 더 많아지고, 줌도 있고 구글미트도 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도 더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도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그런 걸 많이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랑 더 소통도 많이 하고 전에는 영상통화 같은 거를 엄청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많이 해가지고 조금 [사회성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짝 내가 아는 친구들의 친구가 나랑 모를 수 있는데 연락 같은 그런 매개체가 활성화되면서 친구가 앱으로 방에 초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만나면 또 친해지고 그런 게 많아져서 (참여자 2)

넷째, 중학생 참여자들은 비대면 관계 맺음에 익숙하면서도, 온라인 중심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온라인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 온라인 상황에서 주로 하는 활동(예: 게임,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였다. 즉,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특정 활동만을 하면서 알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반면에, 오프라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측면이나 특성이 한꺼번에 나타나므로 관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여겼다.

- 온라인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속마음이나 그런 거는 온라인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뭔가 말을 오프라인처럼 사실대로는 잘 안 하니깐(참여자 3)
- [게임에서 만난 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 (2) 고등학생

첫째,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로 ‘친구 관계’를 상정하고

사회성을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보다 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예로 들며 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언급하였다. “다른 사람들이랑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참여자 7),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서 그 집단이 행복한 집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참여자 4),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성질”(참여자 9)과 같이 ‘집단’, ‘사회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하며 친구 관계보다는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성이 작동하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것’ 또는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은 사회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학급에서 정한 일을 싫더라도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해당 특성은 집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성임에는 분명하지만 ‘도덕성’에 가까운 특성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이들은 분명한 구분은 어렵지만 ‘사회성’은 다른 성질이나 특성과는 구분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오히려 사회성이나 관계에 있어 질적 변화가 생긴 이유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입 입시에 집중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교우 관계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공부나 대입 입시 관련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선호하고 더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사람만으로 교우 관계를 좁히는 양상이 나타났다.

- 고등학교 들어가서 코로나도 있고, 고등학교라는 그런 대입에 집중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혼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서 뭔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참여자 7)
- 일단 코로나 시대에는 제가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보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더 학교 가면 솔직히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싸움도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애초에 만날 수 없으니까 싸움도 못하고(참여자 8)

넷째,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온라인 중심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현재 온라인 중심의 만남이 많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이 상황이 바뀐다면

이전과 같이 다시 오프라인 중심의 만남과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성격 특성상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교류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교류 모두 관계 맺음이나 사회성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 흔히 말하는 인싸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아싸나 뭔가 낮을 많이 가려서 친구를 별로 사귀지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온라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4)
-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라도 그게 사람 간의 대화이긴 하니까, 사회성 그런 관계, 친구 관계에 영향은 있죠(참여자 9)

### (3) 대학생

첫째, 대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성을 정의할 때 ‘사회’, ‘집단(다른 사람)’과 같은 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었으며, 사회성의 정의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지식이나 언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참여자 E)이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과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참여자 G) 또는 “문제없이 잘 어울리는 것”(참여자 16),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참여자 17, 20)이라는 언급과 같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람과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참여자 H)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처럼 대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성을 어떠한 능력으로 정의하는 언급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공부를 잘하는 것’ 또는 ‘자기 일을 잘하는 것’, ‘과제를 할 때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사회성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학교나 학과에서 정한 일을 싫더라도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사회성이 있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집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규칙이 악습이거나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단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행동이어도 사회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처럼 ‘유연함’을 강조하는 것이 대학생 집단이 사회성을 바라보는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났다.

- 똑같이 ‘정한 일을 싫더라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지식할 수도 있고 사회성이 발달된 거랑은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해요. 규칙을 지키는 거랑 사회성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뭔가 규칙을 딱딱 지킨다는 건 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참여자 G)
-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적당히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서 지키는 정도면 괜찮겠지 만 규칙이 있으니깐 무조건 지키라고 하고 FM대로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봐어도 학교생활에서도, 대학 생활에서도 다들 꺼려하더라고요. 불편해요(참여자 D)

셋째, 대학생 집단은 사회성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보는 동시에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역량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주의 가치가 부각되는 지금의 시대사조에 맞게 사회성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는 서로 간에 거리감을 지켜주는 사회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거리가 어느 정도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 선에서만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사회성인 것 같아요(참여자 D)
- 옛날에는 ‘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랑 나랑 친하니까 이런 조언도 내가 해 주는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냥 존중을 하고 너무 가깝게 그렇게 훈수 두지 않는 거(참여자 G)

넷째, 대학생 참여자들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사회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대면 활동의 기회가 줄긴 했지만 그것은 ‘대학교에 등교’한다는 의미에서의 대면 활동이고,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아 학교 밖에서의 외부 활동을 할 시간이 늘어났고, 연령적으로도 군 입대나 아르바이트, 스터디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면 활동과 만남, 비대면 활동과 만남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참여자별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성의 발달 또는 저하에 대한 의견 차이는 물론 존재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 사회 초년생

첫째,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상 사회성을 언급할 때 ‘회사 생활’을 전제하고, 이를 원만히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사회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참여자 I), “다른 사람과 의견이나 행동이 반대되더라도 티 내지 않는 것”(참여자 21), “적을 만들지 않는 것”(참여자 23)과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생활을 원만히 하고 나아가 그 결과가 회사 내에서의 개인적 성공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사회성으로 제시하였다. ‘팀 리더로 일할 자신이 있는 사람’을 공통적으로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제시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일 것이다. 회사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 일할 자신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자신감에 더하여 동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초년생들은 회사 동료와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구분하는 양상을 보였다.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므로, 사적 친분과 같은 인간관계를 회사 동료와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향이나 관심사가 같은 동료가 대화하기 편한”(참여자 I)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관점과 우선순위가 비슷”(참여자 24)해서 회사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더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회사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회사 밖에서 만나는 등 깊이 있는 사적 교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동료와 친교 또는 친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참여자 K, L)을 긋고 사적 교류의 측면을 회사 동료에게 기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사회 초년생 집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회사에서의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 회사 생활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재택근무로 인해 비대면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에서의 배려가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재택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하니까 일이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처음에 메신저로 하다가 ‘이 사람 재택이네, 안 보네’ 하면 그냥 저는 바로 전화 걸었거든요. 근데 전화 걸어서 받으면 ‘재택 중인 거 아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희는 재택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다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한테 다과 같은 걸 사가서 ‘그때 재택인데 되게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얘기도 더 하게 되고, 기회가 더 적어지니까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작은 기회를 더 잡으려고 반강제로 사회성을 도와줬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24)

회사에서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회식’과 ‘교육’이다. 이는 회사에서의 대면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개인주의 가치가 부각되는 현 시대에서 사회 초년생이나 이른바 ‘젊은 세대’에서는 회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사회 초년생들은 회사 내부 상황이나 앞으로의 회사 전망 등 신입 사원으로서 잘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회사 생활 또는 업무상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식과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회피되는 이유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즉 회사 밖이라는 공간에서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활을 배려하는 것”(참여자 23)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강제로 회식을 못 하게 되니까 사실 그런 낙인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회식을 빠지는 친구=사회성이 부족하다 혹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회식을 강제로 못 하니까 그냥 일대일로 저를 보는 거죠. 메신저로 얘기를 하고 화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너가 별로 인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아니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저는 오히려 사회성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좋아지게 된 것 같고(참여자 K)

##### (5) 사회 중년생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집단의 특성상 사회성을 언급할 때 ‘회사 생활’을 주로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중년생 집단은 사회성을 정의하거나 사회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때 가장 공통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 집단이었다. 이는 ‘사회 중년생’이라는 회사 내에서의 위치 때문이었다. 이들은 회사에서 신입 사원급과 리더 또는 관리자급의 집단 사이에 끼인 연령대로 소위 “위아래의 눈치를 다 봐야 하는 상황”(참여자 O)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기성세대가 회사 생활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에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회사 생활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금 이 정도 직급이 되면 그냥 일만 딱 할 거 하고 가는 게.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참여자 27)

-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을 보면 사회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친구가 선배들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려고 하고 뭔가 교감이 되고 공통점을 뭔가 찾아서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성이 있다라고 하고, 사회성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안 어울리려고 하고 공통점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뭔가 공통점을 좀 같이 하기가 싫은(참여자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중년생들은 사회성과 직무 역량을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놓고 이해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회사 동료에게 상처를 주거나 회사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회사 밖에서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하지만, 동시에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도 정의적 측면에서의 직무 역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성이 떨어졌다 또는 증가했다는 인식보다는, 이 미 사회·기술 변화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관계 맺음이나 의사소통이 강조되어 왔는데도 이를 발휘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부족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맺음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회사 업무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는 보다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시국에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표현되는 사회성이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고, 그게 내가 부족한 사회성 이구나. 온라인에서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내가 나한테 그동안 부족했구나라는 걸 오히려 느낀 거고, 코로나 시국에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사회성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참여자 N)
- SNS로 친구들하고 안부를 주고받고, 안부를 ‘잘 지내?’ 이제 아니라 하트 누르고 공감하는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거 자체도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소극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참여자 M)

- 코로나를 접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게 기를 안 써도 일이 돌아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도 돌아가고 사람들의 관계는 오히려 편한 사람들과 더 상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사람은 거르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들만 중요해지고 다른 일반적인 회사 사람들이나 일과 엮인 사람들까지 노력이 덜해지니까 뭔가 되게 성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1번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사회성이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되면서. 그리고 마음이 편한 거에 대한 장점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25)

### 3) 초점집단면담(FGI) 분석을 통한 시사점

지금까지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세대별로 사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태도의 공통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집단면담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이외의 집단 또는 조직을 전제로, 그 안에서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것을 ‘사회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즉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로 정의될 수 있다.

둘째, 초점집단면담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사회성이 특별히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사회성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기술의 변화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이 점차 늘어난 상황에 처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온라인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사회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는 강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는 지속되

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Z세대 집단에서는 게임을 위한(목적) 모임, M세대 집단에서는 온라인 동아리(목적) 모임이 그러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오프라인 만남의 기회가 대폭 줄어들고, 온라인 중심의 교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지만, 온라인 중심의 관계가 오프라인 중심의 관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 M세대 대비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음에 더 익숙한 어린 Z세대 집단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태도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성이 학업/업무 능력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배려심, 이해심, 신뢰성, 예의, 공감, 자기감정의 조절 등의 사회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개인의 업무 능력 또는 사회적 능력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팀원 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후기 M세대의 사회 중년생 집단은 이러한 의사소통과 배려심을 사회적 능력이자 업무 능력의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반대로 전기 M세대의 사회 초년생 집단과 후기 Z세대의 대학생 집단은 직장상 팀 프로젝트에서의 사회성은 업무 능력 또는 학업 능력과 구분된다는 입장을 보다 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Z세대 안에서도 사회성에 대한 대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대학생 집단은 사회성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 보는 동시에 각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고 배려하는 역량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주의 가치가 부각되는 지금의 시대사조에 맞게 사회성의 의미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특성이 같은 경우 어린 세대일수록 기성세대가 강조하거나 기성세대로부터 배운 사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이라도 대학생 집단이 ‘옛날에는’ 또는 ‘위 세대는’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사회성에 대한 세대 차이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면 중학생 집단은 같은 Z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강조하고 기성세대로부터 배운 ‘사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집단의 경우 ‘초년생’ 집단은 ‘회식’이나 ‘집합 교육’이 회사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는 반면, ‘중년생’ 집단은 기성세대가 회사 생활에서 강조하는 것을 긍정하면서도 반드시 그러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사회 중년생’ 집단이 회사라는 집단 내에서 끼인 세대에 위치해 있어 기성세대와 신입 세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실태조사

### 1) 실태조사 개요

본 실태조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 수업이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장기화되며 학교, 직장, 그리고 일상에서 교사와 또래집단, 상사와 동료 등과 온전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없었던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M, Z세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성 위축 문제의 개연성에 관한 실증 분석에 있다.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론에 비춰 볼 때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또는 청년기)의 사회성 위축은 해당 시기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작금의 팬데믹 상황이 MZ세대의 사회성 함양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만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Z세대에 해당하는 10대 중고생 1,471명,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400명, 그리고 대학생 800명, M세대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1,300명, 그리고 MZ세대의 기성세대인 X세대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1,300명 등 총 5,271명을 전국에서 표집하고 이들의 사회성 수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행태와 이에 대한 가치관, 소속 조직과 일상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MZ세대와 더불어 X세대 응답자가 이번 조사에 포함된 이유는 MZ세대의 사회성에 배태된 특수성과 보편성,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들 세대의 사회성 위축 여부 등을 세대 비교적 관점에서 실증하고자 위함이다.

표 III-2 실태조사 개요

| 구분                  | 학생 청소년<br>(Z세대 후기)                      | 학교 밖 청소년<br>(Z세대 후기)           | 대학생 <sup>9)</sup><br>(Z세대 전기)                                                                   | 성인 <sup>10)</sup><br>(M, X세대)                                                         |
|---------------------|-----------------------------------------|--------------------------------|-------------------------------------------------------------------------------------------------|---------------------------------------------------------------------------------------|
|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br>중고등학교<br>재학생               | 전국 꿈드림센터<br>등록 10대<br>학교 밖 청소년 | 전국 17개 시도<br>1996~2003년생<br>성인 남녀 중<br>조사 시점 기준<br>전문대학 또는<br>4년제 대학 이상<br>재적 학생 <sup>11)</sup> | 전국 17개 시도 1965~1995년생<br>성인남녀 중<br>조사 시점 기준 취·창업자                                     |
| 표집 틀                | 2021<br>교육통계 연보                         | 해당 없음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br>(2022년 3월 기준 전국 76만여 명)                                                          |                                                                                       |
| 표본 수 <sup>12)</sup> | 총 1,471명<br>중학생 752명<br>고등학생 719명       | 400명                           | 800명                                                                                            | 총 2,600명<br>후기 M세대('89~'95년생) 800명<br>전기 M세대('83~'88년생) 500명<br>X세대('65~'82년생) 1,300명 |
| 표집<br>방법            | 층화집락표집<br>(권역, 학교급,<br>학년)              | 임의 표집                          | 비례 할당 추출 <sup>13)</sup><br>(권역, 대학 유형,<br>성)                                                    | 비례 할당 추출 <sup>14)</sup><br>(권역, 종사상 지위, 성)                                            |
| 조사<br>시기            | 2022년 6월~7월                             |                                |                                                                                                 |                                                                                       |
| 조사<br>방법            | 자기기입식 온라인(웹/모바일) 조사                     |                                |                                                                                                 |                                                                                       |
| 주요<br>내용            | 사회성 수준, 상호작용, 학교/직장 생활, 심리적 안녕, 배경 질문 등 |                                |                                                                                                 |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성 개념 측정 관련 선행 연구 리뷰, 중고생, 대학생 등의 Z세대와 사회 초·중년생 등의 M세대를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면담(FGI),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별 조사 도구(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성인용(대학생 포함) 설문지에 대하여

9) 대학생 모집단 분포는 교육통계서비스의 '2021년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학생 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생년 대신 만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였음

10) 성인 모집단 분포는 통계청의 '2021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생년 대신 만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였음

11) 재적 학생은 재학생 외에 휴학생을 포함하는 기준임

12) 가중치 적용 후 크기

13)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대학유형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14)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하였음

각각 교육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관계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감수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 2) 조사 영역과 영역별 측정 도구

### (1) 사회성

#### 1. 사회성 수준

조사 대상자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사회성 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로 ‘귀하의 사회성은 0점-10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0점부터 10점까지 11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사회성 하위 13개 영역(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근면성, 준법성, 자율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사교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하여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사회성을 측정하였다. 영역별로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회적 기술 평가 체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Gresham과 Elliot(1990)이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가 체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학생판을 사용하여 공감(empathy), 자기조절(self-control), 주장성(assertion), 협동성(cooperation)을 측정하였다. SSRS는 총 39문항으로, 주장성 11문항, 협동성 9문항, 공감 10문항, 자기조절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장성, 협동성 1개 공통 문항). 빈도와 중요도를 각각 3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빈도는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한다.

SSRS는 Gresham과 Elliot(1990)의 영문판 원척도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영어에 능통한 연구진 2인이 각자 영-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 내용을 교차 검토하였다. 교차 검토를 통해 상호 동의한 번역을 채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한국어 번역 초안을 작성한 다음, 조사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척도를 변형하여 총 4가지 버전(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성인)의 한국어판 SSRS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끝낸다'는 문항을 학교 밖 청소년 설문지에는 '나는 일과 중에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끝낸다'로, 성인은 '나는 업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끝낸다'로 조사 대상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학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아 최종 척도를 확정하였다.

한국어판 SSR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하위 척도별로 중요도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값,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감은 10문항 중 9문항(문항 20, 21, 23, 24, 25, 26, 27, 28, 29), 자기조절은 9문항 중 6문항(문항 30, 35, 36, 37, 38, 39), 주장성은 11문항 중 9문항(문항 1, 3, 4, 5, 6, 7, 8, 9, 10), 협동성은 9문항 중 7문항(문항 11, 12, 13, 14, 15, 16, 19)이 최종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위 척도별 빈도의 크론바흐의 알파값을 구한 결과, 공감은 .78~.81, 자기조절은 .69~.76, 주장성은 .79~.83, 협동성은 .61~.72였으며, SSRS 전체 척도의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3~.88이었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Kaiser-Meyer-Olkin)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최종 채택된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4개 요인을 이루는 SSRS의 요인 구조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44, CFI = .906, TLI = .898, SRMR = .038). 모든 척도는 응답값이 0~2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②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생활 지도 진단 검사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근면성과 준법성 및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학수와 이윤수(1975)가 제작한 생활 지도 진단 검사의 일부인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제작 시기가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측정 도구의 원문을 대신하여 오경준(2000)이 해당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한 설문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오경준(2000)은 김학수와 이윤수(1975)의 생활 지도 진단 검사 중 근면성과 준법성 및 책임감을 포함하여 사회성의 하위 요인 5개 척도를 사용하였고, '예',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척도를 변형하여 총 4가지 버전(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성인)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준법성 측정 도구에서 ‘나는 학급에서 정한 일은 내가 싫더라도 지킨다’는 문항에서 ‘학급’을 학교 밖 청소년 설문지에서는 ‘센터’로, 대학생은 ‘학과’로, 성인은 ‘직장’으로 조사 대상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오경준(2000)의 연구에서는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모두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책임감 하위 척도에서 적합하지 않은 1문항 ‘나는 나보다 일을 못하는 아이하고는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를 제외하여 책임감에 한해서만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근면성 8문항, 준법성 8문항, 책임감 7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척도별로 크론바흐의 알파값을 구한 결과, 근면성은 .75~.84, 준법성 .77~.84, 책임감은 .75~.85의 값으로 나타났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모두 각각 단일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면성 RMSEA = .091, CFI = .911, TLI = .876, SRMR = .044; 준법성 RMSEA = .077, CFI = .939, TLI = .914, SRMR = .035; 책임감 RMSEA = .054, CFI = .981, TLI = .969, SRMR = .022). 단, 책임감 척도의 경우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3번 문항과 7번 문항에 공분산을 투입한 결과임을 밝힌다. 모든 척도는 응답값이 0~2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③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인성 검사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은 정범모(1971)가 개발한 인성 검사 도구의 일부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제작 시기가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정범모(1971)의 원문을 대신하여 한태룡(1998)이 해당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한 설문지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태룡(1998)의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별로 문항의 수가 30개였으며, ‘예’,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3인이 각자 선택한 10문항

중 공통으로 선택한 문항을 중심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각 영역별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안정성 8문항, 자율성 8문항, 리더십 8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척도별로 크론바흐의 알파값을 구한 결과, 안정성은 .89~.91, 자율성 .59~.65, 리더십은 .84~.91로 나타났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과 리더십은 각각 단일요인이 적절하였고, 자율성은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정성 RMSEA = .060, CFI = .985, TLI = .978, SRMR = .018; 자율성 RMSEA = .066, CFI = .952, TLI = .923, SRMR = .040; 리더십 RMSEA = .089, CFI = .967, TLI = .947, SRMR = .037). 리더십 척도의 모형적합도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2번 문항과 23번 문항에 공분산을 투입한 결과값임을 밝힌다. 모든 척도는 응답값이 0~2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④ 사교성: Cheek과 Buss의 수줍음 척도 수정판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RCBS 13)

사회성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과 가장 밀접한 사교성은 Cheek & Buss(1981)가 개발한 수줍음과 사회성(Shyness and Sociability) 척도를 Cheek(1983)이 수정한 RCBS 1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CBS 13은 처음에 개발된 수줍음과 사회성 척도 중에서 수줍음과 관련된 문항 9개를 13개로 확장하여 수정된 측정 도구이며, 사회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수줍음을 측정한다. RCBS 13은 영문판 원척도를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영어에 능통한 연구진 2인이 각자 영-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 내용을 교차 검토하여 작성한 한국어 번역 초안을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학계 전문가에게 감수 받아 최종 척도를 확정하였다. 원척도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점 척도(1 = 그렇지 않다, 2 = 그런 편이다, 3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사교성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13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사교성 문항의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2~.86이었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음을 밝힌다. 사교성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54, CFI = .976, TLI = .968, SRMR = .023). 사교성 척도 역시 문항의 응답값이 0~2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⑤ 대인관계: 단축형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6; SIAS-6)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축형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사회 불안 관련 자기 보고식 척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이다. Mattick & Clarke(1998) 원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6개 문항을 선별하여 타당화한 Peters et al.(2012)의 SIAS-6를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4 =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김소정, 윤혜영과 권정혜(2013)가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SIAS) 단축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6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대인관계 문항의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8~.89이었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음을 밝힌다. 대인관계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61, CFI = .989, TLI = .981, SRMR = .015). 대인관계 척도는 문항의 응답값이 0~4점 범위를 갖도록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만이 낮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⑥ 의사소통 능력: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15)

사회성의 하위 요인 중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경호(2003)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GICC-1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 의사소통 능력의 15개 하위 차원을 대표하는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0 = 그렇지 않다, 1 = 그런 편이다, 2 = 매우 그렇다).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15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의사소통 능력 문항의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76~.84이었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모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소통 능력 문항 구성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68, CFI = .874, TLI = .851, SRMR = .050). 의사소통 능력은 문항의 응답값이 0~2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

세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성의 영역이 다른지 알아보고자 두 가지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성 하위 13개 영역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 13개 영역 점수의 총합이 130점이 되도록 점수 분배를 요청하였으며, 최소 5개 이상의 항목에는 1점 이상의 점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학교나 직장 등의 조직에서 중요한 사회성의 영역과 조직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중요한 사회성의 영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 점수 평정은 조직 내 관계와 조직 밖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진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는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와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하여 각각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지낼 때’와 ‘센터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성인은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와 ‘직장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중요한 사회성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겼다.

두 번째는 사회성 수준 측정에 사용했던 사회적 기술 평가 체계(SSRS) 한국어판 SSRS 문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SSRS는 본래 사회성 수준과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개발된 척도이며, 하위 요인은 주장성, 협동성, 공감, 자기조절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 평가는 해당 4개 영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중요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 3.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조사 대상자의 사회성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전후로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귀하의 사회성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회고적 질문에 대하여 사회성 하위 13개 영역과 사회성 전반의 변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나빠졌다, 3 = 변화가 없다, 5 = 매우 좋아졌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수업이나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확산으로 조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사회성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나빠졌다, 3 = 변화가 없다, 5 = 매우 좋아졌다)로 측정하였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는 ‘재택 수업(온라인 수업) 및 등교 제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성인에게는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성의 변화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4.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조사 대상자의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 유무와 참여한 프로그램의 종류, 운영 방식,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우선,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성인에 맞게 프로그램 종류를 제시하였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으면 '0. 참여한 적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참여한 프로그램의 종류를 모두 고르도록 요청하였다. 운영 방식은 참여한 프로그램이 실시간 비대면, 비실시간 비대면, 대면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4 = 매우 도움이 됨).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질문하였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회성 하위 13개 영역 중 어떤 영역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질문하였다.

## 5. 개인주의-집단주의

조사 대상자의 사회성 수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Triandis와 Gelfland(1998)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였다. 문화 지향 척도(Culture Orientation Scale)라고도 불리는 이 척도는 Singelis(1994)가 개발한 척도를 Triandis와 Gelfland(1998)가 수정한 척도로 원칙도에 비해 길이가 짧은 일종의 단축형 척도이다. Triandis와 Gelfland(1998)의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4개 하위 척도(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별로 4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4개 유형의 점수를 각각 사용한다. 영어에 능통한 연구진 2인이 영문 원척도를 한국어로 교차 번역한 뒤 합의한 초안을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학계 전문가에게 감수 받아 최종 척도를 확정하였다.

INDCOL 척도의 하위 척도별로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 4문항(문항 1, 5, 10, 8), 수직적 개인주의 4문항(문항 3, 4, 13, 16), 수평적 집단주의 4문항(문항 2, 7, 11, 15), 수직적 집단주의 4문항(문항 6, 9, 12, 14) 모두 최종 문항으로 채택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세대별로 구한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수평적 개인주의 .67~.73, 수직적 개인주의 .54~.70, 수평적 집단주의 .64~.78, 수직적 집단주의 .67~.77로 나타났다.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으므로 베리

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INDCOL 척도가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점수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각 하위 척도를 독립된 구인으로 설정하여 별도로 점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 역시 하위 척도별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4개 하위 척도 모두 단일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수평적 개인주의 RMSEA = .063, CFI = .990, TLI = .970, SRMR = .018; 수직적 개인주의 RMSEA = .097, CFI = .981, TLI = .886, SRMR = .017; 수평적 집단주의 RMSEA = .121, CFI = .984, TLI = .901, SRMR = .019; 수직적 집단주의 RMSEA = .054, CFI = .994, TLI = .981, SRMR = .013). 모형적합도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수직적 집단주의 척도는 3번과 4번 문항에, 수평적 집단주의 척도는 2번과 15번 문항에 공분산을 투입한 결과값임을 밝힌다. INDCOL 척도는 응답값이 1~7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척도별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 상호작용

### 1. 사회적 관계망 크기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는 Lubben et al.(2006)이 개발한 축약형 척도인 LSNS-6(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이 척도는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 3가지를 하도록 설계되어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혹은 ‘친구’로 표현된 부분을 ‘사람’으로 바꾸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척도에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숫자를 기입하도록 요청하고 입력 범위를 0에서 199로 프로그래밍한 후에 응답값을 다시 5점 척도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0 = 전혀 없다, 1 = 1명, 2 = 2명, 3 = 3~4명, 4 = 5~8명, 5 = 9명 이상). 구체적으로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제외하고 1)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2)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3)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각각 기입하도록 하였다. 영문 원척도를 연구진이 번역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 2. 온라인 상호작용 일반

온라인 상호작용 일반에 대하여 1) 빈도, 2) 중요도, 3)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를 질문하였다. 먼저, 온라인 상호작용 빈도는 ‘귀하는 또래에 비해 하루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하지 않는다, 4 = 매우 많이 한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귀하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차이가 없다, 4 = 매우 차이가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사회적 현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선희(2010)가 사용한 사회적 현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귀하가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라고 제시한 다음,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를 포함하여 총 4개의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6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4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3~.8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고, 분석 전에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먼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일요인이 적절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1번과 3번 문항의 공분산을 투입한 이후에도 RMSEA 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모형적합도는 양호함을 확인하였다(RMSEA = .153, CFI = .988, TLI = .926, SRMR = .015).



#### 4.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구(2010)가 Ellison, Steinfield and Lampe(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든 7문항 중 4문항을 사용하였다. 김구(2010)의 조사 문항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문항만을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4개 문항 중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네티즌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든다’는 문항은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다른 유저와의 공동체 의식이 든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진이 선별한 기존 4문항을 모두 채택하였다. 세대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63~.78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일요인이 적절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RMSEA 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모형적합도는 양호함을 확인하였다(RMSEA = .111, CFI = .974, TLI = .923, SRMR = .028).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4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5.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교류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구(2010)가 사용한 Williams (2006)의 인터넷 사회적 자본 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ISCS) 중 교류자본 문항을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영어에 능통한 연구진 2인이 각자 영-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 내용을 교차 검토하여 한국어 번역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인 학계 전문가에게 감수 받아 최종 척도를 확정하였다. 구성원들 간에 정보나 새로운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느슨한 연결을 측정하는 교류자본 문항은 Williams(2006)의 연구에서는 유대(bonding)와 비교되는 연결(bridging)로 사용되었다. 교류자본 척도 10문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각각 적용하여 질문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두 척도 모두 각각 10문항씩 기존 문항이 모두 채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온라인 교류자본 .85~.92, 오프라인 교류자본 .85~.92였다. 마지막으로, 단일요인이 적절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온라인 교류자본 RMSEA = .082, CFI = .952, TLI = .932, SRMR = .036; 오프라인 교류자본 RMSEA = .071, CFI = .963, TLI = .948, SRMR = .030). 모형적합도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3번과 4번, 5번과 6번, 6번과 7번 문항에 공분산을 투입한 결괏값임을 밝힌다.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4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3) 학교/직장 생활

#### 1. 학업 성적/업무 성과 및 만족도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업 성적과 성인의 업무 성과를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못하는 수준, 3 = 중간, 5 = 매우 잘하는 수준)로 측정하였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귀하의 학업 성적(가장 최근을 기준으로)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업 성적(마지막에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은 반에서’, 대학생에게는 ‘학업 성적(가장 최근을 기준으로)은 학과에서’, 성인에게는 ‘직장 내에서의 성과는’으로 질문하였다. 청소년 및 대학생의 학업 성적 만족도와 성인의 업무 성과 만족도는 ‘귀하의 학업 성적/직장 내 성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 2. 학교/직장 문화

학교 문화는 구체적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에는 박윤경, 김명정, 유혜영과 이수정(2019)이 개발한 학교 민주주의 척도의 3개 하위 척도 중 민주적 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에게는 ‘담임교사는 학급의 일을 결정할 때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 반영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대학생에게는 ‘교수진은 학과의 일을 결정할 때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로 제시하였다. 총 24문항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민주적 학교 문화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17번과 23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22문항을 학교 문화 척도의 최종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94~.95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2요인 구조(문항 1~12, 문항 13~24)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RMSEA = .077~.092, CFI = .866~.915, TLI = .851~.905, SRMR = .040~.056).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4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직장 문화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을 위해 국외 척도들을 번안하여 종합한 박준희(1996)의 조직 분위기 척도 중 관계 지향적 분위기 문항 6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은 본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색한 표현이나 잘 쓰지 않은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보통,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6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6문항을 모두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5~.90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요인 구조

의 모형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RMSEA = .052, CFI = .995, TLI = .988, SRMR = .011). 해당 모형적합도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 문항에 공분산을 투입한 결과값이다.

### 3.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통계청(2018) 사회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불만족, 4 =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 및 설비, 교육 내용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중·고등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대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와 성인의 직장 생활 만족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4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불만족, 4 =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은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여 학교 시설, 수업 내용 등 총 9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성인은 업무 내용, 복리 후생, 일과 가정 양립 등을 포함하여 총 15가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4) 심리적 안녕감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한국어판은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번역을 사용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2016) 설문지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논란이 있는 8번 문항(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은 이자영 외(2009)의 제안을 따라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3점 범위를 갖도록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10문항을 모두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을 채택하여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5~.88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1요인 문항 1, 3, 4, 7, 10; 2요인 문항 2, 5, 6, 8, 9)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63, CFI = .971, TLI = .961, SRMR = .030).

## 2.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Schwarzer와 Jerusalem(1993)이 개발하고 Lee, Schwarzer and Jerusalem(1994)이 수정·변안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 Efficacy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아효능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아님, 4 = 매우 그러함).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3점 범위를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10문항을 모두 최종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9~.93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50, CFI = .981, TLI = .975, SRMR = .020).

## 3. 삶의 만족도

조사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 (1985)이 개발한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표현은 임영진(2012)의 연구를 따랐다. 삶의 만족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잘 모르겠다, 7 = 전적으로

등의한다). 문항을 모두 합산한 값이 5~9점이면 매우 불만족, 10~14점이면 불만족, 15~19점이면 약간 불만족, 20점이면 중립, 21~25점이면 약간 만족, 26~30점이면 만족, 31~35점이면 삶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분석을 위해 문항별 응답값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불만족(5~9점)은 0을, 매우 만족(31~35점)은 6의 값을 할당하여 삶의 만족도 지표 값이 0~6점 사이를 갖도록 코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5문항을 모두 최종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88~.92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 = .045, CFI = .996, TLI = .993, SRMR = .009).

#### 4.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와 최희진(2013)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orea Family Strengths Scale II; KFSS-I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FSS-II는 5개 하위 영역(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 문화와 사회 참여),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응답값이 0~3점을 갖도록 코딩하였으며, 분석에는 문항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내적 일관성 계수, 개별 문항과 총점의 상관관계, 개별 문항과 나머지 문항의 상관관계,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내적 일관성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기존 22문항을 모두 최종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Barlett의 구형성 테스트 결과와 KMO 지수를 확인한 후에 베리맥스 방식을 통한 직교회전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세대별 크론바흐의 알파값은 .95~.96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다(RMSEA = .082, CFI = .903, TLI = .892, SRMR = .052). 이는 수정지수 크기와 문항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17번

과 19번, 21번과 22번 문항의 공분산을 투입하여 얻은 결괏값임을 밝힌다.

## (5) 기타

### 1. 건강 상태

조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4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건강하다, 4 =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로 측정하였다.

### 2. 폭력 경험

조사 대상자의 폭력 경험은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모두 조사하였다. 가해 경험은 지난 1년 간 온·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한 폭력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피해 경험 역시 지난 1년 간 온·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당한 폭력의 종류를 고르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대상 설문지의 해당 문항 하단에는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과 출생 연도(학생 청소년 제외), 거주 지역(17개 시·도 단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M, X세대 성인 응답자 제외), 부모의 학력 등이 조사됐다. 응답자의 경제력 파악을 위해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등의 Z세대 응답자에게는 주관적 가정 형편(1 = 매우 못 산다, 7 = 매우 잘 산다)을, M, X세대의 성인 응답자에게는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물어보았고 M, X세대의 성인 응답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본인의 학력, 고용 지위, 동거 가구원 수, 혼인 상태, 그리고 자녀 유무 등을 물어보았다.

지금까지 상술한 일련의 조사 영역과 영역별 측정 도구의 개요를 <표 III-3>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구축한 실제 설문지 열개는 <표 III-4>에 제시하였다.

표 Ⅲ-3 조사 영역별(기타 영역 제외) 측정 도구 개요

| 영역       | 측정개념               | 문항 수 | 예시 문항                                         | 척도명            | 원척도 출처                    | 수정/번역           |
|----------|--------------------|------|-----------------------------------------------|----------------|---------------------------|-----------------|
| 사회성      | 주장성                | 10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활동을 함께하자고 권한다                  | SSRS           | Gresham & Elliot(1990)    | 연구진 번역          |
|          | 협동성                | 9    |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다            |                |                           |                 |
|          | 공감                 | 11   | 나는 친구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슬플 때 그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                           |                 |
|          | 자기조절               | 9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도 같이 흥분하지 않는다              |                |                           |                 |
|          | 근면성                | 8    | 나는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일도 끝까지 한다                     | 생활 지도<br>진단 검사 | 김학수, 이윤수<br>(1975)        | 오경준(2000)       |
|          | 준법성                | 8    | 나는 길을 걸어가길 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                |                           |                 |
|          | 책임감                | 7    | 나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잠이 오면 잔다(역문항)               |                |                           |                 |
|          | 안정성                | 7    |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빠지는 때가 있다(역문항)                   | 인성 검사          | 정범모(1971)                 | 한태룡(1998)       |
|          | 자율성                | 7    | 솔직히 말하여 남에게 의존하려는 때가 많다(역문항)                  |                |                           |                 |
|          | 리더십                | 7    |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통솔하는 책임을 즐겨 맡는다                   |                |                           |                 |
|          | 사교성                | 13   |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지 않다                   | RCBS 13        | Cheek(1983)               | 연구진 번역          |
|          | 의사소통 능력            | 15   |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 GICC-15        | 허경호(2003)                 | 연구진 수정          |
|          | 대인관계               | 6    |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 SIAS-6         | Peters et al.<br>(2012)   | 김소정 외<br>(2013) |
| 상호<br>작용 | 개인주의<br>-집단주의      | 16   |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 INDCOL         | Triandis & Gelfland(1998) | 연구진 번역          |
|          | 사회적 관계망<br>크기      | 3    |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의 수                   | LSNS-6         | Lubben et al.<br>(2006)   | 연구진 번역          |
|          | 온라인상에서의<br>사회적 현존감 | 4    |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사회적 현존감        | 박선희(2010)                 | 연구진 수정          |



| 영역       | 측정개념              | 문항 수 | 예시 문항                                     | 척도명           | 원척도 출처                      | 수정/번역             |
|----------|-------------------|------|-------------------------------------------|---------------|-----------------------------|-------------------|
| 상호 작용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 4    | 인터넷으로 정보(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 온라인 활동        | 김구(2010)                    | 연구진 수정            |
|          | 온라인 교류자본          | 10   |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해 준다  | ISCS          | Williams(2006)              | 연구진 번역            |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10   |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해 준다 |               |                             |                   |
| 학교/직장 생활 | 민주적 학교 문화         | 24   | 우리 학교는 체벌이 없다                             | 학교 민주주의 척도    | 박윤경 외(2019)                 | 연구진 수정            |
|          |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 6    | 우리 직장은 사원들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 조직 분위기        | 박준희(1996)                   | 연구진 수정            |
|          | 학교생활 만족도          | 7    | 전반적인 학교생활                                 | 사회조사          | 통계청(2018)                   | 연구진 수정            |
|          | 대학 생활 만족도         | 9    | 전반적인 만족도                                  | 청년패널 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20)              | -                 |
|          | 직장 생활 만족도         | 15   | 하고 있는 일(업무)의 내용(전공 관련 정도 포함)              |               |                             | -                 |
| 심리적 안녕감  | 자아존중감             | 10   |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RSE           | Rosenberg(1965)             | 혼합                |
|          | 자아효능감             | 10   |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 Schwarzer & Jerusalem(1993) | Lee et al. (1994) |
|          | 삶의 만족도            | 5    |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 SWLS          | Diener et al. (1985)        | 임영진(2012)         |
|          | 가족건강성             | 22   |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 KFSS-II       | 유영주 외(2013)                 | -                 |

표 III-4 설문 열개

| 영역    |                   |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          |      |        |
|-------|-------------------|----------------|---------------|----------|------|--------|
|       |                   |                | Z세대           |          |      | M, X세대 |
|       |                   |                | 학생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 사회성   | 사회성 수준            | 종합 수준(0~10점)   | 문1            |          |      |        |
|       |                   | 코로나-19 전후 비교   | 문1-1, 문1-2    |          |      |        |
|       |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       | 학교 안           | 문2-1          |          | 문2-1 |        |
|       |                   | 학교 밖           | 문2-2          |          | 문2-2 |        |
|       |                   | 센터 안           |               | 문2-1     |      |        |
|       |                   | 센터 밖           |               | 문2-2     |      |        |
|       |                   | 직장 안           |               |          |      | 문2-1   |
|       |                   | 직장 밖           |               |          |      | 문2-2   |
|       | 사회성 영역별 수준        | 주장성            | 문3(1-10)      |          |      |        |
|       |                   | 협동성            | 문3(11-19)     |          |      |        |
|       |                   | 공감성            | 문3(20-29)     |          |      |        |
|       |                   | 자기통제성          | 문3(19, 30-39) |          |      |        |
|       |                   | 근면성            | 문4(1-8)       |          |      |        |
|       |                   | 준법성            | 문4(9-16)      |          |      |        |
|       |                   | 책임성            | 문5(1-7)       |          |      |        |
|       |                   | 안정성            | 문5(8-14)      |          |      |        |
|       |                   | 자율성            | 문5(15-21)     |          |      |        |
|       |                   | 리더십            | 문5(22-28)     |          |      |        |
|       |                   | 사교성            | 문6            |          |      |        |
|       |                   | 의사소통           | 문7            |          |      |        |
|       |                   | 대인관계           | 문8            |          |      |        |
|       | 가치관               | 집단주의-개인주의      | 문9            |          |      |        |
|       |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 프로그램 유형        | 문10           |          |      |        |
|       |                   | 프로그램 운영 방식     | 문10-1         |          |      |        |
|       |                   | 사회성 함양 도움 여부   | 문10-2         |          |      |        |
|       |                   | 사회성 함양 미도움 사유  | 문10-2-1       |          |      |        |
|       |                   | 사회성 함양 도움 영역   | 문10-3         |          |      |        |
| 상호 작용 |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문11           |          |      |        |
|       |                   | 온라인 상호작용 빈도    | 문12           |          |      |        |
|       | 온라인 상호작용          |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   | 문13           |          |      |        |
|       |                   |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 문14           |          |      |        |

| 영역     |              |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          |     |        |
|--------|--------------|-------------------|--------|----------|-----|--------|
|        |              |                   | Z세대    |          |     | M, X세대 |
|        |              |                   | 학생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대학생 | 성인     |
| 상호 작용  | 온라인 상호작용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 문15    |          |     |        |
|        |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문16    |          |     |        |
|        |              | 온라인 교류자본          | 문17    |          |     |        |
|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문18    |          |     |        |
| 생활 만족  | 학업 성적/업무 성과  | 학업 성적 수준          | 문19    |          |     |        |
|        |              | 학업 성적 만족도         | 문19-1  |          |     |        |
|        |              | 업무 성과 수준          |        |          |     | 문19    |
|        |              | 업무 성과 만족도         |        |          |     | 문19-1  |
|        | 학교/직장 문화     | 민주적 학교 문화         | 문20    |          |     |        |
|        |              |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        |          |     | 문20    |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          | 문21    | 문21      | 문21 |        |
|        |              | 직장 생활 만족도         |        |          |     | 문21    |
| 심리적 안녕 | 자존감          | 자존감               | 문22    |          |     |        |
|        | 자아효능감        | 자아효능감             | 문23    |          |     |        |
|        |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 문24    |          |     |        |
|        | 가족건강성        | 가족건강성             | 문25    |          |     |        |
| 기타     |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 상태         | 문26    |          |     |        |
|        | 폭력 경험        | 가해 경험             | 문27    |          |     |        |
|        |              | 피해 경험             | 문28    |          |     |        |
| 배경 문항  | 학력수준         | 본인 최종학력           |        |          |     | 배문1    |
|        | 혼인 상태        | 혼인 상태             |        |          |     | 배문2    |
|        | 자녀 현황        | 자녀 유무             |        |          |     | 배문3    |
|        | 경제 수준        | 월 평균 가구 소득        |        |          |     | 배문5    |
|        |              | 주관적 가정 형편         | 배문1    |          |     | 배문6    |
|        | 가족 성원        | 동거 가족원            | 배문2    |          |     |        |
|        |              | 동거 가족 수           |        |          |     | 배문4    |
|        | 부모 학력        | 부모 최종 학력          | 배문3    |          |     | 배문7    |

### 3) 조사 대상별 표본설계 개요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학교 안팎의 후기 Z세대 10대 청소년(중고생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1,871명과 20대 중반까지의 전기 Z세대 대학생 800명 등으로 Z세대 응답자 2,671명, 2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는 전·후기 M세대 응답자 1,300명, 그리고 4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X세대 응답자 1,300명 등 총 5,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표본설계에 대한 세부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 4) 실태조사 결과

#### (1) 기초 통계

##### 1. 사회성

##### ① 사회성 종합 수준

자신의 현재 사회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평정(0-10점)하게 한 결과 유의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F(5, 5,264)=16.059<sup>\*\*\*15)</sup>].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6개 세대 집단 중 X세대의 평균이 7.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Z세대 학생 청소년, 전기 M세대, Z세대 대학생, 후기 M세대, 그리고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등분산 가정의 위배로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가장 점수가 높았던 X세대는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도 여타 비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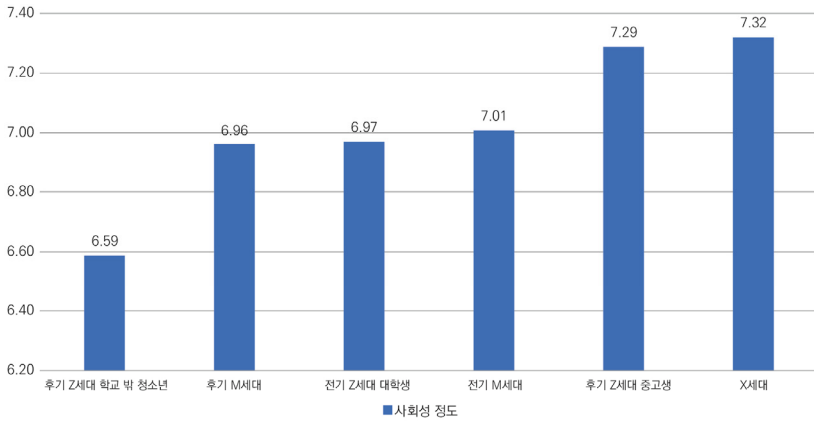


그림 III-1 집단별 사회성 종합 수준(단위: 점)

## 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성 변화

그렇다면 각 세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신의 사회성 변화 양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MZ세대의 사회성 함양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지만 정작 MZ세대 당사자, 특히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생각은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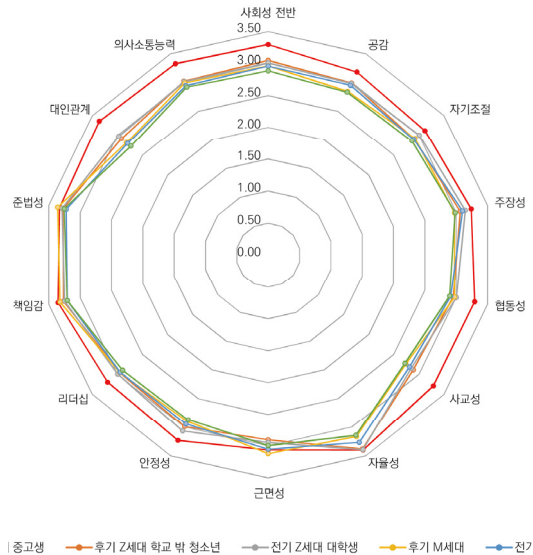


그림 III-2 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수준(단위: 점)

【그림 Ⅲ-2】는 코로나-19 전후로 사회성 전반은 물론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소(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의 변화 수준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방사형 차트로 구현한 결과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후기 Z세대 중고생 집단은 평균 3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법성, 근면성 등 소수의 평가 영역을 제외한 여타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다만, 실제 사후검정을 실시했을 때 이들의 점수가 다른 세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가장 높았던 평가 영역은 사회성 전반, 공감, 자기조절, 협동성, 사교성, 안정성, 리더십, 대인관계,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이었다(아래 표 참조).

표 Ⅲ-5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양상 평가에 대한 영역별 집단 비교

| 구분        |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 t/F      | df1 | df2   |                     |
| 사회성 전반    |         |                                                                                       | 37.82*** | 5   | 5,264 | a>b,c,d,e,f         |
| 사회성 하위 요소 | 공감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br>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29.63*** | 5   | 5,264 | a>b,c,d,e,f         |
|           | 자기조절    |                                                                                       | 13.04*** | 5   | 5,264 | a>b,c,d,e,f         |
|           | 주장성     |                                                                                       | 19.70*** | 5   | 5,264 | a>b,d,e,f           |
|           | 협동성     |                                                                                       | 36.63*** | 5   | 5,264 | a>b,c,d,e,f         |
|           | 사교성     |                                                                                       | 68.10*** | 5   | 5,264 | a>b,c,d,e,f         |
|           | 자율성     |                                                                                       | 14.36*** | 5   | 5,264 | a>d,e,f             |
|           | 근면성     |                                                                                       | 6.20***  | 5   | 5,264 | f>b,c               |
|           | 안정성     |                                                                                       | 26.15*** | 5   | 5,264 | a>b,c,d,e,f         |
|           | 리더십     |                                                                                       | 21.93*** | 5   | 5,264 | a>b,c,d,e,f         |
|           | 책임감     |                                                                                       | 5.16***  | 5   | 5,264 | a>d,e,f             |
|           | 준법성     |                                                                                       | 3.90***  | 5   | 5,264 | f>d                 |
|           | 대인관계    |                                                                                       | 75.24*** | 5   | 5,264 | a>b,c,d,e,f         |
|           | 의사소통 능력 |                                                                                       | 37.68*** | 5   | 5,264 | a>b,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p<.001

후기 Z세대 중고생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일관된 특징을 보여주는 세대는 없다. 사회성 영역에 따라 세대 간은 물론 세대 내 인식 차이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이는 그래프의 전반적인 분포를 볼 때 세대 집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Z세대보다는 M, X세대에서 코로나-19 전후 사회성 변화 양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수업과 등교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재택근무 등이 자신의 사회성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해당 평가에 대한 집단 간 응답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검정했을 때 계상되는 수정된 표준화 잔차(adjusted standardized residuals)를 셀별로 정리한 결과다. 잔차의 절댓값이 2를 상회하면 이상치로 해석되며, 검정 결과가 유의할 때 이상치의 절댓값이 클수록(3≥) 검정 결과의 유의성에 강하게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Agresti & Finly, 1999:262). 또한 양의 잔차는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컸을 때, 반대로 음의 잔차는 관측값이 기댓값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 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X^2(10)=198.97^{***16}$ )이 확인됐는데 후기 Z세대인 학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셀에서 각각 양과 음의 이상치가, 반대로 M, X세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 평가 셀에서 각각 음과 양의 이상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젊은 Z세대 사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수업과 등교 제한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하여 기대치보다 회의적인 데 반해 M, X세대는 이에 공감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표 III-6 코로나-19로 사회적 조치가 사회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대 간 응답 교차분석 결과(수정된 표준화 잔차)

| 구분                                                           |       | 후기<br>Z세대<br>학생<br>청소년 | 후기<br>Z세대<br>학교 밖<br>청소년 | 전기<br>Z세대 대<br>학생 | 후기<br>M세대 | 전기<br>M세대 | X세대  |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br>조치(재택 수업/근무,<br>사회적 거리 두기 등)로<br>인한 사회성 변화 | 나빠졌다  | -10.5                  | -2.0                     | 3.9               | 0.2       | 3.2       | 6.6  |
|                                                              | 변화 없다 | 4.7                    | -0.5                     | -2.7              | 0.8       | -1.0      | -2.3 |
|                                                              | 좋아졌다  | 8.8                    | 3.9                      | -1.8              | -1.6      | -3.3      | -6.5 |

16) \*\*\* $p < .001$

### ③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

본 연구는 사회성의 개념을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성을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총 1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각 세대가 자신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Z세대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센터(Z세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직장(M, X세대) 안과 밖에서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성 영역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이다. 우선 학교, 센터, 그리고 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에 대해서는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공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사교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공감은 협동성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였다. 반대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사회성의 영역에 대한 평가는 세대에 따라 달라졌다.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은 준법성을, 다른 세대는 모두 리더십을 선택하였다.

【그림 III-4】는 【그림 III-3】의 평정 결과를 사회성 영역을 기준으로 재편성한 그래프로 세대별 응답 경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프의 전체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세대 집단 중 M세대와 X세대의 판단 성향이 비교적 유사한 반면, Z세대는 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Z세대는 대인관계, 사교성, 의사소통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M, X세대는 공감, 자기조절, 근면성, 협동성, 책임감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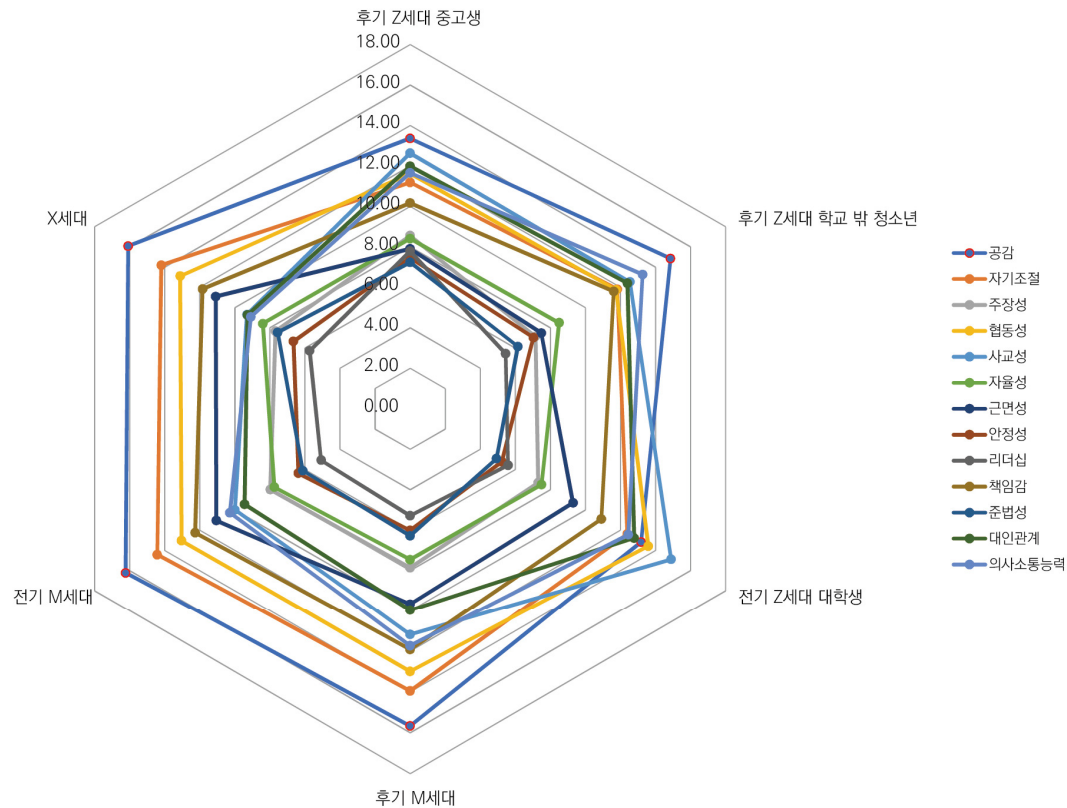


그림 Ⅲ-3 학교/센터/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세대 기준, 단위: 점)

주. 총점 130점 안에서 전체 13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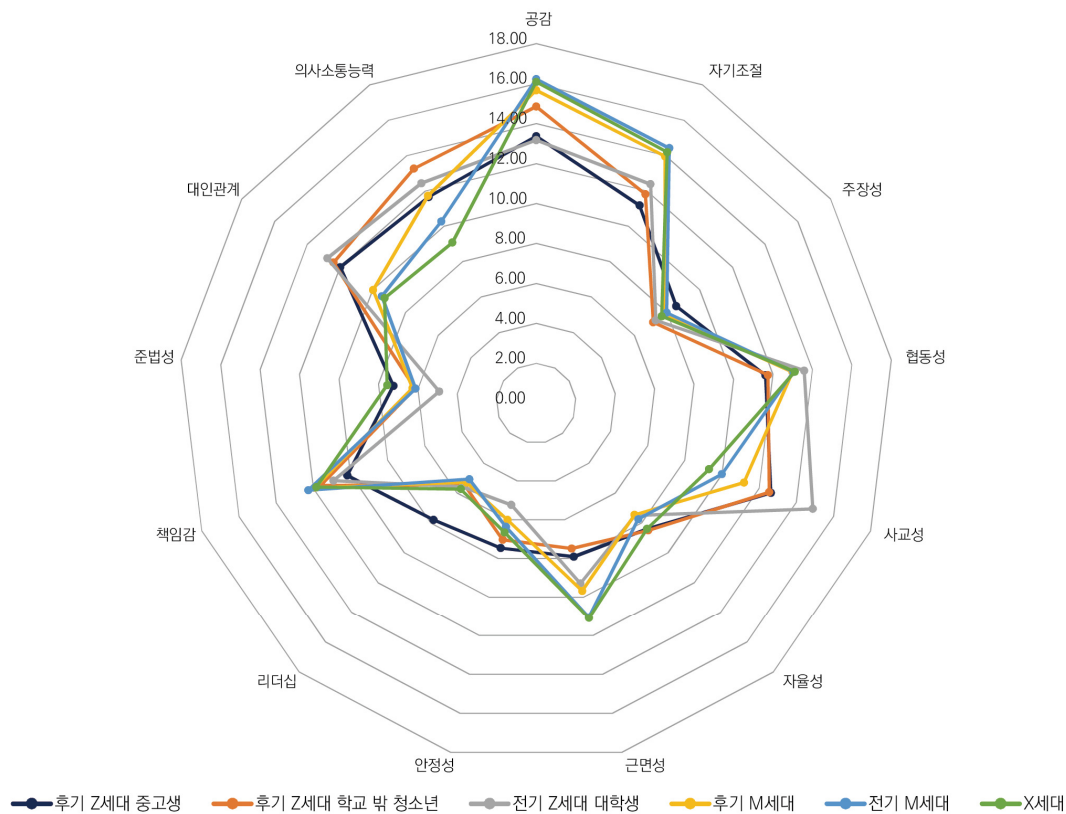


그림 Ⅲ-4 학교/센터/직장 안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사회성 영역 기준, 단위: 점)

주. 총점 130점 안에서 전체 13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

다음으로 【그림 III-5】는 학교, 센터, 그리고 직장 밖에서, 즉 사적 공간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요약한 그래프이다. 전기 Z세대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공감을 사적 공간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전기 Z세대 대학생의 경우도 공감은 2순위로 중요한 사회성 영역(평균 17.8점)이었고, 평균 18점으로 1순위를 차지한 사교성과 비교해 유의한 점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기 Z세대 대학생을 제외한 다른 세대 집단에서 1순위의 공감과 2순위의 사회성 영역 사이에 눈에 띄는 점수 차이가 존재하였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 공감이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III-6】은 【그림 III-5】의 평정 결과를 사회성 영역을 기준으로 재편성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성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각 세대의 응답 경향은 다르지 않으며, 전체 13개 영역 중 사교성, 공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가 세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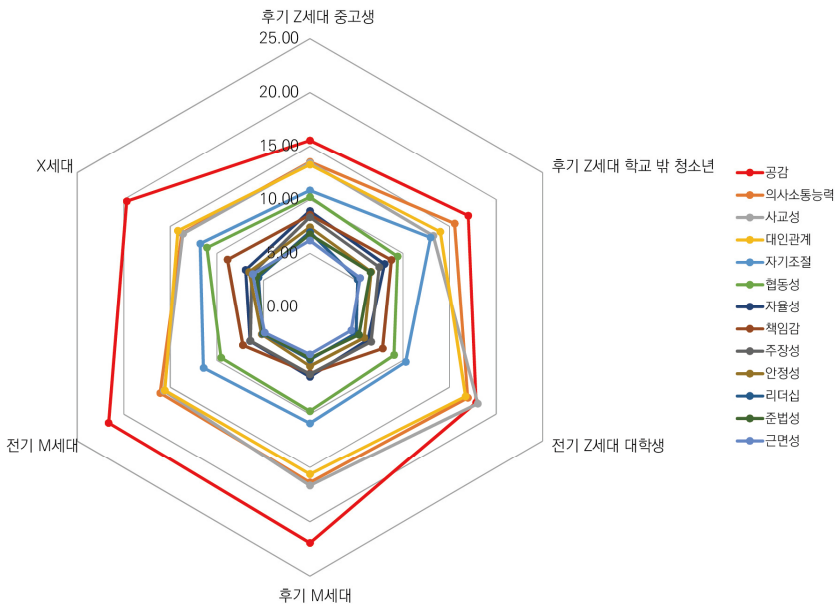


그림 III-5 학교/센터/직장 밖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한 평정 결과(집단 기준, 단위: 점)

주. 총점 130점 안에서 전체 13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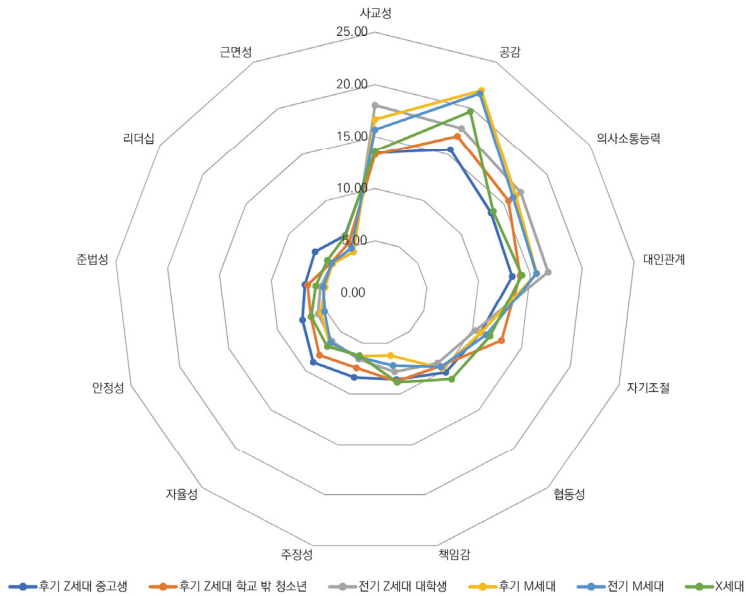


그림 III-6 학교/센터/직장 밖에서 중요한 사회성 영역에 대한 평정 결과(영역 기준, 단위: 점)

주. 총점 130점 안에서 전체 13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점수 배분

#### ④ 사회성 영역별 수준

##### 가.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먼저,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공감 수준(빈도) 평균이 1.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M세대가 1.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요도의 경우도 후기 Z세대 중고생의 평균이 1.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M세대의 평균은 1.21점으로 가장 낮았다(【그림 III-7】). 일원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공감 수준과 중요도는 대학생을 제외한 다른 집단보다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고 할 수 있다(표 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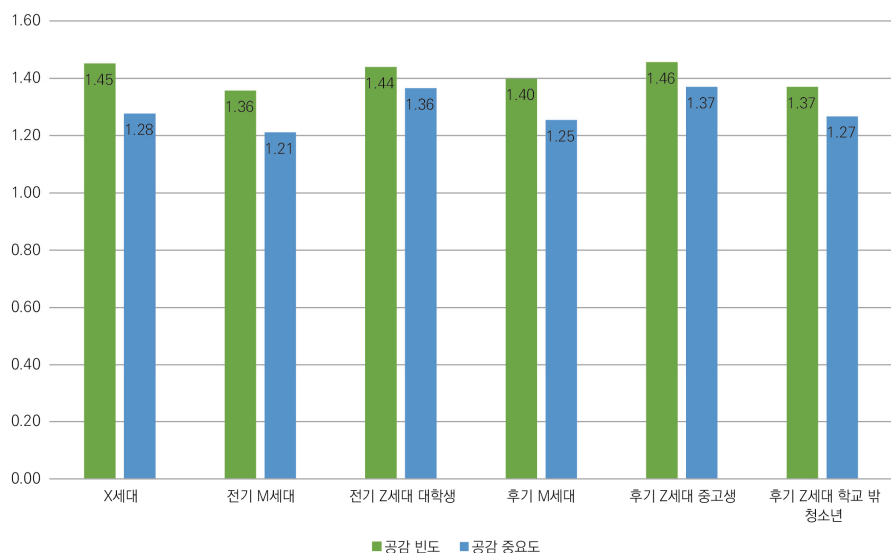


그림 III-7 공감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표 III-7 공감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공감 수준<br>(빈도)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 9.38***  | 5   | 5,264 | a>b,d,e,f           |
|               | 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     |       |                     |
|               | c. 전기 Z세대 대학생      |          |     |       |                     |
| 공감 중요도        | d. 후기 M세대          | 19.82*** | 5   | 5,264 | a>b,d,e,f           |
|               | e. 전기 M세대          |          |     |       |                     |
|               | f. X세대             |          |     |       |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자기조절의 수준과 중요도 또한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각각 1.01점, 1.22점으로 가장 높았다. X세대의 자기조절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0.84점), 전기 M세대는 자기조절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1.03점).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기 Z세대 중고생의 자기조절 수준은 전기 Z세대 대학생을 제외한 여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중요도의 경우 모든 세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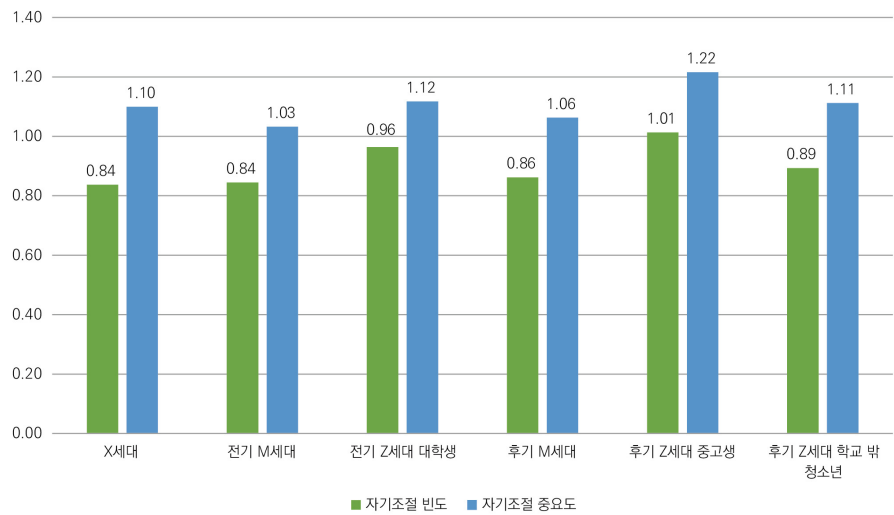


그림 Ⅲ-8 자기조절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표 Ⅲ-8 자기조절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자기조절 수준(빈도)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 | 30.13*** | 5   | 5,264 | a)b,d,e,f           |
| 자기조절 중요도    | 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24.78*** | 5   | 5,264 | a)b,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주장성의 수준과 중요도는 후기 Z세대 중고생의 평균이 각각 1.13점, 1.09점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반대로 주장성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평균 0.94점의 학교 밖 청소년, 가장 낮은 중요도는 평균 0.86점의 전기 M세대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III-9>에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은 주장성 수준과 중요도의 평정 모두에서 모든 세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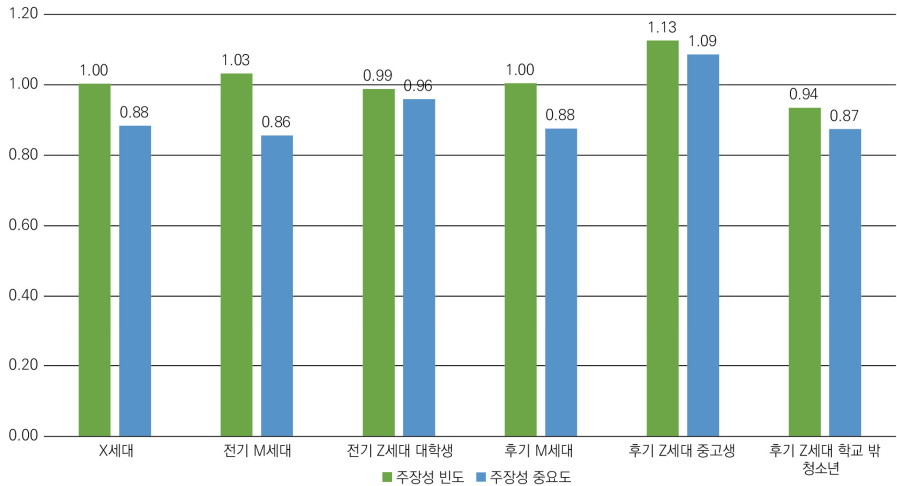


그림 III-9 주장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표 III-9 주장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주장성<br>수준(빈도)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 21.25*** | 5   | 5,264 | a>b,c,d,e,f         |
|               | 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     |       |                     |
|               | c.전기 Z세대 대학생      |          |     |       |                     |
| 주장성<br>중요도    | d.후기 M세대          | 45.78*** | 5   | 5,264 | a>b,c,d,e,f         |
|               | e.전기 M세대          |          |     |       |                     |
|               | f.X세대             |          |     |       |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p<.001

마지막으로 협동성 수준과 중요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1.53점, 1.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전기 M세대의 경우 협동성 수준 평균 1.43점,

중요도 평균 1.21점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협동성의 수준과 중요도에서 드러난 집단 간 차이 역시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III-10>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협동성 수준은 학생 청소년과 M세대의 협동성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중요도에서는 모든 집단의 점수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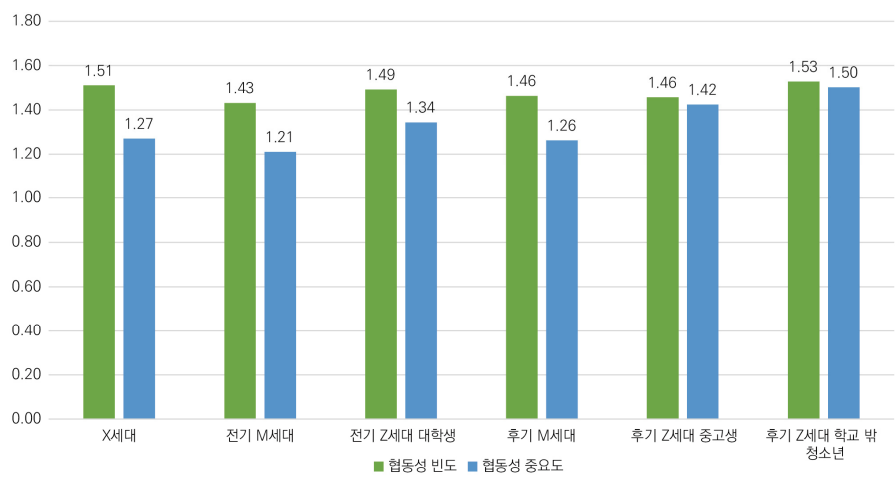


그림 III-10 협동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별 점수(단위: 점)

표 III-10 협동성 수준(빈도)과 중요도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협동성 수준(빈도)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 | 7.99***  | 5   | 5,264 | b)a,d,e             |
| 협동성 중요도    | 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54.39*** | 5   | 5,264 | b)a,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수준과 중요도 인식에 있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같은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경우도 협동성 수준과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주장성 수준은 매우 낮았다. 또한, 사회성 영역에 따라 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각 세대 집단의 평정 결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결과는 모든 세대 집단 공통으로 자기조절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또한 주장성 수준 역시 공감이나 협동성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영역 간 격차는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자기조절과 주장성의 함양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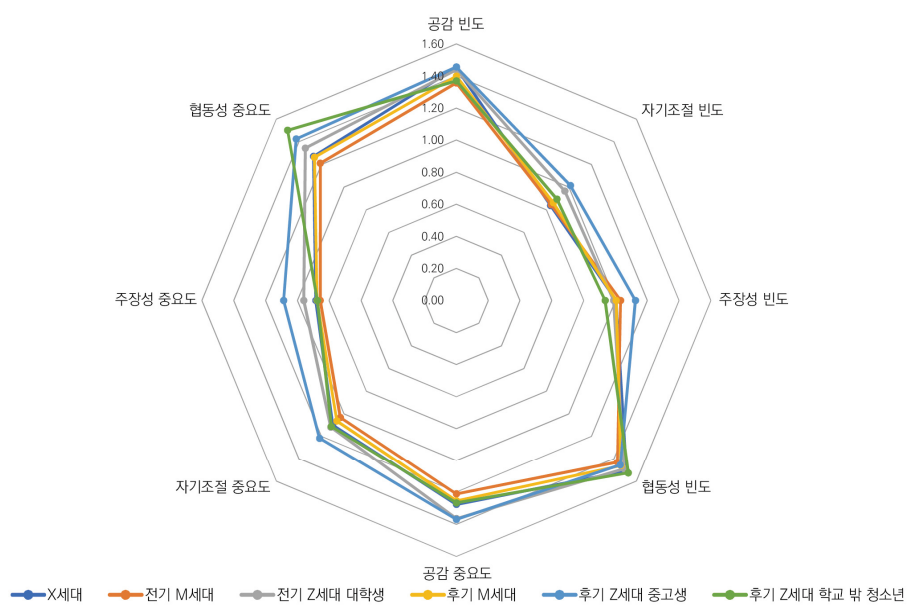


그림 Ⅲ-11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수준(빈도) 및 중요도 점수 종합  
(영역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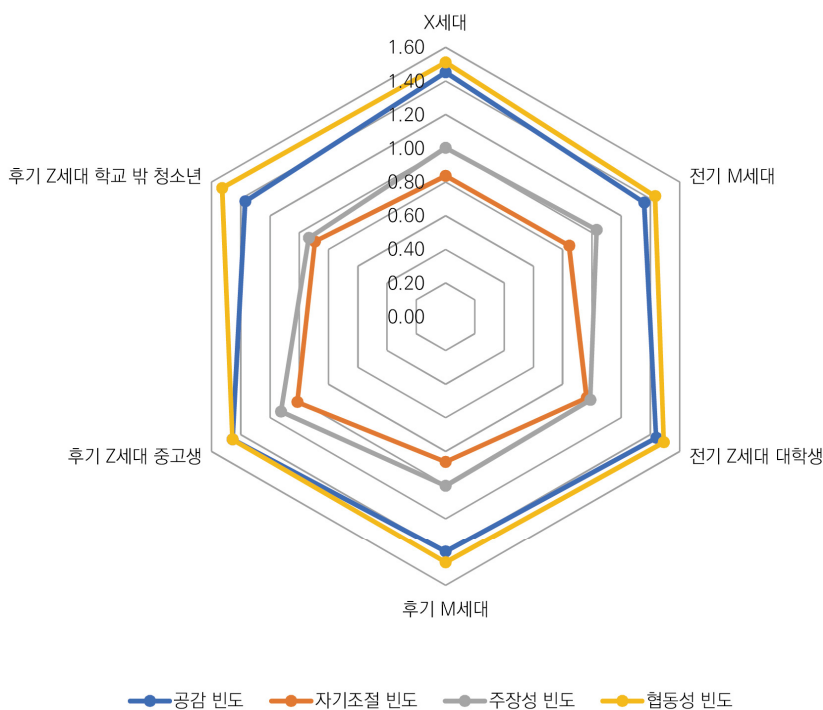


그림 Ⅲ-12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수준(빈도) 점수 종합  
(집단 기준, 단위: 점)

#### 나.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근면성 수준은 X세대의 평균이 1.3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후기 Z세대인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각각 평균 1.13점, 1.16점으로 근면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그림 Ⅲ-13】). 이러한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Ⅲ-11>의 사후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X세대의 근면성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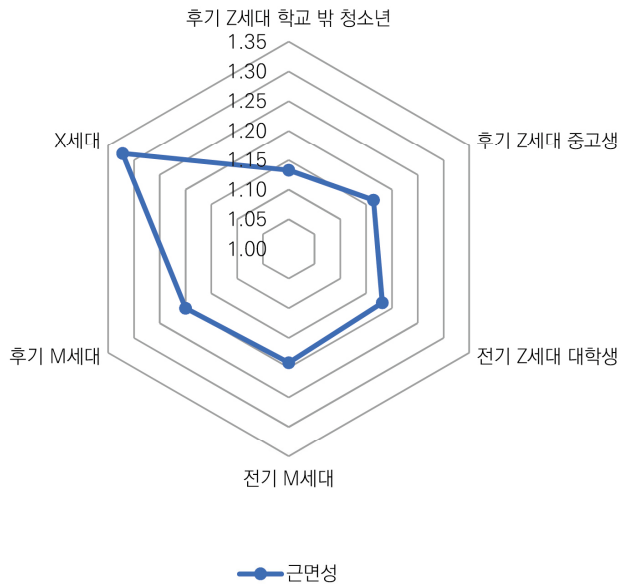


그림 Ⅲ-13 집단별 근면성 점수(단위: 점)

표 Ⅲ-11 근면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근면성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26.77*** | 5   | 5,264 | f)a,b,c,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준법성 영역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집단은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과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으로 두 집단 모두 평균 1.45점으로 유사한<sup>17)</sup>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전기 및 후기 M세대는 각각 1.33점, 1.36점을 기록하여 전체 세대 집단 중 준법성 수준이 가장

17)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표기값은 같으나 실제 대학생의 집단 평균이 근소하게 더 높음.

떨어졌다(【그림Ⅲ-14】).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준법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대학생 집단을 기준으로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Ⅲ-12>에 제시한 것처럼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M세대, 그리고 X세대와의 비교에서 대학생 집단의 준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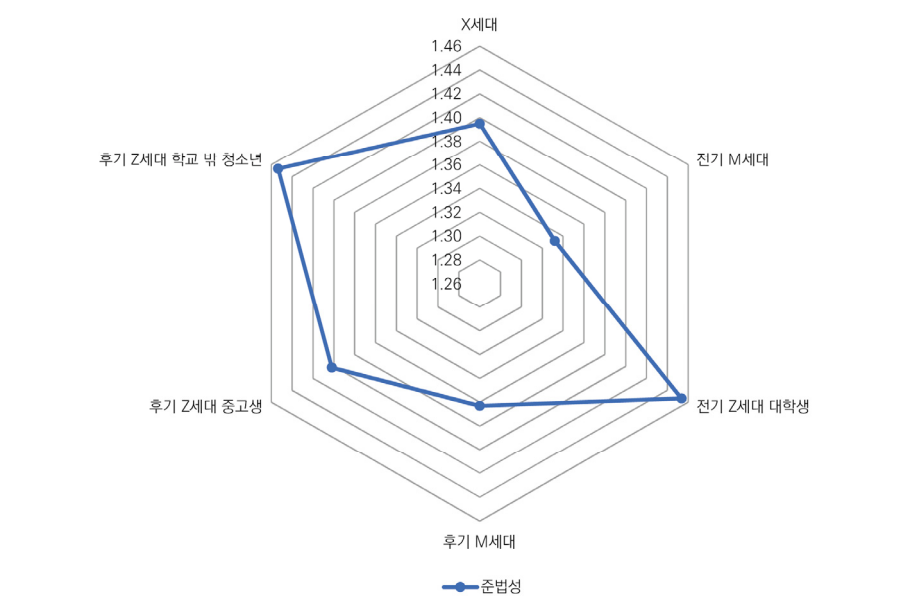


그림 Ⅲ-14 집단별 준법성 점수(단위: 점)

표 Ⅲ-12 준법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준법성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br>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8.79***  | 5   | 5,264 | c>a,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p*<.001

마지막으로 【그림 III-15】에서 제시한 것처럼 책임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집단은 평균 1.60점의 X세대였다. 반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이나 전기 Z세대 대학생의 경우 책임감 수준은 각각 1.26점, 1.34점으로 X세대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 청소년과 같은 후기 Z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평균 1.44점으로 다른 Z세대 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감 수준을 보여주었다. X세대와 여타 세대 간의 책임감 수준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근면성의 집단 비교 결과와 동일하여 근면성과 책임감 모두에서 X세대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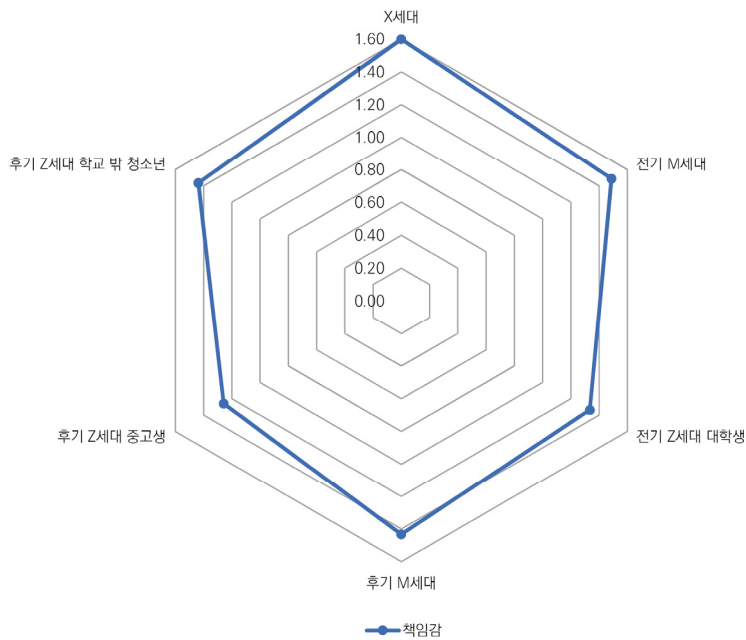


그림 III-15 집단별 책임감 점수(단위: 점)

표 III-13 책임감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책임감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86.23*** | 5   | 5,264 | f)a,b,c,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그림 III-16】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그래프로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중에서 근면성 수준이 전 세대 공통으로 가장 낮고, 준법성 수준에서는 Z세대가, 책임감 수준에서는 M, X세대가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 영역 중 근면성의 발달은 모든 세대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한 범세대적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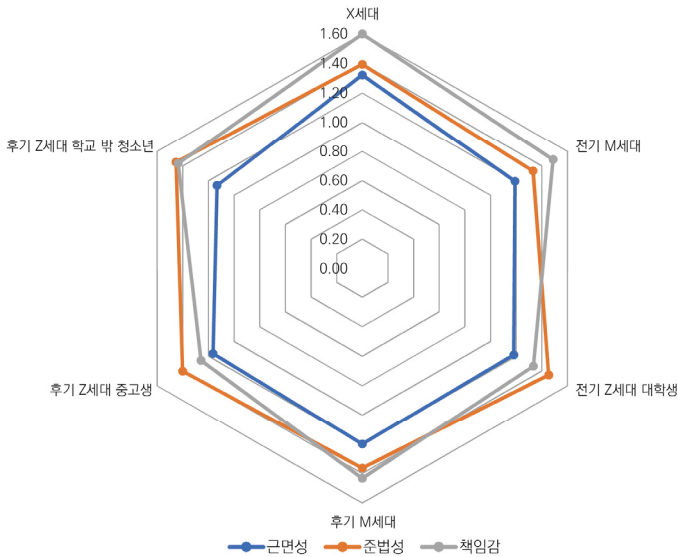


그림 III-16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점수 종합(집단 기준, 단위: 점)

#### 다.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안정성 수준은 【그림 III-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세대의 평균이 1.40점으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후기 M세대의 평균이 1.23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전기 M세대의 안정성 평균이 각각 1.25점, 1.28점으로 후기 M세대와 큰 격차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세대 간의 이러한 안정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 III-14〉) X세대의 안정성 수준은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안정성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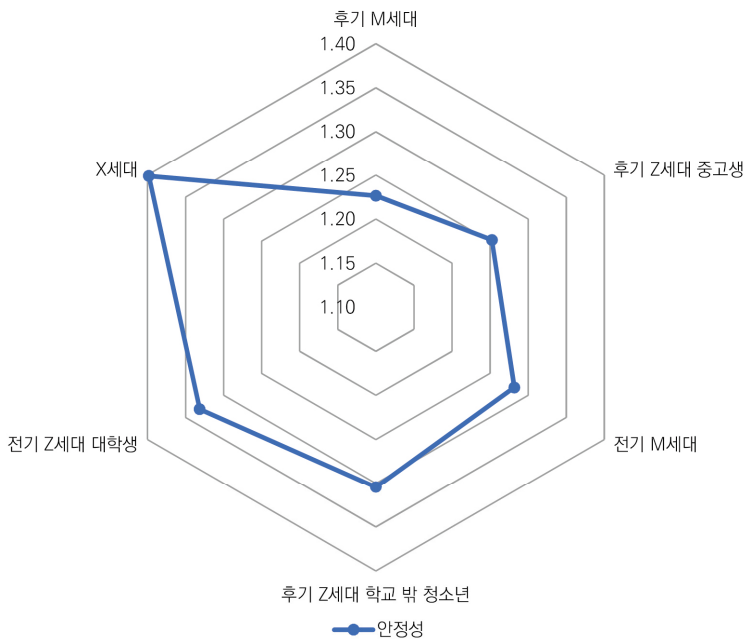


그림 III-17 집단별 안정성 점수(단위: 점)

표 III-14 안정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안정성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13.77*** | 5   | 5,264 | f)a,b,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자율성은 【그림 III-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세대가 평균 1.34점으로 가장 높았고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이 평균 1.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앞서 살펴본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X세대가 자율성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즉, 자율성 수준에서는 X세대와 전기 M세대 등 연령이 높은 두 세대 성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Z세대와 같이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학생 청소년 집단의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사후검정 결과를 통해 X세대의 자율성 점수는 전기 M세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표 I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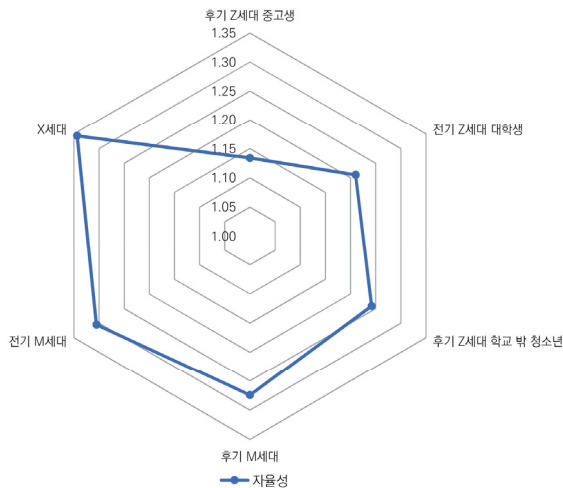


그림 III-18 집단별 자율성 점수(단위: 점)



표 III-15 자율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자율성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49.52*** | 5   | 5,264 | f)a,b,c,d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마지막으로 집단별 리더십 수준을 요약한 그래프는 【그림 III-19】와 같다. 모든 세대에서 리더십 점수가 1점을 넘지 못하였으나, 리더십 수준의 세대별 격차는 안정성이나 자율성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은 안정성과 자율성 점수 모두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더십에서는 평균 0.86점으로 모든 세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M, X세대는 물론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등 여타 세대 집단의 평균 점수는 모두 0.73점~0.75점 사이로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리더십 점수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표 III-16>에 제시하였듯이 이러한 집단 간 리더십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사후검정을 통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리더십 점수가 대학생들을 제외한 여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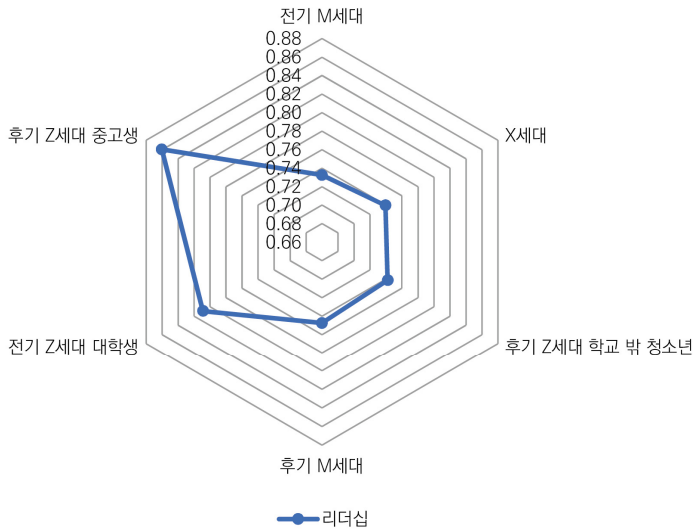


그림 III-19 집단별 리더십 점수(단위: 점)

표 III-16 리더십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리더십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11.23*** | 5   | 5,264 | a>b,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세대 집단 중 X세대는 안정성과 자율성 영역에서, 후기 Z세대는 리더십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 영역의 전반적 발달 수준을 비교하면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정성과 자율성의 발달 수준과 견줘 리더십 취약 문제가 모든 세대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 따라서 리더십 개선을 위한 범세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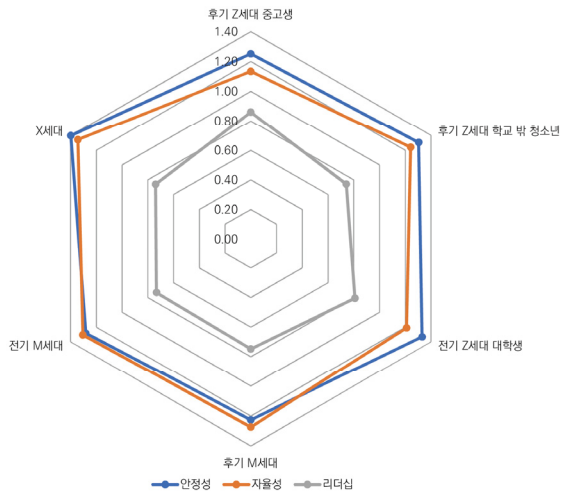


그림 Ⅲ-20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점수 종합(집단 기준, 단위: 점)

#### 라. 사교성

사교성은 【그림 Ⅲ-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세대가 평균 1.35점으로 전체 세대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기 Z세대 대학생이 평균 1.1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집단 간 사교성 차이는 <표 Ⅲ-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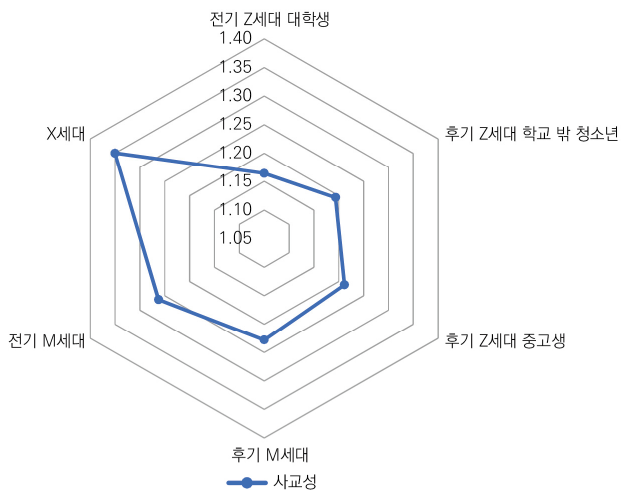


그림 Ⅲ-21 집단별 사교성 점수(단위: 점)

표 III-17 사교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사교성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19.04*** | 5   | 5,264 | f)a,b,c,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마.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그림 III-2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세대 집단 중 전기 Z세대 대학생과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점수는 각각 1.21점, 1.19점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떨어졌던 X세대와 전기 M세대의 1.05점, 1.06점을 상회하였다.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평균 1.1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추이는 세대가 어릴수록, 즉 M, X세대보다는 Z세대가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남을 시사한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의 세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사후검정을 통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은 같은 Z세대 청소년 집단과는 다르지 않지만 M, X세대보다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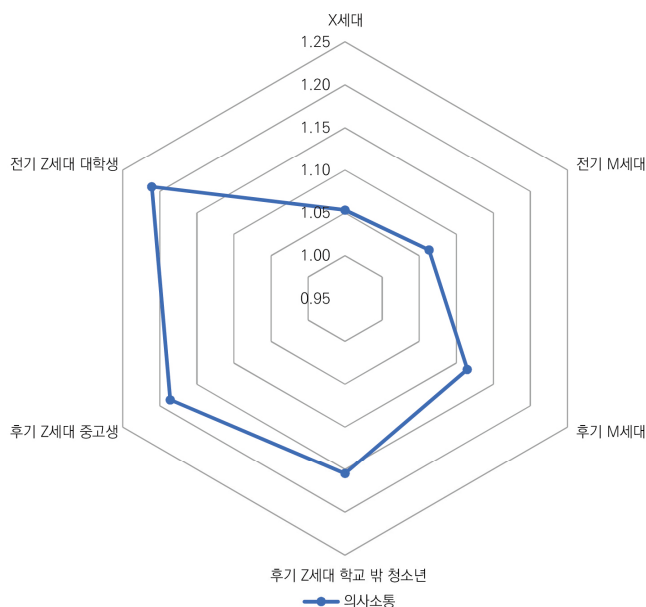


그림 III-22 집단별 의사소통 능력 점수(단위: 점)

표 III-18 의사소통 능력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의사소통 능력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br>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31.60*** | 5   | 5,264 | 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바. 대인관계

대인관계 점수는 X세대가 4점 만점에 평균 2.69점으로 전체 세대 집단 중 가장 높았고, Z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이 각각 2.42점, 2.43점으로 가장 낮았다(【그림

III-23)). 반면에, 같은 Z세대인 학생 청소년의 대인관계 점수는 평균 2.51점이었다. 일원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X세대와 나머지 세대 집단 간의 비교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게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X세대의 대인관계 수준이 다른 세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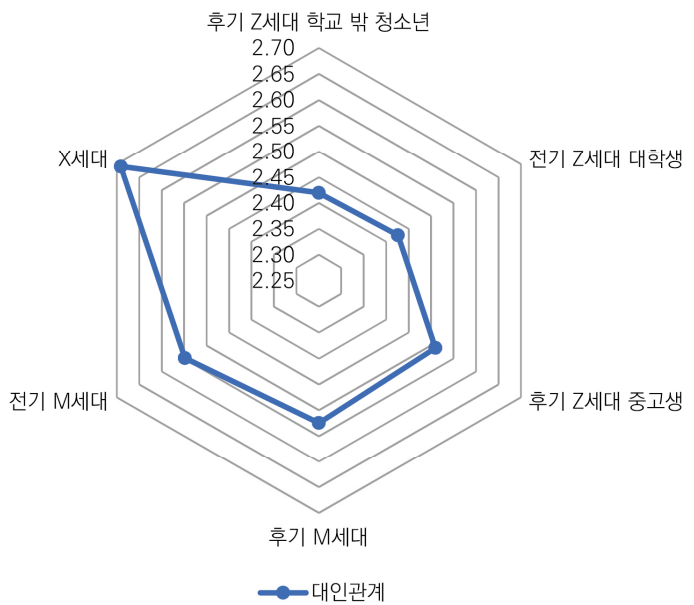


그림 III-23 집단별 대인관계 점수(단위: 점)

표 III-19 대인관계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대인관계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전기 Z세대 대학생<br>d.후기 M세대<br>e.전기 M세대<br>f.X세대 | 10.85*** | 5   | 5,264 | f)a,b,c,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p*<.001

### ⑤ 개인주의-집단주의

【그림 III-24】는 총 4개 유형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을 세대 집단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4개 유형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의 점수가 전 세대 공통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과 더불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경우는 수직적 집단주의의 성향도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집단과 개인 간의 위상에 대한 관점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 개인 간의 동등성을 강조한다(양순미, 2012:532).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Z, M, 그리고 X세대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공통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과 X세대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동시에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개인 간의 불평등한 위계 등도 인정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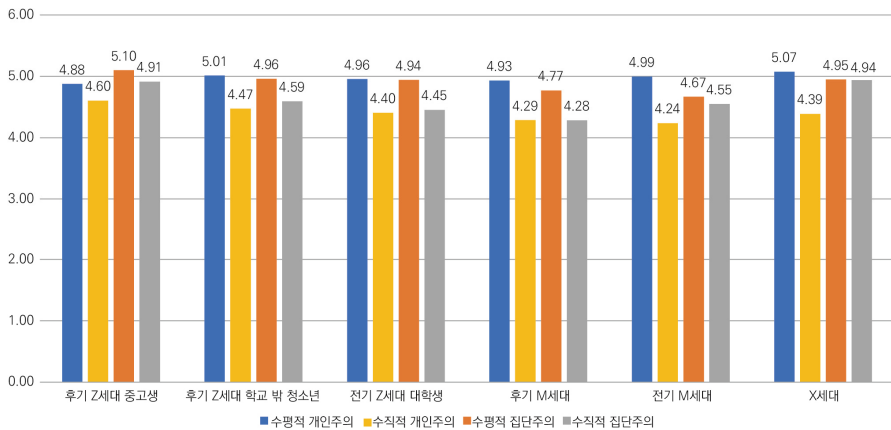


그림 III-24 집단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점수(단위: 점)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각 세대 집단의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정한 결과를 <표 III-20>에 요약하였다. 집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든 비교에서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X세대는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과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보다 수평적

개인주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에서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여타 세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였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집단주의에서는 X세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는 중고생 집단을 제외한 여타 세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높은 점수였다.

표 Ⅲ-20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수평적 개인주의 | a.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 6.01***  | 5   | 5,264 | f)a,d,e,f           |
| 수직적 개인주의 | b.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16.26*** | 5   | 5,264 | a)c,d,e,f           |
|          | c.전기 Z세대 대학생      |          |     |       |                     |
| 수평적 집단주의 | d.후기 M세대          | 20.09*** | 5   | 5,264 | a)c,d,e,f           |
| 수직적 집단주의 | e.전기 M세대          |          |     |       |                     |
|          | f.X세대             | 60.76*** | 5   | 5,264 | f)b,c,d,e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p<.001

### ⑥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

마지막으로 각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자 유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 참여 프로그램의 사회성 증진 도움 정도, 그리고 도움이 된 사회성 영역 등을 살펴보았다.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실태를 정리한 결과를 <표 Ⅲ-21>에 제시하였다<sup>18)</sup>. 먼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10.4%, 학교 밖 청소년 9.8%, 대학생 10%, 후기 M세대 17.5%, 전기 M세대 17.8%, X세대는 12.9%로 집계되었다. M세대의 미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8)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경험자는 2개 이상 다중 응답 선택 가능.



표 III-21 사회성 개발 관련 프로그램 참여 경험 실태(다중 응답, 단위: %)

| 구분                                           | 후기<br>Z세대<br>학생<br>청소년 | 후기<br>Z세대<br>학교 밖<br>청소년 | 전기<br>Z세대<br>대학생 | 후기<br>M세대 | 전기<br>M세대 | X세대  |
|----------------------------------------------|------------------------|--------------------------|------------------|-----------|-----------|------|
| 참여한 적 없음                                     | 10.4                   | 9.8                      | 10.0             | 17.5      | 17.8      | 12.9 |
| (참여 유경험 응답자가) 참여한 프로그램                       |                        |                          |                  |           |           |      |
| 동아리 활동(교내·외, 사내·외)                           | 93.8                   | 51.5                     | 77.6             | 42.9      | 47.6      | 53.9 |
| 예체능 활동(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등)                      | 54.2                   | 42.5                     | 32.6             | 37.4      | 35.8      | 42.3 |
| 자기 계발 활동(외국어, 독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 33.0                   | 37.8                     | 33.8             | 39.3      | 38.2      | 42.2 |
|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캠프)                            | 29.6                   | 40.0                     | 23.5             | 30.0      | 33.2      | 39.1 |
| 각종 봉사 활동                                     | 36.8                   | 33.0                     | 47.5             | 30.8      | 31.8      | 33.2 |
| 사내 교육(신입 사원 교육, 각종 사내 연수 등)                  | -                      | -                        | -                | 27.1      | 28.6      | 30.9 |
|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br>(자격증 과정, 직장 체험, 인턴십 등)   | 27.0                   | 43.5                     | 22.1             | 25.0      | 22.0      | 24.6 |
| 각종 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노조,<br>각종 위원회, 꿈드림청소년단 등) | 43.5                   | 35.3                     | 34.5             | 16.4      | 16.8      | 22.0 |
| 상담(1:1, 집단 등)                                | 27.4                   | 51.0                     | 24.8             | 18.5      | 14.8      | 10.6 |
|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                                 | 5.2                    | 4.8                      | 4.0              | 5.4       | 3.6       | 6.5  |
| 기타                                           | 0.9                    | 1.3                      | 0.8              | 0.4       | 0.6       | 0.5  |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청소년 집단에서 참여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93.8%가 참여 경험이 있었고, 예체능 활동(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등)이 54.2%, 교내·외에서의 다양한 자치 활동이 43.5%, 각종 봉사 활동이 36.8%, 자기 계발 활동(외국어, 독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33.0%,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캠프)이 29.6%, 상담(1:1, 집단 등)이 27.4%로 뒤를 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는 전체의 51.5%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상담(1:1, 집단 등)이 51.0%,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자격증 과정, 직장 체험, 인턴십 등)이 43.5%, 예체능 활동이 42.5%,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이 40.0%, 자기 계발 활동이 37.8%, 각종 자치 활동(꿈드림청소년단, 각종 위원회 등)이 35.3%, 각종 봉사 활동이 33.0%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이 77.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각종 봉사 활동이 47.5%, 각종

자치 활동(학생회, 각종 위원회 등)이 34.5%, 자기 계발 활동이 33.8%, 예체능 활동이 32.6%를 차지했다.

M세대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양상이 전기 M세대와 후기 M세대가 유사하였다. 동아리 활동이 후기 M세대 42.9%, 전기 M세대 47.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자기 계발 활동의 비율이 후기 39.3%, 전기 38.2%, 예체능 활동이 후기는 37.4%, 전기는 35.8%, 각종 봉사 활동이 후기는 30.8%, 전기는 31.8%, 그리고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이 후기는 30.0%, 전기는 33.2%, 사내 교육(신입 사원 교육, 각종 사내 연수 등) 참여 경험이 후기는 27.1%, 전기는 28.6%였다. 마지막으로 X세대의 경우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예체능 활동과 자기 계발 활동이 각각 42.3%와 42.2%,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이 39.1%, 각종 봉사 활동이 33.2%, 사내 교육이 30.9%를 차지했다. 모든 세대 집단 공통으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성 함양 경험이 가장 많았고,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가장 적었다.

표 III-22 참여 프로그램의 사회성 향상 기여 정도(단위: 점)

| 구분                                               | 후기<br>Z세대<br>학생<br>청소년 | 후기<br>Z세대<br>학교 밖<br>청소년 | 전기<br>Z세대<br>대학생 | 후기<br>M세대 | 전기<br>M세대 | X세대  |
|--------------------------------------------------|------------------------|--------------------------|------------------|-----------|-----------|------|
| 동아리 활동(교내·외, 사내·외)                               | 2.10                   | 2.26                     | 2.08             | 2.01      | 2.05      | 2.17 |
| 예체능 활동(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등)                          | 2.11                   | 2.26                     | 2.09             | 2.00      | 2.09      | 2.15 |
| 자기 계발 활동(외국어, 독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 2.11                   | 2.34                     | 2.04             | 1.96      | 2.05      | 2.11 |
|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캠프)                                | 2.12                   | 2.32                     | 2.07             | 2.01      | 2.04      | 2.15 |
| 각종 봉사 활동                                         | 2.08                   | 2.27                     | 2.07             | 2.00      | 2.07      | 2.16 |
| 사내 교육(신입 사원 교육, 각종 사내 연수 등)                      | -                      | -                        | -                | 1.98      | 2.07      | 2.09 |
|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br>(자격증 과정, 직장 체험, 인턴십 등)       | 2.11                   | 2.30                     | 2.14             | 1.97      | 2.09      | 2.14 |
| 각종 자치 활동<br>(학생회, 학급회, 노조, 각종 위원회,<br>꿈드림청소년단 등) | 2.18                   | 2.36                     | 2.12             | 1.96      | 2.05      | 2.17 |
| 상담(1:1, 집단 등)                                    | 2.08                   | 2.29                     | 2.08             | 1.97      | 2.01      | 2.10 |
|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                                     | 2.07                   | 2.34                     | 2.16             | 1.97      | 2.16      | 2.25 |

척도: 0=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2=약간 도움이 됨, 3=매우 도움이 됨

〈표 III-22〉는 참여 프로그램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프로그램 유형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먼저 학생 청소년 집단이 참여한 프로그램 중 사회성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은 학생회, 학급회, 각종 위원회 등 학교 안팎에서 참여했던 각종 자치 활동이었다(평균 2.18점). 반대로 가장 기여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였다(평균 2.07점). 학교 밖 청소년도 꿈드림청소년단 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의 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성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평균 2.36점),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 및 자기 계발 활동이 평균 2.34점,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이 평균 2.3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예체능 활동이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는 평균 2.26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이 자신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사회성 향상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가장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로 평균 2.16점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이 평균 2.14점, 교내·외에서의 각종 자치 활동이 평균 2.12점을 기록했다. 반대로 자기 계발 활동은 평균 2.04점으로 가장 기여도가 낮았다.

후기 M세대의 경우 사내·외에서의 동아리 활동과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이 평균 2.0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각종 봉사 활동, 사내 교육,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 등의 점수가 높았다. 사내·외에서의 각종 자치 활동과 자기 계발 활동이 평균 1.96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 간 점수 차이가 매우 근소하였다. 전기 M세대는 후기 M세대와 달리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의 효용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 뒤를 이어 예체능 활동과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각종 봉사 활동과 사내 교육 등이 각각 평균 2.09점과 2.07점을 기록했다. 사회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상담으로 평균 2.01점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X세대는 전기 M세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의 효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사내·외에서의 각종 동아리 활동 및 자치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응답 점수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사내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사회성 개선 기여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III-25】 참조). 이들 집단은 특히 센터 안팎에서의 자치 활동 경험이 사회성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다만, 모든 세대 집단 공통으로 사회성 개선 기여 정도의 프로그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후기 M세대를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기여도 평정 결과가 평균 2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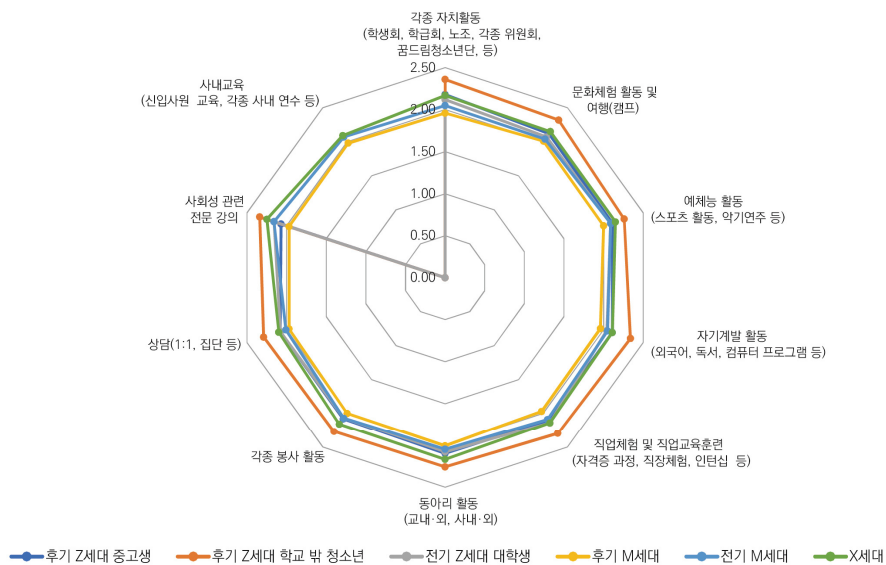


그림 Ⅲ-25 프로그램별 사회성 개선 기여 정도(단위: 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회성 중 어떤 영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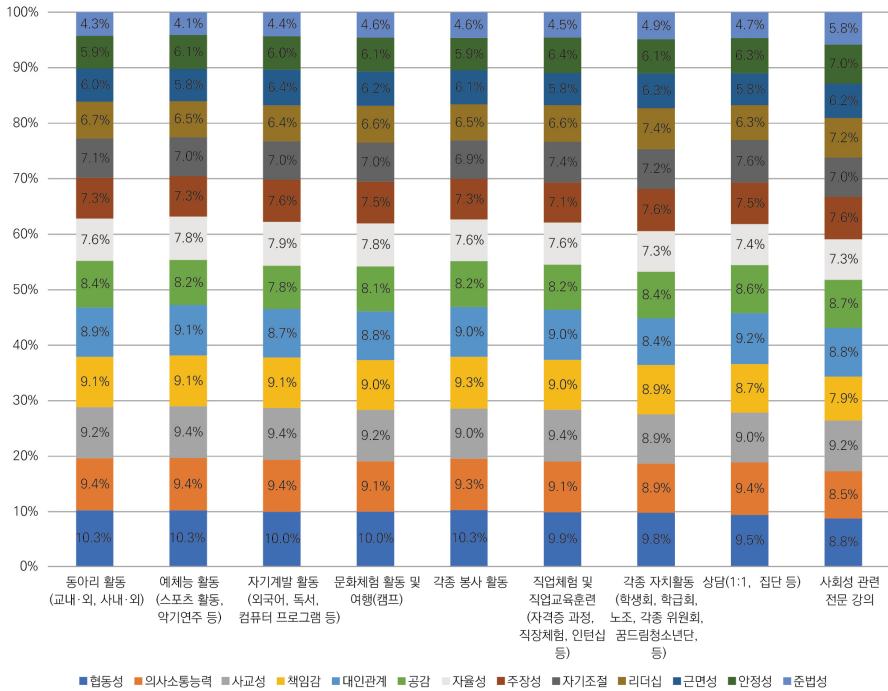


그림 III-26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후기 Z세대 중고생, 단위: %)

먼저, 학생 청소년의 응답 결과를 【그림 III-26】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 사회성 영역이 프로그램 간에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별 13개 영역의 선택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청소년 집단에게 특정 사회성 영역을 개선하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보다는 이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학생 청소년들의 사회성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 중 협동성, 의사소통 능력, 사교성, 책임감, 대인관계, 그리고 공감 영역의 점유율이 근소한 차이로 여타 영역의 점유율을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사회성 영역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 개선이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I-27】에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응답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중고생 집단의 응답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13개 영역 중 의사소통 능력, 협동성, 사교성, 대인관계, 책임감, 그리고 공감 등의 점유율이 다른 영역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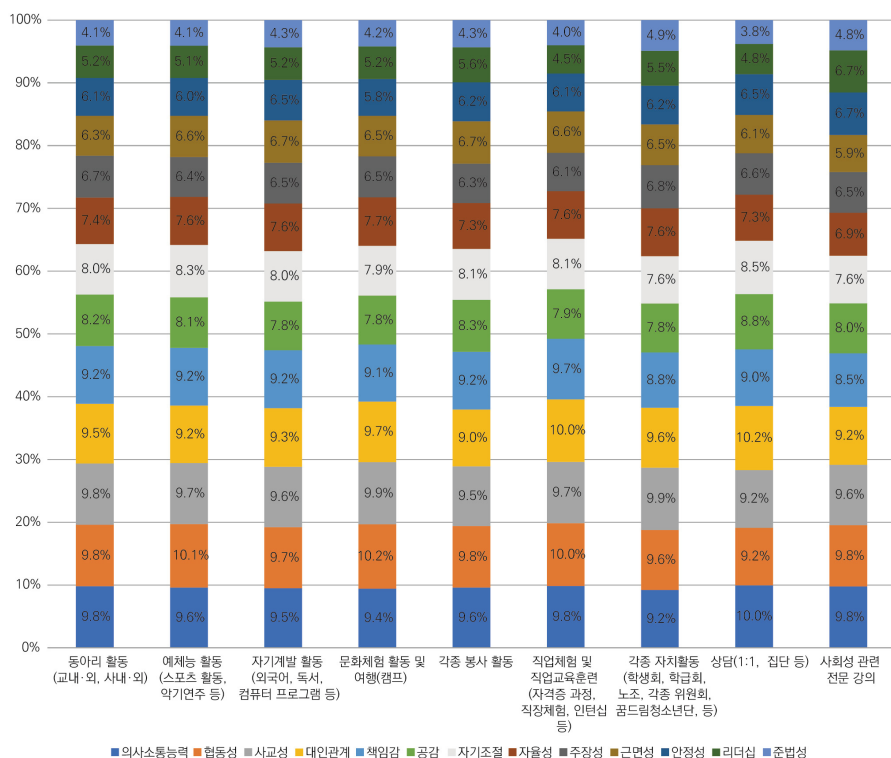


그림 III-27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단위: %)

【그림 III-28】은 대학생의 응답 결과로 전체 13개 영역 중 협동성, 책임감, 대인관계,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공감 등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그림 III-29】에 제시한 후기 M세대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 결과로 전체 13개 영역 중 협동성, 사교성, 대인관계, 공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책임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전기 M세대의 경우도 13개 영역 중 사교성, 대인관계, 협동성, 공감,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책임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그림 III-30】). 마지막으로 X세대는 대인관계, 협동성, 공감,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책임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I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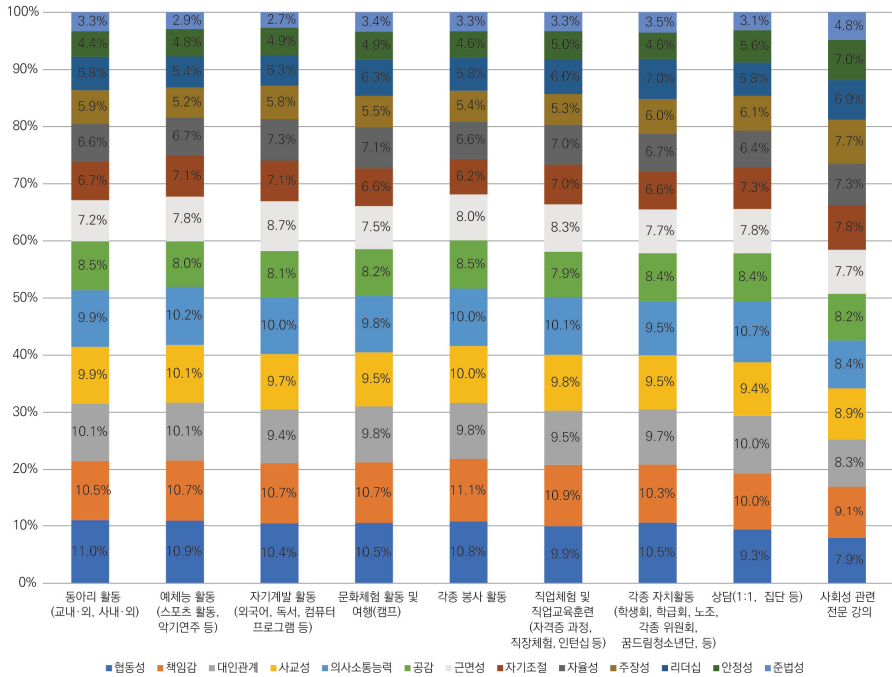


그림 III-28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전기 Z세대 대학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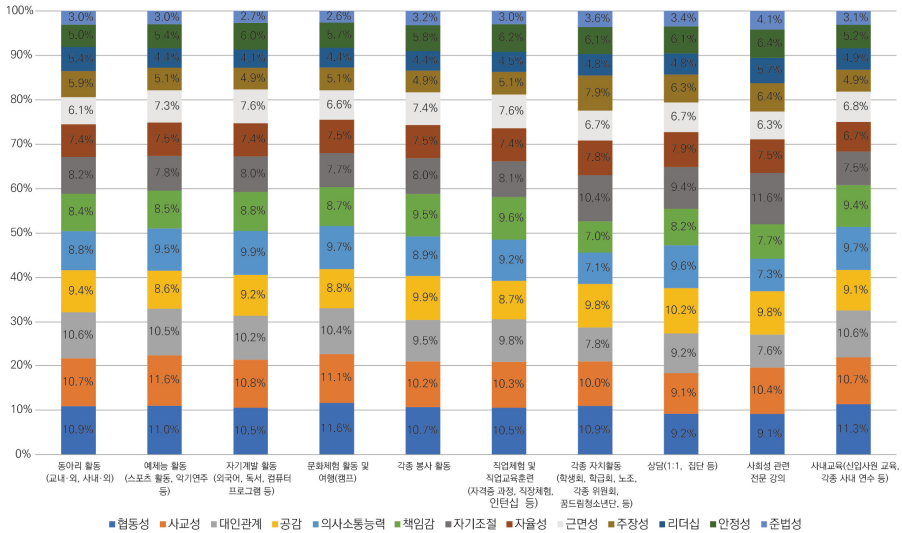


그림 III-29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후기 M세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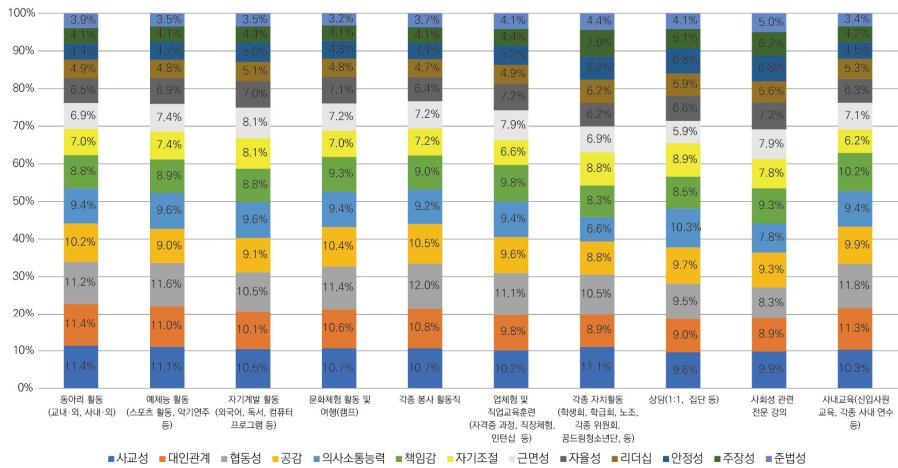


그림 III-30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된 사회성 영역(전기 M세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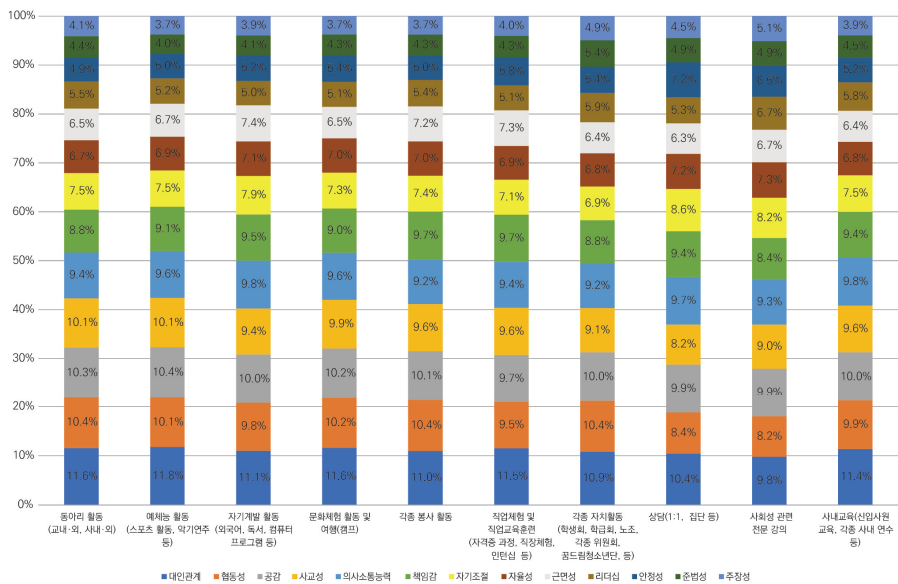


그림 III-31 프로그램별 사회성 개선 효과 영역(X세대, 단위: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세대 집단이나 프로그램 유형과 상관없이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는 대인관계, 협동성, 공감,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책임감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 영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즉 특정 사회성 영역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구분되지 않았다.

## 2. 상호작용

### ① 사회적 관계망 크기<sup>19)</sup>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수,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모두 합산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2】에 제시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청소년 집단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평균 13.5명,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11.4명,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9.1명이었다. 같은 후기 Z세대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전기 Z세대인 대학생 집단은 학생 청소년 집단보다는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작았으나, M세대와 X세대보다는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생 청소년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여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Z세대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생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 역시 M, X세대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Z세대의 사회성 부족, 특히 대인관계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Z세대가 일상에서 M세대나 X세대보다 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사람의 실제 숫자(원자료)로 앞의 변수 설명에서 소개된 5점 척도(0 = 전혀 없다, 1 = 1명, 2 = 2명, 3 = 3~4명, 4 = 5~8명, 5 = 9명 이상)가 아님.

20) 예외적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 M세대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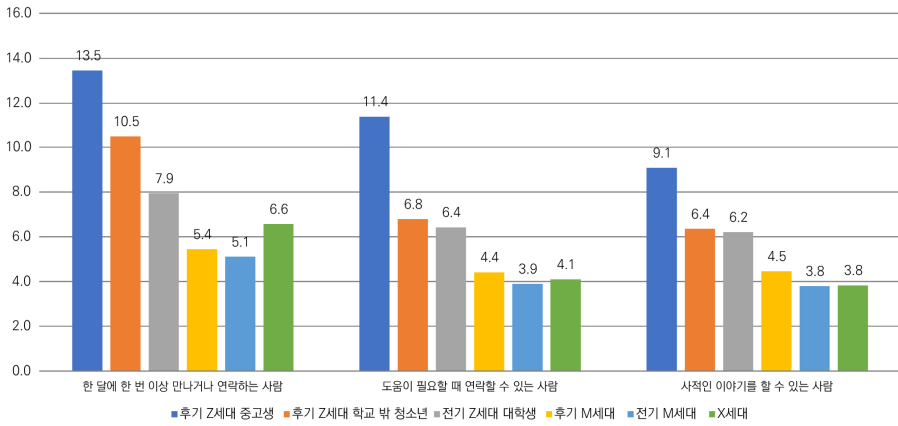


그림 III-32 집단별 사회적 관계망 크기(단위: 명)

표 III-23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 t/F      | df1 | df2   |                     |
| 사회적<br>관계망 |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47.77*** | 5   | 5,264 | a>b,c,d,e,f         |
|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 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             | 59.54*** | 5   | 5,264 | a>b,c,d,e,f         |
|            |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e. 전기 M세대<br>f. X세대                    | 36.20*** | 5   | 5,264 | a>b,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② 온라인 상호작용

### 가. 빈도, 중요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그림 III-33】은 각 세대가 하루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타인과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는 빈도를 정리한 결과이다.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2.87점으로 가장 높고 X세대의 평균이 2.30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Z세대가 M세대보다, M세대는 X세대보다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높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일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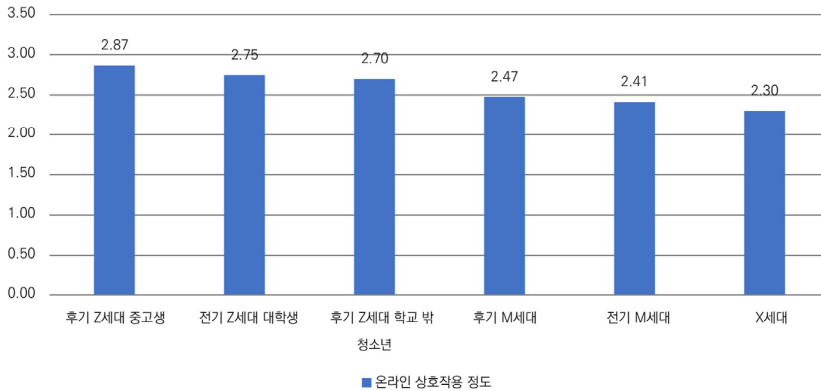


그림 III-33 집단별 온라인 상호작용 빈도(단위: 점)

주. 1 = 매우 조금 한다, 2 = 조금 하는 편이다, 3 = 많이 하는 편이다, 4 = 매우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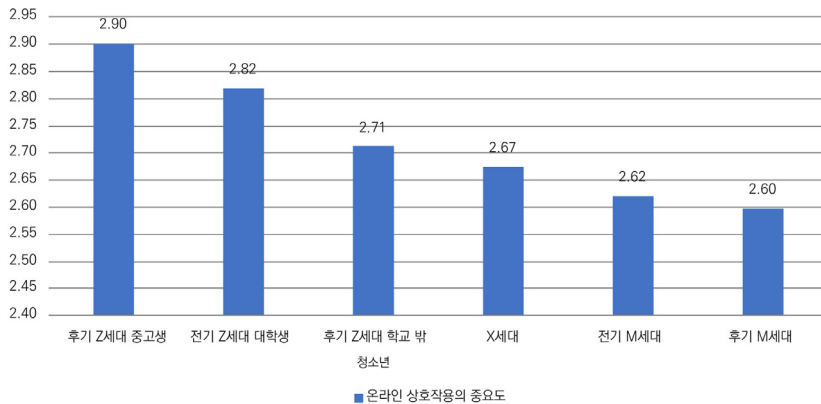


그림 III-34 집단별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단위: 점)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3 = 중요한 편이다, 4 =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상호작용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Z세대의 긍정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그림 III-34】에 제시된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이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2.82점, 2.7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Z세대 대비 M, X세대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는데 앞서 살펴본 빈도 통계와 다른 점은 X세대가 평가한 온라인 상호작용 중요도 점수가 M세대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은 세대

일수록, 즉 X세대, 전기 M세대, 후기 M세대, 전기 Z세대 대학생의 순서로 차이를 크게 인식하였다【그림 III-35】. 그러나 응답 결과를 아래 그래프와 같이 이분형 변수로 처리해서 보면 모든 세대 집단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이 같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집단 간 인식 차이의 통계적 유의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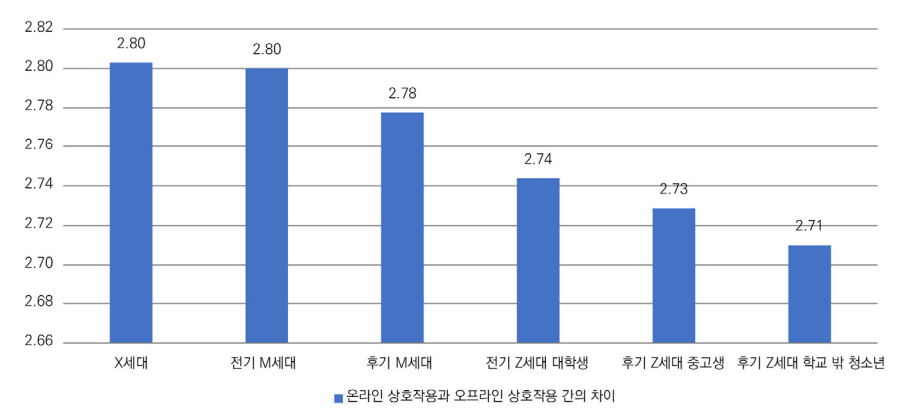


그림 III-35 집단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단위: 점)

주. 1 = 전혀 차이가 없다, 2 = 차이가 없는 편이다, 3 = 차이가 있는 편이다, 4 = 매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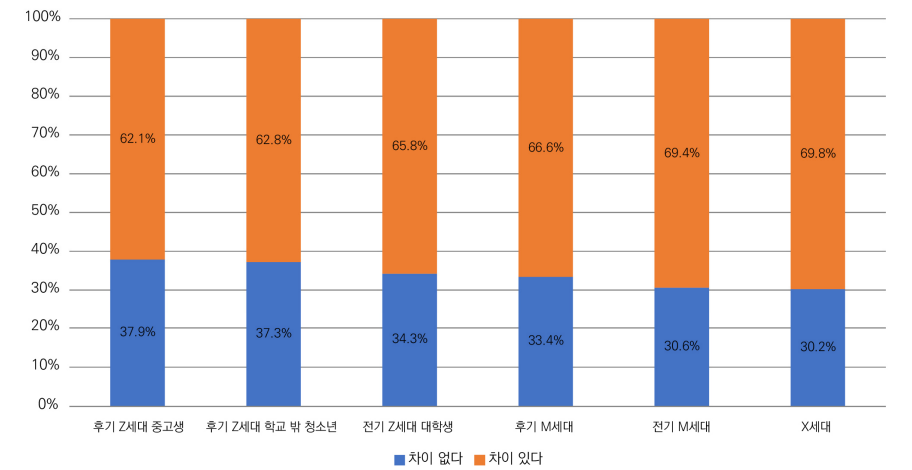


그림 III-36 집단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유무(단위: %)

주. 차이 없다 = 전혀 차이가 없다 + 차이가 없는 편이다, 차이 있다 = 차이가 있는 편이다 + 매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중요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모두 확인됐다<sup>21)</sup>.

**표 III-24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 중요도,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 등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빈도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64.20*** | 5   | 5,264 | a>b,d,e,f           |
| 중요도                | 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             | 25.39*** | 5   | 5,264 | a>b,d,e,f           |
| 오프라인 상호<br>작용과의 차이 | e. 전기 M세대<br>f. X세대                    | 2.25*    | 5   | 5,264 | /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5$ , \*\*\* $p < .001$

#### 나. 온라인 상호작용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사회적 현존감(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는 느낌)을 체감하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그림 III-37】에 제시하였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이 온라인에서 체감하는 사회적 현존감의 수준은 평균 2.9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X세대, Z세대 대학생,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순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떨어졌으며, 후기 M세대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각 집단이 체감하는 현존감의 평균이 모두 3점(보통이다)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사실상 모든 세대 집단이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오프라인에 준하는 사회적 현존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온라인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 다르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1) 다만, 오프라인 상호작용과의 차이에 대한 각 세대 집단의 인식을 사후검정으로 다중 비교했을 때는 어떤 비교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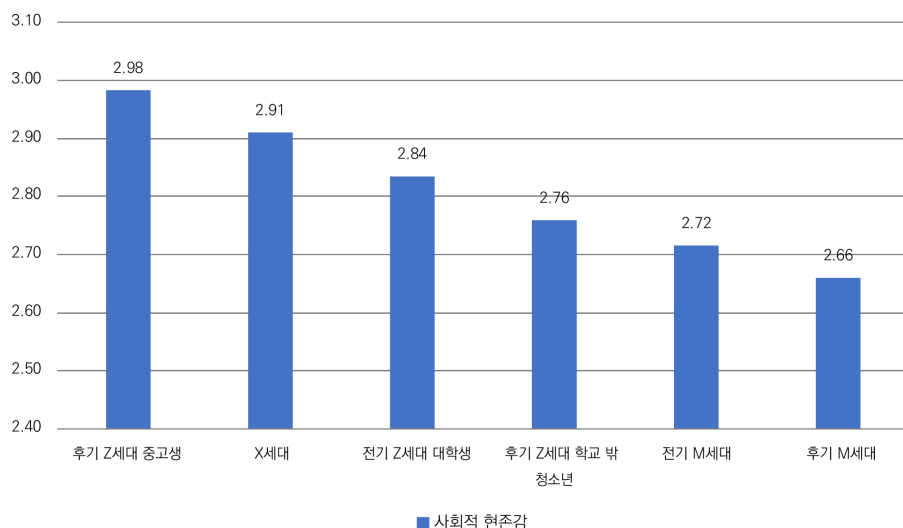


그림 III-37 집단별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6 = 매우 그렇다

다만, <표 III-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점수는 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고,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학생 청소년 집단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현존감은 X세대와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25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이에게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 | a. 후기 Z세대 중고생<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8.45***  | 5   | 5,264 | a>b,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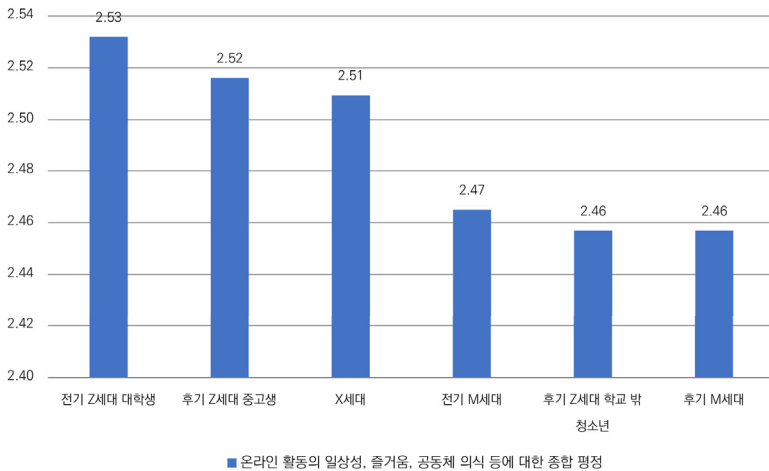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다.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이 평균 2.53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X세대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다만, 각 집단별 평균이 모두 보통 수준(2점)만 상회하고 있을 뿐 긍정적 수준(3점)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수준, 인터넷을 통한 대화 및 정보 공유의 편안함과 즐거움, 다른 유저와의 공동체 의식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각 세대의 인식은 중도적이며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집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F(5, 5,264)=1.70, p=.131$ ).



**그림 III-38 집단별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 보통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렇다

#### 라. 온라인 교류자본과 오프라인 교류자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을 세대별로 비교 정리하여 【그림 III-39】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의 교류자본 수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단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 역시 모두 보통 수준(2점)을 조금 상회하고 있을 뿐 3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 결과를 보고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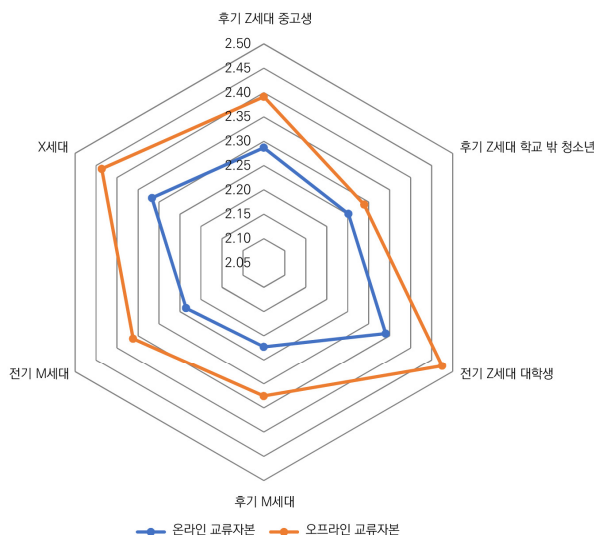


그림 Ⅲ-39 집단별 온·오프라인 교류자본(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 보통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매우 그렇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집단 공통으로 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이 온라인 교류자본 수준을 앞서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교류자본이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교류자본에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실제 세대별로 두 교류자본 간의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했을 때도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여타 세대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표 Ⅲ-26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한 집단별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 비교

| 구분                         | 집단              | 평균차이 | t       | df    |
|----------------------------|-----------------|------|---------|-------|
| 오프라인 교류자본<br>-<br>온라인 교류자본 |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 .10  | 6.33*** | 1,470 |
|                            |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04  | .92     | 399   |
|                            | 전기 Z세대 대학생      | .13  | 5.37*** | 799   |
|                            | 후기 M세대          | .10  | 4.16*** | 799   |
|                            | 전기 M세대          | .13  | 4.10*** | 499   |
|                            | X세대             | .12  | 6.81*** | 1,299 |

\*\*\* $p < .001$



### 3. 학교/직장 생활

#### ① 학업 성적/업무 성과 및 만족도

대표적인 사회적 기관인 학교와 직장에서 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전기 Z세대 대학생의 학업 성적과 학업 성적 만족도를, M세대와 X세대의 업무 성과와 업무 성과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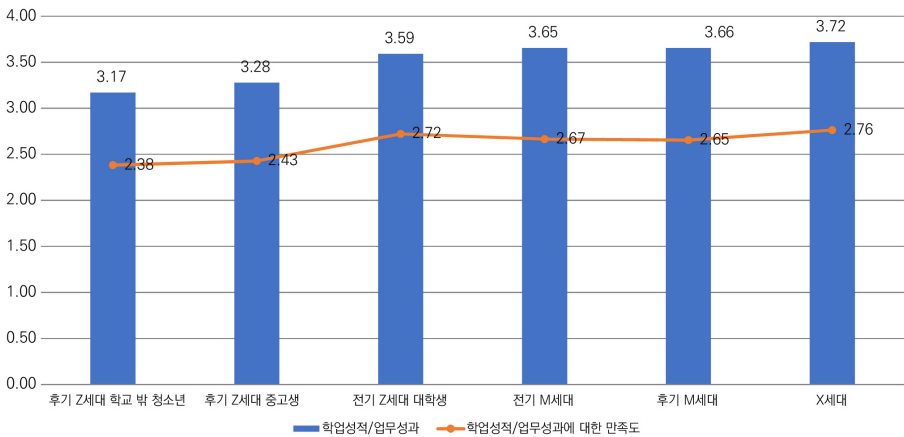


그림 III-40 학업 성적/업무 성과 수준 및 이에 대한 만족도(단위: 점)

주. 학업 성적/업무 성과: 1 = 매우 못하는 수준, 3 = 중간, 5 = 매우 잘하는 수준

만족도: 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 만족하는 편이다, 4 = 매우 만족한다

【그림 III-40】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자의 학업 성적 및 업무 성과에 대한 응답 점수는 모든 집단이 3점 이상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학업 성적/업무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 3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 ② 학교/직장 문화

학교 문화는 Z세대를 대상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수준을, 직장 문화는 M세대와 X세대를 대상으로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그림 III-41】에 그래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Z세대가 응답한 민주적 학교 문화 수준은 대학생 집단이 응답한 결과가 평균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순이었다. 모든 집단에서 평균 응답 점수가 4점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Z세대가 현재 재학 중인 또는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에서 경험한 학교의 민주적 문화 수준은 보통(3점) 이상의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M, X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은 X세대가 평균 3.67점으로 평균 3.40점의 M세대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후기 M세대, 전기 M세대, X세대의 점수가 모두 평균 3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대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관계 지향적 문화를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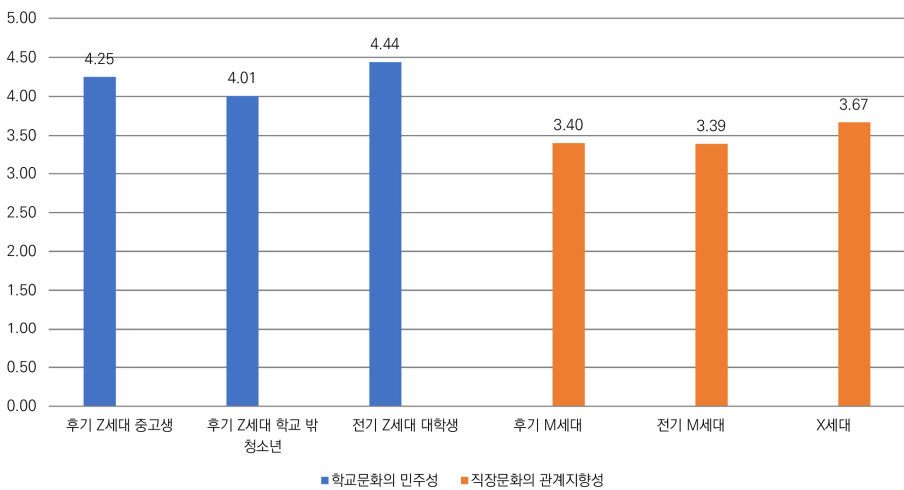


그림 III-41 학교 문화의 민주성과 직장 문화의 관계 지향성 평정 결과(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3 = 보통, 6 = 매우 그렇다

### ③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림 III-42】에 제시한 것처럼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2.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생 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 청소년과 달리 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은 모두 만족(2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또는 과거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M, X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생활 만족도는 평균 점수가 모든 집단에서 만족(2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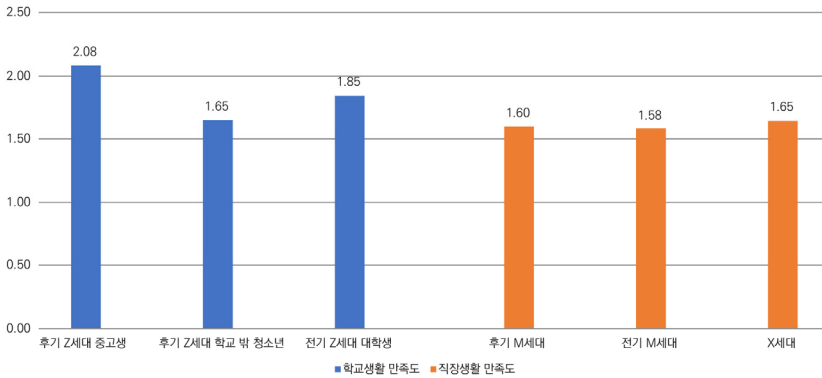


그림 III-42 집단별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단위: 점)

주. 0 = 매우 불만족, 1 = 불만족, 2 = 만족, 3 = 매우 만족

#### 4. 심리적 안녕

#####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평균 1.67점으로 가장 낮았고, X세대와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그림 III-43)). 비록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일원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에서 알 수 있듯이 X세대의 자아존중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후기 M세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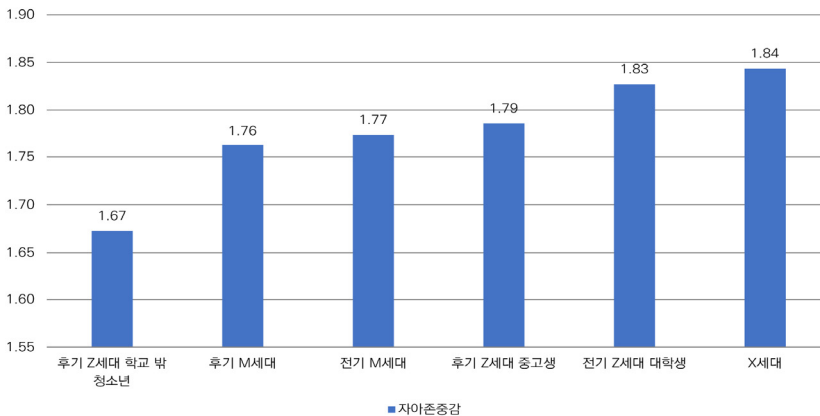


그림 III-43 집단별 자아존중감(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 그런 편이다, 3 = 매우 그렇다

표 III-27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자아존중감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6.84***  | 5   | 5,264 | f)/b,d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②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그림 III-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의 평균이 각각 2점과 1.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타 집단의 평균은 유사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록 근소한 집단 차이지만 집단별 자아효능감의 평균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8>의 사후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자아효능감 수준은 대학생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의 자아효능감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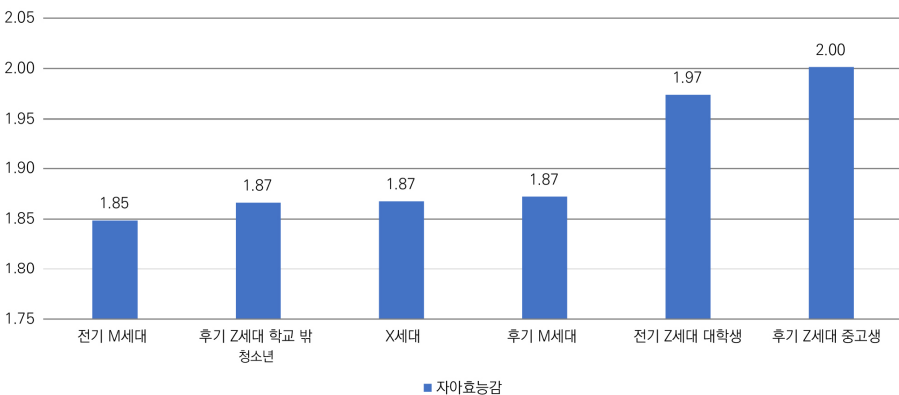


그림 III-44 집단별 자아효능감(단위: 점)

주. 0 = 전혀 아님, 1 = 거의 아님, 2 = 대체로 그러함, 3 = 매우 그러함

표 III-28 자아효능감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자아효능감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16.84*** | 5   | 5,264 | a)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③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문항 합산값이 5~9점이면 삶에 대해 매우 불만족, 10~14점이면 불만족, 15~19점이면 약간 불만족, 20점이면 중립, 21~25점이면 약간 만족, 26~30점이면 만족, 그리고 31~35점이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임남연 외, 2010).

【그림 III-45】에 제시한 그래프는 삶의 만족도 문항 합산값의 집단별 평균을 보여준다.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2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같은 세대의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이 19.98점으로 가장 낮았다. 척도 사용법에 따르면 평균 21점 이상을 기록한 Z세대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은 자신의 삶에 대해 약간 만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집단은 모두 중립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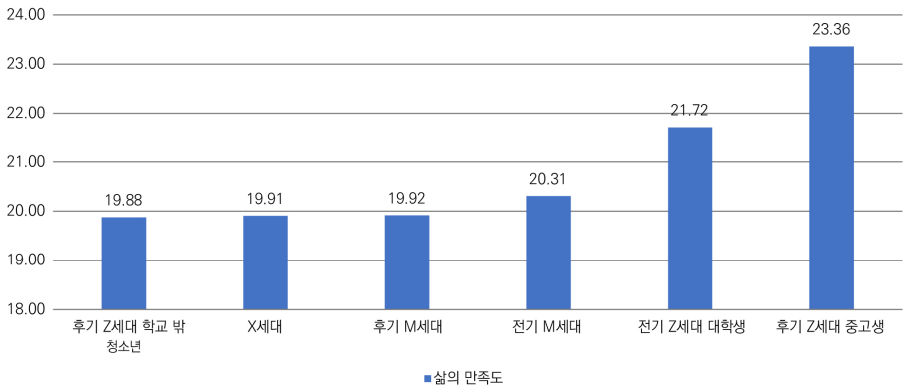


그림 III-45 삶의 만족도 평정 결과(단위: 점)

【그림 III-46】의 그래프는 삶의 만족도 수준을 불만족, 중립, 만족의 3단계로 구분했을 때, 각 세대 집단 내에서 각 수준의 응답자 비율을 정리한 결과이다.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다른 세대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만족 응답자 비율이 60% 혹은 그 이상에 달하고 M, X세대에서는 만족 응답자 비율이 50%를 조금 상회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만족 응답자 비율이 48.5%로 만족 응답자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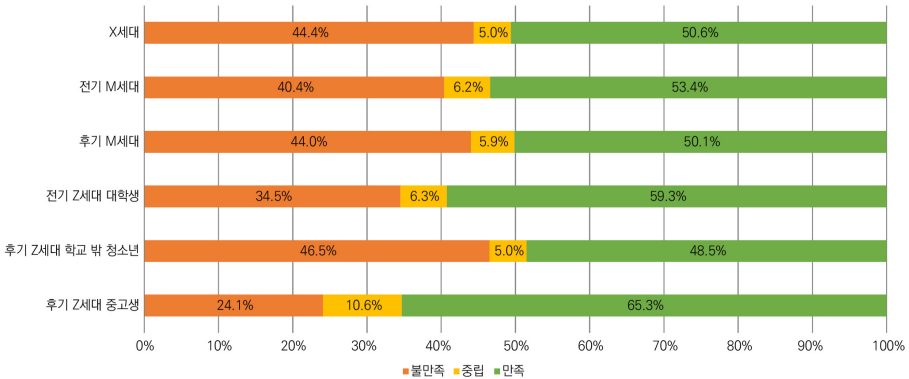


그림 III-46 삶의 만족도 수준별 분포 현황(단위: %)

주.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약간 불만족, 만족 = 약간 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표 III-29〉는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평균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생 청소년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여타 세대 집단의 삶의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삶의 만족도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삶의 만족도 | a.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52.29*** | 5   | 5,264 | a>b,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종합하면 학생 청소년 집단은 여타 세대 집단과 견줘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삶에 대한 이들의 만족 정도가 상대적 수준과 절대적 수준 모두에서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 ④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그림 III-4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균이 2.1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Z세대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학생이 그 뒤를 이었으며, M세대의 가족건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III-3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경우에도 세대 집단별 가족건강성 수준은 유의하게 달랐다. 특히 학생 청소년 집단의 가족건강성 점수는 여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학생 청소년 집단의 가족건강성은 여타 세대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준에서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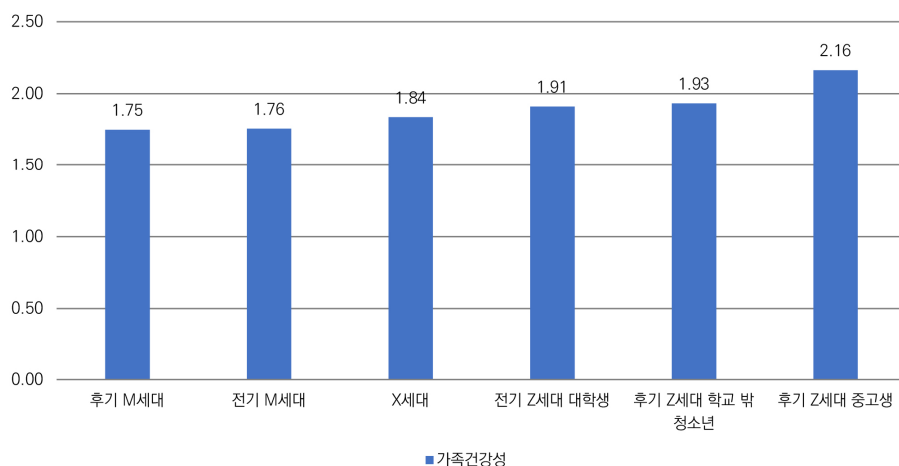


그림 III-47 가족건강성(단위: 점)

주. 0 = 전혀 그렇지 않다, 1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 그런 편이다, 3 = 매우 그렇다

표 III-30 가족건강성의 집단 간 비교

| 구분    | 집단                                                                                       | t/F-test |     |       | 사후검정 <sup>1,2</sup> |
|-------|------------------------------------------------------------------------------------------|----------|-----|-------|---------------------|
|       |                                                                                          | t/F      | df1 | df2   |                     |
| 가족건강성 | a. 후기 Z세대 중고생<br>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br>c. 전기 Z세대 대학생<br>d. 후기 M세대<br>e. 전기 M세대<br>f. X세대 | 87.57*** | 5   | 5,264 | a>b,c,d,e,f         |

주1. 등분산 가정 성립 시 Bonferroni 검정을, 등분산 가정 위배 시 Games-Howell 검정을 사용

주2. 최고 평균 집단을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결과만 제시

\*\*\* $p < .001$

## 5. 결론과 시사점

### ① 사회성

현재의 사회성 발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X세대와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코로나-19 전후로 자신의 사회성에 생긴 변화 정도를 평가했을 때 사회성 전반은 물론 사회성을 구성하는



13개 하위 요인 대부분에서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평정 결과가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평정 척도를 이용해 각 사회성 영역의 발달 수준을 실측했을 때 학생 청소년 집단은 자기조절, 주장성, 의사소통, 리더십, 공감 등의 영역에서 여타 세대 집단을 상회하고 있었다(【그림 III-48】 참조).

다만, 그래프에 사용된 T점수는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점수 분포로 변환시킨 환산 점수이므로 T점수가 50점에 못 미쳤다는 것은 해당 영역의 발달 수준이 전체 세대 집단의 평균을 밑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I-31>은 평균에 못 미치는 사회성 영역을 세대로 색인한 결과로 Z세대의 경우 공통적으로 근면성, 대인관계, 그리고 자율성이, M세대에서는 주장성, 근면성, 공감, 리더십, 자기조절, 안정성, 의사소통, 준법성, 그리고 협동성이, X세대에서는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의사소통, 그리고 준법성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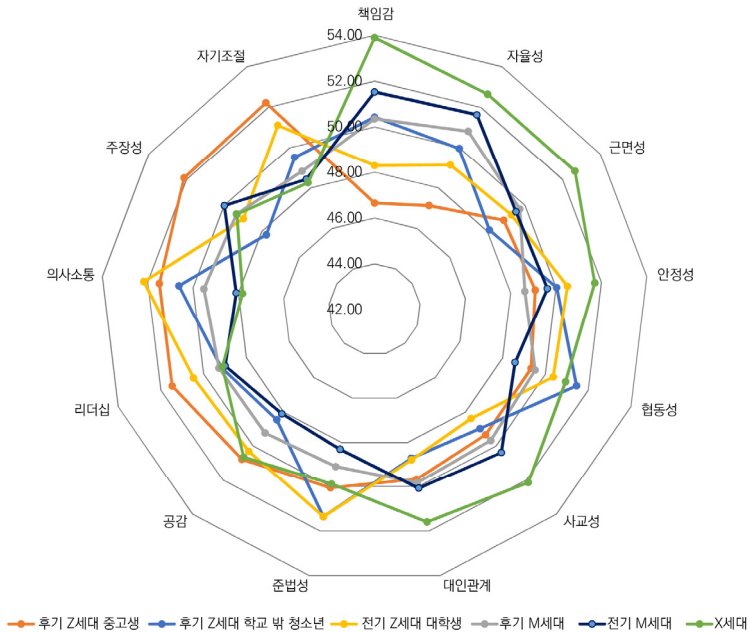


그림 III-48 집단별 사회성 발달 수준 평정 결과 종합(단위: T점수)

- 주1. 13개 사회성 영역이 모두 동일한 척도로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평정 결과를 T점수로 표준화시킴.
- 주2.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그리고 협동성의 T점수는 빈도에 대한 평정 결과를 변환함.

표 III-31 T점수 기준 평균(50점)에 못 미치는 사회성 영역의 세대별 구분 결과

| 구분  |             | 주장성 | 근면성 | 공감 | 대인<br>관계 | 사교성 | 리더십 | 자기<br>조절 | 지율성 | 안정성 | 책임감 | 의사<br>소통 | 준법성 | 협동성 |
|-----|-------------|-----|-----|----|----------|-----|-----|----------|-----|-----|-----|----------|-----|-----|
| Z세대 | 중고생         |     |     |    |          |     |     |          |     |     |     |          |     |     |
|     | 학교 밖<br>청소년 |     |     |    |          |     |     |          |     |     |     |          |     |     |
|     | 대학생         |     |     |    |          |     |     |          |     |     |     |          |     |     |
| M세대 | 후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X세대 |             |     |     |    |          |     |     |          |     |     |     |          |     |     |

다만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평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에는 발달 수준의 문제 유무를 구분하는 절단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점수는 해당 사회성 영역의 발달 수준에서 각 세대 집단이 점유하는 상대적 위치를 보여줄 뿐이며 평균 미만의 점수가 곧 문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에 색인된 평균 미만의 사회성 영역을 결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각 세대 집단의 균형 잡힌 사회성 함양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대 집단의 전반적인 점수 분포 양상을 보면 Z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은 M, X세대와 차이를 보여 준다<sup>22)</sup>. 특히 세대 간 차이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III-49】의 그래프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오름차순 방식으로 정렬한 결과이다. 추세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그래프가 역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대 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한 두 집단의 상반된 사회성 발달 양상을 보여주며, 사회성의 속성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 환경과 세대의 속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 같은 Z세대 안에서도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발달 양상은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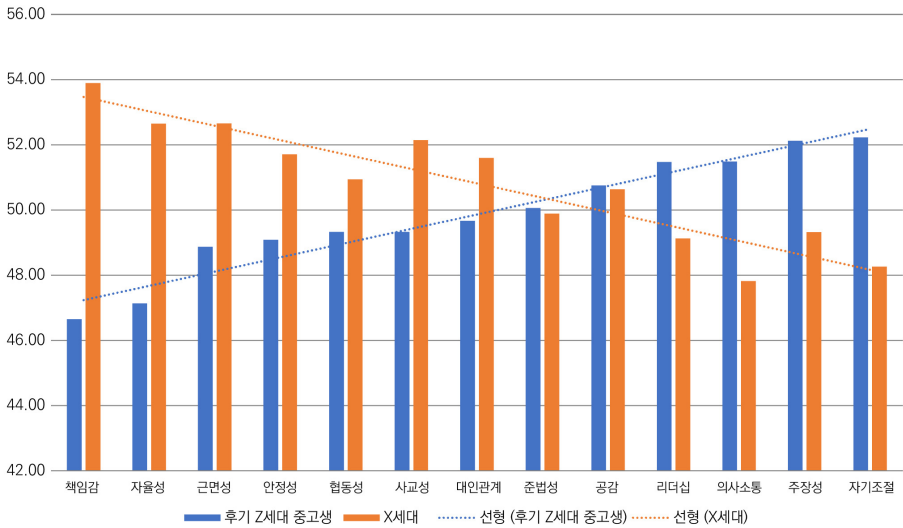


그림 III-49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사회성 발달 양상 비교(단위: T점수)

다음으로 각 세대 집단의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의 점수가 모든 집단 공통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는 집단과 개인 간의 위상에 대한 관점만 다를 뿐 개인의 자율성, 개인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공유하는데 이는 Z, M, 그리고 X세대 공통으로 평등한 인간관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경우 다른 집단과 전취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선호 못지않게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개인 간의 불평등한 위계도 인정하는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러한 이중적 성향이 중고생 집단과 X세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여타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추가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뜻 제로섬(ZERO-SUM) 관계처럼 보이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269)=.27^{***23)}$ ]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관련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10.4%, 학교 밖 청소년의 9.8%, 대학생의 10%, 후기 M세대와 전기 M세대의 17.5%,

23) \*\*\* $p<.001$

17.8%, 그리고 X세대의 12.9%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세대 집단 중 M세대의 미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참여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모든 세대 집단 공통으로 동아리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회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프로그램으로는 학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경우 각종 자치 활동으로, 대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로, 후기 M세대에서는 사내·외 동아리 활동과 문화 체험 활동 및 여행(캠핑)으로, 그리고 전기 M세대와 X세대에서는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로 확인됐다. 다만, 여타 프로그램의 사회성 개선 기여도에 대한 평정 결과 역시 모두 평균 2점(약간 도움이 됨) 이상으로 집계됐으므로 사실상 이들이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사회성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선 효과는 프로그램 유형에 상관없이 사회성 전반에 걸쳐 구현돼 사회성의 세부 영역에 따라 차별(특화)된 개선 효과를 갖는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았다.

## ②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관한 Z, M, 그리고 X세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Z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였다. 이들은 M, X세대와 비교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은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람들을 적어도 2배 이상<sup>24)</sup>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Z세대 안에서도 학생 청소년의 관계망 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크게 상회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Z세대는 M, X세대와 비교해 일상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자신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M세대는 온라인 상호작용의 일상 중요도를 X세대보다 낮게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분명 사용 빈도에서는 M세대가 X세대를 앞지르지만 이들의 일상에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X세대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의존성과 온라인 상호작용의 일상성은 Z세대의 주요한

24) Z세대의 최댓값과 M, X세대의 최솟값을 비교한 비율

특징으로 확인됐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Z세대 역시 다른 세대 집단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호작용보다는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교류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첨단 디지털 기술과 문화를 가장 능숙하게 다루고 향유하는 Z세대지만 이들 역시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을 주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교류자본을 발달시켜 왔으며 온라인은 오프라인 상호작용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교류자본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③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와 직장에 대한 각 세대 집단의 인식과 만족도와 관련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여타 세대 집단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불만족이 재학 또는 근무 중인 학교와 직장의 비민주적 문화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Z세대 응답자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과거 재학했던 학교의 민주적 문화 정도에 대해 모두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M, X세대 응답자 역시 현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에 대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 ④ 심리적 안녕

마지막으로 각 세대 집단의 심리적 안녕 상태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Z세대의 심리적 안녕 상태가 M, X세대보다 좋았다는 점이다. 자존감, 자아효능감,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가족건강성 등의 지표를 놓고 볼 때 Z세대, 특히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의 평정 결과는 M, X세대의 평정 결과보다 높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같은 Z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 집단만 대부분의 평가 지표<sup>25)</sup>에서 가장 취약한 심리적 안녕 상태를 보였을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성 결핍 등 코로나-19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와 관련 담론이 유독 Z세대 청소년에게 쏠리는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 (2)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심화 분석

사회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각 세대 집단의

---

25) 가족건강성을 제외한 여타 평가 지표에 해당함.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학교 및 직장 생활, 심리적 안녕 등과 같은 변인들과 사회성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은 세대별로 사회성의 13개 하위 요인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하여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라인 교류자본, 오프라인 교류자본, 학교/직장 문화,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가족건강성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표 III-32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 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 소통 능력 | 대인 관계    |
|----------------|----------|----------|----------|----------|----------|----------|---------|----------|----------|----------|---------|----------|----------|
|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 수평적 개인주의       | .06*     | .06*     | -.05*    | .15***   | .09***   | .09***   | -.01    | -.01     | .39***   | .09**    | -.04    | .11***   | .03      |
| 수직적 개인주의       | .04      | -.04     | -.07**   | -.13***  | -.02     | -.03     | -.11*** | -.23***  | -.17***  | .13***   | -.10*** | .01      | -.10***  |
| 수평적 집단주의       | .20***   | .02      | .33***   | .07*     | .08*     | .10**    | .07*    | .05      | .02      | .13***   | .21***  | .27***   | .23***   |
| 수직적 집단주의       | -.10**   | .12***   | .05      | .01      | .02      | .02      | .02     | .02      | -.11***  | -.13***  | -.07*   | .03      | -.09**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6***   | .03      | .09***   | .00      | .04      | -.04     | .02     | .03      | .05*     | .12***   | .12***  | .11***   | .15***   |
| 사회적 현존감        | .04      | -.03     | -.02     | .07*     | .00      | .02      | -.08**  | .00      | -.06*    | .10***   | -.03    | .03      | -.07*    |
| 온라인 활동 긍정      | -.09**   | -.09*    | -.06*    | -.12***  | -.13***  | -.07*    | -.05    | .00      | -.05     | -.10**   | .00     | -.13***  | .05      |
| 온라인 교류자본       | .10**    | .01      | .07      | .05      | .07      | -.03     | -.09*   | -.14***  | -.05     | .10**    | -.07    | .12***   | -.12**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04      | .01      | .05      | -.01     | -.02     | .03      | .03     | .03      | -.03     | .03      | .06     | .05      | .08*     |
| 학교/직장 문화       | -.10***  | .11***   | .04      | .07*     | .00      | .15***   | .12***  | .09**    | .08**    | -.11***  | .00     | -.04     | -.01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04      | .15***   | .05      | .03      | .14***   | .14***   | -.05    | .02      | -.02     | .05      | -.03    | .04      | .00      |
| 자아존중감          | .04      | -.01     | -.04     | -.16***  | -.10***  | -.03     | .09**   | .31***   | .15***   | -.07*    | .29***  | -.01     | .28***   |
| 자아효능감          | .19***   | .13***   | .13***   | .12***   | .30***   | .16***   | .05     | .05      | .18***   | .28***   | .10**   | .22***   | .11***   |
| 삶의 만족도         | .09**    | -.05     | -.02     | .12***   | .05      | -.09**   | -.16*** | -.10**   | -.13***  | .07*     | -.11**  | -.02     | -.16***  |
| 가족건강성          | .00      | .11***   | .11***   | .10**    | .10***   | .12***   | .05     | .04      | -.03     | .02      | -.02    | .10***   | .06*     |
| R <sup>2</sup> | .277     | .211     | .314     | .188     | .292     | .245     | .118    | .217     | .268     | .270     | .204    | .395     | .244     |
| F              | 32.36*** | 22.86*** | 38.83*** | 17.01*** | 34.59*** | 26.31*** | 7.72*** | 23.82*** | 31.82*** | 31.90*** | 2.47*** | 57.20*** | 28.12*** |

주. 통제변수: 성별,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학교급, 학년, 권역

\*p<.05, \*\*p<.01, \*\*\*p<.001

먼저 주장성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0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20^{***}$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0^{**}$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6^{***}$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9^{**}$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0^{**}$ ), 학교/직장 문화( $\beta=-.10^{***}$ ), 자아효능감( $\beta=.19^{***}$ ), 삶의 만족도( $\beta=.0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27.7%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2^{***}$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9^*$ ), 학교/직장 문화( $\beta=.11^{***}$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5^{***}$ ), 자아효능감( $\beta=.13^{***}$ ), 가족건강성( $\beta=.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21.1%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5^*$ ), 수직적 개인주의( $\beta=-.07^{**}$ ), 수평적 집단주의( $\beta=.33^{***}$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09^{***}$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6^*$ ), 자아효능감( $\beta=.13^{***}$ ), 가족건강성( $\beta=.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31.4%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15^{***}$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3^{***}$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7^*$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07^*$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2^{***}$ ), 학교/직장 문화( $\beta=.07^*$ ), 자아효능감( $\beta=.12^{***}$ ), 삶의 만족도( $\beta=.12^{***}$ ), 가족건강성( $\beta=.1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18.8%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8^*$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3^{***}$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4^{***}$ ), 자아존중감( $\beta=-.10^{***}$ ), 자아효능감( $\beta=.30^{***}$ ), 가족건강성( $\beta=.1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근면성을 29.2%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0^{**}$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7^*$ ), 학교/직장 문화( $\beta=.15^{***}$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4^{***}$ ), 자아효능감( $\beta=.16^{***}$ ), 삶의 만족도( $\beta=-.09^{**}$ ), 가족건강성( $\beta=.1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준법성을 24.5%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11^{***}$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7^*$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08^{**}$ ), 온라인 교류자본( $\beta=-.09^*$ ), 학교/직장 문화( $\beta=.12^{***}$ ), 자아존중감( $\beta=.09^{**}$ ), 삶의 만족도( $\beta=-.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어 이 변수들은 책임감을 11.8%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23^{***}$ ), 온라인 교류자본( $\beta = -.14^{***}$ ), 학교/직장 문화( $\beta = .09^{**}$ ), 자아존중감( $\beta = .31^{***}$ ), 삶의 만족도( $\beta = -.1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21.7%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39^{***}$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7^{***}$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1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05^{*}$ ), 온라인 현존감( $\beta = -.06^{*}$ ), 학교/직장 문화( $\beta = .08^{**}$ ), 자아존중감( $\beta = .15^{**}$ ), 자아효능감( $\beta = .18^{***}$ ), 삶의 만족도( $\beta = -.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26.8%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09^{**}$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3^{***}$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13^{***}$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13^{***}$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2^{***}$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10^{***}$ ), 온라인 활동( $\beta = -.01^{**}$ ), 온라인 교류자본( $\beta = .01^{**}$ ), 학교/직장 문화( $\beta = -.11^{***}$ ), 자아존중감( $\beta = -.07^{*}$ ), 자아효능감( $\beta = .28^{***}$ ), 삶의 만족도( $\beta = .0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27.0%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0^{***}$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21^{***}$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7^{*}$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2^{***}$ ), 자아존중감( $\beta = .29^{***}$ ), 자아효능감( $\beta = .10^{**}$ ), 삶의 만족도( $\beta = -.1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20.4%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11^{***}$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27^{***}$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1^{***}$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3^{***}$ ), 온라인 교류자본( $\beta = .12^{**}$ ), 자아효능감( $\beta = .22^{***}$ ), 가족건강성( $\beta = .1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39.5%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0^{***}$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23^{***}$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9^{**}$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5^{***}$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07^{*}$ ), 온라인 교류자본( $\beta = .08^{*}$ ), 자아존중감( $\beta = .28^{***}$ ), 자아효능감( $\beta = .11^{***}$ ), 삶의 만족도( $\beta = -.16^{***}$ ), 가족건강성( $\beta = .0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회성의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를 24.4% 설명하였다.

## 2.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집단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



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3>과 같다.

표 III-33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수평적 개인주의       | -.07     | .04     | -.09     | -.05     | .05     | .11     | .05      | .36***   | -.07     | .01      | .08            | .01      |
| 수직적 개인주의       | .16***   | .01     | -.01     | -.13*    | .00     | -.16**  | -.22***  | .01      | .29***   | -.01     | .05            | -.02     |
| 수평적 집단주의       | .18***   | .16**   | .38***   | -.02     | .24***  | .07     | .08      | .05      | .16**    | .16**    | .29***         | .16***   |
| 수직적 집단주의       | -.14**   | .02     | .00      | .05      | .01     | -.06    | .01      | -.21***  | -.12*    | -.11*    | -.06           | -.16***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9***   | -.10    | .14**    | -.02     | -.07    | -.02    | .03      | .08      | .20***   | .12*     | .13**          | .15***   |
| 사회적 현존감        | .02      | -.09    | .00      | -.04     | .03     | -.10    | .00      | .00      | .00      | -.02     | .05            | .02      |
| 온라인 활동 긍정      | .01      | .08     | .12*     | .01      | .01     | -.06    | -.04     | -.01     | -.03     | .02      | .02            | .08      |
| 온라인 교류자본       | -.05     | -.14    | -.04     | -.03     | .03     | .01     | -.15*    | -.06     | .09      | -.14*    | .00            | -.19***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18***   | .09     | .13*     | .03      | .05     | -.08    | -.02     | .02      | .06      | .00      | .10*           | .10      |
| 학교/직장 문화       | -.10     | .30***  | .11*     | .06      | .11     | .12     | .12*     | .00      | -.03     | .08      | .05            | .03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06      | -.19**  | -.08     | .02      | -.01    | -.04    | -.03     | -.02     | .00      | -.01     | .00            | .05      |
| 자아존중감          | .13*     | -.02    | -.08     | -.18*    | -.05    | .01     | .40***   | .14*     | .00      | .44***   | -.08           | .30***   |
| 자아효능감          | .28***   | .09     | .10      | .27***   | .06     | .08     | .02      | .31***   | .36***   | .19**    | .27***         | .32***   |
| 삶의 만족도         | -.01     | -.02    | -.01     | .28***   | .01     | -.10    | -.03     | -.20**   | -.04     | -.16**   | -.07           | -.12*    |
| 가족건강성          | -.04     | .15*    | .04      | .07      | .07     | .01     | -.02     | -.01     | .03      | -.06     | .16**          | .00      |
| R <sup>2</sup> | .352     | .209    | .351     | .196     | .182    | .102    | .335     | .384     | .357     | .377     | .398           | .446     |
| F(p)           | 12.87*** | 5.42*** | 12.26*** | 5.70***  | 4.02*** | 2.16*** | 12.08*** | 15.21*** | 13.53*** | 13.83*** | 15.57***       | 18.83*** |

주. 통제변수: 성별,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 $p < .05$ , \*\* $p < .01$ , \*\*\* $p < .001$

주장성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1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8^{***}$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4^{**}$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9^{***}$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18^{**}$ ), 자아존중감( $\beta=.13^{*}$ ), 자아효능감( $\beta=.28^{***}$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35.2%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학교/직장 문화( $\beta=.30^{***}$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9^{*}$ ), 가족건강성( $\beta=.1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20.9%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평적 집단주의( $\beta=.38^{***}$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4^{**}$ ), 온라인 활동( $\beta=.12^{*}$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13^*$ ), 학교/직장 문화( $\beta=.1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35.1%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13^*$ ), 자아존중감( $\beta=-.18^*$ ), 자아효능감( $\beta=.27^{***}$ ), 삶의 만족도( $\beta=.2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19.6%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수평적 집단주의( $\beta=.22^{***}$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16^*$ ), 자아효능감( $\beta=.23^*$ ), 가족건강성( $\beta=.08^*$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근면성을 26.4%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평적 집단주의( $\beta=.2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수평적 집단주의는 준법성을 18.2%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수직적 개인주의는 책임감을 10.2%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2^{***}$ ), 자아존중감( $\beta=.4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33.5%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3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21^{***}$ ), 자아존중감( $\beta=.14^*$ ), 자아효능감( $\beta=.31^{***}$ ), 삶의 만족도( $\beta=-.2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38.4%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20^{***}$ ), 자아효능감( $\beta=.3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59.7%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4^*$ ), 자아존중감( $\beta=.44^{***}$ ), 자아효능감( $\beta=.19^*$ ), 삶의 만족도( $\beta=-.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35.7%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29^{***}$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3^*$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10^*$ ), 자아효능감( $\beta=.27^{***}$ ), 가족건강성( $\beta=.1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37.7%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6^*$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5^*$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9^*$ ), 자아존중감( $\beta=.30^{***}$ ), 자아효능감( $\beta$

=.32<sup>\*\*\*</sup>), 삶의 만족도( $\beta=-.1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대인관계를 44.6% 설명하였다.

### 3. 전기 Z세대 대학생 집단

Z세대의 마지막 성원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4>와 같다.

표 III-34 전기 Z세대 대학생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수평적 개인주의       | -.03                 | .05                 | .03                  | .08 <sup>*</sup>    | .00                  | -.02                 | .03                 | .03                  | .36 <sup>***</sup>   | .01                  | -.01                 | .05                  | -.01                 |
| 수직적 개인주의       | .03                  | -.05                | -.06                 | -.12 <sup>***</sup> | .05                  | -.01                 | -.07 <sup>*</sup>   | -.24 <sup>***</sup>  | -.12 <sup>***</sup>  | .13 <sup>***</sup>   | -.12 <sup>***</sup>  | .01                  | -.08 <sup>**</sup>   |
| 수평적 집단주의       | .16 <sup>***</sup>   | .07                 | .32 <sup>***</sup>   | -.05                | .04                  | .08                  | .04                 | .09 <sup>*</sup>     | -.01                 | .07 <sup>*</sup>     | .17 <sup>***</sup>   | .23 <sup>***</sup>   | .16 <sup>***</sup>   |
| 수직적 집단주의       | .02                  | .12 <sup>**</sup>   | .04                  | .16 <sup>***</sup>  | .15 <sup>***</sup>   | .12 <sup>**</sup>    | -.05                | .00                  | -.06                 | -.04                 | -.05                 | .04                  | -.05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5 <sup>***</sup>   | .03                 | .12 <sup>***</sup>   | -.02                | .01                  | -.06                 | .03                 | .05                  | .03                  | .11 <sup>**</sup>    | .12 <sup>***</sup>   | .06                  | .12 <sup>***</sup>   |
| 사회적 현존감        | .11 <sup>**</sup>    | .04                 | -.02                 | .06                 | .10 <sup>**</sup>    | .00                  | -.07                | -.09 <sup>*</sup>    | -.02                 | .12 <sup>***</sup>   | .03                  | .06                  | -.03                 |
| 온라인 활동 긍정      | -.03                 | -.05                | .01                  | -.09 <sup>*</sup>   | -.12 <sup>**</sup>   | .02                  | .06                 | .02                  | -.12 <sup>**</sup>   | -.10 <sup>*</sup>    | -.02                 | -.11 <sup>**</sup>   | -.02                 |
| 온라인 교류자본       | -.03                 | -.06                | .05                  | -.05                | -.04                 | .02                  | -.13 <sup>**</sup>  | -.12 <sup>**</sup>   | .04                  | .16 <sup>***</sup>   | -.06                 | .12 <sup>**</sup>    | -.03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06                  | .04                 | .00                  | .01                 | .08 <sup>*</sup>     | .02                  | .01                 | .02                  | .03                  | -.02                 | .03                  | .06                  | .01                  |
| 학교/직장 문화       | -.10 <sup>**</sup>   | .16 <sup>***</sup>  | .06                  | .02                 | .05                  | .19 <sup>***</sup>   | .00                 | .02                  | -.01                 | -.07                 | -.02                 | .03                  | .07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12 <sup>**</sup>    | .11 <sup>**</sup>   | .04                  | .11 <sup>**</sup>   | .14 <sup>***</sup>   | .11 <sup>**</sup>    | .06                 | .04                  | -.04                 | -.02                 | -.01                 | .01                  | -.05                 |
| 자아존중감          | -.01                 | .14 <sup>***</sup>  | .07                  | -.12 <sup>**</sup>  | .05                  | .09 <sup>*</sup>     | .32 <sup>***</sup>  | .40 <sup>***</sup>   | .25 <sup>***</sup>   | -.06                 | .36 <sup>***</sup>   | .05                  | .41 <sup>***</sup>   |
| 자아효능감          | .26 <sup>***</sup>   | .04                 | .10 <sup>*</sup>     | .22 <sup>***</sup>  | .28 <sup>***</sup>   | .13 <sup>**</sup>    | -.02                | .01                  | .20 <sup>***</sup>   | .30 <sup>***</sup>   | .15 <sup>***</sup>   | .27 <sup>***</sup>   | .19 <sup>***</sup>   |
| 삶의 만족도         | .08                  | -.18 <sup>***</sup> | -.13 <sup>**</sup>   | .05                 | -.03                 | -.15 <sup>**</sup>   | -.33 <sup>**</sup>  | -.13 <sup>**</sup>   | -.14 <sup>**</sup>   | .21 <sup>***</sup>   | -.16 <sup>***</sup>  | -.05                 | -.25 <sup>***</sup>  |
| 가족건강성          | -.02                 | .07                 | .04                  | .05                 | .03                  | .06                  | .07                 | .01                  | -.07                 | -.05                 | -.03                 | .09 <sup>*</sup>     | -.01                 |
| R <sup>2</sup> | .300                 | .203                | .284                 | .259                | .309                 | .220                 | .198                | .300                 | .337                 | .303                 | .273                 | .349                 | .333                 |
| F(p)           | 18.78 <sup>***</sup> | 1.58 <sup>***</sup> | 16.89 <sup>***</sup> | 9.60 <sup>***</sup> | 19.57 <sup>***</sup> | 11.14 <sup>***</sup> | 9.11 <sup>***</sup> | 21.33 <sup>***</sup> | 25.04 <sup>***</sup> | 18.75 <sup>***</sup> | 17.61 <sup>***</sup> | 23.47 <sup>***</sup> | 21.21 <sup>***</sup> |

주. 통제변수: 성별,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권역, 대학유형

\* $p<.05$ , \*\* $p<.01$ , \*\*\* $p<.001$

주장성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5^{***}$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학교/직장 문화( $\beta=-.10^{**}$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2^{**}$ ), 자아효능감( $\beta=.2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30.0%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수직적 집단주의( $\beta=.12^{**}$ ), 학교/직장 문화( $\beta=.16^{***}$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1^{**}$ ), 자아존중감( $\beta=.14^{**}$ ), 삶의 만족도( $\beta=-.1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20.3%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0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3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자아효능감( $\beta=.10^{*}$ ), 삶의 만족도( $\beta=-.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28.4%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08^{*}$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2^{***}$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6^{***}$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1^{**}$ ), 자아존중감( $\beta=-.12^{**}$ ), 자아효능감( $\beta=.2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25.9%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수직적 집단주의( $\beta=.15^{***}$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0^{**}$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2^{**}$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08^{*}$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4^{***}$ ), 자아효능감( $\beta=.28^{***}$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근면성을 30.9%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직적 집단주의( $\beta=.12^{**}$ ), 학교/직장 생활 문화( $\beta=.19^{***}$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1^{**}$ ), 자아존중감( $\beta=.09^{*}$ ), 자아효능감( $\beta=.13^{**}$ ), 삶의 만족도( $\beta=-.1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준법성을 22.0%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07^{*}$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3^{*}$ ), 자아존중감( $\beta=.32^{***}$ ), 삶의 만족도( $\beta=-.3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책임감을 19.8%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4^{***}$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9^{*}$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09^{*}$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2^{**}$ ), 자아존중감( $\beta=.40^{***}$ ), 삶의 만족도( $\beta=-.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30.0%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3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2^{***}$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2^{**}$ ), 자아존중감( $\beta=.25^{***}$ ), 자아효능감( $\beta=.20^{**}$ ), 삶의 만족도( $\beta=-.1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33.7%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13^{***}$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7^*$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2^{**}$ ), 온라인 활동( $\beta=-.10^*$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6^{***}$ ), 자아효능감( $\beta=.30^{***}$ ), 삶의 만족도( $\beta=.2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30.3%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12^{***}$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7^{***}$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자아존중감( $\beta=.36^{***}$ ), 자아효능감( $\beta=.15^{**}$ ), 삶의 만족도( $\beta=-.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27.3%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23^{***}$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1^{**}$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2^{**}$ ), 자아효능감( $\beta=.27^{***}$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34.9% 설명하였다.

대인관계는 수직적 개인주의( $\beta=-.08^{**}$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자아존중감( $\beta=.41^{***}$ ), 자아효능감( $\beta=.19^{***}$ ), 삶의 만족도( $\beta=-.2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대인관계를 33.3% 설명하였다.

#### 4. 후기 M세대 집단

후기 M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후기 M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수평적 개인주의   | .00     | .09*    | .09*    | .05      | .12***  | .16***  | .07     | -.07    | .40***  | .07*    | .01     | .08*           | .04      |
| 수직적 개인주의   | .06     | -.04    | -.11**  | -.09*    | .09*    | -.02    | -.05    | -.26*** | -.05    | .12***  | -.09**  | .03            | -.14***  |
| 수평적 집단주의   | .16***  | .10*    | .29***  | .02      | .05     | .05     | .02     | .12***  | -.01    | .02     | .11**   | .18***         | .12***   |
| 수직적 집단주의   | -.03    | .03     | .00     | .08      | .06     | .08*    | -.01    | -.03    | -.07*   | .05     | -.04    | -.07           | -.06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0**   | .00     | .10**   | -.07     | -.01    | .03     | .11**   | .04     | .13***  | .08*    | .21***  | .06*           | .22***   |
| 사회적 현존감    | .16***  | -.08*   | .05     | .23***   | -.02    | -.08    | -.14*** | -.11**  | -.13*** | .21***  | -.05    | .11***         | -.06     |
| 온라인 활동 긍정  | -.11**  | .09*    | .07     | -.09*    | .03     | .07     | .12**   | .07     | .06     | -.13**  | -.02    | .00            | .05      |
| 온라인 교류자본   | .03     | -.02    | -.02    | -.02     | .04     | .04     | -.12**  | -.06    | -.05    | .07     | -.05    | .06            | -.10**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03     | .07     | .08*    | -.10**   | -.04    | .00     | .00     | .04     | -.01    | .01     | .03     | .05            | .03      |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고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학교/직장 문화       | .00      | .11**   | .03      | -.01     | .09*     | .03     | .07     | -.04     | -.04     | -.06     | .06      | -.01           | .06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00      | .00     | .03      | .03      | .05      | .09*    | -.08    | .04      | -.02     | .01      | -.13**   | -.01           | -.13***  |
| 자아존중감          | .11*     | .15**   | .05      | -.09     | .11*     | .00     | .21***  | .37***   | .20***   | -.04     | .26***   | .10*           | .31***   |
| 자아효능감          | .14**    | .04     | .08      | .13**    | .20***   | .12**   | -.03    | .08      | .12**    | .15***   | .20***   | .28***         | .23***   |
| 삶의 만족도         | .13**    | -.14**  | -.12*    | .24***   | .02      | -.12*   | -.27*** | -.08     | -.11**   | .21***   | -.08     | -.02           | -.21***  |
| 가족건강성          | -.01     | .05     | .06      | .02      | .00      | .11*    | .07     | -.01     | .00      | -.01     | .01      | .10**          | .01      |
| R <sup>2</sup> | .288     | .147    | .279     | .259     | .231     | .198    | .223    | .325     | .390     | .286     | .301     | .365           | .379     |
| F(p)           | 14.12*** | 7.43*** | 17.38*** | 9.72***  | 13.32*** | 9.50*** | 8.99*** | 21.62*** | 29.44*** | 14.85*** | 19.26*** | 26.40***       | 28.66*** |

주. 통제변수: 성별, 최종학력, 혼인 상태, 자녀 여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권역, 종사상 지위  
\* $p < .05$ , \*\* $p < .01$ , \*\*\* $p < .001$

주장성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16^{***}$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0^{**}$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16^{***}$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1^{**}$ ), 자아존중감( $\beta = .11^{*}$ ), 자아효능감( $\beta = .14^{**}$ ), 삶의 만족도( $\beta = .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28.8%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0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10^{*}$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09^{*}$ ), 학교/직장 문화( $\beta = .11^{**}$ ), 자아존중감( $\beta = .15^{**}$ ), 삶의 만족도( $\beta = -.1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14.7%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09^{*}$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1^{**}$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29^{***}$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0^{**}$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 = .08^{*}$ ), 삶의 만족도( $\beta = -.1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27.9%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09^{*}$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23^{***}$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09^{*}$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 = -.10^{*}$ ), 자아효능감( $\beta = .13^{**}$ ), 삶의 만족도( $\beta = .24^{***}$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25.9%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12^{**}$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09^{*}$ ), 학교/직장 문화( $\beta = .09^{*}$ ), 자아존중감( $\beta = .11^{*}$ ), 자아효능감( $\beta = .2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근면성을 23.1%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1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8^{*}$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beta=.09^*$ ), 자아효능감( $\beta=.12^{**}$ ), 삶의 만족도( $\beta=-.12^*$ ), 가족건강성( $\beta=.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준법성을 19.8%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4^{***}$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2^{**}$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2^{**}$ ), 자아존중감( $\beta=.21^{***}$ ), 삶의 만족도( $\beta=-.2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책임감을 22.3%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2^{**}$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자아존중감( $\beta=.37^{***}$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32.5%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40^{***}$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3^{***}$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3^{***}$ ), 자아존중감( $\beta=.20^{***}$ ), 자아효능감( $\beta=.12^{**}$ ), 삶의 만족도( $\beta=-.1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39.0%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7^*$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08^*$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21^{***}$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3^*$ ), 자아효능감( $\beta=.15^{**}$ ), 삶의 만족도( $\beta=.2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28.6%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0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21^{***}$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3^{**}$ ), 자아존중감( $\beta=.26^{***}$ ), 자아효능감( $\beta=.2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30.1%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08^*$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8^{***}$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06^*$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자아존중감( $\beta=.10^*$ ), 자아효능감( $\beta=.28^{***}$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36.5% 설명하였다.

대인관계는 수직적 개인주의( $\beta=-.14^{***}$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22^{***}$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0^{**}$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13^{***}$ ), 자아존중감( $\beta=.31^{***}$ ), 자아효능감( $\beta=.23^{***}$ ), 삶의 만족도( $\beta=-.2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대인관계를 37.9% 설명하였다.

## 5. 전기 M세대 집단

전기 M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6>과 같다.

표 III-36 전기 M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수평적 개인주의     | .01     | .04     | .09      | .09      | .09     | .19***  | .08      | -.04     | .41***    | .11*    | .00      | .26***         | .11*     |
| 수직적 개인주의     | .01     | -.03    | -.14**   | -.07     | -.03    | -.08    | -.13**   | -.21***  | -.06      | .15***  | -.15***  | .02            | -.19***  |
| 수평적 집단주의     | .17**   | .06     | .24***   | .04      | .02     | .03     | -.02     | .05      | -.04      | .05     | .10      | .23***         | .14**    |
| 수직적 집단주의     | -.12*   | .05     | .02      | .03      | .10     | .09     | .16**    | .06      | -.03      | -.03    | .00      | -.07           | .00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8***  | .02     | .09*     | -.05     | .04     | -.02    | .11*     | .12**    | .13***    | .11*    | .13**    | .05            | .11**    |
| 사회적 현존감      | .15***  | -.17*** | -.06     | .11*     | .00     | -.11*   | -.23***  | -.13**   | -.16***   | .21***  | .01      | .12**          | -.01     |
| 온라인 활동 긍정    | -.16**  | .14*    | .02      | -.25***  | .01     | .10     | .20***   | .02      | -.03      | -.16**  | -.03     | -.05           | .05      |
| 온라인 교류자본     | .05     | -.05    | .05      | .13*     | .04     | .01     | -.08     | -.04     | .02       | -.02    | -.03     | .06            | -.08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02     | .06     | .07      | -.12*    | .05     | -.02    | .00      | -.01     | .04       | -.01    | .02      | .01            | .06      |
| 학교/직장 문화     | .07     | .15**   | .07      | .07      | .14**   | .10*    | -.01     | .03      | .02       | .06     | .03      | .05            | .08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03    | -.05    | -.04     | -.01     | -.01    | .08     | .00      | -.04     | -.02      | .10     | -.02     | -.01           | -.05     |
| 자아존중감        | -.02    | .08     | .09      | -.22***  | .08     | .09     | .34***   | .44***   | .17***    | -.15*   | .38***   | .05            | .41***   |
| 자아효능감        | .14*    | .03     | .02      | .09      | .20***  | .08     | .01      | .05      | .26***    | .15*    | .21***   | .08            | .16**    |
| 삶의 만족도       | .13*    | -.05    | -.02     | .33***   | -.07    | -.07    | -.29***  | -.02     | -.16**    | .21***  | -.18**   | .12*           | -.20***  |
| 가족건강성        | .12*    | .03     | .12*     | .06      | .10     | -.01    | -.07     | -.05     | -.06      | .04     | .05      | .05            | .04      |
| R2           | .312    | .176    | .334     | .240     | .317    | .205    | .316     | .354     | .466      | .310    | .353     | .406           | .432     |
| F(p)         | 1.13*** | 4.23*** | 11.80*** | 6.44***  | 1.33*** | 5.63*** | 12.52*** | 14.71*** | 224.78*** | 1.96*** | 15.28*** | 16.37***       | 22.30*** |

주. 통제변수: 성별, 최종학력, 혼인 상태, 자녀 여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권역, 종사상 지위

\* $p < .05$ , \*\* $p < .01$ , \*\*\* $p < .001$

주장성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17^{**}$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1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8^{***}$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15^{**}$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6^{**}$ ), 자아효능감( $\beta = .14^{*}$ ), 삶의 만족도( $\beta = .13^{*}$ ), 가족건강성( $\beta = .1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31.2%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17^{**}$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4^{*}$ ), 학교/직장 문화( $\beta = .1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17.6%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14^{**}$ ), 수평적 집단주의( $\beta=.24^{***}$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09^{*}$ ), 가족건강성( $\beta=.1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33.4%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25^{***}$ ), 온라인 교류자본( $\beta=.13^{*}$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12^{*}$ ), 자아존중감( $\beta=-.22^{**}$ ), 자아효능감( $\beta=.33^{***}$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24.0%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학교/직장 문화( $\beta=.14^{**}$ ), 자아효능감( $\beta=.2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개인이 인식하는 가치관, 상호작용, 생활 만족 및 심리적 안녕 관련 요인들은 사회성의 하위 요인인 근면성을 31.7%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19$ ,  $p=.000$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p=.026$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0$ ,  $p=.007$ ), 학교/직장 문화( $\beta=.10$ ,  $p=.04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준법성을 20.5%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13^{**}$ ), 수직적 집단주의( $\beta=.16^{**}$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23^{***}$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20^{**}$ ), 자아존중감( $\beta=.34^{***}$ ), 삶의 만족도( $\beta=-.2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책임감을 31.6%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3^{**}$ ), 자아존중감( $\beta=.44^{***}$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35.4%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4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3^{**}$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6^{**}$ ), 자아존중감( $\beta=.17^{**}$ ), 자아효능감( $\beta=.26^{***}$ ), 삶의 만족도( $\beta=-.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46.6%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11^{*}$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5^{**}$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21^{***}$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6^{**}$ ), 자아존중감( $\beta=-.15^{*}$ ), 자아효능감( $\beta=.15^{*}$ ), 삶의 만족도( $\beta=.2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31.0%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15^{**}$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3^{**}$ ), 자아존중감( $\beta=.38^{***}$ ), 자아효능감( $\beta=.21^{***}$ ), 삶의 만족도( $\beta=-.1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35.3% 설명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2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23^{***}$ ),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2^{**}$ ), 삶의 만족도( $\beta=.1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40.6% 설명하였다.

끝으로 대인관계는 수평적 개인주의( $\beta=.11^{*}$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9^{***}$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4^{**}$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자아존중감( $\beta=.41^{***}$ ), 자아효능감( $\beta=.16^{**}$ ), 삶의 만족도( $\beta=-.2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대인관계를 43.2% 설명하였다.

## 6. X세대 집단

끝으로 X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37>과 같다.

표 III-37 X세대의 사회성 관련 변수 설명력 분석 결과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 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 소통 능력           | 대인 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수평적 개인주의     | -.03               | .07 <sup>*</sup>   | .00                 | .03                | .14 <sup>***</sup> | .16 <sup>***</sup> | .09 <sup>***</sup>  | .03                 | .35 <sup>***</sup> | .03                | .09 <sup>**</sup>   | .10 <sup>***</sup> | .10 <sup>***</sup>  |
| 수직적 개인주의     | .02                | -.08 <sup>**</sup> | -.11 <sup>***</sup> | -.09 <sup>**</sup> | -.04               | -.03               | -.13 <sup>***</sup> | -.22 <sup>***</sup> | -.06 <sup>*</sup>  | .11 <sup>***</sup> | -.17 <sup>***</sup> | .01                | -.18 <sup>***</sup> |
| 수평적 집단주의     | .09 <sup>*</sup>   | .06                | .21 <sup>***</sup>  | -.01               | -.03               | .00                | .08 <sup>*</sup>    | .16 <sup>***</sup>  | -.09 <sup>**</sup> | -.02               | .10 <sup>**</sup>   | .10 <sup>**</sup>  | .12 <sup>***</sup>  |
| 수직적 집단주의     | -.02               | .09 <sup>*</sup>   | .08 <sup>*</sup>    | -.01               | .08 <sup>*</sup>   | .05                | .09 <sup>**</sup>   | .07 <sup>*</sup>    | .00                | -.04               | .03                 | -.06 <sup>*</sup>  | .03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15 <sup>***</sup> | -.01               | .11 <sup>***</sup>  | .00                | .02                | .03                | .03                 | .02                 | .08 <sup>**</sup>  | .14 <sup>***</sup> | .11 <sup>***</sup>  | .09 <sup>***</sup> | .12 <sup>***</sup>  |
| 사회적 현존감      | .08 <sup>*</sup>   | .00                | -.03                | .13 <sup>***</sup> | .05                | -.04               | -.12 <sup>***</sup> | -.07 <sup>*</sup>   | .00                | .11 <sup>***</sup> | -.03                | .06 <sup>*</sup>   | -.04                |
| 온라인 활동 긍정    | -.05               | .10 <sup>**</sup>  | .10 <sup>**</sup>   | -.11 <sup>**</sup> | .02                | .12 <sup>***</sup> | .08 <sup>*</sup>    | .01                 | -.09 <sup>**</sup> | -.06               | .01                 | .04                | .05                 |
| 온라인 교류자본     | .10 <sup>**</sup>  | -.06               | .01                 | .08                | .02                | .00                | -.07                | -.05                | .02                | .05                | .00                 | .03                | -.04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02                | .04                | .04                 | -.04               | .08 <sup>*</sup>   | .06                | -.05                | -.10 <sup>***</sup> | .03                | .06 <sup>*</sup>   | -.03                | .11 <sup>***</sup> | .00                 |
| 학교/직장 문화     | .04                | .04                | .06 <sup>*</sup>    | .00                | .11 <sup>***</sup> | .06                | .00                 | .07 <sup>*</sup>    | .04                | .06                | .07 <sup>*</sup>    | .04                | .05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01               | .05                | -.02                | .11 <sup>**</sup>  | -.01               | .01                | .01                 | .08 <sup>*</sup>    | -.06               | -.01               | -.05                | -.03               | -.07 <sup>*</sup>   |

|        | 주장성      | 협동성      | 공감       | 자기<br>조절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자율성      | 리더십     | 사교성      | 의사<br>소통<br>능력 | 대인<br>관계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자아존중감  | .08*     | .16***   | .15***   | -.14***  | .15***   | .10**    | .36***   | .45***   | .30***   | -.08*   | .39***   | .07*           | .41***   |
| 자아효능감  | .09*     | .03      | .04      | .08*     | .10**    | .08*     | .01      | -.01     | .18***   | .18***  | .07*     | .16***         | .07*     |
| 삶의 만족도 | .13***   | -.18***  | -.10**   | .30***   | -.09*    | -.13***  | -.41***  | -.15***  | -.22***  | .18***  | -.10**   | .06            | -.16***  |
| 가족건강성  | .05      | .11**    | .10**    | .04      | .09**    | .11**    | -.02     | .03      | .02      | .04     | -.03     | .15***         | .00      |
| R2     | .241     | .181     | .291     | .189     | .213     | .210     | .317     | .350     | .366     | .267    | .319     | .321           | .360     |
| F(p)   | 18.54*** | 13.28*** | 27.13*** | 15.61*** | 19.38*** | 17.26*** | 35.40*** | 43.10*** | 45.14*** | 2.99*** | 34.92*** | 34.03***       | 43.56*** |

주. 통제변수: 성별, 최종학력, 혼인 상태, 자녀 여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가정 형편,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권역, 종사상 지위  
\* $p < .05$ , \*\* $p < .01$ , \*\*\* $p < .001$

주장성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09^*$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5^{***}$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08^*$ ), 온라인 교류자본( $\beta = .10^{**}$ ), 자아존중감( $\beta = .008^*$ ), 자아효능감( $\beta = .09^*$ ), 삶의 만족도( $\beta = .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주장성을 24.1% 설명하였다.

협동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07^*$ ),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08^{**}$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9^*$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0^{**}$ ), 자아존중감( $\beta = .16^{***}$ ), 삶의 만족도( $\beta = -.18^{***}$ ), 가족건강성( $\beta = .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협동성을 18.1% 설명하였다.

공감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11^{***}$ ), 수평적 집단주의( $\beta = .21^{***}$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8^*$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 = .11^{**}$ ), 학교/직장 문화( $\beta = .06^*$ ), 자아존중감( $\beta = .15^{***}$ ), 삶의 만족도( $\beta = -.01^{**}$ ), 가족건강성( $\beta = .10^{**}$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공감을 29.1%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beta = -.09^{**}$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 = .13^{***}$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 = -.11^{**}$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 = .11^{**}$ ), 자아존중감( $\beta = -.14^{***}$ ), 자아효능감( $\beta = .08^{**}$ ), 삶의 만족도( $\beta = .0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기조절을 18.9% 설명하였다.

근면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 = .14^{***}$ ), 수직적 집단주의( $\beta = .08^*$ ), 오프라인 교류자본( $\beta = .08^*$ ), 학교/직장 문화( $\beta = .11^{**}$ ), 자아존중감( $\beta = .15^{***}$ ), 자아효능감( $\beta = .10^{**}$ ), 삶의 만족도( $\beta = -.09^*$ ), 가족건강성( $\beta = .09^{**}$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근면성을 21.3% 설명하였다.

준법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16^{***}$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12^{**}$ ), 자아존중감( $\beta=.10^{**}$ ), 자아효능감( $\beta=.08^*$ ), 삶의 만족도( $\beta=-.13^{***}$ ), 가족건강성( $\beta=.1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준법성을 21.0% 설명하였다.

책임감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09^{**}$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3^{***}$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8^*$ ), 수직적 집단주의( $\beta=.09^{**}$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2^{***}$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8^*$ ), 자아존중감( $\beta=.36^{***}$ ), 삶의 만족도( $\beta=-.4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책임감을 31.7% 설명하였다.

안정성은 수직적 개인주의( $\beta=-.22^{***}$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6^{***}$ ), 수직적 집단주의( $\beta=.07^*$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07^*$ ), 온라인 교류자본( $\beta=-.01^{**}$ ), 학교/직장 문화( $\beta=.07^*$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08^*$ ), 자아존중감( $\beta=.45^{***}$ ), 삶의 만족도( $\beta=-.1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안정성을 35.0%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35^{***}$ ), 수직적 개인주의( $\beta=-.06^*$ ), 수평적 집단주의( $\beta=-.09^{**}$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08^{**}$ ),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beta=-.09^{**}$ ), 자아존중감( $\beta=.30^{***}$ ), 자아효능감( $\beta=.18^{***}$ ), 삶의 만족도( $\beta=-.2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자율성을 36.6% 설명하였다.

리더십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11^{***}$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4^{***}$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11^{***}$ ), 자아존중감( $\beta=-.08^*$ ), 자아효능감( $\beta=.18^{***}$ ), 삶의 만족도( $\beta=.1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리더십을 26.7% 설명하였다.

사교성은 수평적 개인주의( $\beta=.09^{**}$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7^{***}$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0^{**}$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1^{***}$ ), 학교/직장 문화( $\beta=.07^*$ ), 자아존중감( $\beta=.39^{***}$ ), 자아효능감( $\beta=.07^*$ ), 삶의 만족도( $\beta=-.1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사교성을 3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beta=.10^{**}$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0^{**}$ ), 수직적 집단주의( $\beta=-.06^*$ ),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beta=.06^*$ ), 자아존중감( $\beta=.07^*$ ), 자아효능감( $\beta=.16^{***}$ ), 가족건강성( $\beta=.1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32.1% 설명하였다.

대인관계는 수평적 개인주의( $\beta=.10^{**}$ ), 수직적 개인주의( $\beta=-.18^{***}$ ), 수평적 집단주의( $\beta=.12^{***}$ ), 사회적 관계망 크기( $\beta=.12^{***}$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beta=-.07^*$ ), 자아존중감( $\beta=.41^{***}$ ), 자아효능감( $\beta=.07^*$ ), 가족건강성( $\beta=-.1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했다. 통제변수와 더불어 이 변수들은 대인관계를 36.0% 설명하였다.

## 7. 결론과 시사점

지금까지 주장성, 협동성, 공감, 자기조절,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안정성, 자율성, 리더십, 사교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등 13개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세대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각 세대 집단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경우 수평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 소속 집단의 문화 및 소속 집단에 대한 만족도,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사회적 관계망 크기와 가족건강성의 경우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반대로 수직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에 대해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류자본은 대인관계를 제외한 여타 하위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음으로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수평적 가치관(집단),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사회적 관계망 크기, 가족건강성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긍정적 관계에 있었다. 반대로 수직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은 대부분의 사회성 영역에 부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다만 수평적 가치관(개인)의 유의한 설명력은 오직 자율성에서만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공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온라인 교류자본은 사교성 및 대인관계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은 사회성의 하위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오프라인 교류자본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전기 Z세대 대학생 사이에서는 수평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 소속 집단의 문화나 집단 생활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 반면, 수직적 가치관(개인), 온라인 활동 및 교류자본은 대부분의 사회성 요인과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류자본은 근면성에 한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고 가족건강성은 사회성

의 하위 요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후기 M세대 집단의 경우에는 수평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었고, 반대로 수직적 가치관(개인)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Z세대의 경우 온라인 활동이 이들의 사회성과 주로 부정적인 관계에 가졌던 것과 달리 후기 M세대의 온라인 활동은 이들의 사회성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모두 작용했다.

전기 M세대의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평적 가치관(집단),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크기 등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수직적 가치관(개인)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부정적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설명력은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X세대의 경우 수평적 가치관(개인 및 집단), 심리적 안녕감(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사회적 관계망 크기, 그리고 가족건강성 등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긍정적 관계에 있었다. 이와 달리 수직적 가치관(개인)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부정적 관계에 놓여있었다. 마지막으로 X세대의 온라인 활동은 다수의 사회성 하위 요인과 긍정적 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분석 결과는 세대 집단과 사회성의 하위 영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과 해당 변인의 작용이 다양한 양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양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결과로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성 증진을 위한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표 III-38 사회성 하위 요인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

| 종속변인         | 주장성 |   |   |   |   |   | 협동성 |   |   |   |   |   | 공감 |   |   |   |   |   | 자기조절 |   |   |   |   |   | 근면성 |   |   |   |   |   | 준법성 |   |   |   |   |   | 책임감 |   |   |   |   |   |   |   |
|--------------|-----|---|---|---|---|---|-----|---|---|---|---|---|----|---|---|---|---|---|------|---|---|---|---|---|-----|---|---|---|---|---|-----|---|---|---|---|---|-----|---|---|---|---|---|---|---|
| 세대구분<br>독립변인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   |   |   |   |   |   |   |
| 수평적 개인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직적 개인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평적 집단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직적 집단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현존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활동 긍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교류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직장 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직장 생활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아효능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건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A. 후기 Z세대 중고생, 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C. 전기 Z세대 대학생, D. 후기 M세대, E. 전기 M세대, F. X세대

주2. +: 정적 상관, -: 부적 상관

표 III-38 (표 계속)

| 종속변인            | 안정성 |   |   |   |   |   | 자율성 |   |   |   |   |   | 리더십 |   |   |   |   |   | 사교성 |   |   |   |   |   | 의사소통 능력 |   |   |   |   |   | 대인관계 |   |   |   |   |   |
|-----------------|-----|---|---|---|---|---|-----|---|---|---|---|---|-----|---|---|---|---|---|-----|---|---|---|---|---|---------|---|---|---|---|---|------|---|---|---|---|---|
| 세대구분<br>독립변인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A    | B | C | D | E | F |
| 수평적 개인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직적 개인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평적 집단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직적 집단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적 현존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활동 긍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교류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프라인 교류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직장 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직장 생활<br>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아효능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삶의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건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A. 후기 Z세대 중고생, B.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C. 전기 Z세대 대학생, D. 후기 M세대, E. 전기 M세대, F. X세대

주2. +: 정적 상관, -: 부정 상관



우선 주장성의 증진과 관련해 세대 집단 구분 없이 일관되게 긍정적 관계를 갖는 기여 변인은 수평적 집단주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었다. 협동성의 경우 모든 세대 집단을 아우르는 공통의 기여 변인은 없었지만 학교 및 직장 문화, 즉 민주적 학교 문화와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가 X세대를 제외한 여타 세대 집단에서 모두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공감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와 사회적 관계망 크기가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자기조절 향상에는 전 세대 집단을 아우르는 공통의 기여 변인은 없었지만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가 한 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근면성의 향상에는 자아효능감이 유일한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준법성과 책임감 영역에서는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은 없었다. 다만 자아존중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모두 책임감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고 반대로 수직적 개인주의의 경우 후기 M세대를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모두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장애 변인으로 작용했다. 안정성의 증진과 관련해 수직적 개인주의는 세대 공통의 장애 변인으로, 반대로 자아효능감은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자율성에서는 수평적 개인주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리더십의 경우 수직적 개인주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고 삶의 만족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사교성 증진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 크기, 자아효능감,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고 수평적 집단주의의 경우 전기 M세대를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모두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의사소통의 증진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만이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지만 자아효능감, 가족건강성 등의 변인 또한 전기 M세대를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 모두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개선과 관련해 수평적 집단주의, 사회적 관계망 크기,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세대 공통의 기여 변인으로 작용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평적(또는 민주적) 인간 관계의 가치 지향, 사회적 관계망 크기의 확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제고, 그리고 가족건강성 제고 등은 전 세대를 아울러 그리고 사회성 전반에 걸쳐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 특히 수평적 인간관계 가치의 정착과 확산은 개인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 등과 같은 사회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견인 세대로 성장하고 활동할 젊은 M, Z세대가 학교와 직장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문화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오프라인 교류자본의 유의한 정적 상관성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발견됐고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 그리고 회사에 재직 중인 M, X세대 성인 집단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일상에서 소속 집단 내 성원과 맺는 상호작용이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학교라는 공동체를 떠난 청소년이 일상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 특히 또래집단이나 선생님(멘토)과 사회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는 부정적 시각은 이들의 사회적 교류 활동 의지를 위축시킨다. 더욱이 온라인 교류자본이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부분 유의하게 연관돼 있지 않거나 심지어 부적 상관성을 보여준 분석 결과는 온라인 교류자본이 오프라인 교류자본의 온전한 대체제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주위의 또래집단이나 청소년 지도자(멘토) 등과 함께 건강한 교류자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사회성 발달과 온라인 활동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X세대에게서만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활동의 일상성, 즐거움, 공동체 의식 등이 결코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난 M, Z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X세대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이를 경험하는 X세대는 그렇지 못한 X세대에 비해 사회성 발달에 유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성세대인 X세대는 사회성 발달의 여건을 전통적인 오프라인 활동과 교류로 제한하지 않고 온라인 활동과 교류로 확장하는 열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 (3) 사회성 발달 유형에 대한 집단 프로파일링 심화 분석

#### 1. 세대별 사회성 유형 프로파일링

세대별 사회성 유형과 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13개 사회성 영역별 점수를 기준 변수로 하는 세대별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세대에서 사회성에 관한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3개로 결정되었다.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적합도, 통계적 검정 결과, 분류의 질, 해석의 적절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표 III-39〉 및 【그림 III-50】 참고). 모형적합도 지수는 정보 기준(Information Criteria: IC) 지수인 AIC(Akaike's IC), BIC(Baysian IC), ABIC(Adjusted BIC)를, 통계적 검정 방법은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ALMR-LRT(Adjusted LMR-LRT)를, 분류의 질은 entropy, 할당확률평균, 할당비율을 사용하였다. 단, 대학생의 경우, 3개 프로파일 모형의 LMR-LRT와 ALMR-LRT 결과 p-value가 유의하지 않아 3개 프로파일 모형이 2개 프로파일 모형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간명한 모형인 2개 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적절성 및 세대 간 비교라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대학생의 사회성 유형에 관하여 3개 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표 III-39 세대별 사회성 잠재프로파일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 및 3개 프로파일 모형 정보

| 세대                    | 모형      | AIC      | BIC      | ABIC     | Entropy | LMR            | ALMR           |
|-----------------------|---------|----------|----------|----------|---------|----------------|----------------|
|                       |         |          |          |          |         | LRT<br>p-value | LRT<br>p-value |
| 학생 청소년<br>(N = 1,471) | 3개 프로파일 | 21665.08 | 21950.94 | 21779.40 | 0.85    | < .001         | < .001         |
|                       | 4개 프로파일 | 20969.42 | 21329.39 | 21113.38 | 0.82    | 0.078          | 0.080          |
| 학교 밖 청소년<br>(N = 400) | 3개 프로파일 | 5947.42  | 6162.96  | 5991.61  | 0.90    | 0.020          | 0.021          |
|                       | 4개 프로파일 | 5731.22  | 6002.64  | 5786.87  | 0.87    | 0.421          | 0.425          |
| 대학생<br>(N = 800)      | 2개 프로파일 | 11323.92 | 11511.31 | 11384.29 | 0.85    | <.0001         | <.0001         |
|                       | 3개 프로파일 | 10668.44 | 10921.41 | 10749.93 | 0.84    | 0.067          | 0.069          |
|                       | 4개 프로파일 | 10285.45 | 10604.00 | 10388.06 | 0.84    | 0.189          | 0.191          |
| 후기 M세대<br>(N = 800)   | 3개 프로파일 | 10444.52 | 10697.49 | 10526.01 | 0.86    | 0.001          | 0.001          |
|                       | 4개 프로파일 | 10109.58 | 10428.13 | 10212.20 | 0.83    | 0.795          | 0.796          |
| 전기 M세대<br>(N = 500)   | 3개 프로파일 | 6162.24  | 6389.83  | 6218.43  | 0.88    | 0.001          | 0.001          |
|                       | 4개 프로파일 | 5909.75  | 6196.35  | 5980.51  | 0.88    | 0.141          | 0.143          |
| X세대<br>(N = 1,400)    | 3개 프로파일 | 14589.06 | 14868.24 | 14696.71 | 0.87    | <.001          | <.001          |
|                       | 4개 프로파일 | 14030.27 | 14381.84 | 14165.84 | 0.84    | 0.154          | 0.156          |

|                       |        | 프로파일 할당확률    |              |              | 사례 수 | %     |
|-----------------------|--------|--------------|--------------|--------------|------|-------|
|                       |        | 프로파일 1       | 프로파일 2       | 프로파일 3       |      |       |
| 학생 청소년<br>(N = 1,471) | 프로파일 1 | <b>0.946</b> | 0.006        | 0.048        | 767  | 52.14 |
|                       | 프로파일 2 | 0.050        | <b>0.905</b> | 0.045        | 155  | 10.54 |
|                       | 프로파일 3 | 0.064        | 0.015        | <b>0.920</b> | 549  | 37.32 |
| 학교 밖 청소년<br>(N = 400) | 프로파일 1 | <b>0.921</b> | 0.028        | 0.051        | 26   | 6.50  |
|                       | 프로파일 2 | 0.004        | <b>0.953</b> | 0.044        | 172  | 43.00 |
|                       | 프로파일 3 | 0.002        | 0.034        | <b>0.964</b> | 202  | 50.50 |
| 대학생<br>(N = 800)      | 프로파일 1 | <b>0.943</b> | 0.017        | 0.040        | 391  | 48.88 |
|                       | 프로파일 2 | 0.073        | <b>0.906</b> | 0.021        | 132  | 16.50 |
|                       | 프로파일 3 | 0.080        | 0.008        | <b>0.911</b> | 277  | 34.63 |
| 후기 M세대<br>(N = 800)   | 프로파일 1 | <b>0.925</b> | 0.057        | 0.018        | 157  | 19.63 |
|                       | 프로파일 2 | 0.026        | <b>0.930</b> | 0.044        | 334  | 41.75 |
|                       | 프로파일 3 | 0.005        | 0.051        | <b>0.943</b> | 309  | 38.63 |
| 전기 M세대<br>(N = 500)   | 프로파일 1 | <b>0.937</b> | 0.020        | 0.042        | 210  | 42.00 |
|                       | 프로파일 2 | 0.044        | <b>0.948</b> | 0.008        | 107  | 21.40 |
|                       | 프로파일 3 | 0.038        | 0.004        | <b>0.957</b> | 183  | 36.60 |
| X세대<br>(N = 1,400)    | 프로파일 1 | <b>0.958</b> | 0.033        | 0.009        | 249  | 19.15 |
|                       | 프로파일 2 | 0.018        | <b>0.924</b> | 0.058        | 502  | 38.62 |
|                       | 프로파일 3 | 0.001        | 0.054        | <b>0.944</b> | 549  | 42.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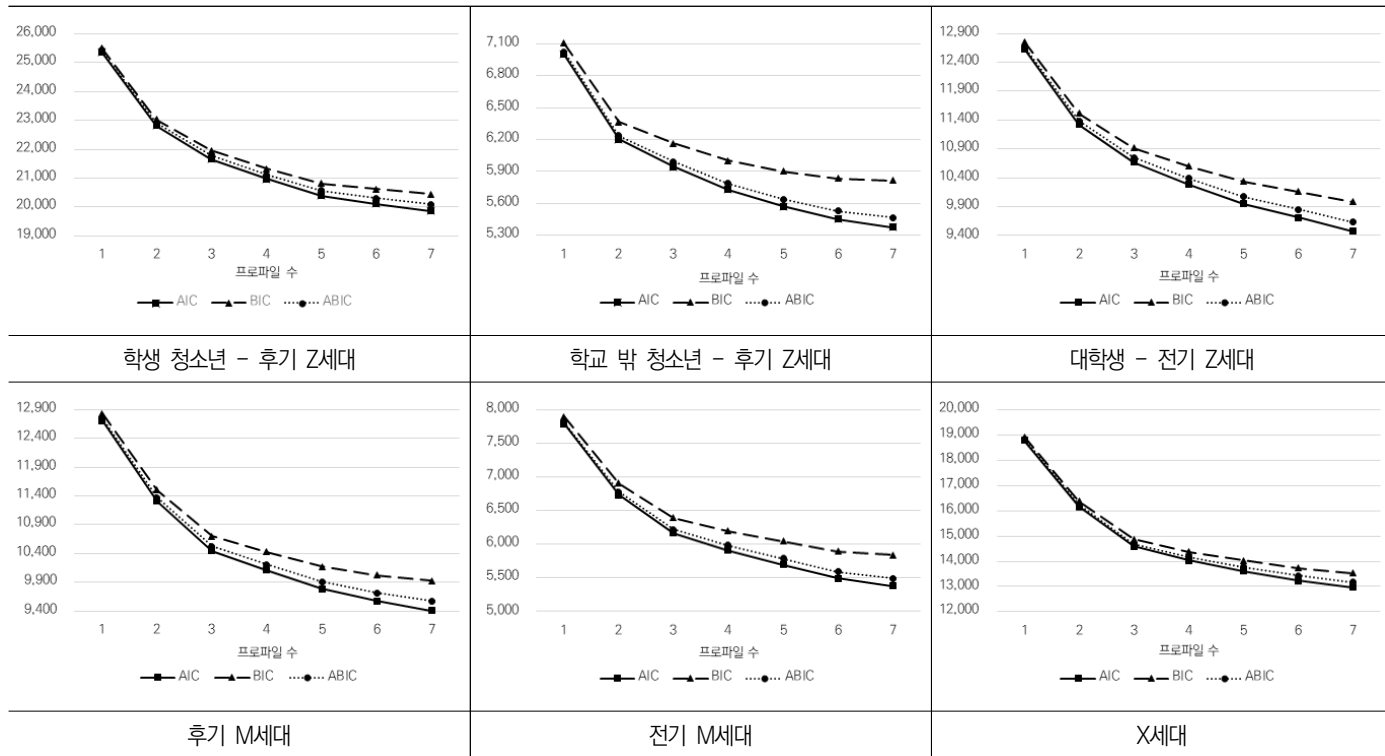


그림 III-50 세대별 사회성 잠재프로파일 수 변화에 따른 모형적합도 변화

사회성 프로파일 각각의 특징을 세대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성 유형별로 사회성 지표의 추정 평균을 【그림 III-51】과 <표 III-40>에 제시하였다. 단, 점수가 0점에서 2점 사이인 사회성의 다른 지표들과 달리, 대인관계는 점수 범위가 0점에서 4점이기 때문에 최댓값이 2가 되도록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II-51】에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한 모든 세대의 사회성 영역별 평균을 의미하는 회색 면을 살펴보면 리더십과 자기조절 영역의 점수가 1점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0점 응답은 ‘전혀 아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부정적인 응답에 해당하고, 1점은 ‘가끔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 2점은 ‘매우 자주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인 응답에 해당한다. 따라서 1점 이하의 응답은 해당 사회성 영역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MZ세대와 X세대 사회성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교성, 대인관계, 공감, 협동 영역의 점수가 높고, 조직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율성,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안정성 영역의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 능력,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영역의 사회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해당 영역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의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사회성의 행동적 측면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에 가까운 사회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성의 3가지 유형의 특징은 모든 세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첫 번째 유형(파란색),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두 번째 유형(하늘색), 그리고 평균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세 번째 유형(빨간색)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사교성과 대인관계, 책임감과 안정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반면에, 다른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사회적 기술 영역인 의사소통 능력, 주장성, 리더십, 자기조절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첫 번째 유형을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으로, 두 번째 유형을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으로, 세 번째 유형을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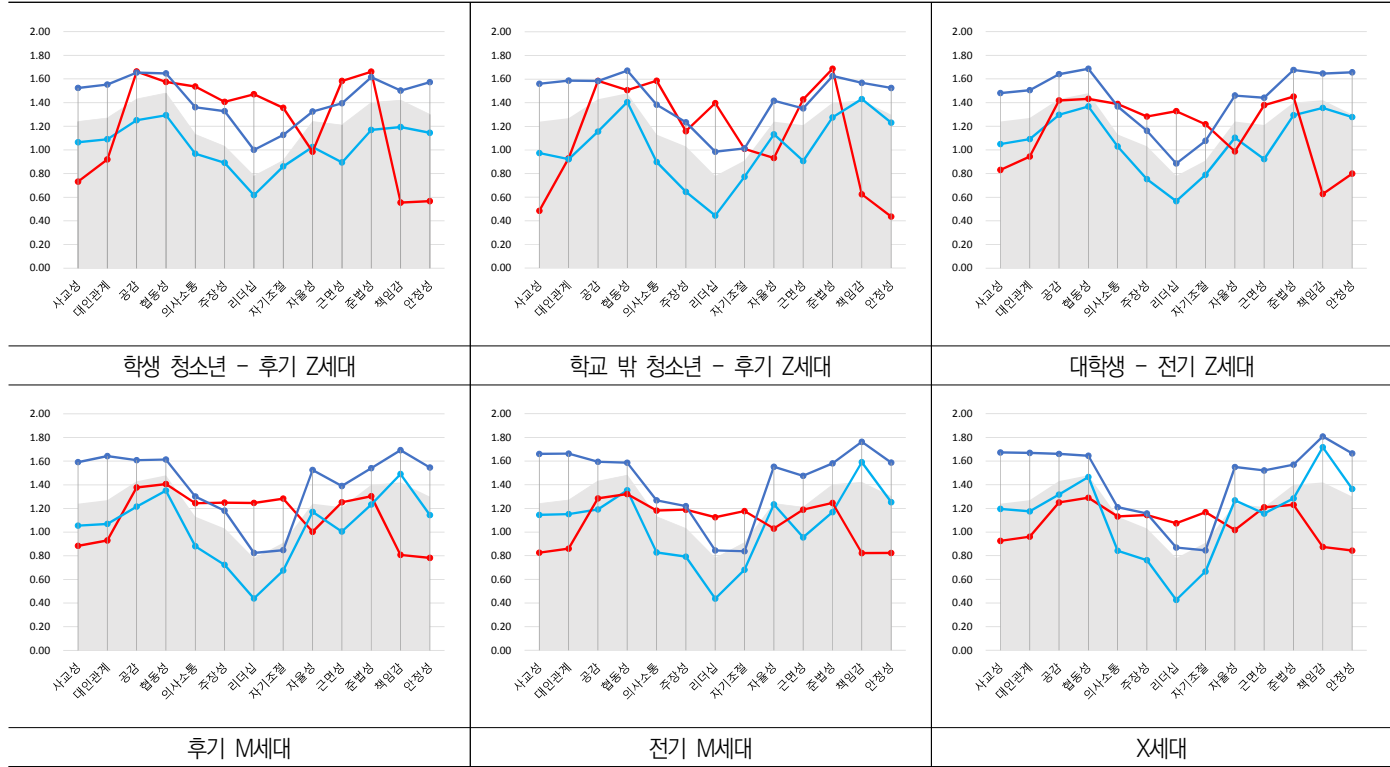


그림 III-51 세대에 따른 사회성 지표의 유형별 추정 평균

표 III-40 세대에 따른 사회성 지표의 유형별 추정 평균

|                    |             | 사교성  | 대인관계 | 공감   | 협동성  | 의사소통 | 주장성  | 리더십  | 자존감  | 자율성  | 근면성  | 준법성  | 책임감  | 안정성  |
|--------------------|-------------|------|------|------|------|------|------|------|------|------|------|------|------|------|
| 학생 청소년<br>후기 Z세대   | 1유형 (n=549) | 1.52 | 1.55 | 1.65 | 1.65 | 1.36 | 1.33 | 1.00 | 1.13 | 1.32 | 1.39 | 1.62 | 1.50 | 1.57 |
|                    | 2유형 (n=767) | 1.07 | 1.09 | 1.25 | 1.29 | 0.97 | 0.89 | 0.62 | 0.86 | 1.03 | 0.89 | 1.17 | 1.19 | 1.15 |
|                    | 3유형 (n=155) | 0.73 | 0.92 | 1.66 | 1.58 | 1.54 | 1.41 | 1.47 | 1.36 | 0.99 | 1.58 | 1.66 | 0.55 | 0.57 |
| 학교 밖 청소년<br>후기 Z세대 | 1유형 (n=172) | 1.56 | 1.59 | 1.58 | 1.67 | 1.38 | 1.24 | 0.99 | 1.01 | 1.42 | 1.35 | 1.63 | 1.57 | 1.53 |
|                    | 2유형 (n=202) | 0.97 | 0.92 | 1.16 | 1.41 | 0.90 | 0.65 | 0.44 | 0.77 | 1.13 | 0.91 | 1.28 | 1.43 | 1.23 |
|                    | 3유형 (n=26)  | 0.49 | 0.93 | 1.59 | 1.51 | 1.59 | 1.16 | 1.40 | 1.01 | 0.93 | 1.43 | 1.69 | 0.63 | 0.44 |
| 대학생<br>전기 Z세대      | 1유형 (n=277) | 1.48 | 1.51 | 1.64 | 1.69 | 1.37 | 1.16 | 0.89 | 1.08 | 1.46 | 1.44 | 1.68 | 1.65 | 1.66 |
|                    | 2유형 (n=391) | 1.05 | 1.09 | 1.30 | 1.37 | 1.03 | 0.75 | 0.57 | 0.79 | 1.10 | 0.92 | 1.29 | 1.36 | 1.28 |
|                    | 3유형 (n=132) | 0.83 | 0.94 | 1.42 | 1.43 | 1.39 | 1.28 | 1.33 | 1.22 | 0.99 | 1.38 | 1.45 | 0.63 | 0.80 |
| 후기 M세대             | 1유형 (n=309) | 1.59 | 1.64 | 1.61 | 1.61 | 1.30 | 1.18 | 0.82 | 0.85 | 1.53 | 1.39 | 1.54 | 1.69 | 1.55 |
|                    | 2유형 (n=334) | 1.06 | 1.07 | 1.22 | 1.35 | 0.88 | 0.72 | 0.44 | 0.68 | 1.17 | 1.01 | 1.23 | 1.49 | 1.14 |
|                    | 3유형 (n=157) | 0.88 | 0.93 | 1.38 | 1.41 | 1.24 | 1.25 | 1.25 | 1.28 | 1.00 | 1.25 | 1.30 | 0.81 | 0.78 |
| 전기 M세대             | 1유형 (n=183) | 1.66 | 1.66 | 1.59 | 1.59 | 1.27 | 1.22 | 0.85 | 0.84 | 1.55 | 1.48 | 1.58 | 1.76 | 1.59 |
|                    | 2유형 (n=210) | 1.15 | 1.15 | 1.19 | 1.35 | 0.83 | 0.79 | 0.44 | 0.68 | 1.23 | 0.96 | 1.17 | 1.59 | 1.25 |
|                    | 3유형 (n=107) | 0.83 | 0.86 | 1.29 | 1.32 | 1.18 | 1.19 | 1.13 | 1.18 | 1.03 | 1.19 | 1.25 | 0.82 | 0.82 |
| X세대                | 1유형 (n=549) | 1.67 | 1.67 | 1.66 | 1.65 | 1.21 | 1.16 | 0.87 | 0.85 | 1.55 | 1.52 | 1.57 | 1.81 | 1.67 |
|                    | 2유형 (n=502) | 1.20 | 1.18 | 1.32 | 1.47 | 0.84 | 0.76 | 0.43 | 0.67 | 1.27 | 1.16 | 1.29 | 1.72 | 1.37 |
|                    | 3유형 (n=249) | 0.93 | 0.96 | 1.25 | 1.29 | 1.13 | 1.14 | 1.07 | 1.17 | 1.02 | 1.21 | 1.23 | 0.88 | 0.84 |

주. 1유형='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2유형='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3유형='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



【그림 III-52】에 제시한 세대별 사회성 유형 분포를 보면,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과 전기 Z세대인 대학생, 전기 M세대 집단에서는 첫 번째 유형인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 수의 비율이 각각 52%, 49%, 42%로 가장 높았다.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후기 M세대 집단은 두 번째 유형인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이 42%, 세 번째 유형인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39%였으며,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20%로 그 수가 적은 편이었다. 또 다른 후기 Z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 집단과 X세대의 경우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각각 51%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이 각각 43%와 39%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긍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 집단 중 7%, X세대 중 19%에 그쳤다. 다만, 【그림 III-51】과 【그림 III-53】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은 Z세대에서 X세대로 갈수록 사회성 지표 간의 점수 차이가 적어지며 그래프의 굴곡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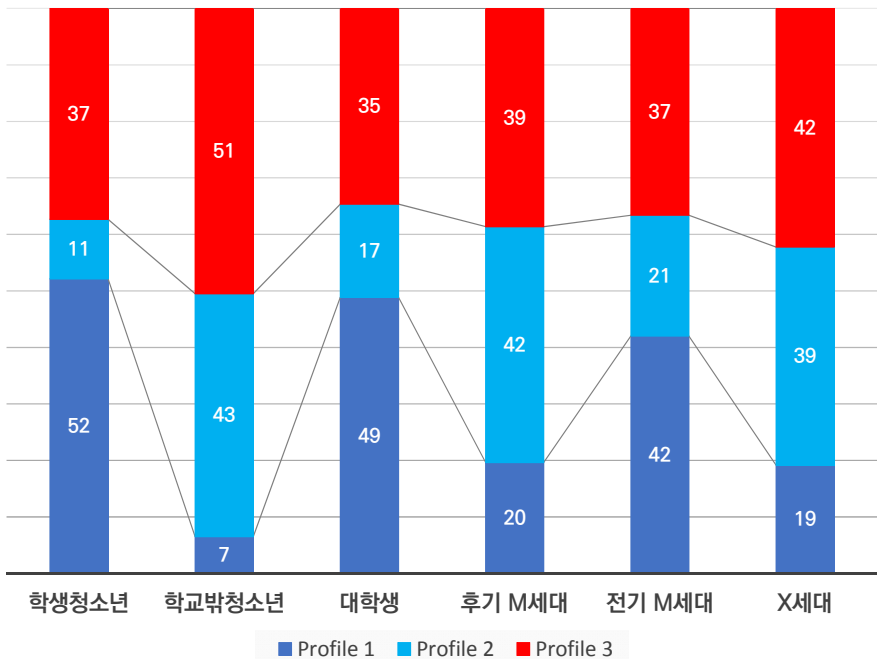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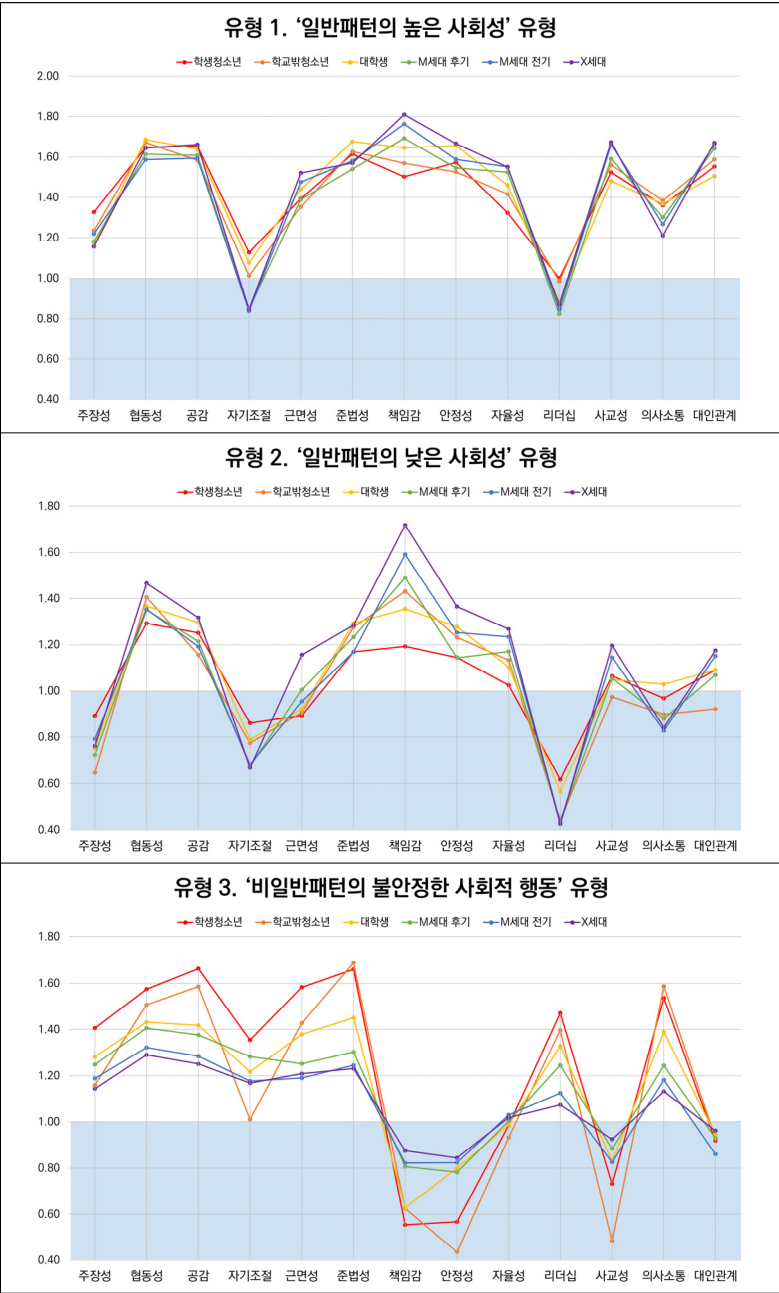


그림 III-52 세대별 사회성 유형 분포(단위: %)



**그림 III-53 사회성 유형별 사회성 지표의 세대 간 비교**

## 2. 세대별 사회성 유형 예측 요인

사회성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소득 수준)와 사회적 접촉과 관계가 있는 변수(수도권 거주 여부, 사회적 관계망 크기, 가족 수)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성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분석을 세대별로 실시하였다. ‘수도권 거주 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수도권에서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접촉과 관계가 있는 변수로 보고 예측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가족 수는 Z세대인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에게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선택해달라고 한 질문을 활용하여 변수를 새로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모형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분산에 강한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채택하였다.

〈표 III-41〉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청소년 집단에서는 남성이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남성이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가족 수가 적으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남성이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고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남성이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후기 M세대 집단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

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M세대 집단도 소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세대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남성일수록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표 III-41 사회성 유형 예측 요인

|                          | 학생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      | 대학생      |      | 후기 M세대    |      | 전기 M세대   |      | X세대       |      |
|--------------------------|-----------|------|----------|------|----------|------|-----------|------|----------|------|-----------|------|
|                          | Coef.     | S.E. | Coef.    | S.E. | Coef.    | S.E. | Coef.     | S.E. | Coef.    | S.E. | Coef.     | S.E. |
| <b>3유형 vs. 1유형(ref.)</b> |           |      |          |      |          |      |           |      |          |      |           |      |
| 남성                       | 0.55***   | 0.13 | 0.52*    | 0.25 | 0.20     | 0.16 | -0.04     | 0.17 | 0.10     | 0.22 | 0.13      | 0.13 |
| 소득 수준                    | -0.16**   | 0.06 | -0.18    | 0.09 | -0.25*** | 0.07 | -0.23**   | 0.08 | -0.36*** | 0.11 | -0.26***  | 0.06 |
| 수도권 거주                   | 0.21      | 0.13 | -0.18    | 0.24 | 0.26     | 0.17 | 0.00      | 0.17 | -0.33    | 0.22 | -0.13     | 0.13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0.39***  | 0.06 | -0.66*** | 0.1  | -0.52*** | 0.09 | -0.67***  | 0.08 | -0.64*** | 0.1  | -0.63***  | 0.06 |
| 가족 수                     | -0.09     | 0.06 | -0.18    | 0.11 | -0.01    | 0.08 | 0.12      | 0.07 | -0.04    | 0.09 | -0.06     | 0.06 |
| <b>2유형 vs. 1유형(ref.)</b> |           |      |          |      |          |      |           |      |          |      |           |      |
| 남성                       | 1.07***   | 0.23 | 0.52     | 0.44 | 1.06***  | 0.16 | 1.18***   | 0.23 | 0.95***  | 0.28 | 1.05***   | 0.18 |
| 소득 수준                    | 0.30***   | 0.09 | 0.07     | 0.18 | 0.18     | 0.07 | 0.13      | 0.1  | 0.06     | 0.13 | -0.10     | 0.09 |
| 수도권 거주                   | 0.07      | 0.21 | -0.94    | 0.56 | 0.23     | 0.17 | 0.12      | 0.21 | -0.29    | 0.26 | 0.12      | 0.16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0.12     | 0.11 | -0.20    | 0.18 | -0.24*   | 0.09 | -0.56***  | 0.09 | -0.74*** | 0.12 | -0.49***  | 0.08 |
| 가족 수                     | -0.32***  | 0.09 | -0.45*   | 0.22 | -0.27*   | 0.08 | 0.25**    | 0.09 | 0.16     | 0.10 | -0.06     | 0.07 |
| <b>3유형 vs. 2유형(ref.)</b> |           |      |          |      |          |      |           |      |          |      |           |      |
| 남성                       | 0.51*     | 0.22 | -0.00    | 0.43 | 0.87***  | 0.24 | 1.22***   | 0.22 | 0.85**   | 0.27 | 0.92***   | 0.18 |
| 소득 수준                    | 0.46***   | 0.09 | 0.25     | 0.18 | 0.43***  | 0.10 | 0.36***   | 0.1  | 0.42***  | 0.12 | 0.16      | 0.09 |
| 수도권 거주                   | -0.14     | 0.21 | -0.75    | 0.56 | -0.04    | 0.21 | 0.12      | 0.21 | 0.04     | 0.25 | 0.26      | 0.16 |
| 사회적 관계망 크기               | 0.27**    | 0.11 | 0.46**   | 0.18 | 0.28**   | 0.11 | 0.11      | 0.09 | -0.10    | 0.11 | 0.14      | 0.08 |
| 가족 수                     | -0.24**   | 0.09 | -0.27    | 0.22 | -0.26*   | 0.11 | 0.13      | 0.09 | 0.20*    | 0.10 | -0.00     | 0.07 |
| N                        | 1,471     |      | 400      |      | 800      |      | 800       |      | 500      |      | 1,300     |      |
| Wald $\chi^2$            | 123.74*** |      | 54.90*** |      | 92.39*** |      | 128.78*** |      | 93.27*** |      | 173.69*** |      |
| Pseudo R <sup>2</sup>    | 0.0636    |      | 0.1009   |      | 0.0647   |      | 0.0930    |      | 0.0979   |      | 0.0723    |      |

주. 1유형='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2유형='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3유형='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

\* $p < .05$ , \*\* $p < .01$ , \*\*\* $p < .001$

### 3.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평균 차이

사회성 유형에 따라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표 III-42>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정은 등분산을 가정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Scheffé 검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III-42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평균 차이

|             |            | 온라인상에서의<br>사회적 현존감 | 온라인 활동에 대한<br>긍정적 인식 | 온라인<br>교류자본 | 오프라인<br>교류자본 |
|-------------|------------|--------------------|----------------------|-------------|--------------|
| 점수범위        |            | 0-6                | 0-4                  | 0-4         | 0-4          |
| 학생<br>청소년   | 1          | 3.02               | 2.53                 | 2.35        | 2.57         |
|             | 2          | 2.78               | 2.45                 | 2.14        | 2.18         |
|             | 3          | 3.84               | 2.79                 | 2.76        | 2.78         |
|             | F값         | 36.44***           | 11.47***             | 44.70***    | 70.29***     |
|             | Scheffé 검정 | 3)1)2              | 3)1,2                | 3)1)2       | 3)1)2        |
| 학교 밖<br>청소년 | 1          | 2.93               | 2.53                 | 2.33        | 2.51         |
|             | 2          | 2.53               | 2.37                 | 2.13        | 2.03         |
|             | 3          | 3.42               | 2.65                 | 2.67        | 2.79         |
|             | F값         | 7.41**             | 2.83                 | 5.82**      | 21.73***     |
|             | Scheffé 검정 | 3,1)2              | -                    | 3)2         | 3,1)2        |
| 대학생         | 1          | 2.82               | 2.55                 | 2.37        | 2.67         |
|             | 2          | 2.66               | 2.51                 | 2.25        | 2.28         |
|             | 3          | 3.39               | 2.57                 | 2.55        | 2.63         |
|             | F값         | 16.65***           | 0.43                 | 11.59***    | 37.15***     |
|             | Scheffé 검정 | 3)1,2              | -                    | 3)1,2       | 1,3)2        |
| 후기<br>M세대   | 1          | 2.58               | 2.58                 | 2.28        | 2.47         |
|             | 2          | 2.35               | 2.37                 | 2.08        | 2.15         |
|             | 3          | 3.48               | 2.40                 | 2.40        | 2.42         |
|             | F값         | 47.54***           | 10.42***             | 14.48***    | 25.48***     |
|             | Scheffé 검정 | 3)1,2              | 1)3,2                | 3,1)2       | 1,3)2        |
| 전기<br>M세대   | 1          | 2.61               | 2.58                 | 2.33        | 2.54         |
|             | 2          | 2.50               | 2.40                 | 2.12        | 2.21         |
|             | 3          | 3.31               | 2.41                 | 2.30        | 2.35         |
|             | F값         | 18.71***           | 5.10**               | 6.40**      | 15.96***     |
|             | Scheffé 검정 | 3)1,2              | 1)2                  | 1)2         | 1)3,2        |
| X세대         | 1          | 2.98               | 2.62                 | 2.42        | 2.61         |
|             | 2          | 2.62               | 2.41                 | 2.16        | 2.24         |
|             | 3          | 3.35               | 2.46                 | 2.40        | 2.43         |
|             | F값         | 30.93***           | 16.35***             | 24.85***    | 50.20***     |
|             | Scheffé 검정 | 3)1)2              | 1)3,2                | 1,3)2       | 1)3)2        |

주. 1유형=‘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2유형=‘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3유형=‘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

\*\* $p < .01$ , \*\*\* $p < .001$

학생 청소년의 경우,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중간 수준이고 교류자본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중간 수준이었는데,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학생 청소년 중 동일 유형과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낮았다. 이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대학생은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온라인 교류자본 수준이 모두 낮았으며, 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낮았고,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역시 모두 낮았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의 대학생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후기 M세대 중에서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동일 세대 다른 사회성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의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은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M세대 중에서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속한 사람들도 후기 M세대 동일 유형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동일 세대 다른 사회성 유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

에서의 사회적 현존감,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모두 낮게 나타났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은 동일 세대 내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가장 높고, 오프라인 교류자본도 높은 편이었다.

X세대 중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온·오프라인 교류자본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과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온·오프라인 교류자본이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하는 X세대는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현존감이 가장 높으며, 온라인 교류자본도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프라인 교류자본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조직의 민주적 분위기, 가족건강성 및 심리적 복지감 평균 차이

사회성 유형에 따라 학교나 회사와 같은 조직의 문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심리적 복지감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세대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III-43>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III-43 세대별 사회성 유형에 따른 조직 문화, 가족건강성 및 심리적 복지감 평균 차이

|             |            | 학교/직장<br>문화 <sup>1</sup> | 가족건강성    | 자아존중감     | 자아효능감     | 삶의 만족도    |
|-------------|------------|--------------------------|----------|-----------|-----------|-----------|
|             | 점수 범위      | 0-6                      | 0-3      | 0-3       | 0-3       | 0-6       |
| 학생<br>청소년   | 1          | 4.61                     | 2.33     | 2.04      | 2.21      | 4.20      |
|             | 2          | 3.93                     | 1.99     | 1.60      | 1.78      | 3.31      |
|             | 3          | 4.48                     | 2.37     | 1.75      | 2.32      | 4.83      |
|             | F값         | 67.72***                 | 91.86*** | 108.99*** | 163.01*** | 97.33***  |
|             | Scheffé 검정 | 1,3)2                    | 3,1)2    | 1)3)2     | 3,1)2     | 3)1)2     |
| 학교 밖<br>청소년 | 1          | 4.26                     | 2.09     | 1.99      | 2.18      | 3.53      |
|             | 2          | 3.78                     | 1.77     | 1.44      | 1.59      | 2.47      |
|             | 3          | 4.05                     | 2.13     | 1.43      | 1.91      | 3.38      |
|             | F값         | 7.50***                  | 12.98*** | 37.49***  | 52.99***  | 18.36***  |
|             | Scheffé 검정 | 1)2                      | 3,1)2    | 1)2,3     | 1,3)2     | 1,3)2     |
| 대학생         | 1          | 4.76                     | 2.07     | 2.17      | 2.22      | 3.77      |
|             | 2          | 4.19                     | 1.73     | 1.62      | 1.72      | 2.86      |
|             | 3          | 4.52                     | 2.13     | 1.74      | 2.19      | 4.50      |
|             | F값         | 32.98***                 | 43.90*** | 94.49***  | 131.78*** | 66.89***  |
|             | Scheffé 검정 | 1,3)2                    | 3,1)2    | 1)3,2     | 1,3)2     | 3)1)2     |
| 후기<br>M세대   | 1          | 3.58                     | 1.91     | 2.07      | 2.13      | 3.25      |
|             | 2          | 3.13                     | 1.54     | 1.54      | 1.62      | 2.35      |
|             | 3          | 3.63                     | 1.88     | 1.62      | 1.90      | 3.90      |
|             | F값         | 18.09***                 | 41.94*** | 88.01***  | 111.55*** | 57.57***  |
|             | Scheffé 검정 | 3,1)2                    | 1,3)2    | 1)3,2     | 1)3)2     | 3)1)2     |
| 전기<br>M세대   | 1          | 3.74                     | 1.97     | 2.16      | 2.12      | 3.65      |
|             | 2          | 3.01                     | 1.53     | 1.54      | 1.63      | 2.29      |
|             | 3          | 3.56                     | 1.82     | 1.58      | 1.82      | 3.85      |
|             | F값         | 22.93***                 | 36.95*** | 87.85***  | 65.53***  | 56.82***  |
|             | Scheffé 검정 | 1,3)2                    | 1,3)2    | 1)3,2     | 1)3)2     | 3,1)2     |
| X세대         | 1          | 3.96                     | 2.00     | 2.15      | 2.06      | 3.32      |
|             | 2          | 3.34                     | 1.64     | 1.64      | 1.68      | 2.23      |
|             | 3          | 3.66                     | 1.86     | 1.56      | 1.82      | 3.92      |
|             | F값         | 41.00***                 | 72.90*** | 258.20*** | 119.79*** | 110.06*** |
|             | Scheffé 검정 | 1)3)2                    | 1)3)2    | 1)2,3     | 1)3)2     | 3)1)2     |

주1.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했던 학교, M세대와 X세대는 재직 중인 직장에 대한 응답

주2. 1유형='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 2유형='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 3유형='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

\*\*\* $p < .001$

학생 청소년의 경우,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민주적 학교 문화와 가족건강성을 높게 보고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높은 수준,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민주적 학교 문화와 가족건강성 수준이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낮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역시 세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보고한 민주적 학교 문화와 가족건강성은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는 동일 세대 중에 가장 높게 보고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이전에 다녔던 학교의 민주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하였고 가족건강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에,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전 학교의 민주적 문화와 가족건강성 수준이 가장 낮았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의 경우는 다녔던 학교의 민주적 문화는 보통 수준이었으며, 가족건강성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낮았고, 자아효능감도 낮은 수준이었으나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대학생은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이 보고한 학교의 민주적 문화와 가족건강성이 높은 편이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도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모두 세 유형 중에 가장 낮았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의 대학생은 학교의 민주적 문화와 가족건강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자아효능감이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으나 자아존중감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후기 M세대 중에서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 수준이 모두 높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또한 동일 집단 내에서 가장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관계 지향적 직장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이 모두 낮았고,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 역시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낮았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의 경우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동일 세대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했다. 삶의 만족도도 절대적 점수는 보통 수준이나 후기 M세대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낮은 편이었다.

전기 M세대 중에서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을 높게 보고하였고,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또한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 수준이 모두 낮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 역시 가장 낮았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은 후기 M세대의 동일 유형과 유사하게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와 가족건강성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편이나 동일 세대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세대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낮은 편이었다.

X세대 중 ‘일반패턴의 높은 사회성’ 유형은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수준과 가족건강성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패턴의 낮은 사회성’ 유형은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삶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비일반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보고한 직장의 관계 지향적 문화나 가족건강성의 절대적 수준은 낮았으나 X세대 내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이 모두 낮았으나, 삶의 만족도는 동일 세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제4장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탐색

- 1. Z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2. M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3. 해외 사례
- 4. 시사점

## 4장 개요

### 연구 방법

- MZ세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았는지 관련 문헌을 고찰함. M세대는 학령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강조된 사회성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 Z세대는 청(소)년기 강조되는 사회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사회성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함.
- MZ세대 사회성 발달 지원과 관련된 해외 사례(일본과 미국)를 조사함.

### 주요 내용

#### 1. Z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청소년 Z세대 사회성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교육부의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있음.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성 함양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및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사회성과 관련 있는 인성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임.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규칙적 등교로 인한 사회성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각 지역에서 특별 교부금 및 사·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그러나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성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강화한 형태로 운영됨. 즉, 코로나-19 이전과의 차별성이 없음.
- 청년의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단위 대학 및 청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함.

#### 2. M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30대 M세대에 속하는 학령기 기준 1980년생부터 빠른 1993년생까지는 제6차 교육과정을 경험하였음. 이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방침 중 사회성 함양과 가장 근접한 내용은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임.
-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성인기 M세대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시민 의식, 매너 및 직장 생활 관계 기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함.

#### 3. 해외 사례

- 일본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이 돋보임. 고치현(高知縣) 교육위원회와 국립대학법인 도쿠시마대학(徳島大學)이 2015년 공동 개발한 '청년 날개 프로그램'은 전국에 보급되어, 학교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사회성을 함양하여 사회적 자립 촉진을 지원함. 또한 중학생(주로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진로 교육 연계 체험 활동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의식과 사회성을 고양하여 장래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함.
- 미국은 비영리단체 CASEL에서 추진하는 사회성·감성 학습 프로그램에 주목할 만함. 여기에서 정의하는 사회성·감성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능력, 책임 있는 의사 결정으로, 이를 함양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 실행되고 있음.

## 정책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성 결핍'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핍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상정하고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특정 개인, 집단을 문제적 대상으로 규정함. 그러나 사회성의 절대적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특정 세대의 관점과 경험을 일방적으로 준용하면 세대 나름의 사회성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가치가 간과됨.
-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을 목표로 수립된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성 및 심라정서 지원 사업을 강화한 형태로 운영되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 요구됨.
- 대학생 이상의 Z세대 집단을 위한 사회성 함양 교육 및 사업은 주로 단위 대학이나 지역 청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사회성 발달 교육과의 연계성, 현장 중심의 체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인기 M세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 자원은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움. 직무 현장 밖에서도 M세대가 자신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성 발달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 장에서는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사회성’이라는 개념도 학자, 시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측면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 장에서 고려한 것은 MZ세대는 각각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인간 집단으로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시대 변화로 인해 등장했다는 점이다(김용섭, 2021). 이에 각 세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M세대는 1983년에서 1996년 사이 출생자,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자로 정의하였다. 2022년 현재 M세대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연령대부터 이미 사회생활 경험이 축적되고 기성세대화되어 X세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연령대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같은 M세대라고 해도 그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사회성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사회성이 다를 수 있다.

반면 Z세대의 경우, 물론 연령 차는 존재하지만, 청(소)년기 인근의 생애주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사회성을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사회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Z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았고, M세대의 경우 그들이 청(소)년기, 즉 학령기에 있을 때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과 성인기에 접어든 이후 강조된 사회성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6) 본 장을 집필한 사람: 박지숙(공주대학교)

## 1. Z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1) 청소년 Z세대

#### (1)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Z세대 사회성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사업으로 가장 근접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교육부의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2022년 현재 제6차 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과 관련이 높은 과제는 ‘과제 1-1 청소년 참여 확대’, ‘과제 1-2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과제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과제 2-1 청소년 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 ‘과제 2-2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이다. 이와 같은 과제는 다양한 참여 및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고, 미래 사회 핵심 역량(생활 관리 역량, 대인관계 역량, 진로 개발 역량, 생애 학습 역량, 사회 참여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래 사회 핵심 역량 중 사회성과 관계있는 것은 대인관계 역량 및 사회 참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특정 과제에서 특정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은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서의 인성 함양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었다. 2022년 현재 제2차 종합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성’과 관계있는 인성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으로, 이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 해당한다. 각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과제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제1차 종합계획의 경우에는 인성교육의 개념, 추진 방향 및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학생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학교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고, 일회성·행사성 교육이 대부분이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여 제2차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나, 현재 적용 중인 시기에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울 것이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등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각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가치 및 역량이 사회성의 요소와도 다수 중복됨을 알 수 있다.

표 IV-1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의 사회성 지원 관련 과제

|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                                                                                                                                                                                                                                     |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
|--------------------------------------------------------------------------------------------------------------------------------------------------------------------------------------------------------------------------------------------------------------|-----------------------------------------------------------------------------------------------------------------------------------------------------------------------------------------------------------------------------------------------|
| <b>1.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해결, 비폭력 프로그램, 또래 조정, 학급 회의 등 학생 간 이해, 존중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확대</li> <li>- 학생의 관계 형성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li> <li>-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li> <li>- 학생 중심의 생활 예절 교육 및 생활 규칙 실천</li> </ul> | <b>1.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체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함양)</li> <li>-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인성 함양(공감, 의사소통 등 공동체 역량 함양)</li> <li>-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자원봉사 및 문화 활동)를 통한 인성 함양</li> </ul> |
| <b>2. 인성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내실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 주제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활동 연계 운영</li> <li>-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컨설팅 장학 강화</li> <li>- 봉사 활동을 통한 실천적 인성 함양</li> </ul>                                                                          | <b>2.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자치 확산 (수평적 의사소통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li> <li>- 공동체 활동 및 또래 활동을 통한 비폭력상호 이해와 존중 문화 확산</li> </ul>                                                             |
| <b>3. 지역 사회의 인성교육 참여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학기제진로 체험 지원 센터 등 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연계 센터 사업을 활용한 인성교육 지원 확대</li>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 참여 확대</li> <li>- 대학의 관심과 역할 제고</li> </ul>                                                  | <b>3.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기관기업의 교육 참여, 사회봉사 및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 지원 체계 조성</li> <li>- 농어촌 마을권역에 구축된 현장 체험 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활성화</li> </ul>                                       |

##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기

Z세대의 ‘사회성’이 보다 주목받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불규칙적 등교를 하게 되면서 사회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교육부, 2021).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및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1년 후(2021년)를 비교했을 때, 정신 건강 관련 사이버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또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내담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및 외로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증가' 등 대인관계와 활동 제한으로 인한 고립과 무기력감에 대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이는 청소년기의 주 활동 공간이 학교이고, 학교에서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환경과 노하우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소통 능력 등이 크게 부실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용섭, 202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자료에서도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비해 재학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특별 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자체 편성 예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표 IV-2>에 정리되어 있다.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성 함양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사회성 및 심라정서 지원 사업을 강화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도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IV-2 시도교육청 사회성 함양 관련 사업 예시

| 지역 | 사업명                      | 대상                   | 내용                                                                                                          |
|----|--------------------------|----------------------|-------------------------------------------------------------------------------------------------------------|
| 부산 | '함께해요 선생님' 사제동행 동아리      | 초중고 30팀<br>(1개교 1팀)  |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
|    | '어깨동무' 학급 토래 활동          | 초중고 50학급<br>(1개교 1팀) |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닫힌 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바른 인성을 지닌 올바른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 지원 |
|    | '꿈·끼' 학생 자율 동아리          | 초중고 30팀<br>(1개교 1팀)  | 학생 자율 동아리 운영                                                                                                |
|    | 학생 선거 공영제 지원             | 중 172교,<br>고 142교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가 부담, 관리                                                             |
| 대구 | 토래 활동 활성화 지원             | 초중고 452교             |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토래 멘토링, 학급 단위 자율·동아리 활동 등 교우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소모임 활동)                |
| 광주 | 관계 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학생 자치 활동 연계 토래 상담 및 어깨동무 활동, 교육과정과 연계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및 학교 특색에 맞는 생활 교육 주간 운영                        |
|    | 현장 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 지원       | 초중고                  | 초중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고등학교 1개 학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

| 지역 | 사업명                         | 대상              | 내용                                                                                      |
|----|-----------------------------|-----------------|-----------------------------------------------------------------------------------------|
|    |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체험              |                 | 초등학생 대상 문화 예술 체험 활동비 지원(초등 5학년, 1인당 12,000원), 찾아가는 힐링 스쿨 콘서트, 해설사와 함께 찾아가는 힐링 스쿨 미술관 운영 |
|    |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                 | 광주희망교실(사제동행 밀착형 소통과 공감 기회 확대) 선정 지원, 학급 운영비 지원                                          |
| 대전 | 친구사랑 행복학교 운영                | 초, 중, 고, 각종, 특수 | 학급 맞춤형 상담 활동, 체험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자율적 학급 문화 조성 지원                                         |
| 울산 | 온오프 블렌디드 체험 활동              | 관내 희망 중학교 10개교  |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현장학습 및 미래형 SW 개발 체험                                                        |
|    | 또래 활동·교외 체험 학습 지원           |                 |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자율 프로그램 지원                                                   |
|    | 모듬 활동 지원                    |                 | 교과 프로젝트, 창의적 체험 활동, 또래 멘토링 등 소규모 교내외 활동 운영                                              |
| 경기 | 소규모 활동 활성화 지원               |                 | 방역 안전성을 확보한 공간 등에서 학급 단위 소규모 그룹별 활동 지원                                                  |
|    | 자율 활동 운영                    |                 |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자율 활동 (자차·적응, 창의 주제 활동) 운영                                                  |
|    |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소규모·온라인 등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 경북 | 또래 활동·교외 체험 학습 '우리 모두 다 함께' |                 | 또래 활동, 놀이 활동, 사제동행 활동, 학교 안·밖 체험 활동 지원                                                  |
| 제주 | 사회성 결손 회복 지원                |                 | 학생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또래 활동, 사제동행 체험 학습)                                  |

\* 출처: 교육부 내부 자료.

이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2021년 전면 등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다. ‘교육 결손 회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의 상황에 맞는 ‘몸과 마음 회복 지원’이 계획되어,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성 함양,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회성 함양을 위한 과제로는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을 통해 등교 축소로 인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또래 교우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소모임 활동 운영 지원, 지자체·타 부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현장 체험 학습 지원이 있다.

표 IV-3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의 사회성 지원 관련 과제

| 영역    | 세부내용                                                                                                                                                                                           |
|-------|------------------------------------------------------------------------------------------------------------------------------------------------------------------------------------------------|
| 심리·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상담(교)사, 담임·교과 교사 등이 협력하여 집단 상담, 상호 이해 교육 등 학교·학급 단위 자율적 심리 지원 실시</li> <li>학생 맞춤형 종합 상담·치료를 위해 위(Wee)센터 및 외부 상담 기관 상담, 치료비, 방문 의료 서비스 등 제공</li> </ul> |
| 사회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래 멘토링, 자율·동아리 활동 등 교우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소모임 활동 운영 지원</li> <li>학교 밖 현장 체험 학습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소 무상 제공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지자체·타 부처 협업 추진</li> </ul>        |
| 신체·건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체력 학생을 위한 건강 체력 교실 운영 내실화,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참여 확대, '건강 UP+ 캠페인' 실시 등 추진</li> <li>바른 자세·척추 이상 예방, 눈 건강, 식습관 등 신체 건강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li> </ul>         |

〈표 IV-3〉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 사회성 지원이 포함된 ‘몸과 마음 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사회성’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나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교 자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등교 축소로 인해 결손된 사회성을 회복’(교육부, 2021:10)한다는 언급이 있다. 즉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것이 사회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이를 통해 갖게 되는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사회성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회복 종합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회복 종합 추진 방안 중 사회성 함양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IV-4〉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꿈드림)에서도 또래 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IV-4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종합 추진 방안 내 사회성 함양 관련 사업

| 교육청 | 내용                                                                                                                                                                                                                                                            |
|-----|---------------------------------------------------------------------------------------------------------------------------------------------------------------------------------------------------------------------------------------------------------------|
| 부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이해교육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 힐링(방과 후 텃밭 채소를 기르고 관찰)</li> <li>- 네 마음을 보여줘(공감 대화를 통한 마음 놀이, 감정 읽기 및 감정 숨바꼭질)</li> <li>- 재미 뽐뽐 체험 캠프(학년군별 사회성 및 정서함양 도모)</li> </ul> </li> </ul> |
| 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클래스 환경 개선비 지원</li> <li>• 고등학교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 방역 프로그램 실시</li> </ul>                                                                                                                                                |
| 세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중심 생활교육 전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단위 회복 프로그램, 관계 중심 실천 동아리, 또래오래 캠프 등 학생 기획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
| 전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지원 프로그램 및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li> <li>• 위기 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생명 지킴이(게이트키퍼) 전문가 양성</li> </ul>                                                                                                                                 |

\* 출처: 교육정책뉴스, '교육 결손 회복' 위한 교육청의 처방 시리즈 기사. <http://www.edupolnews.com/>에서 2022년 5월 20일 인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 또래 활동 및 학교 밖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인성 함양을 위해 강조되었으나, 이제는 사회성 함양을 위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에서 사회성이 보다 원활히 함양될 수 있다는 전제가 밑바탕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성 관련 정책 계획 발표가 많았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정책 계획 및 이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청년 Z세대 대상 사회성 프로그램

청년 Z세대의 경우 앞서 살펴본 청소년 Z세대와는 달리 사회성 함양을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정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 및 청년센터와 같은 개별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먼저 청년센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센터는 2019년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등을 근거로 조성된 시설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서울시 청년기본조례, 2017)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있다. 설립 목적에서 나타나듯이 청년센터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직접 지원과

공간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취미 및 생활 기술 교육은 강사가 학습자들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 또는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은 이와 달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특정 활동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최대한 당사자가 자유롭게 활동 및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5) 참조).

표 IV-5 전국 청년센터의 청년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청년센터 | 주요 내용                                                                                                                                                                                                                                                                                                  |
|------|--------------------------------------------------------------------------------------------------------------------------------------------------------------------------------------------------------------------------------------------------------------------------------------------------------|
| 제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끼리: 제주 지역 거주 또는 활동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교류 기회 제공, 동아리 활동 지원</li> <li>• 청년덕질: 제주 지역 거주 또는 활동 청년들의 청년 프로젝트 활동 지원</li> <li>• 청년원정대: 청년 여행기획자가 직접 기획한 제주 여행 프로그램</li> <li>• 청년재주꾼: 청년 콘텐츠 및 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의 서포터즈 활동 지원</li> </ul>                                          |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오랑’이라는 사업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포오랑 대화소모임 &lt;두시티톡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gt;</li> <li>- 강동오랑 &lt;마음보담(談) 美(me)를 찾아서: 연극으로 내 마음 이해하기&gt;</li> <li>- 강서오랑: 범기티톡(대화소모임)</li> </ul> </li> </ul>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외톨이 가정 방문 상담(6개월 이상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광주 청년 및 가족 상담)</li> <li>• 일단모함: 광주 청년 2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li> <li>• 소셜다이닝 1인 밥상: 청년들이 밑키트 요리로 함께 식사하며 고민 나눔</li> </ul>                                                                                      |
| 세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임팩트 프로젝트 지원 사업(청년 활동가 지원) &lt;사이사이테이블&gt;</li> <li>• 청년 모임 지원사업 &lt;사이클럽&gt;</li> <li>• 청년 네트워킹 파티 &lt;놀라운 월요일&gt;</li> </ul>                                                                                                                               |

\* 출처: 각 청년센터 홈페이지(제주청년센터 <https://jejuyouth.com>,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광주청년센터 <https://www.gjyouthcenter.kr>, 세종청년플랫폼 <https://www.sjnarae.or.kr/>)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심리) 상담 센터, 인권 센터, 대학생활(문화)원 등의 부속 기관에서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본래 기능은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이 확장되어 심리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주로 집단 상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룹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다수가 모여, 집단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



고 타인과 나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대학 부속 기관 운영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대학                 | 주요 내용                                                                                                                                                                                                                                                                                                                                                                                                                                                                                                                                                                                                                                                                                          |
|--------------------|------------------------------------------------------------------------------------------------------------------------------------------------------------------------------------------------------------------------------------------------------------------------------------------------------------------------------------------------------------------------------------------------------------------------------------------------------------------------------------------------------------------------------------------------------------------------------------------------------------------------------------------------------------------------------------------------|
| 서울대학교<br>대학생활문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조절 역량 개발 ‘감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을 인식하고 제대로 경험하여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교육, 실습</li> </ul> </li> <li>• 대인관계 역량 개발 ‘T-T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역할과 새로운 역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기</li> </ul> </li> <li>• 대인관계 역량 개발 ‘스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공감 대화법 교육 및 실습, 이수자는 멘토링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또래 상담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ul> </li> <li>• 이웃 사랑(VMP: Volunteer Management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 자원봉사 참여 및 이웃 사랑 모임에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li> </ul> </li> </ul> |
| 서울교육대학교<br>대학생활문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상담 ‘내 마음속에 저장’(포토 에세이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 에세이를 활용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li> </ul> </li> <li>•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나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li> </ul> </li> </ul>                                                                                                                                                                                                                                                                                                                                                                              |
| 경남대학교<br>대학생활문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대학 생활(1학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관계 형성 동기 향상</li> </ul> </li> <li>• 굿 커뮤니케이션 굿 JOB(4학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원하는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li> <li>-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여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지원</li> </ul> </li> </ul>                                                                                                                                                                                                                                                                                                                                     |

한편 전학(全學) 차원에서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성 함양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로,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sup>27)</sup>’에 주목할 만하다. ‘바롬인성교육’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생활 교육과정으로 교양 필수(신입생, 2학년 대상), 교양 선택, 바롬인성 심화 과정(비교과 특별 인증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양 필수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성 함양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7>과 같다.

27)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부 홈페이지. <https://bahrom.swu.ac.kr/>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표 IV-7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 교양 필수 과정

| 과정명         | 주요 내용                                                                                                                                                                                                                                                                                                                                                                                                                                                                                                                                                                                                                                                                                                                                                                     |
|-------------|---------------------------------------------------------------------------------------------------------------------------------------------------------------------------------------------------------------------------------------------------------------------------------------------------------------------------------------------------------------------------------------------------------------------------------------------------------------------------------------------------------------------------------------------------------------------------------------------------------------------------------------------------------------------------------------------------------------------------------------------------------------------------|
| 바롬인성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1: 나다움으로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와의 상호작용과 '나다움'의 메커니즘 이해</li> </ul> </li> <li>• 수업2: 진정한 나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진실성 개념을 바탕으로 '나다움'에 대해 이해</li> <li>-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 함양</li> </ul> </li> <li>• 수업3: 관계, 차이 그리고 그 너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소통(대화)이며, 지속적인 소통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함을 이해</li> </ul> </li> <li>• 수업4: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구성원이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공유되는 가치의 다양성과 차별성 경험, 가치 형성의 관점을 생활에 적용</li> </ul> </li> <li>• 수업5: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가 만드는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 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성찰</li> </ul> </li> </ul> |
| 바롬종합설계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을 위한 핵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과 소통: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 관심과 배려, 공적 소통, 협력적 자기조절, 갈등 관리, 협동</li> <li>- 문제 발견·해결 능력: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문해력, 문제 발견과 문제 분석, 창의적 기획 및 실행력</li> <li>- 정보 처리 능력</li> <li>- 프로젝트 관리 능력</li> </ul> </li> </ul>                                                                                                                                                                                                                                                                                                                                                                                                                                                                            |
| 바롬인성교육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T 및 특강: 소통 관련 특강</li> <li>• 수업1: 준비 모임(팀 구성 및 팀 빌딩)</li> <li>• 수업2: 관심 주제 나눔(관심 사회 문제 나눔 및 질문, 토의 주제 선정)</li> <li>• 수업3: 미니 토의(팀 관심 주제에 대한 토의, 해결 및 실천 방안 모색)</li> <li>• 특강2: 여성학 관련 특강</li> <li>• 수업4: 팀 미션(소통 챌린지 및 최종 발표를 위한 준비)</li> <li>• 열린 공간 소통 챌린지: 토의 내용 공유 및 피드백</li> <li>• 수업5: 발표(발표, 소감 나누기)</li> </ul>                                                                                                                                                                                                                                                                                                                                                                                                           |

## 2. M세대 대상 사회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1) M세대가 경험한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성 함양

30대 M세대에 속하는 학창 시절 기준 1980년생부터 빠른 1993년생까지는 6차 교육과정을 경험하였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추구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방침 중 하나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을 들었다. 이 방침이 사회성 함양과 가장 근접한 내용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과목에서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표 IV-8>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8 제6차 교육과정 내 사회성 함양 관련 과목 및 내용

| 과목 | 중학교          |                                                                                                                                                                                                                                                                                                     |
|----|--------------|-----------------------------------------------------------------------------------------------------------------------------------------------------------------------------------------------------------------------------------------------------------------------------------------------------|
|    | 영역           | 내용                                                                                                                                                                                                                                                                                                  |
| 도덕 | 가정, 이웃, 학교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학교생활의 의의</li> <li>학교생활의 예절</li> <li>가정생활과 도덕 문제</li> <li>학교생활과 도덕 문제</li> <li>올바른 친족, 이웃 관계</li> <li>가정, 친족, 이웃 간의 예절</li> <li>가정생활과 도덕 문제</li> <li>이웃 생활과 도덕 문제</li> <li>바람직한 가정의 모습</li> <li>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li> </ul>                               |
|    | 사회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사회와 공중도덕</li> <li>현대 사회의 시민 윤리</li> <li>현대 사회와 청소년 문화</li> <li>민주 사회와 인간 존중</li> <li>복지 사회와 경제 윤리</li> <li>현대사회와 전통 도덕</li> <li>현대사회와 환경 문제</li> <li>사회적 도덕 문제의 해결</li> <li>민주적 태도와 생활 양식</li> </ul>                                                      |
| 국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여러 가지 상황</li> <li>언어와 사회</li> <li>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말 듣기/글 읽기/글쓰기</li> <li>설득을 위한/하는 말하기/말 듣기/글 읽기/글쓰기</li> <li>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말하기/말 듣기/글 읽기/글쓰기</li> <li>공식적인 말하기/말 듣기의 태도 및 습관</li> <li>표현 및 전달의 여러 가지 원리</li> <li>정확한 읽기/쓰기의 태도 및 습관</li> </ul> |
| 사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발전과 생활의 변화</li> <li>개인과 사회생활</li> <li>현대 사회와 개인 생활</li> <li>사회 조직과 인간</li> </ul>                                                                                                                                                                          |
| 체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 존중, 책임감, 협동심, 관용, 감투 정신, 예의, 규칙 준수, 통솔력, 희생정신</li> </ul>                                                                                                                                                                                                  |
| 가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li> <li>청소년기 발달의 특성</li> <li>가족 관계와 의사소통</li> </ul>                                                                                                                                                                                        |

## 2) M세대 대상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현재 성인기인 M세대가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은 평생교육기관이다. 평생교육기관은 주로 중장년층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전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M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평생교육기관의 주 이용자가 성인이라는 점에서 M세대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광역 시·도는 평생교육(학습) 포털을 운영, 해당 지역 전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평생교육(학습) 포털에서 알 수 있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9>와 같다.

표 IV-9 평생교육기관 운영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 지역                      | 주요 내용                                                                                                                                                                                                                                                                                                                                                                                                          |
|-------------------------|----------------------------------------------------------------------------------------------------------------------------------------------------------------------------------------------------------------------------------------------------------------------------------------------------------------------------------------------------------------------------------------------------------------|
| 경기도<br>(평생학습 포털 온라인 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에게 배우는 설득과 소통의 법칙, 리더의 말하기(커뮤니케이션)</li> <li>• 핵심만 꼭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li> <li>• 핵심만 꼭 대인관계와 네트워킹(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li> <li>• MZ세대와의 소통법(커뮤니케이션)</li> <li>• 소통으로 이루는 일상 속 민주주의(시민 의식)</li> <li>• 소통하는 인간, 혼자 사는 인간(인문 소양, 사회성)</li> <li>• 탁월한 소통을 위한 다섯 가지 접근(커뮤니케이션)</li> <li>• 온라인 회의,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커뮤니케이션)</li> <li>• 직장에서 소리치지 않고 통하는 마법(커뮤니케이션)</li> </ul> |
| 인천시<br>(e배움캠퍼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소은의 퍼블릭 스피킹, 말하기를 말하다(경영/비즈니스)</li> <li>• 실례합니다만, 비즈니스 매너는 지켜주시겠어요?(경영/비즈니스)</li> <li>• 하마터면 곤대가 될 뻔했다(리더십)</li> <li>• 성공을 부르는 비즈니스 스피치(경영/비즈니스)</li> <li>• 4차 산업 시대의 융합 커뮤니케이션(경영/비즈니스)</li> </ul>                                                                                                                                                                  |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 능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설 프라임칼리지)</li> <li>• 직장 생활 관계의 기술(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설 프라임칼리지)</li> <li>•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KOCW 한국교육학술정보원)</li> </ul>                                                                                                                                                                                                                                           |

### 3. 해외 사례

####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세대 구분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MZ세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독자적으로 ‘유토리 세대’(ゆとり世代) 및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떤 교육과정(문부과학성 학습지도 요령)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유토리 세대의 범위는 논자에 따라 1966년 4월 2일(2022년 현재 56세) 또는 1987년 4월 2일(2022년 현재 35세)부터 2004년 4월 1일 출생자(2022년 현재 18세)에 해당한다. 사토리 세대의 범위 역시 논자에 따라 다른데, 1980년 4월 2일(2022년 현재 42세) 또는 1987년 4월 2일부터 2004년 4월 1일 출생자에 해당한다. 즉 2022년 현재 18세에서 35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유토리 세대와 사토리 세대의 중복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토

리 세대가 Z세대라고 불린다<sup>28)</sup>.

일본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치현(高知縣) 교육위원회와 국립대학법인 도쿠시마대학(徳島大学)에서 2015년 공동 개발한 ‘청년 날개 프로그램’(若者はばたけプログラム)<sup>29)</sup>이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전국에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교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사회성을 함양하여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크게 의욕 향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마다 참가자용 교재와 지도자용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이 절에서 주목하는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 트레이닝’으로, 이는 크게 기초, 기본, 응용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0>에 제시된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기술’은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성은 의사소통 능력과 가장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청년 날개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술 트레이닝’ 주요 내용

| 구분                    | 회차 | 프로그램명(세부 주제)    |
|-----------------------|----|-----------------|
| 사회적 기술 트레이닝을 시작하기에 앞서 |    |                 |
| 기초 편                  | 1  | 언어 이외의 커뮤니케이션   |
|                       | 2  | 회화(대화) 시작하기     |
|                       | 3  | 좋은 청취법          |
| 기본 편                  | 4  | 따듯한 말 건네기       |
|                       | 5  | 감사의 마음 전하기      |
|                       | 6  | 자신의 생각, 마음을 전하기 |
|                       | 7  | 사과하기            |
|                       | 8  | 분노 조절하기         |
|                       | 9  | 부탁하기            |
|                       | 10 | 부탁 거절하기         |
| 응용 편                  | 11 | 일상 회화하기         |
|                       | 12 | 경어(존댓말) 사용하기    |
| 과제                    |    |                 |

28) 일본 화이트 커리어 홈페이지. [jwe-japan.or.jp/whitecareer](http://jwe-japan.or.jp/whitecareer)에서 2022년 3월 20일 인출.  
 29) 청년 날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고치현 홈페이지. <https://www.pref.kochi.lg.jp/soshiki/310401/2015050700198.html>에서 2022년 3월 20일 인출.

한편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직업·진로 교육과 연계된 체험 활동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도야마현(富山県)이 현 내 중학생(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체험 활동인 ‘사회로부터 배우는 14세의 도전’(社会に学ぶ14歳の挑戦) 사업<sup>30)</sup>은 체험 활동형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모든 도도부현에서 이와 같은 체험 활동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14세의 도전’은 전국에서 비교적 초기에 시작되었고,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9년 27개교, 학생 3,318명, 참여 사업소 수 938개로 시작(당시에는 3일간 실시)된 이 사업은 2019년 현재 79개교, 학생 8,671명, 참여 사업소 수 3,098개로 확대되었으며, 도야마현 내의 모든 공립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2학년생이 5일간 직장 체험 활동 또는 복지·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가, 규범의식과 사회성을 고양하여 장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등,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①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마음과 태도, ② 스스로 과제를 찾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 ③ 스스로를 다루고, 주변 사람과 협조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④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의식을 의미한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로 추진위원회와 지도(指導)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보호자, 지역의 각종 대표 단체, 체험 시설·기업 관계자로 조직된다. 추진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시기, 장소, 내용 등의 선정 및 지도 자원봉사자 확보를 담당한다. 학생 보호자, 지역 주민, 체험 시설·기업 관계자는 지도 자원봉사자가 되어, 학생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활동 상황을 파악하여 학교와 연락 등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내용은 매우 다양하나 ① 농업·어업·임업, ② 공원 등 미화 활동, ③ 공장, 상점, ④ 작품 제작·조사 활동, ⑤ 보육·복지 등으로 구분된다. 활동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팀마다 지도 자원봉사자가 배정된다. 체험 활동은 5일(토, 일 제외)로 1일 체험 시간이 7시간을 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체험 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0) 14세의 도전 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야마현 홈페이지 <https://www.pref.toyama.jp/3002/kurashi/kyouiku/kyouiku/kj00001004.html>에서 2022년 3월 21일 인출.

## 2) 미국

미국 사례로는 사회성·감성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의 사례<sup>31)</sup>를 살펴보고자 한다. CASEL은 ‘Emotional Intelligence’의 저자인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을 중심으로 총 7명이 1994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학급, 학교, 가족·돌봄 제공자, 지역 사회, 학교구, 주 및 연방 수준에서의 사회성·감성 학습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CASEL에서 정의하는 사회성·감성은 크게 5가지로(CASEL 5), 자기 인식(self-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대인관계 능력(relational skills), 책임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이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이것이 다양한 맥락 전반에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관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 맥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대인관계 능력은 건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유지하고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배려하고 건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CASEL의 프로그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급에서 실행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인증별, 경제 수준별 등 적용되기에 최적의 대상과 프로그램이 상정하는 결과를 명시하고 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CASEL의 사회성·감성 학습 프로그램(중·고등학생 대상)

| 프로그램명                        | 내용                                                                                                        | 결과                                                                               |
|------------------------------|-----------------------------------------------------------------------------------------------------------|----------------------------------------------------------------------------------|
| BASE Educ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주제를 교실에서 토론</li> <li>주로 온라인으로 진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에서의 유대감, 소속감 증진</li> </ul>              |
|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활동 프로젝트(편견, 형평성, 사회 정의 관련)를 촉진하는 워크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제 행동 감소, 학교 분위기 개선, 사회적 행동 개선</li> </ul> |
| Hallway Hero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 후 또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li> <li>부모 및 보호자와 함께 자유로운 글쓰기 활동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행동 개선</li> </ul>                      |

31) 이하 내용은 CASEL 홈페이지. <https://casel.org/>에서 2022년 4월 29일 인출.

## 4. 시사점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였고 국내의 경우는 다시 시기에 따라 살펴보았다. 향후 MZ세대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사회성’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사회성에 대해 ‘결핍’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등교 축소로 인해 결손된 사회성을 회복’(교육부, 2021:10)이라는 문구의 ‘결손되었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결핍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결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잣대를 전제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을 문제적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세대 나름의 사회성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가치가 간과 및 부정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

둘째, 사회성 회복을 목표로 수립된 정책과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성 및 심라정서 지원 사업을 강화한 형태로 운영돼 기존 사업과는 차별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학생 자치 활동 지원 등은 이전부터 학교생활 및 심라정서 지원 차원에서 계속되었던 사업이지만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성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 일각의 문제의식처럼 청소년의 사회성 결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특수 상황이라면 그에 걸맞은 맞춤형 사업의 기획과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생 이상의 Z세대 집단(청년)을 위한 사회성 함양 교육 및 사업은 주로 단위 대학이나 지역 청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사회성 발달 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단위 기관에서 나름의 체계적 교과 과정과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이들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전국의 청년센터 및 대학 내 부속 기관 운영 프로그램이 중등교육 현장에서의 사회성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지식 전달이나 이론 위주의 사회성 교육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Z세대의 사회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성인기인 M세대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평생교육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학습) 포털



에 M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기관의 주 이용자는 중장년층 성인이고,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의 수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취미·교양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다. 일부 운영되는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은 동영상 강의가 많아,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기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M세대가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이 전 연령대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 사례로 일본과 미국의 사회성 함양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성을 명확히 정의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최대한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즉 사회성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성을 분명히 정의하고, 사회성 함양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정책 제언

- 1. 정책 과제 도출 과정 개요
- 2. 정책 목표와 과제

## 5장 개요

### 연구 방법

- MZ세대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사회성 발달 이론과 개념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MZ세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GI)과 대규모 설문조사, MZ세대의 사회성 함양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탐색, 그리고 교육 및 직무 현장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실시함.

### 주요 내용

- **정책 목표 1. 사회성 발달을 위한 과학적, 유기적 정책 지원 환경 구축**
  - 과제 1. 증거 기반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수립
  - 과제 2.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정책 수립
- **정책 목표 2. 사회성의 다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 과제 1.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제고
  - 과제 2. 교육·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 활동 강화
- **정책 목표 3. 사회성 취약 집단 지원 및 사회성 함양의 패러다임 전환**
  - 과제 1. 전(全) 세대 사회성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 및 지원
  - 과제 2.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1. 정책 과제 도출 과정 개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회 일각의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성 발달 이론, 사회성의 다양한 개념과 구성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성의 다양한 개념과 구성 요인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성의 개념을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성을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총 1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질문지와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 초점집단면담(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는 5개 유형(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사회 중년생)별로 2개 집단을 면접하여 총 10회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면접 대상자는 총 39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총 5,271명(학생 청소년 1,471명, 학교 밖 청소년 400명, 대학생 800명, M세대 성인 남녀 1,300명, X세대 성인 남녀 1,300명)을 표집하여 이들의 사회성 실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태도와 이에 대한 가치관, 소속 조직과 일상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MZ세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았는

32) 본 장을 집필한 사람: 최정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M세대는 학령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강조된 사회성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 Z세대는 청(소)년기 강조되는 사회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사회성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관련 사례(일본과 미국)도 함께 조사하였다.

끝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놓인 MZ세대의 대표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 및 직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청년센터 등에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중고등학교 교사, 교육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 대학교수, 청년센터 실무자,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MZ세대 사회성의 특징, 코로나-19 시대에 MZ세대가 지향해야 할 사회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및 지원 방안 등을 자문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을 이해하고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2. 정책 목표와 과제

### 1) 사회성 발달을 위한 과학적, 유기적 정책 지원 환경 구축

#### (1) 증거 기반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수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MZ세대의 사회성 결핍,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 결핍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됐다. 교육부(2021)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 사회성 결손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사회성 회복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의 토래 활동 및 교외 체험 학습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교사, 교육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교수 대다수도 코로나-19로 인한 Z세대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집단의 사회성 위축에 대하여 염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Z세대의 사회성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이들의 사회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매체의 추측성 기사, 비대면(온라인) 소통과 교류 방식에 대한 생소함과 편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회적 고립(차단) 간의 혼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실증 자료는 Z세대의 사회성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Z세대 당사자, 특히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가 자신의 사회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여기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이전 대비 변화 없거나 더 좋아짐)하는 경향이 전체 세대 집단을 통틀어 가장 강하였다. 반면에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 M, X세대 집단이 오히려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이전보다 나빠졌다)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정점에 X세대가 있었다. FGI에 참석했던 학생 청소년 집단 역시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청소년들과 동일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등교와 센터 운영의 단속이 반복됨에 따라 학생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및 교류하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교육 현장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Z세대 청소년이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제약을 초래한 것은 아님을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맺음은 온라인 공간을 위시해 교육 현장이 아닌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청소년기 발달에서 학교와 센터 등의 사회화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지만 동시에 이러한 공간과 공동체가 Z세대 청소년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Z세대들의 사회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 우려는 객관적인 자료와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실제와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 종사자들이 사회 일각이 제기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Z세대 청소년들이 학교 등의 기관에서 보이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을 세대의 특징이 아닌 사회성 결핍의 결과로만 규정짓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Z세대의 사회성에 대한 몰이해와 이해 당사자 간 또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각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 교류와 활동의 속성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두 세대의 사회성에도 투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자신의 사회성을 기준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Z세대의 사회성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적절치 못한 대안 제시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세대 비교적 관점에서 Z세대의 사회성에 배태된 특수성과 보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성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증거 기반의 사회성 지원 정책 수립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매해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검사는 학교에서 문제적 정서와 행동 징후를 보여주는 관심군, 즉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사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 검사이다. 조사에서 다뤄지는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 이해, 공동체 의식, 사회적 주도성, 심리적 부담, 불안, 자기통제 수준 등은 피검사자의 사회성을 가늠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로, 검사 자료의 연도별, 코호트별 비교를 통해 학생 청소년의 사회성이 코로나-19를 전후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증거 기반의 사회성 발달 지원 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선행돼야 할 환경은 이와 같은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 대학 등 다양한 미래세대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다양한 미래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및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안팎의 미래세대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행정 기관이 이러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기반으로 대상별 맞춤형 검사 도구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각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생애주기 관점에 입각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정책 수립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유독 아동 및 청소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이 남은 생애주기 전반의 발달 궤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적 발달이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시기마다 필요한 사회성을 학습하고 실천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성 위축을 둘러싼 사회 일각의 문제의식과 담론이 주로 Z세대 청소년 집단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들 못지않게 M세대들의 사회성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라는 새로운 사회화 기관에서 사회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맡게 되는 후기 M세대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적합한 사회성의 습득과 실천은 해당 생애주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지원을 위한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4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후기 M세대 청년들에게 맞는 지원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가 차원의 사회성 함양 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적 영역의 지원이라고 해도 일부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지역 청년에게 제공하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중장년층 성인 전체를 타깃으로 한 평생교육(학습) 정도가 전부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단위 대학에서 자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전부였다. 실제 사회성 함양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국가(중앙 정부) 차원의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후기 Z세대에 해당하는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후기 M세대 집단과 후기 Z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했을 때 더 많은 문제적 양상을 보이는 집단은 후기 M세대였다. 현재의 사회성 수준에 대한 자기 평정에서 후기 M세대는 평균 6.96점으로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의 7.29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재택근무가 자신의 사회성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후기 M세대의 부정적 인식은 후기 Z세대의 긍정적 인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T점수를 이용해 각 세대 집단의 사회성 발달 수준을 13개 하위 요인별로 비교했을 때 후기 M세대는 전체 평균(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11개로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물론 T점수의 전체 평균이 해당 사회성 영역의 결핍이나 미숙 등을 판단하는 절단점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사회성 위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세대별 사회성의 객관적 수준은 후기 Z세대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못지않게 후기 M세대 청년 집단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공적 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했던 청년센터의 실무자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문제를 제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소수의 조직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미래세대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돼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공백은 국가(중앙 정부)가 공적 자원의 투입을 통해 우선적으로 메워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청년 날개 프로그램(若者はばたけプログラム) 보급 사례와 같이 청년의 사회적 기술 트레이닝에 특화된 프로그램 표준안이 개발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교육 및 직무 현장(청년센터, 대학, 그리고 직장 등)에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생애주기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 지원에 편중된 정책적 관심을 청년기까지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생애 각 단계를 잇는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이 실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성 함양을 위한 정책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2) 사회성의 다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 (1) 사회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제고

본 연구는 사회성의 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사회성은 유동적이고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다(2장). 사회성이 유동적이라는 말은 생애주기에 따라 인간이 학습하고 성취해야 할 사회성이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이 체득해야 할 사회성이 달라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의 M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로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더 능숙하게 다루서가 아니다. 이들이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매체로 생활 양식, 소통 방식, 직업 윤리, 노동 가치, 소비 행태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치완, 2019).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새로운 사회 생태계를 주도하는 이들의 사회성은 기성세대의 사회성과는 구별된 발달 양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실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는 X세대와 정반대되는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의 사회성 발달 양상을 보여주었다. X세대는 책임감, 자율성, 근면성, 사교성, 안정성,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 집단은 자기조절, 주장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는 X세대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과 원만하게 협업하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후기 Z세대는 무리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를 이끌고자 하는 성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성 발달 양상의 세대 간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 현장

의 전문가 집단이 보여준 인식과 태도는 후자보다 전자에 가까웠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대면 공동체 활동(등교 수업)의 중단 등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과의 협업, 개인의 손해나 불편 감수, 규칙 준수 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함양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이해득실에 민감해하는 등 개인주의적 또는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흥미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Z세대의 모습을 Z세대가 지향하는 주장성,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등의 자기 주도적 사회성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학교와 직장 등의 사회화 기관에서 특정 세대의 사회화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성이 무엇인지를 정형화하고 재단한다면 이는 다른 세대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세대 차이를 세대 갈등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Z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기성세대가 성장해 온 환경과 다르고, 이로 인해 사회성에 대한 두 세대의 시각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Z세대가 보이는 위와 같은 모습들을 공동체의 유대를 저해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혹은 사회성의 결핍으로 단정 짓는 완고함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 활동 강화

신구 세대의 구분을 떠나 세대의 특징적인 사회성이 상호 존중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 및 확산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 활동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협업하는 교육 공동체와 직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육 현장과 직무 현장의 전문가들 또한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주기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은 학급 단위의 역할극 놀이, 포레 및 선후배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교사와 학생이 학교 안팎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함께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 활동, 체육 활동, 그리고 놀이 활동(특히 온라인 게임) 등이 Z세대 내부는 물론 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교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세대 간 교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의 정비,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 내 유관 부서 신설 및 개편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지원, 사회성 발달 관련

외부 전문 인력 활용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가 집단 역시 사회성 교육이 구조화된 강의를 통한 단순 지식 전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직접 다른 세대와 함께 협업하고 소통함으로써 현실적 맥락에서 사회성을 이해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사회성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 현장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회성 함양을 위한 해법 역시 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유사하였다. 공간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바뀌었을 뿐, 직장 내 신·구세대 간의 정기적 협업과 교류가 서로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逆)멘토링 제도를 들 수 있다. 역멘토링은 직장 내에서 연차가 높은 기성세대가 멘토가 되어 MZ세대 신규 입사자가 업무를 배우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일정 기간 동안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에 대한 역발상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온라인(디지털) 업무 방식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가 MZ세대 직원의 멘토링을 받아 업무 역량을 높이는 역멘토링 프로그램과 기존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동시적 운영은 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는다. 교류와 협업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사내 문화를 바꿔나가는 또 다른 예로는 직장 문화 개선 특별 팀(task force)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MZ세대가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의 팀을 지휘하여 작업 환경의 효율성 제고, 사업 아이디어 발굴, 상호 존중의 따뜻한 업무 분위기 조성 등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 현장의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조직에 대한 MZ세대의 소속감을 높이고 조직 내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협업하고 교류하는 방식 외에도 팀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나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방식 또한 직무 현장에서의 세대 간 간극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세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 직무 현장에서 MZ세대와 X세대 모두가 서로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맞춰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세대에 대한 다른 세대의 일방적 이해와 포용은 가능하지도 또 건강하지도 않은 공존 방식이다. 온라인은 신세대, 오프라인은 구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떠나 MZ세대와 X세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이들 모두의 세대 포용적 사회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 3) 사회성 취약 집단 지원 및 사회성 함양의 패러다임 전환

#### (1) 전(全) 세대 사회성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MZ세대의 사회성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인식에는 ‘세대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세대별로 사회성을 유형화해본 결과, 모든 세대에서 사회성이 취약한 계층이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대에서 사회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집단과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 그리고 사교성과 대인관계 및 책임감과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안정한 사회성 발달을 보이는 집단이 존재했다. 또한, Z세대의 사회성에 대한 언론과 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 청소년들은 사회성이 전반적으로 좋은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52%로 모든 세대 집단 중 가장 높았지만, 같은 후기 Z세대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7%만이 사회성이 높은 집단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대 간 대결 구도에 가려진 세대 내 이질성에 주목하여 사회성이 취약한 ‘세대’가 아니라 사회성이 취약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문제를 겪는 것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어려움이 아니며,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적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후기 Z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집단에서 사회성 발달 수준이 낮은 집단은 사회성 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유의하게 작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56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화체육관광부)’을 위해 (가칭)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골자는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 이 사업이 벤치마킹한 영국 고독부(Ministry of Loneliness)와 일본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신인철, 2022).

이처럼 사회성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은 모든 세대에 존재하고, 따라서 해당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등으로 불리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은 그 특성상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 어렵고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리하여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꾸준한 사례 관리를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제 최전선에서 직접 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소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꿈드림)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이와 유사한 각종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필요한 노력 및 인력과 재정에 비해 실제 정책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사회성의 결여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영국의 고독부 신설과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의 존재는 해당 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실제적 이로움을 제대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성이 높은 집단은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또한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시민들의 높은 사회성이 가져다줄 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과 조례의 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염려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과 공간을 오프라인에 한정 지어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면접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 넘게 겪어본 지금의 우리 사회에게는 사회성 함양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등교가 제한될 때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Z세대들은 온라인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고 관계 맺기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심지어는 나라 밖으로 확장해 나갔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덜 익숙한 전기 M세대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본인들에게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함을 실감하였다.

이제는 온라인 공간 또한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장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회성 함양에 관한 기존의 지식들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원격 수업을 통해서도 사회성 함양이 어렵다는 기초를 가지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등교 수업을 전제로 한 또래 활동과 교외 체험 학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전에 비해 사회적 접촉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이전 방식의 사회성 증진 방향을 고수하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사상가로 평가 받는 셰리 터클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테크놀로지를 빚을 준비’를 해야 한다(Turkle, 2012:46-47).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기를 때에 적절한 태도와 사회적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와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를 분석한 맥크린들(McCrindle)은 한 인터뷰에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경험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을 보면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에 익숙한 알파세대는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김소희, 2020. 4. 6.). 이와 같은 능력은 알파세대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사회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를 마련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갖춰야 할 적절한 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강민주 (2013).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6), 1-28.
- 강인희 (2021.3.9.). **[코로나19 교육기획]② 인터넷 몰입·사회성 손실 '심각'**.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4795>에서 2022년 2월 17일 인출.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홈페이지.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에서 2022년 5월 19일 인출.
- 고득영, 유태용 (2012). 직무자율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성격과 조직혁신풍토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215-238.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고치현 홈페이지. <https://www.pref.kochi.lg.jp/soshiki/310401/2015050700198.html>에서 2022년 3월 20일 인출.
- 고현, 신명신 (2013). 푸드아트테라피가 청각장애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4), 419-441.
-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giyouthcenter.kr/>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교육부 (2021).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51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2년 2월 17일 인출.
- 교육정책뉴스. **「교육 결손 회복」 위한 교육청의 처방 시리즈 기사**. <http://www.edupolnews.com/>에서 2022년 5월 20일 인출.
- 국가교육회의 (2020).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교육회의.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홈페이지. <http://www.lifelongedu.go.kr/>에서 2022년 5월 19일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3274&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43274&searchKeywordTo=3)에서 2022년 2월 16일 인출.

권성복, 곽명희 (2018).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공동체의식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2(3), 169-180.

권성옥 (2017). 일탈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22(1), 107-113.

권윤선, 이경화 (2010). 생활창의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0(1), 27-51.

김경민, 최정원, 송지은 (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의사소통 유형화와 유형별 사회성발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2(2), 213-135.

김경숙, 박희서 (2014). 청소년의 브랜드인식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9(1), 181-189.

김경희 (2015). IT환경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7), 1671-1679.

김광호 (2021). 청소년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학교생활의 매개 효과와 성별 차이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45-554.

김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5-44.

김동하 (2013).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관계와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기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53-76.

김동환 (1992). **건강한 사회성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한, 유양경, 이은진, 손무경 (2013). 마음수련 프로그램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9(1), 145-171.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208-217.

김선희 (2019).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포럼연극 수업이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1), 275-282.

김성수 (2013). 저소득가정 초기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프로그램

- 램의 효과성 연구. **학교사회복지**, 25, 207-232.
-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 (2013).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와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PS)의 단축형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3(3), 511-535.
- 김소희 (2020.4.6.). “**알파세대, 디지털과 글로벌 연결성으로 중무장…혁신적 사고 갖춘 첫 ‘글로벌 세대’가 열 22세기 낙관적**”. 이코노미조선 342호.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688](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t_num=13608688)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 김여정, 박미영, Adiyaantsa Otoonbayar, 천성문 (2019). 지적장애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재활심리연구**, 26(4), 157-179.
- 김용섭 (2021).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서울: 퍼블리온.
- 김윤섭 (2022.1.1.). ‘거리두기 반복’ 험난한 일상회복의 길… “앞으로 3년은 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123115538071771>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 김윤수 (2018, 12월호).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연령과 결혼. **NABO 산업동향 & 이슈**, 15, 55-67.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미, 양소은 (2017). 관계망과 인터넷리터러시가 청소년의 온라인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1(3), 121-154.
- 김은희 (2016).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498-505.
- 김주미, 김재현 (2017). 백두대간에서의 반복적 산행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과학지**, 106(2), 240-248.
- 김지연 (2010). 한국과 스웨덴 청소년의 가정 내 사회화 환경 비교 연구: 긍정적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8), 157-176.
- 김진구, 강은영 (2020). 중단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친사회성의 사회화 과정 탐색: 사회적 관계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1-16.
- 김진구, 신희영 (2018). 초기 청소년기 또래거부의 사회화 과정: 친구네트워크와 교사-학생 관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63-182.
- 김태윤, 여종일 (2018). 애착안정성과 어머니의 놀이참여수준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3, 153-181.

- 김학수, 이운수 (1975). **생활지도 진단검사**.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현철, 김은정 (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 73-76.
- 김현철, 김은정, 손승영, 이기재, 박현주 (2006).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가족 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금주, 이일한 (2017). 온라인 게임 소비자의 자기효능감, 게임몰입 및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자기통제력의 역할 분석. **전자무역연구**, 15(2), 23-47.
- 김희수 (2020).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정서지능과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305-321.
- 김희수, 이민규 (2008). 심리운동 기법을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745-756.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 [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2N\\_0c5e9a9c5d47ee115bee8a09931e36ad](http://datalab.naver.com/keyword/trendResult.naver?hashKey=2N_0c5e9a9c5d47ee115bee8a09931e36ad)에서 2022년 1월 24일 인출.
- 뉴스EBS (2020.6.29.). **코로나 시대, 고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Youtube. <https://youtu.be/YPNQJ-MNZzM>에서 2022년 2월 17일 인출.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트렌드 MZ 2019 밀레니얼-Z세대 5대 마케팅 트렌드**. 서울: 한빛비즈.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9).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0**. 서울: 위즈덤하우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 서울: 위즈덤하우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1).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2**. 서울: 위즈덤하우스.
- 도야마현 홈페이지. <https://www.pref.toyama.jp/3002/kurashi/kyouiku/kyouiku/kj00001004.html>에서 2022년 3월 21일 인출.
- 도종수, 성준모 (2013). 청소년활동 경험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45-173.
- 박영주 (2021.10.19.). **코로나에 가게 문 닫는 사장님들...자영업자 비중 10%대로 '뚝'**.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540&cID=10401&pID=104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3540&cID=10401&pID=10400)에서 2022년 12월15일 인출.

- 문성원 (2002).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K-SSRS: 대학생용) 의 타당도와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55-679.
- 문성원 (200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 중고생용)의 표준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35-258.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한글번역).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your-health/about-covid-19/basics-covid-19.html>에서 2022년 1월 6일 인출.
- 박미리, 김영미, 천성문 (2016). 애착증진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대인불안,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8(3), 603-623.
- 박민영, 문병길 (2022). **MZ세대라는 거짓말**. 서울: 미래세대.
- 박선헌 (2021.11.22.).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유병률 5배 높아져**.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52>에서 2022년 1월 6일 인출.
- 박선희 (2010). 인터페이스 감각양식이 사회적 현존감 및 온라인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4), 398-419.
- 박선희 (2014). 청소년의 영적안녕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4), 59-68.
- 박세진, 홍아정 (2017). 일터에서의 성찰이 조직구성원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지식공유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3), 157-188.
- 박윤경, 김명정, 유혜영, 이수정 (2019). **학교 민주주의 지표 체계와 평가도구 개발** (충북-2019-185). 청주: 충청북도교육청.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준희 (1996). **조직분위기 유형과 임파워먼트가 조직내 혁신행동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치완 (2019). 세대론의 르네상스와 ‘디지털 원주민 세대’의 이해. **문화콘텐츠연구**, 16, 7-43.
- 박해완, 채재성 (2015). 청소년의 과외체육 활동 참가와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9(1), 475-484.
- 박현주 (2014).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ADHD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183-204.

- 백예은, 박지연 (2020).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정서·행동장애연구**, 36(3), 185-210.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전국 중·고교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 기자회견(2021.4.26.) 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ZUiO2k6Nj9&bmode=view&idx=6489035&t=board>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 서보운 (2021). 초등학생의 또래 상호작용과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학년에 따른 차이. **교육심리연구**, 35(1), 199-216.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 (2021-1 현안분석 보고서). 서울: 서울교육정책연구소.
-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부 홈페이지. <https://bahrom.swu.ac.kr/>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세종청년플랫폼 홈페이지. <https://www.sjnarae.or.kr/>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손강숙, 주영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2), 107-130.
- 신인철 (202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의 사례와 시사점. **제1차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촉진을 위한 포럼 자료집: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의 해결방안**. 57-68.
- 신효현 (2020). 유아의 인지조망수용능력에 따른 또래 교수에서 교수자로서의 능력과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서영, 손영우 (2013). 사회적 긍정정서와 친화성이 조망수용과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16(4), 457-468.
- 양순미 (201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성향 특성 - 수직 및 수평차원의 개인 vs. 집단주의 성향 중심 -. **농촌지도와 개발**, 19(3), 527-550.
- 여성가족부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발간등록번호: 11-1383 000-001110-12).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준 (200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



-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은화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애착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105-123.
- 오현미, 이유미 (2020).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1(1), 27-44.
- 우덕상, 손윤영, 남현우 (2019). 국악치료교육이 정서지능과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국악교육연구**, 13(1), 95-138.
- 우희순, 원성운 (2016). 집단사회성놀이가 자폐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6), 98-105.
- 원세정 (2013). 중학생의 학교 무용수업 참여경험이 자신감과 사회성 및 자아실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3), 47-65.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KFSS-Ⅱ)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 윤정미 (2017).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품행장애 청소년의 분노 조절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4(4), 1007-1029.
- 윤지원 (2006). **청소년 사회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아, 손희원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책임역량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239-254.
- 이경임, 정경순 (202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사회성에 관한 연구. **대한통합의학회지**, 9(4), 251-259.
- 이관용, 허윤정 (2008).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일상화와 사회화의 관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88-906.
- 이난 (201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도덕성, 시민성 및 인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양교육연구**, 12(6), 267-286.
- 이덕남 (2014).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통한 교정정책연구-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 169-179.
- 이세나, 배준용, 안병주 (2017). 창작무용교육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7(5), 109-119.
- 이송이 (2014).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1), 109-128.
- 이수민, 노남숙 (2017). 인형을 활용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성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중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5(2), 5-18.
- 이에스더, 박미정 (2013). 영상매체 활용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공학**, 16, 117-136.
- 이은지, 하정희 (2019).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초기 성인기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6(11), 1-29.
- 이자영, 남숙경, 이지희, 최보영, 박양민, 이상민 (2009). 문화차에 의해 발생한 심리검사 문항의 번역오류: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8번 문항의 수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45-1358.
- 이재철 (2014).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1), 122-128.
- 이지경 (2021). 음악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527-1548.
- 이현경, 김정민 (2017). 청소년 자아정체감, 대학만족도 및 직장만족도의 종단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1), 121-143.
- 인천 e배움캠퍼스 홈페이지. <https://incheon.hunet.co.kr/Home>에서 2022년 5월 19일 인출.
- 인효연, 이정신, 김수정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청소년학연구**, 28(8), 141-173.
- 일본 화이트 커리어 홈페이지. [jwe-japan.or.jp/whitecareer](http://jwe-japan.or.jp/whitecareer)에서 2022년 3월 20일 인출.
-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2010).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1-47.
- 임수진 (202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검증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이야기치료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195-208.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장현정 (2021).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과 영성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3), 1889-1902.

- 장호일, 신정택, 황재욱 (2016). 청소년을 위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체육과학연구**, 27(3), 543-560.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전혜빈, 박혜경 (2019). 사회 관계망 크기가 대학생들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시간 압박감과 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0(3), 211-241.
- 정경순, 박의정 (2021). 간호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자아존중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9(4), 119-127.
- 정다운, 반진욱 (2022.2.11.). 10대·40대를 왜 묶어? 님은 듯 다른 MZ세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28454/>에서 2022년 2월 12일 인출.
- 정미경, 김갑숙 (2013).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33-160.
- 정범모 (1971). **인성검사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은주, 정경은 (2015).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자아상태에 따른 사회성, 진로계획, 자원봉사활동 만족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1, 159-182.
- 정일권 (2019). 소셜미디어에서의 작·간접적 탈규범 경험이 청소년의 사회 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4), 123-158.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jejuyouth.com>에서 2022년 4월 13일 인출.
-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서울: 북스톤.
- 조현정, 강원국, 김옥진 (2020). 동물매개치료가 학교적응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47-71.
- 주희현, 서경현 (2013).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0(3), 187-207.
- 진미령, 김윤주 (2021).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성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5), 985-1000.
- 차은선, 김택호 (2013). 집단음악치료가 인터넷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사회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1), 79-91.
- 차종석 (2011). 조직사회화의 선행요인과 이직의도의 관계: R&D 인력을 대상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4(5), 2549-2569.

- 최미숙, 최선미 (2015). 만 3 세와 5 세 유아의 버디활동이 친사회적 행동 및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51-71.
- 최선향, 김희태 (2019). 유아를 위한 공감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배려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 375-398.
- 최예린 (2021.10.11.). **30년을 한데 묶은 MZ세대, ‘억지 밈’일 뿐**. 한경.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01195701>에서 2022년 2월 12일 인출.
- 최용득, 조영삼 (2021). 조직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조망수용과 감성지능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언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인사조직연구**, 29(1), 1-23.
- 최윤정 (2020). 관계적 시청(relational viewing)의 시대 : 텔레비전 시청과 1인 미디어 이용에서 형성되는 관계성 비교. **커뮤니케이션 이론**, 16(1), 107-151.
- 최훈진, 김주연, 민나리, 윤연정 (2022.1.2.). **익숙해진 혼밥, 낯설어진 관계... 코로나가 ‘사회적 고립’ 더 키웠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3003010>에서 2022년 1월 7일 인출.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표(가구원)**,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에서 2022년 4월 18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2020). 청년패널 2007 1-14차 조사 통합설문지. <https://survey.keis.or.kr/yp/ypguide/List.jsp>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Vol.02).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재단, 코리아픽스 (2020).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UN 세계청소년의 날’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KCYPs 2010 제1-7차 조사 조사표**,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view?menuId=MENU00226&pageNum=1&titleId=18&schType=0&schText=&firstCategory=1&secondCategory=2>에서 2022년 4월 20일 인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2019 게임이용자 실태조사(KOCCA19-16)**.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윤선, 전수아, 이택호, 허소담 (2020). 청소년 문화동아리 사업 효과성 평가 - CJ도너스

- 캠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2(3), 37-66.
- 한태룡 (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경호 (2003).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6), 380-408.
- 홍석재 (2021.5.8.). “코로나19 학습결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34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346.html)에서 2022년 2월 17일 인출.
- 홍혜전 (2020). 장애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정서 기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20(1), 1-11.
- 황동주, 김진호. (2016). 청소년 멘토링활동이 청소년멘토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45, 137-164.
- 황선환, 김홍설 (2014).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8(1), 705-713.
- 황애영, 탁진국 (2011). 주도성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프로틴(protean) 경력 지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24(2), 409-428.
- Agresti, A. and Finlay, B. (1999).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Upper Saddle River.
- Caldarella, P., & Merrell, K. W. (1997). Common dimensions of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taxonomy of positive behaviors. *School Psychology Review*, 26(2), 264-278.
- CASEL 홈페이지. <https://casel.org/>에서 2022년 4월 29일 인출.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Cheek, J. M. (1983).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RCBS)*. Unpublished manuscript, Wellesley College, Wellesley, MA.
- Christie, D., & Viner, R. (2005). Adolescent development. *BMJ (Clinical Research ed.)*, 330(7486), 301-304.
- Coates, B., Pusser, H. E., & Goodman, I. (1976). The influence of “sesame street” and “mister rogers' neighborhood” on children's social behavior in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 138-144.

- Colby, S. L. & Ortman, J. M. (2014). *The baby boom cohort in the united states: 2012 to 2060* [REPORT NUMBER P25-1141]. U.S. Census Bureau.
- Colby, S. L. (2015). *Talkin' 'bout our generations: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in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San Diego, CA, April 30-May 2, 201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dwards, C. P., & 하영희 (2005).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43-57.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1), 133-149.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3rd ed). New York: Norton.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esham, F. M. (2001). Assessment of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Handbook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A practical handbook*, 325-355.
-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resham, F. M., Elliott, S. N., Vance, M. J., & Cook, C. R. (2011). Comparability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to the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content and psychometric comparisons across elementary and secondary age level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6(1), 27-44.
- Hoffman, A.(1993). *Empathy, social cognition, and moral education*. In Garrod, A. *Approaches to moral development*. London: Teachers Colleague. 157-179.
- Howard, P. J. & Howard, J. M. (2018). **청소년 이해를 위한 심리학**(김동일,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1).

Lee, Y., Schwarzer, R., & Jerusalem, M. (1994).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에서 2022년 5월 9일 인출.

Lubben, J., Blozik, E., Gillmann, G., Iliffe, S., Von Renteln Kruse, W., Beck, J., & Stuck, A. (2006).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The Gerontologist*, 46(4), 503-513.

Manz, C. C., & Sims Jr, H. P.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3), 361-367.

Masnick, G. (2017). *Defining the generations redux*. <https://www.jchs.harvard.edu/blog/defining-the-generations-redux>에서 2022년 2월 4일 인출.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McCrindle, M. (2021). *Generation alpha(Kindle Edition)*. Australia & New Zealand: Hachette Australia.

O'Reilly, P. (1988). Methodological issues in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research. *Social science & medicine*, 26(8), 863-873.

Orpinas, P., & Horne, A. M. (2006). *Bullying prevention: creating a positive school climate and developing social competence(Kindle Edi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swald, P. A. (199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n empathic concern and altruistic help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5), 613-623.

Papacharissi, Z. (2011). *A networked Self: Identity, community, and culture on social network sites*. New York: Routledge.

Peters, L., Sunderland, M., Andrews, G., Rapee, R. M., & Mattick, R. P. (2012).

- Development of a short form social interaction anxiety (SIAS) and social phobia scale (SPS) using nonparametric item response theory: the SIAS-6 and the SPS-6.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66-76.
- Pew Research Center (2019).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1/17/where-millennials-end-and-generation-z-begins/>에서 2022년 1월 26일 인출.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zer, R., & Jerusalem, M. (1993). *Measurement of perceived self-efficacy: Psychometric scales for cross-cultural research*. Berlin: Freie University.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urkle, S. (2012). **외로워지는 사람들**. 이은주 역. 서울: 청림출판.(원서출판 2010년)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12.4.). *New census bureau statistics show how young adults today compare with previous generations in neighborhoods nationwide*. <https://www.census.gov/newsroom/archives/2014-pr/cb14-219.html>에서 2022년 2월 9일 인출.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 Wong, M. (2020). Hidden youth? a new perspective on the sociality of young people 'withdrawn' in the bedroom in a digital age. *New Media & Society*, 22(7), 1227-1244.



## ○ — 부 록

- 1. 표본설계
- 2. 설문지 통합본



부록1. 표본설계

1. 후기 Z세대 학생 청소년(중고생)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먼저 17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III-5>와 <표 III-6>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학생 수는 2,638,443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중학교 1,348,855명(51.1%), 고등학교 1,289,588명(48.9%)이다.

부록표-1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구분 | 중학교     |         |         |       |       |       | 고등학교    |         |         |       |       |       |
|----|---------|---------|---------|-------|-------|-------|---------|---------|---------|-------|-------|-------|
|    | 학생 수    |         |         | 학교 수  |       |       | 학생 수    |         |         | 학교 수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서울 | 68,792  | 72,676  | 67,409  | 388   | 388   | 388   | 67,006  | 72,720  | 74,768  | 320   | 320   | 320   |
| 경기 | 126,779 | 131,735 | 119,478 | 647   | 646   | 646   | 109,635 | 115,897 | 117,081 | 485   | 480   | 475   |
| 인천 | 25,934  | 27,644  | 24,728  | 139   | 139   | 137   | 23,318  | 24,519  | 25,151  | 125   | 124   | 125   |
| 강원 | 12,427  | 13,394  | 12,076  | 161   | 162   | 159   | 12,199  | 12,781  | 13,078  | 114   | 116   | 116   |
| 충북 | 14,096  | 14,924  | 13,389  | 127   | 128   | 128   | 12,713  | 13,570  | 13,588  | 82    | 82    | 84    |
| 충남 | 19,934  | 20,718  | 18,861  | 184   | 184   | 184   | 18,188  | 19,017  | 18,960  | 117   | 117   | 117   |
| 대전 | 13,474  | 14,328  | 13,247  | 88    | 88    | 88    | 12,652  | 13,744  | 14,081  | 62    | 62    | 62    |
| 세종 | 4,965   | 4,715   | 4,222   | 26    | 26    | 26    | 3,641   | 3,677   | 3,426   | 21    | 20    | 19    |
| 경북 | 21,211  | 22,253  | 20,173  | 259   | 261   | 260   | 20,683  | 21,376  | 22,211  | 182   | 183   | 181   |
| 경남 | 31,652  | 33,322  | 29,518  | 264   | 264   | 262   | 27,421  | 29,139  | 29,494  | 190   | 190   | 190   |
| 부산 | 25,105  | 26,248  | 23,800  | 169   | 169   | 171   | 22,741  | 24,488  | 25,733  | 142   | 141   | 141   |
| 대구 | 20,527  | 22,093  | 20,050  | 125   | 124   | 124   | 19,512  | 20,704  | 22,296  | 94    | 93    | 93    |
| 울산 | 10,957  | 11,563  | 10,248  | 64    | 64    | 63    | 9,568   | 10,122  | 10,674  | 56    | 57    | 57    |
| 전북 | 16,264  | 17,345  | 15,722  | 210   | 208   | 207   | 15,784  | 16,819  | 17,430  | 133   | 132   | 133   |
| 전남 | 15,461  | 16,481  | 14,957  | 248   | 249   | 247   | 14,560  | 15,534  | 16,278  | 143   | 144   | 141   |
| 광주 | 14,292  | 15,526  | 14,157  | 90    | 91    | 90    | 13,408  | 14,487  | 15,444  | 68    | 68    | 67    |
| 제주 | 6,607   | 6,983   | 6,395   | 45    | 45    | 45    | 5,905   | 6,026   | 6,341   | 30    | 30    | 30    |
| 합계 | 448,477 | 471,948 | 428,430 | 3,234 | 3,236 | 3,225 | 408,934 | 434,620 | 446,034 | 2,364 | 2,359 | 2,351 |

부록표-2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 구분 | 중학교     |         |         |         |         |         | 고등학교    |         |         |         |         |         |
|----|---------|---------|---------|---------|---------|---------|---------|---------|---------|---------|---------|---------|
|    | 남학생 수   |         |         | 여학생 수   |         |         | 남학생 수   |         |         | 여학생 수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서울 | 33,086  | 34,939  | 32,240  | 35,706  | 37,737  | 35,169  | 32,527  | 35,555  | 36,527  | 34,479  | 37,165  | 38,241  |
| 경기 | 61,820  | 64,377  | 58,082  | 64,959  | 67,358  | 61,396  | 53,549  | 56,281  | 56,475  | 56,086  | 59,616  | 60,606  |
| 인천 | 12,766  | 13,493  | 11,914  | 13,168  | 14,151  | 12,814  | 11,226  | 11,838  | 12,213  | 12,092  | 12,681  | 12,938  |
| 강원 | 6,020   | 6,369   | 5,763   | 6,407   | 7,025   | 6,313   | 5,797   | 6,037   | 6,243   | 6,402   | 6,744   | 6,835   |
| 충북 | 6,791   | 7,214   | 6,533   | 7,305   | 7,710   | 6,856   | 6,072   | 6,397   | 6,440   | 6,641   | 7,173   | 7,148   |
| 충남 | 9,690   | 9,911   | 9,080   | 10,244  | 10,807  | 9,781   | 8,694   | 9,021   | 8,947   | 9,494   | 9,996   | 10,013  |
| 대전 | 6,527   | 6,996   | 6,392   | 6,947   | 7,332   | 6,855   | 5,987   | 6,531   | 6,690   | 6,665   | 7,213   | 7,391   |
| 세종 | 2,515   | 2,409   | 2,087   | 2,450   | 2,306   | 2,135   | 1,841   | 1,852   | 1,714   | 1,800   | 1,825   | 1,712   |
| 경북 | 10,128  | 10,676  | 9,531   | 11,083  | 11,577  | 10,642  | 9,647   | 9,876   | 10,265  | 11,036  | 11,500  | 11,946  |
| 경남 | 15,310  | 16,096  | 14,143  | 16,342  | 17,226  | 15,375  | 13,011  | 13,591  | 13,788  | 14,410  | 15,548  | 15,706  |
| 부산 | 12,240  | 12,731  | 11,527  | 12,865  | 13,517  | 12,273  | 10,866  | 11,741  | 12,197  | 11,875  | 12,747  | 13,536  |
| 대구 | 9,864   | 10,800  | 9,580   | 10,663  | 11,293  | 10,470  | 9,298   | 9,863   | 10,507  | 10,214  | 10,841  | 11,789  |
| 울산 | 5,278   | 5,621   | 4,908   | 5,679   | 5,942   | 5,340   | 4,522   | 4,731   | 4,957   | 5,046   | 5,391   | 5,717   |
| 전북 | 7,829   | 8,408   | 7,591   | 8,435   | 8,937   | 8,131   | 7,388   | 8,028   | 8,298   | 8,396   | 8,791   | 9,132   |
| 전남 | 7,422   | 7,985   | 7,289   | 8,039   | 8,496   | 7,668   | 7,062   | 7,372   | 7,809   | 7,498   | 8,162   | 8,469   |
| 광주 | 6,974   | 7,417   | 6,829   | 7,318   | 8,109   | 7,328   | 6,462   | 6,957   | 7,334   | 6,946   | 7,530   | 8,110   |
| 제주 | 3,201   | 3,401   | 3,069   | 3,406   | 3,582   | 3,326   | 2,783   | 2,801   | 2,990   | 3,122   | 3,225   | 3,351   |
| 합계 | 217,461 | 228,843 | 206,558 | 231,016 | 243,105 | 221,872 | 196,732 | 208,472 | 213,394 | 212,202 | 226,148 | 232,640 |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 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 (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 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부록표-3 교급별 표본규모 및 예상 표본오차

| 구분   | 모집단 크기    | 표본규모  |      | 표본오차* |
|------|-----------|-------|------|-------|
|      |           | 학생 수  | 학교 수 |       |
| 중학교  | 1,338,855 | 750   | 120  | 3.8%p |
| 고등학교 | 1,289,588 | 750   | 105  | 3.8%p |
| 전체   | 2,638,443 | 1,500 |      | 2.5%p |

주. 단순임의추출 가정 하에서 계산됨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1,500명(중학교: 750명, 고등학교: 75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2.5\%$ 이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교급별 표본오차는 약  $\pm 3.8\%$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 층화

조사 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21년 10월 교육통계 DB 기준의 전국 중학생 및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 구분과 학교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구분 : 권역 (5개)
- 학교 구분 : 중학교, 고등학교 (2개)
- 학년 (3개)

### (3) 표본배분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학급(학교)이고 2차 추출단위는 학생이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였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교급별로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750명(전체 1,5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25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부록표-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구분    | 단순비례배분 학생 수 |      | 학교 수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서울    | 116         | 125  | 4.3  | 5.0  |
| 경기/인천 | 254         | 242  | 9.4  | 9.7  |
| 강원/충청 | 108         | 108  | 4.0  | 4.3  |
| 경상    | 183         | 184  | 6.8  | 7.4  |
| 전라/제주 | 89          | 92   | 3.3  | 3.7  |
| 합계    | 750         | 750  | 27.8 | 30.0 |

주1. 학생 수 총계: 1,500명

주2. 학교 수 총계: 57.8개

부록표-5 변형비례배분에 의해 조정된 표본학교 수

| 구분    | 학교 수   |        | 예상 조사 학생 수 |      |
|-------|--------|--------|------------|------|
|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서울    | 6(2)   | 6(2)   | 162        | 150  |
| 경기/인천 | 9(3)   | 9(3)   | 243        | 225  |
| 강원/충청 | 6(2)   | 6(2)   | 162        | 150  |
| 경상    | 6(2)   | 6(2)   | 162        | 150  |
| 전라/제주 | 3(1)   | 3(1)   | 81         | 75   |
| 합계    | 30(10) | 30(10) | 810        | 750  |

주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60(30)개

주2. 학생 수 총계: 1,560명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9>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10개 층 내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이때 각 층별로 다음 변수들을 기준으로 정렬한 후 학교를 추출한다.

- 학교 유형(학교급):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자율고, ④ 특수목적고, ⑤ 특성화고
- 지역: 광역시도(시군구)

또한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 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 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였다.

### 3)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 구분과 지역 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 $n_{hi}$ )를 유효 표본크기( $r_{hi}$ )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1, 2, \dots, H$ ). 학교 구분×지역 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된다.

$$\bullet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text{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한다.

$$\bullet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text{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다.

## ④ 분산의 추정

$$\bullet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 \text{분산의 추정치}$$

$$- N_h : \text{층 } h \text{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text{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 n_h / N_h.$$

$$- n_h > 1 \text{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dots$$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  $n_n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 95% 신뢰수준의 경우( $\alpha=0.05$ )  $z_{\alpha/2}=1.96$ 임.

## 2. 후기 Z세대 학교 밖 청소년

### 1) 모집단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표본설계를 위해서는 모집단, 즉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집단 파악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표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였다. 현재 총 220개의 꿈드림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데 본 연구는 센터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다만, 센터 이용자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 외에도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의 학생 청소년, 즉,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상하기 어렵다. 또한, 연도별, 분기별, 그리고 지역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자 집계 통계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짐) 꿈드림센터에 기초한 학교 밖 청소년의 표본설계 역시 모집단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꿈드림센터를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표본을 설계하였다.

## 2) 표본설계

본 연구는 총 4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전국 220개 센터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토대로 지역별로 목표 표본이 할당됐는데 여기서의 할당 기준은 17개 시도가 아닌 5개 권역이 됐다. 이는 17개 시도로 목표 표본을 할당 시 시도별 할당 표본 수가 너무 적어져 표본으로서의 효용이 떨어지고 조사 가능 기관이 적게 분포한 시도의 경우 조사 거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대체 표집 기관)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역별 목표 표본 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실제 본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의 권역별 센터 이용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별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센터를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의 연간 집계치(2020년 기준 40,399명<sup>33)</sup>)만 확인될 뿐, 표본설계에 필요한 분기별, 권역별 이용자 통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중 센터별 이용자 수가 균등하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표와 같이 권역별 할당 표본 수와 표집 필요 센터 수를 임의 계상하였다.

부록표-6 2022년 권역별 센터 분포 현황에 따른 표본 및 표집 센터 할당

| 권역(포함 지역)                | 총 센터(개소) | 할당 표본(명) | 표집 센터(개소) <sup>34)</sup> |
|--------------------------|----------|----------|--------------------------|
| 서울                       | 26       | 48       | 7                        |
| 경기인천(경기, 인천)             | 40       | 72       | 10                       |
| 강원충북(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45       | 82       | 12                       |
| 경상(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 67       | 121      | 17                       |
| 전라제주(전북, 전남, 광주, 제주)     | 42       | 77       | 11                       |
| 합계                       | 220      | 400      | 57                       |

## 3) 센터 표집과 가중치 처리

각 권역에서 표집이 되는 센터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센터에서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체 센터를 추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에

33)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표 I-1(2022, p.9)에 수록된 자료임.

34) 표집 센터 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에 참여한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21)에서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함. 해당 조사에서 센터당 조사 성공 부수는 7명 내외였음.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분기별, 권역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연도의 시설 이용자 통계를 기준으로 본 조사의 표본을 설계하고 설계된 목표 표본 수와 최종 수집된 표본 수 간의 간극을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자칫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이용 현황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 3. 전기 Z세대 대학생

#### 1) 모집단 분석

후기 Z세대를 대표하는 중고생 연령대의 학생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더불어 전기 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 집단(1996년생~2003년생)의 모집단 분포를 파악하고자 교육통계서비스의 2021년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학생 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물론, 해당 데이터에 수록된 연령 정보만으로는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태어난 대학생 집단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출생 연도별 대학생 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통계는 없으므로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학생 수 데이터는 전기 Z세대의 대학생 모집단 분포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확보 가능한 통계다.

교육통계서비스의 2021년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학생 수 자료에 의하면, 전기 Z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 모집단의 전체 크기는 2,414,435명이며, 이 중 남자는 1,356,926명, 여자는 1,057,509명이었다. 이들의 지역별, 대학 유형별 세부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록표-7 전기 Z세대 대학생 모집단의 분포 현황(2021년)

| 구분   |        | 전체(명)     | 성별(명)     |           |
|------|--------|-----------|-----------|-----------|
|      |        |           | 남자        | 여자        |
| 합계   |        | 2,414,435 | 1,356,926 | 1,057,509 |
| 수도권  | 합계     | 1,025,533 | 528,981   | 496,552   |
|      | 전문대학   | 242,700   | 136,160   | 106,540   |
|      | 4년제 이상 | 782,833   | 392,821   | 390,012   |
| 비수도권 | 합계     | 1,388,902 | 827,945   | 560,957   |
|      | 전문대학   | 269,117   | 159,082   | 110,035   |
|      | 4년제 이상 | 1,119,785 | 668,863   | 450,922   |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의 2021년 고등교육기관 연령별 학생 수 자료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총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 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 그리고  $z$ 는 신뢰계수(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 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8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5\%P$ 이다.

### (2) 표본배분

전기 Z세대 대학생(재학/휴학/수료)에 할당된 800명의 표본은 권역(수도권, 비수도권)과 성별(남성, 여성)로 층화하였고, 여기에 대학 유형(전문대학, 4년제 이상)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였다.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각 층에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8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 구분   |        | 전체  | 성별  |     |
|------|--------|-----|-----|-----|
|      |        |     | 남자  | 여자  |
| 합계   |        | 800 | 450 | 350 |
| 수도권  | 합계     | 340 | 175 | 165 |
|      | 전문대학   | 81  | 45  | 36  |
|      | 4년제 이상 | 259 | 130 | 129 |
| 비수도권 | 합계     | 460 | 275 | 185 |
|      | 전문대학   | 89  | 53  | 36  |
|      | 4년제 이상 | 371 | 222 | 149 |

### (3) 표본추출

본 연구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2022년 아동청소년 통합 조사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리서치의 자체 패널을 이용하였다. 물론, 조사구 조사 등과 같이 개인을 접촉하여 체계적으로 설문을 수행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는 통계 승인 조사에서만 허용되고 현실적으로 본 연구의 제한된 예산과 시간으로는 수용하기 불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조사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패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총 76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는 통계적 대표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패널 가입은 가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입자에 대한 업체의 관리가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조사 참여율과 결과 정확성이 담보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업체의 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차선택이다.

표본 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방식과 할당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당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각 카테고리에서 정해진 요소를 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모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층화표본추출과 유사하지만 모집단 전체를 표집틀에 넣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작위적 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본 설계와 같이 모집단 분포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할당표본추출로 구성된 표본의 대표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3)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연구는 층별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w_{hi} = N_h/n_h$  :  $h$ 번째 층의  $i$ 번째 관측치에 대한 가중치

$[N_h$  :  $h$ 번째 층의 모집단 크기,  $n_h$  :  $h$ 번째 층의 응답자 수(표본크기)]

#### (2) 모수추정

##### ① 평균에 대한 추정

관측치  $y_{hi}$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1}{N} \sum_{h=1}^H \sum_{i=1}^{n_h} w_{hi} y_{hi} = \sum_{h=1}^H \frac{N_h}{N} \bar{y}_h$$

$(\bar{y}_h$  :  $h$ 번째 층의 표본 평균,  $N = \sum_{h=1}^H N_h$  : 전체 모집단 크기)

##### ② 비율에 대한 추정

관측치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한다.

$$\bullet z_{hi}^{(c_k)} = I(y_{hi}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bullet \hat{p} = \frac{1}{N} \sum_{h=1}^H \sum_{i=1}^{n_h} w_{hi} z_{hi} = \sum_{h=1}^H \frac{N_h}{N} \hat{p}_h$$

-  $\hat{p}_h$  :  $h$ 번째 층의 표본 비율



### ③ 분산 추정

- 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s_h^2$ :  $h$ 번째 층의 표본 분산)

$$\hat{V}(\bar{y}) = \sum_{h=1}^H \left( \frac{N_h}{N} \right)^2 \left( 1 - \frac{n_h}{N_h} \right) \frac{s_h^2}{n_h}$$

- 비율에 대한 분산 추정

$$\hat{V}(\hat{p}) = \sum_{h=1}^H \left( \frac{N_h}{N} \right)^2 \left( 1 - \frac{n_h}{N_h} \right) \frac{\hat{p}_h(1 - \hat{p}_h)}{n_h - 1}$$

### ④ 표준오차, 오차한계의 추정

- $SE(.) = \sqrt{\hat{V}(.)}$  : 표준오차의 추정치
- $e = z_{\alpha/2} \times SE(.)$  : 오차한계, 95% 신뢰수준( $\alpha=0.05$ )의 경우  $z_{\alpha/2}=1.96$

## 4. M, X세대

### 1) 모집단 분석

분석의 목적이 M, X세대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실증하는 데 있는 만큼 본 조사의 모집단은 성인기의 대표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직장에서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성인 취·창업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각 세대는 출생 연도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와 후기 집단으로 구분하였다.<sup>35)</sup>

- 후기 M세대 취·창업자(출생 연도: 1989~1995)
- 전기 M세대 취·창업자(출생 연도: 1983~1988)
- 후기 X세대 취·창업자(출생 연도: 1973~1982)

35) 우리나라 청년의 입직 연령 통계는 대상자의 학력, 성별, 직종, 직위 등에 상이하게 추정됨. 예를 들어 [청년패널 2007]을 이용해 청년층의 첫 입직 나이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김운수, 2018)의 보고서에서 전문대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첫 입직 평균 나이는 각각 25.8세, 23.5세로 집계됨. 다른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3)의 경우 대기업 신입직원의 평균 나이는 27.7세, 중소기업 신입직원의 평균 나이는 28.9세로 집계됨(김운수, 2018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의 경제 및 사회 활동 시작 시점을 27세(2022년 기준 1995년 출생)로 보고 후기 M세대 취·창업자의 시작점이자 Z세대와의 분기점으로 활용함. 또한, M세대 내에서의 전후기 구분 시점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2021)의 분류 기준을 따름.

- 전기 X세대 취·창업자(출생 연도: 1965~1972)

연령대별 세대의 모집단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통계청이 생산한 지역별 고용 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2년 상반기)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해당 M, X세대 취·창업자의 규모는 18,295,790명으로 확인됐고 이중 남자는 10,757,151명, 여자는 7,538,639명이었다. 각 연령대별 세대의 지역별, 고용 지위별, 그리고 성별 분포 현황을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표-9 M, X세대의 모집단 분포 현황(2022년 상반기)

| 유형        | 구분   |           | 전체        | 성별        |           |
|-----------|------|-----------|-----------|-----------|-----------|
|           |      |           |           | 남자        | 여자        |
| 후기<br>M세대 | 합계   |           | 3,537,061 | 1,992,057 | 1,545,004 |
|           | 수도권  | 합계        | 2,034,193 | 1,107,112 | 927,081   |
|           |      | 상용 근로자    | 1,536,707 | 836,723   | 699,984   |
|           |      | 임시/일용 근로자 | 316,461   | 168,468   | 147,993   |
|           |      | 비임금 근로자   | 181,025   | 101,921   | 79,104    |
|           | 비수도권 | 합계        | 1,502,868 | 884,945   | 617,923   |
|           |      | 상용 근로자    | 1,099,218 | 647,719   | 451,499   |
|           |      | 임시/일용 근로자 | 222,375   | 123,482   | 98,893    |
|           |      | 비임금 근로자   | 181,275   | 113,744   | 67,531    |
| 전기<br>M세대 | 합계   |           | 3,276,777 | 2,045,962 | 1,230,815 |
|           | 수도권  | 합계        | 1,816,813 | 1,134,704 | 682,109   |
|           |      | 상용 근로자    | 1,308,058 | 834,195   | 473,863   |
|           |      | 임시/일용 근로자 | 237,476   | 125,505   | 111,971   |
|           |      | 비임금 근로자   | 271,279   | 175,004   | 96,275    |
|           | 비수도권 | 합계        | 1,459,964 | 911,258   | 548,706   |
|           |      | 상용 근로자    | 1,018,434 | 651,014   | 367,420   |
|           |      | 임시/일용 근로자 | 176,259   | 86,519    | 89,740    |
|           |      | 비임금 근로자   | 265,271   | 173,725   | 91,546    |
| 후기<br>X세대 | 합계   |           | 6,300,568 | 3,749,972 | 2,550,596 |
|           | 수도권  | 합계        | 3,241,337 | 1,944,694 | 1,296,643 |
|           |      | 상용 근로자    | 2,098,960 | 1,302,900 | 796,060   |
|           |      | 임시/일용 근로자 | 509,836   | 231,391   | 278,445   |
|           |      | 비임금 근로자   | 632,541   | 410,403   | 222,138   |
|           | 비수도권 | 합계        | 3,059,231 | 1,805,278 | 1,253,953 |
|           |      | 상용 근로자    | 1,884,115 | 1,144,787 | 739,328   |
|           |      | 임시/일용 근로자 | 424,592   | 185,729   | 238,863   |
|           |      | 비임금 근로자   | 750,524   | 474,762   | 275,762   |

| 유형        | 구분   |           | 전체         | 성별         |           |
|-----------|------|-----------|------------|------------|-----------|
|           |      |           |            | 남자         | 여자        |
| 전기<br>X세대 | 합계   |           | 5,181,384  | 2,969,160  | 2,212,224 |
|           | 수도권  | 합계        | 2,561,887  | 1,477,210  | 1,084,677 |
|           |      | 상용 근로자    | 1,397,570  | 833,828    | 563,742   |
|           |      | 임시/일용 근로자 | 525,084    | 231,109    | 293,975   |
|           |      | 비임금 근로자   | 639,233    | 412,273    | 226,960   |
|           | 비수도권 | 합계        | 2,619,497  | 1,491,950  | 1,127,547 |
|           |      | 상용 근로자    | 1,361,451  | 807,006    | 554,445   |
|           |      | 임시/일용 근로자 | 432,385    | 191,235    | 241,150   |
|           |      | 비임금 근로자   | 825,661    | 493,709    | 331,952   |
| 소계        | 합계   |           | 18,295,790 | 10,757,151 | 7,538,639 |

출처: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2년 상반기) 추정치

## 2)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 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 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 그리고  $z$ 는 신뢰계수(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 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2,600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9\%$ p이다.

## (2) 표본배분 및 표본 추출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하여 M세대 후기(1989~1995) 취·창업자, M세대 전기(1983~1988) 취·창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800명, 500명의 표본크기를 할당하였고, X세대 후기(1973~1982) 취·창업자, X세대 전기(1965~1972) 취·창업자에 대해서도 각각 800명, 500명의 표본크기를 할당하였다.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을 각 층에 배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배분

| 유형           | 모집단 크기     | 표본크기  | 표본오차* |
|--------------|------------|-------|-------|
| M세대 후기 취·창업자 | 3,537,061  | 800   | 3.5%p |
| M세대 전기 취·창업자 | 3,276,777  | 500   | 4.4%p |
| X세대 후기 취·창업자 | 6,300,568  | 800   | 3.5%p |
| X세대 전기 취·창업자 | 5,181,384  | 500   | 4.4%p |
| 전체           | 18,295,790 | 2,600 | 1.9%p |

각 유형에 대하여 권역(수도권, 비수도권)과 성별(남성, 여성)로 층화하였고, 조사 목적을 고려하여 추가로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로 세부 층화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유형에 대하여 층별 표본배분은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을 실시하였다.

부록표-11 M, X세대 세부 표본 배분

| 유형        | 구분   |           | 전체  | 성별  |     |
|-----------|------|-----------|-----|-----|-----|
|           |      |           |     | 남자  | 여자  |
| 후기<br>M세대 | 합계   |           | 800 | 451 | 349 |
|           | 수도권  | 합계        | 460 | 251 | 209 |
|           |      | 상용 근로자    | 347 | 189 | 158 |
|           |      | 임시/일용 근로자 | 72  | 39  | 33  |
|           |      | 비임금 근로자   | 41  | 23  | 18  |
|           | 비수도권 | 합계        | 340 | 200 | 140 |
|           |      | 상용 근로자    | 249 | 146 | 103 |
|           |      | 임시/일용 근로자 | 50  | 28  | 22  |
|           |      | 비임금 근로자   | 41  | 26  | 15  |

| 유형        | 구분   |           | 전체    | 성별   |      |
|-----------|------|-----------|-------|------|------|
|           |      |           |       | 남자   | 여자   |
| 전기<br>M세대 | 합계   |           | 500   | 312  | 188  |
|           | 수도권  | 합계        | 277   | 173  | 104  |
|           |      | 상용 근로자    | 199   | 127  | 72   |
|           |      | 임시/일용 근로자 | 36    | 19   | 17   |
|           |      | 비임금 근로자   | 42    | 27   | 15   |
|           | 비수도권 | 합계        | 223   | 139  | 84   |
|           |      | 상용 근로자    | 155   | 99   | 56   |
|           |      | 임시/일용 근로자 | 27    | 13   | 14   |
|           |      | 비임금 근로자   | 41    | 27   | 14   |
|           |      |           |       |      |      |
| 후기<br>X세대 | 합계   |           | 800   | 477  | 323  |
|           | 수도권  | 합계        | 411   | 247  | 164  |
|           |      | 상용 근로자    | 266   | 165  | 101  |
|           |      | 임시/일용 근로자 | 65    | 30   | 35   |
|           |      | 비임금 근로자   | 80    | 52   | 28   |
|           | 비수도권 | 합계        | 389   | 230  | 159  |
|           |      | 상용 근로자    | 240   | 146  | 94   |
|           |      | 임시/일용 근로자 | 54    | 24   | 30   |
|           |      | 비임금 근로자   | 95    | 60   | 35   |
|           |      |           |       |      |      |
| 전기<br>X세대 | 합계   |           | 500   | 286  | 214  |
|           | 수도권  | 합계        | 246   | 142  | 104  |
|           |      | 상용 근로자    | 134   | 80   | 54   |
|           |      | 임시/일용 근로자 | 50    | 22   | 28   |
|           |      | 비임금 근로자   | 62    | 40   | 22   |
|           | 비수도권 | 합계        | 254   | 144  | 110  |
|           |      | 상용 근로자    | 133   | 78   | 55   |
|           |      | 임시/일용 근로자 | 41    | 18   | 23   |
|           |      | 비임금 근로자   | 80    | 48   | 32   |
|           |      |           |       |      |      |
| 소계        | 합계   |           | 2,600 | 1526 | 1074 |

본 연구의 표본 추출에서도 현실적인 성인 대상 접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서 차선책으로 조사 회사의 자체 패널을 이용하였다.

## 부록2. 설문지 통합본

### 설문조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 코로나-19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들의 사회성 정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MZ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실태와 정책 요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들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조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될까요?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과 성인 약 5,300여명을 목표로 웹/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대상 중 청소년들은 본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선생님이 알려주신 코드(영문+숫자 혼용 5자리)를 입력하시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 수집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될까요?

본 설문조사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사회성 발달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사회성 정도 파악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4.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조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응답을 해준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사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5.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문 후에도 조사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미 응답한 정보나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고 삭제될 것입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7. 조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최정원 연구위원 (044-415-2245)

조사실시기관: (주) 한국리서치

조사책임자 : 황인창 부장(02-3014-0086)

만일 어느 때라도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152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면접 중단

### [학생, 학교 밖 청소년만]

**선문1.**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으신 **코드 5자리(영문 1자리 + 숫자 4자리)**를 아래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1. 코드 : \_\_\_\_\_

### 선문2-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코로나 19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모바일 상품권 발송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반 번호 (학생)
- 전화번호, 성별, 출생연도 (학교 밖 청소년/성인)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함
2. 동의하지 않음

→ 선문3-1

→ 면접 중단

### 선문3-1. 학생의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번호는 '중단 시 이어하기'와 '조사원료 확인목적' 만을 위해 활용합니다.

※ 예를 들어, 학생의 번호가 35번일 경우 35 만 입력해 주세요.

1. 번호 : \_\_\_\_\_

### 선문3-2. 여러분이 조사를 완료한 후에 수령할 **기프트콘(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기프트콘(모바일 상품권) 수령 연락처 ( ) ( ) ( )**

### 선문4.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① 남자

② 여자

선문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선문6. 귀하의 출생년을 응답해 주세요.

출생년 : \_\_\_\_\_년

**[대학생만]**

**선문7.** 귀하께서는 올해 상반기(1월 - 6월)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하께서 올해 상반기에 한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문대학에 등록해서 다님 → **선문9**
- ②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등록해서 다님 → **선문9**
- ③ 휴학 중이었음 → **면접 중단**
- ④ 군대에 있었음 → **면접 중단**
- ⑤ 학교는 다니지 않고 취업/자격증 준비함 → **면접 중단**
- ⑥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함 → **면접 중단**
- ⑦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 → **면접 중단**

**[성인만]**

**신문8.** 귀하께서는 올해 상반기(1월-6월)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하의 올해 상반기에 하셨던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함 → **선문8-1**  
 ②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녔음(휴학 포함) ③ 취업/자격증 준비를 하였음  
 ④ 육아/가사/군복무 ⑤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

[로직: 나머지 항목만 선택하였다면 면접 중단]

선문8-1. 귀하께서 올해 상반기에 다니셨던 직장(또는 아르바이트)에서 총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
|----------|-----------------------------------------------------------------------------------------------------------------------------------------------------------------------------------------------------------------------------------------------------------------------------------------------------------------|
| 임금 근로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임금,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li> <li>①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또는 1년 이상 계약인 경우</li> <li>② 임금근로자(임시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li> <li>③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1일 단위 계약인 경우</li> </ul> |
| 자영업자     | ④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사업하거나,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여 사업하는 사람                                                                                                                                                                                                                                             |
| 무급가족 종사자 | ⑤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 혹은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

①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② 임금근로자(임시근로자)  
③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④ 자영업자(고용주/단독자영업)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해당사항 없음) → 면접 중단



## 사회성

※ **사회성**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문1. 현재 귀하의 **사회성**은 0점-10점 중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점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문1-1.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귀하의 사회성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항목               | 매우 나빠졌다 | 약간 나빠졌다 | 변화가 없다 | 약간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
| 0. 사회성 전반        | ①       | ②       | ③      | ④       | ⑤       |
| 1. 공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기조절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주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협동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사교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자율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근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안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리더십(지도성, 지배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책임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준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대인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의사소통 능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② **코로나-19로 인한** \_\_\_\_\_ \* 귀하의 사회성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생/대학생 : 재택수업(온라인수업) 및 등교제한으로

학교 밖 청소년 :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인 :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 매우 나빠졌다 | 약간 나빠졌다 | 변화가 없다 | 약간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 다음은 사회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입니다. 귀하가 \_\_\_\_\_ \*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 학생/대학생 :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또는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지낼 때 또는 센터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성인 :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할 때 또는 직장 밖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각 항목별로 중요한 정도를 점수로 입력해 주세요. 단, 전체 항목 점수의 합이 130점이 되도록 입력해 주세요. ※ **최소 5개 이상**의 항목에는 점수를 매겨주세요.

| 항목               | 학교/센터/직장 내 | 학교/센터/직장 밖 |
|------------------|------------|------------|
| 1) 공감            | ( )점       | ( )점       |
| 2) 자기조절          | ( )점       | ( )점       |
| 3) 주장성           | ( )점       | ( )점       |
| 4) 협동성           | ( )점       | ( )점       |
| 5) 사교성           | ( )점       | ( )점       |
| 6) 자율성           | ( )점       | ( )점       |
| 7) 근면성           | ( )점       | ( )점       |
| 8) 안정성           | ( )점       | ( )점       |
| 9) 리더십(지도성, 지배성) | ( )점       | ( )점       |

| 항목          | 학교/센터/직장 내 | 학교/센터/직장 밖 |
|-------------|------------|------------|
| 10) 책임감     | ( )점       | ( )점       |
| 11) 준법성     | ( )점       | ( )점       |
| 12) 대인관계    | ( )점       | ( )점       |
| 13) 의사소통 능력 | ( )점       | ( )점       |
| 합계          | 130 점      | 130 점      |

문3. 귀하는 평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빈도     |        |           | 중요도     |      |         |
|---------------------------------------------------------------------------------------------------------|--------|--------|-----------|---------|------|---------|
|                                                                                                         | 전혀 아니다 | 가끔 그렇다 | 매우 자주 그렇다 |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다 | 매우 중요하다 |
| 1)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귈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 나는 _____ * 도움을 청한다<br>* 학생/학교 밖 청소년: 다른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어른들에게<br>성인/대학생: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 나는 자신감 있게 데이트를 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4) 나는 _____ *에서 스포츠나 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이다<br>* 학생/대학생: 학교<br>학교 밖 청소년: 센터<br>성인: 직장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5)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6) 나는 이성에게 칭찬을 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7) 나는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활동을 함께하자고 권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9) 나는 이성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0) 나는 _____ *들에게 먼저 말을 건다<br>* 학생: 반 친구<br>학교 밖 청소년: 센터 친구<br>대학생: 같은 과 친구<br>성인: 직장동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1) 나는 _____ *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인다<br>* 학생/학교 밖 청소년/대학생: 어른들이<br>성인: 윗사람이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2)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상대방의 허락을 구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3) 나는 _____ * 제시간에 끝낸다<br>* 학생: 숙제를<br>학교 밖 청소년: 해야 할 일을<br>대학생: 과제를<br>성인: 업무를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4) 나는 _____ * 깨끗하게 정리 정돈한다<br>* 학생, 대학생, 성인: 내 책상을<br>학교 밖 청소년: 내가 사용한 자리를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5) 나는 자유시간을 건전하게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6) 나는 _____ *의 지시를 따른다<br>* 학생: 선생님<br>학교 밖 청소년: 센터 선생님<br>대학생: 교수님<br>성인: 직장상사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문항                                                                                                      | 빈도        |           |                 | 중요도            |          |                |
|---------------------------------------------------------------------------------------------------------|-----------|-----------|-----------------|----------------|----------|----------------|
|                                                                                                         | 전혀<br>아니다 | 가끔<br>그렇다 | 매우<br>자주<br>그렇다 | 중요<br>하지<br>않다 | 중요<br>하다 | 매우<br>중요<br>하다 |
| 17) 나는 _____ *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br>* 학생, 대학생 : 수업 시간에 토론할 때<br>학교 밖 청소년 : 토론할 때<br>성인 : 회의시간에 토론할 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8) 나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19) 나는 _____ *과 마찰을 일으킬만한 일은 다른<br>사람이 하자고 해도 하지 않는다<br>* 학생/학교 밖 청소년/대학생 : 어른<br>성인 : 윗사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해 준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1) 나는 친구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슬플 때 그<br>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2) 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안쓰러운<br>마음이 든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4) 나는 친구가 자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잘 들어준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5) 나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잘했다고 말해준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6) 나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거나<br>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7)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직접 말이나 행동을<br>통해 나의 호감을 표현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8) 나는 내 친구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br>친구들 편에 선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29) 나는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_____ *들과 대화로 푼다<br>* 학생 : 반 친구<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 친구<br>대학생 : 같은 과 친구<br>성인 : 직장동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0) 나는 _____ *이 나를 놀리거나 욕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 아이들<br>대학생, 성인 : 사람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1) 나는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고도 _____ *에게<br>반대 의견을 제시한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 어른들<br>성인 : 윗사람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2) 나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돕는 등<br>부모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3) 나는 _____ * 해야 할 일을 제시간에 끝낸다<br>* 학생, 대학생 : 수업시간에<br>학교 밖 청소년 : 일과 중<br>성인 : 업무시간에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4) 나는 _____ * 의견이 다를 때 타협점을 찾는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br>대학생 : 교수님과<br>성인 : 직장상사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5) 나는 _____ *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친구들이<br>성인 : 업무 분위기를 방해하는 직장동료가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6) 나는 부모님과 다투더라도 차분하게 끝낸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문항                                                                                              | 빈도        |           |                 | 중요도            |          |                |
|-------------------------------------------------------------------------------------------------|-----------|-----------|-----------------|----------------|----------|----------------|
|                                                                                                 | 전혀<br>아니다 | 가끔<br>그렇다 | 매우<br>자주<br>그렇다 | 중요<br>하지<br>않다 | 중요<br>하다 | 매우<br>중요<br>하다 |
| 37) 나는 _____ * 징계 또는 벌을 받아도 분노하지<br>않고 이를 받아들인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 어른들로부터<br>성인 : 윗사람으로부터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도 같이<br>흥분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 39)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어도 화를 내지<br>않고 받아들인다                                                        | ①         | ②         | ③               | ①              | ②        | ③              |

**문4.** 다음은 귀하의 **생활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그렇지<br>않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_____ *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br>* 학생 : 학급<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br>대학생 : 학과<br>성인 : 직장                        | ①         | ②         | ③         |
| 2) 나는 _____ *이 시키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br>*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 어른들<br>성인 : 윗사람                               | ①         | ②         | ③         |
| 3) 나는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일도 끝까지 한다                                                                                    | ①         | ②         | ③         |
| 4) 나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해야 할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5) 나는 _____ * 시킨 일은 열심히 한다<br>* 학생 : 선생님<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 선생님<br>대학생 : 교수님<br>성인 : 직장상사가                        | ①         | ②         | ③         |
| 6) 나는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일을 할 때 싫증이 나더라도 대부분 끝까지 마무리한다                                                                | ①         | ②         | ③         |
| 7) 나는 집안 식구가 일을 시키면 핑계를 대며 피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8) 나는 집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하다                                                                                            | ①         | ②         | ③         |
| 9) 나는 길을 걸어갈 때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 ①         | ②         | ③         |
| 10) 나는 휴지통이 아닌 곳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11) 나는 _____ *에서 정한 일이나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른다<br>* 학생 : 학급<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br>대학생 : 학과<br>성인 : 직장               | ①         | ②         | ③         |
| 12) 나는 _____ *에서 정한 일은 내가 싫더라도 지킨다<br>* 학생 : 학급<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br>대학생 : 학과<br>성인 : 직장                         | ①         | ②         | ③         |
| 13) _____ * 대부분 해 간다<br>* 학생 :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 선생님이 내준 과제<br>대학생 : 교수님이 내준 숙제는<br>성인 : 직장상사가 시킨 일은 | ①         | ②         | ③         |
| 14)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규칙을 지킨다                                                                                  | ①         | ②         | ③         |
| 15) 나는 예쁜 꽃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가져오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16) 나는 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길을 건넌다                                                                                       | ①         | ②         | ③         |

문5. 다음은 **귀하의 일과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그렇지<br>않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여럿이 _____ * 다른 사람이 놀면 나도 같이 논다<br>* 학생, 대학생 : 공부하는 도중에<br>학교 밖 청소년 : 활동하는 도중에<br>성인 : 일하는 도중에                      | ①         | ②         | ③         |
| 2) 나는 집에 일이 있으면 _____ *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돌아와도 좋다고<br>생각한다<br>* 학생, 대학생 : 학교에서<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br>성인 : 회사에서                 | ①         | ②         | ③         |
| 3) 나는 밤 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잠이 오면 곧 자 버린다                                                                                   | ①         | ②         | ③         |
| 4) 나는 친구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다                                                                                  | ①         | ②         | ③         |
| 5) 나는 학급 문고나 도서관 _____ *의 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br>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br>* 학생 : 학급 문고나 도서관<br>학교 밖 청소년 : 센터나 도서관<br>대학생, 성인 : 도서관 | ①         | ②         | ③         |
| 6) 나는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br>생각한다                                                                       | ①         | ②         | ③         |
| 7) 나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잠이 오면 잔다                                                                                            | ①         | ②         | ③         |
| 8) 짜증이 나는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 9) 공연히 신경질을 부리는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 10)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 ①         | ②         | ③         |
| 11)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빠지는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 12) 가벼운 농담에도 기분이 쉽게 상한다                                                                                                  | ①         | ②         | ③         |
| 13)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어찌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 ①         | ②         | ③         |
| 14)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 15) 친구들은 나를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 ①         | ②         | ③         |
| 16) 무슨 일이든지 내 스스로 결단을 잘 내린다                                                                                              | ①         | ②         | ③         |
| 17)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한 혼자서 풀어 보려고 애쓴다                                                                                      | ①         | ②         | ③         |
| 18) 솔직히 말하여 남에게 의존하려는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 19)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잘못되어도 나에게 책임이 없어서 좋다                                                                                | ①         | ②         | ③         |
| 20) 시키지 않으면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21) 나의 행동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된다                                                                                      | ①         | ②         | ③         |
| 22)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다                                                                                           | ①         | ②         | ③         |
| 23) 모두들 망설이다가도 내가 하자고 하면 일을 하는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 24) 집단적으로 활동할 때 앞장서기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 25) 친구들이 나의 의견을 잘 따른다                                                                                                    | ①         | ②         | ③         |
| 26) 집단 활동을 계획하고 통솔하는 책임을 즐겨 맡는다                                                                                          | ①         | ②         | ③         |
| 27) 내가 앞장서서 어떤 모임이나 클럽을 만든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 28)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가 주로 앞장선다                                                                                                | ①         | ②         | ③         |

문6. 다음은 **귀하가 사람들과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그렇지<br>않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긴장이 된다 | ①         | ②         | ③         |
| 2) 나는 사회적으로 조금 서툰 편이다         | ①         | ②         | ③         |

| 문항                                        | 그렇지<br>않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4) 나는 파티나 모임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적절한 대화거리를 생각해내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 6) 나는 낯선 자리에서도 어색함을 극복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 7)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 8) 나는 윗사람과 말할 때 긴장한다                      | ①         | ②         | ③         |
| 9) 나는 내 사회성이 좋다는 점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 10)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 11) 나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는 자리에서 위축된다             | ①         | ②         | ③         |
| 12)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지 않다           | ①         | ②         | ③         |
| 13) 나는 이성 앞에서 더 수줍어한다                     | ①         | ②         | ③         |

문7. 다음은 귀하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거나 대화하는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그렇지<br>않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친구들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①         | ②         | ③         |
|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 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 4) 나는 내 권리를 위해 행동한다                             | ①         | ②         | ③         |
| 5) 나는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 ①         | ②         | ③         |
| 6)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다른 사람과 협의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 ①         | ②         | ③         |
| 7) 나는 내 자신을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표정이나 몸짓)으로 잘 표현한다       | ①         | ②         | ③         |
| 8)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 ①         | ②         | ③         |
|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 ①         | ②         | ③         |
| 10)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 11)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 12)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 ①         | ②         | ③         |
| 13) 나는 대화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 ①         | ②         | ③         |
| 14) 나는 대화할 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이나 고갯짓으로 알린다 | ①         | ②         | ③         |
| 15)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①         | ②         | ③         |

문8. 다음은 귀하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약간<br>그렇지<br>않다 | 보통이다 | 자주<br>그렇다 | 항상<br>그렇다 |
|------------------------------|-----------------|-----------------|------|-----------|-----------|
| 1)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다른 사람 주장에 반대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9. 다음은 귀하의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동의<br>하지<br>않는다 | 대체로<br>동의<br>하지<br>않는다 | 약간<br>동의<br>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br>겠다 | 약간<br>동의<br>한다 | 대체로<br>동의<br>한다 | 전적<br>으로<br>동의<br>한다 |
|--------------------------------------------------|-----------------------|------------------------|-----------------------|---------------|----------------|-----------------|----------------------|
|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의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나에게 기쁨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나는 긴장하고 신경이 쓰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잘 해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은 함께 뭉쳐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만약 내 친구가 상을 탄다면 나는 그 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나만의 정체성은 나에게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나는 거의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대부분 나 스스로에게 의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내 친구/동료의 행복은 나에게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내가 속한 집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3)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4) 부모와 자식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5)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기분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6) 이기는 것이 전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학생은 1, 3, 4, 5, 12, 13, 14, 15, 16, 17, 18, 20, 21 만 제시]

[학교 밖 청소년은 6, 7, 12, 13, 14, 15, 16, 17, 18, 20, 21 만 제시]

[대학생은 2, 3, 4, 5, 12, 13, 14, 15, 16, 17, 18, 20, 21 만 제시]

[성인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만 제시]

문10 다음은 **사회성 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귀하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교내 자치 활동(학급회, 학생회)                 | ② 교내 자치 활동(학생회)                 |
| ③ 교내 동아리 활동                          | ④ 교외 자치 활동(각종위원회)               |
| ⑤ 교외 동아리 활동                          | ⑥ 자치활동(꿈드림청소년단, 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
| ⑦ 동아리 활동                             | ⑧ 사내 자치 활동(노조, 각종위원회 등)         |
| ⑨ 사내 동아리 활동                          | ⑩ 사외 자치 활동(각종위원회)               |
| ⑪ 사외 동아리 활동                          | ⑫ 각종 봉사 활동                      |
| ⑬ 문화체험 활동 및 여행(캠프)                   | ⑭ 자기계발 활동(외국어, 독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
| ⑮ 예체능 활동(스포츠 활동, 악기연주 등)             | ⑯ 상담(1:1, 집단 등)                 |
| ⑰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자격증 과정, 직장체험, 인턴십 등) |                                 |
| ⑱ 사회성 관련 전문 강의                       | ⑲ 사내교육(신입사원 교육, 각종 사내 연수 등)     |
| ⑳ 기타 _____                           | ㉑ 참여한 적 없음                      |

**[문10에서 선택한 항목만 문10-1부터 10-3까지 순차적으로 질문]**

**문10-1.** 참여한 사회적 개발 관련 프로그램 \_\_\_\_\_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ZOOM 등)
- ② 비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동영상 강의 등)
- ③ 대면 프로그램

**문10-2.** 참여하신 \_\_\_\_\_ 프로그램은 귀하의 사회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약간 도움이 됨 | 매우 도움이 됨 |
|--------------|--------------|----------|----------|
| ①            | ②            | ③        | ④        |

**[문10-2에서 ① 또는 ②를 선택한 경우에만 질문]**

**문10-2-1.** 참여하신 \_\_\_\_\_ 프로그램이 귀하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사회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아서(일회성 등)
- ② 사회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제적이지 않아서
- ③ 사회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 ④ 사회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내용이 참신하거나 흥미롭지 않아서
- ⑤ 사회적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서
- ⑥ 기타 \_\_\_\_\_

**문10-3.** 참여하신 \_\_\_\_\_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의 **사회성 함양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감성    ② 자기통제성    ③ 주장성    ④ 협동성    ⑤ 사교성    ⑥ 자율성    ⑦ 근면성
- ⑧ 안정성    ⑨ 리더십    ⑩ 책임성    ⑪ 준법성    ⑫ 대인관계    ⑬ 의사소통

**상호작용**

**문11.** 다음은 귀하의 **주변 사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_\_\_\_\_명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_\_\_\_\_명
-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_\_\_\_\_명

**문12.** 귀하는 또래에 비해 하루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합니까?

| 매우 조금한다 | 조금 하는 편이다 | 많이 하는 편이다 | 매우 많이 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문13.**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귀하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중요한 편이다 | 매우 중요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문14.**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전혀 차이가 없다 | 차이가 없는 편이다 | 차이가 있는 편이다 | 매우 차이가 있다 |
|-----------|------------|------------|-----------|
| ①         | ②          | ③          | ④         |



문15. 다음은 귀하가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br>이다 | - | - | 매우<br>그렇다 |
|--------------------------------------|-----------------|---|---|----------|---|---|-----------|
| 1)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상대방과 같은 장소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상대방이 바로 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16. 다음은 귀하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보통<br>이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인터넷 사용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인터넷으로 정보(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인터넷으로 정보(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편안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다른 유저와의 공동체의식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7. 다음은 귀하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보통<br>이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우리 동네(마을/지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곳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보다 넓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온라인에서 나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8. 다음은 귀하의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우리 동네(마을/지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내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곳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보다 넓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더 큰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일반적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오프라인에서 나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학교/사회생활

문19. 귀하의 \_\_\_\_\_ \*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학생: 학업 성적(가장 최근을 기준으로)은 반에서      대학생: 학업 성적(가장 최근을 기준으로)은 학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 : 학업 성적(마지막에 다녔던 학교를 기준으로)은 반에서      성인 : 직장 내에서의 성과는

※ [성인제외 자시문]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학업 성적 수준을 모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본인의 학업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매우 못하는 수준 | 못하는 수준 | 중간 | 잘하는 수준 | 매우 잘하는 수준 |
|-----------|--------|----|--------|-----------|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9-1 귀하의 \_\_\_\_\_ \*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 학생, 대학생 : 학업 성적      학교 밖 청소년 :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의) 학업 성적      성인 : 직장 내 고과  
※ 본인의 정확한 \_\_\_\_\_ \* 수준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만족하는 편이다 | 매우 만족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학생만 질문]**

**문20-1.** 다음은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의 학교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학교는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우리 학교는 사상(생각, 가치, 이념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우리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 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우리 학교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우리 학교는 가정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우리 학교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나는 학교 일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협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나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합의한 결정을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3)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4) 우리 학교는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5) 학교나 학급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내 의견은 중요하게 반영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6) 학교나 학급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내 의견은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존중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7) 나는 학교의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8)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동아리 등)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9)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 우리 학교는 학교의 활동(현장체험학습, 교육여행, 운동회, 축제 등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1) 담임교사는 학급의 일을 결정할 때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2) 학생 대표(전교 학생회장, 학급 회장, 동아리 회장 등)는 학생 자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3) 나는 학교나 학급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4)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학교 밖 청소년만 질문]**

**문20-2.** 다음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의 학교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1) 내가 다녔던 학교는 차별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내가 다녔던 학교는 사상(생각, 가치, 이념 등)의 자유를 보장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내가 다녔던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5)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내가 다녔던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 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내가 다녔던 학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내가 다녔던 학교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내가 다녔던 학교는 가정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내가 다녔던 학교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나는 학교 일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협력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나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합의한 결정을 따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3) 내가 다녔던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4) 내가 다녔던 학교는 소수 의견도 존중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5) 학교나 학급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은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6) 학교나 학급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은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존중받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7) 나는 학교의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8) 내가 다녔던 학교 학생들은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동아리 등)에 자유롭게 참여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9)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 내가 다녔던 학교는 학교의 활동(현장체험학습, 교육여행, 운동회, 축제 등)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1) 담임교사는 학급의 일을 결정할 때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2) 학생 대표(전교 학생회장, 학급 회장, 동아리 회장 등)는 학생 자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3) 나는 학교나 학급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4) 내가 다녔던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대학생만 질문]**

문20-3. 다음은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의 학교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학교는 체벌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우리 학교는 사상(생각, 가치, 이념 등)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우리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학교 규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우리 학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우리 학교는 성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우리 학교는 가정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10) 우리 학교는 신체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나는 학교 일에 대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협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나는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합의한 결정을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3) 우리 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4) 우리 학교는 소수 의견도 존중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5) 학교나 학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은 중요하게 반영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6) 학교나 학과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은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존중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7) 나는 학교의 규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8)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동아리 등)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9)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0) 우리 학교는 학교의 활동(현지답사, 교육여행, 체육대회, 축제 등)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1) 교수진은 학과의 일을 결정할 때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2) 학생 대표(학생회장, 과대표, 동아리 회장 등)는 학생 자치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3) 나는 학교나 학과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4)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성인만 질문]

문20-4. 다음의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내 조직분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의 직장 내 조직 분위기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구분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 | 보통 | - | -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직장은 사원들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우리 직장은 무엇보다도 사원들의 화합과 단결 및 팀워크를 중요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우리 회사는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우리 직장은 사원들 상호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우리 직장은 사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정도가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학생만 질문]**

문21-1. 귀하는 **학교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잘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
| 1) 전반적인 학교생활 | ①      | ②   | ③  | ④     |
| 2) 학교시설 및 설비 | ①      | ②   | ③  | ④     |
| 3) 교육 내용     | ①      | ②   | ③  | ④     |
| 4) 교육 방법     | ①      | ②   | ③  | ④     |
| 5) 교사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 6) 교우관계      | ①      | ②   | ③  | ④     |
| 7) 학교 주변 환경  | ①      | ②   | ③  | ④     |

**[학교 밖 청소년만 질문]**

문21-2. 귀하는 **학교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했었습니까? 잘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
| 1) 전반적인 학교생활 | ①      | ②   | ③  | ④     |
| 2) 학교시설 및 설비 | ①      | ②   | ③  | ④     |
| 3) 교육 내용     | ①      | ②   | ③  | ④     |
| 4) 교육 방법     | ①      | ②   | ③  | ④     |
| 5) 교사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 6) 교우관계      | ①      | ②   | ③  | ④     |
| 7) 학교 주변 환경  | ①      | ②   | ③  | ④     |

**[대학생만 질문]**

문21-3. 귀하는 **학교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잘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
| 1)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 2) 물리적 환경(학교시설)  | ①      | ②   | ③  | ④     |
| 3) 수업내용          | ①      | ②   | ③  | ④     |
| 4) 강의 분위기        | ①      | ②   | ③  | ④     |
| 5) 교수진           | ①      | ②   | ③  | ④     |
| 6) 교우관계          | ①      | ②   | ③  | ④     |
| 7) 동아리 활동        | ①      | ②   | ③  | ④     |
| 8) 취업 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 9) 등록금/장학금/학비 수준 | ①      | ②   | ③  | ④     |

**[성인만 질문]**

**문21-4.** 귀하께서는 **직장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잘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항목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
|--------------------------------------------|--------|-----|----|-------|
| 1) 하고있는 일(업무)의 내용(전공 관련 정도 포함)             | ①      | ②   | ③  | ④     |
| 2) 사회적 공헌, 봉사 및 사회적 인정                     | ①      | ②   | ③  | ④     |
| 3) 자기발전의 추구                                | ①      | ②   | ③  | ④     |
| 4) 임금과 수입                                  | ①      | ②   | ③  | ④     |
| 5) 업무시간(길이)                                | ①      | ②   | ③  | ④     |
| 6) 고용의 안정성                                 | ①      | ②   | ③  | ④     |
| 7) 일의 자율성과 권한                              | ①      | ②   | ③  | ④     |
| 8) 직장까지의 거리 가까움                            | ①      | ②   | ③  | ④     |
| 9) 장래가 유망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장                   | ①      | ②   | ③  | ④     |
| 10) 사무실(작업장)의 물리적 근로환경                     | ①      | ②   | ③  | ④     |
| 11) 직장동료(상사 포함)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br>(사회적 근로환경) | ①      | ②   | ③  | ④     |
| 12) 일과 가정 양립                               | ①      | ②   | ③  | ④     |
| 13) 여가생활 보장                                | ①      | ②   | ③  | ④     |
| 14) 인사고과의 공정성                              | ①      | ②   | ③  | ④     |
| 15) 복리후생                                   | ①      | ②   | ③  | ④     |

**심리적 안녕**

**문22.** 다음은 **귀하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8) 나는 나를 더 존중하지 못해 안타깝다              | ①         | ②          | ③      | ④      |
|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나는 나에게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문23. 다음은 귀하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아님 | 거의<br>아님 | 대체로<br>그렇함 | 매우<br>그렇함 |
|------------------------------------------------------|----------|----------|------------|-----------|
| 1) 내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마음먹은 일을 해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어도 나는 적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 뜻밖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 6) 언제나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7)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8)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 ①        | ②        | ③          | ④         |
| 9)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나는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어떤 문제에 처해도 나는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문24. 다음은 귀하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동의<br>하지<br>않는다 | 대체로<br>동의<br>하지<br>않는다 | 약간<br>동의<br>하지<br>않는다 | 잘<br>모르<br>겠다 | 약간<br>동의<br>한다 | 대체로<br>동의<br>한다 | 전적<br>으로<br>동의<br>한다 |
|--------------------------------------|-----------------------|------------------------|-----------------------|---------------|----------------|-----------------|----------------------|
| 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문25.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해당 문장이 귀하의 가족과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은<br>편이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우리 가족은 자기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3)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 우리 가족은 서로 잘 돕는다               | ①               | ②                | ③         | ④         |
| 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 7)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 ①               | ②                | ③         | ④         |
| 8)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9) 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우리 가족은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1) 우리 가족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취미생활 등)을 즐긴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우리 가족은 먹고살만한 수입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우리 가족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우리 가족은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우리 가족만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1) 우리 가족은 사회활동(봉사, 모임 등)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우리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기타 및 배경질문

문26.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건강하다 | 건강한 편이다 |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문27.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한 것도 포함**해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 ②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 ③ 심하게 때리기 |
| ④ 협박하기          | ⑤ 돈이나 물건 뺏기(뺑뺏기) | ⑥ 심한 욕설하기 |
| ⑦ 성폭행이나 성희롱     | ⑧ 해당사항 없음        |           |

문28. **최근 1년 동안**, 귀하는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에서 당한 것도 포함**해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심한 놀림이나 조롱 당하기 | ②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 ③ 심하게 맞음 (폭행피해) |
| ④ 협박당하기          | ⑤ 돈이나 물건 뺏기기(뺑뺏기) | ⑥ 심한 욕설 듣기      |
| ⑦ 성폭행이나 성희롱      | ⑧ 해당사항 없음         |                 |

배문1.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 ④ 전문대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성인만 질문]

배문2.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사별

[성인만 질문]

배문3.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① 자녀 있음  
② 자녀 없음

[성인만 질문]

배문4.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본인 포함)는 총 몇명인가요? 본인을 포함해서 응답해 주세요.

총 가족 수 \_\_\_\_\_명

[성인만 질문]

배문5.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가족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의 소득과 금융소득(주식, 부동산 임대수익 등 포함)을 합쳐서 '만원 단위'로 응답해주세요.

월 평균 총 가구소득 \_\_\_\_\_만원

배문6. 귀하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매우 못산다 | - | - | 보통 수준 | - | - | 매우 잘 산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만 질문]

배문7.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새아버지                      ④ 어머니/새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⑧ 아무도 없음

배문8. 귀하의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 학교<br>안다님 | 초등학교<br>졸업 | 중학교<br>졸업 | 고등학교<br>졸업 | 전문대<br>졸업 | 대학교<br>졸업 | 대학원 졸업<br>(석·박사) | 잘<br>모르겠음 | 해당사항<br>없음 |
|-------|-----------|------------|-----------|------------|-----------|-----------|------------------|-----------|------------|
| ①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99)      | (999)      |
| ②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99)      | (999)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교육 및 직무 현장에서의 원만한 대면 교류와 소통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MZ세대의 사회성 위축 또는 결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 2021년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교육 결손 회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결핍 회복이 상정된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또는 청년기)의 사회성 위축 및 결핍은 비단 해당 시기만의 발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주기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 상황이 MZ세대의 사회성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한 우려는 분명 기우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MZ세대의 사회성 결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에 MZ세대의 사회성 결핍을 가정사실화하는 사회 일각의 인식과 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성은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이며,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방식도 대면 접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성이 오프라인상에서의 대면 활동과 교류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발달할 것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성 발달 이론, 사회성의 다양한 개념과 구성 요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성의 다양한 개념과 구성 요인을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성의 개념을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맺고 유지하려는 성격이자 사회적 관계 맺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수준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소속된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성을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협동성, 사교성, 자율성, 근면성, 안정성, 리더십, 책임감, 준법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총 1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토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MZ세대의 사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질문지와 조사 도구를 마련하고, 초점집단면담(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는 5개 유형(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사회 중년생)별로 2개 집단을 면접하여 총 10회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면접 대상자는 총 39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에서 총 5,271명(학생 청소년 1,471명, 학교 밖 청소년 400명, 대학생 800명, M세대 성인 남녀 1,300명, X세대 성인 남녀 1,300명)을 표집하여 이들의 사회성 실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행태와 이에 대한 가치관, 소속 조직과 일상에 대한 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MZ세대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성 함양을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았는지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M세대는 학령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강조된 사회성 및 이를 지원하는 정책, Z세대는 청(소)년기 강조되는 사회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사회성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관련 사례(일본과 미국)도 함께 조사하였다.

끝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놓인 MZ세대의 대표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 및 직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청년센터 등에서 MZ세대의 사회성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전문가 집단(중고등학교 교사, 교육부 관계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 대학교수, 청년센터 실무자,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MZ세대 사회성의 특징, 코로나-19 시대에 MZ세대가 지향해야 할 사회성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및 지원 방안 등을 자문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MZ세대의 사회성을 이해하고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baseline data and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the social competence of Generation MZ (a term coined to combine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as they transitioned into youth and emerging adulthoo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social distancing, Generation MZ experienced face-to-fac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challenges in educational and work-space settings. There are concerns in certain parts of Korea's society that Generation MZ may suffer from social withdrawal issues or, at the very least, lack appropriate social skills due to prolonged social isolation. In 2021,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published a Comprehensive Educational Recovery Plan from COVID to establish a new teaching program as students return to full face-to-face learning. In a subsection of that recovery plan, called Recovery from Learning Loss, introduced tackling the lack of social competence in youth. The policy reflects the concerns raised by society.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competence issues should not be dismissed as isolated issues experienced among youth and early adults during the pandemic, as these issues will affect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Despite this, no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e notion that the COVID-19 pandemic affected the social competence of Generation MZ, so claims that this generation lacks social competence should be dealt with under scrutiny. Social competence is not confined to

just one concept but encompasses many meanings beyond physical proximity alone as a means of social and emotional interac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ocial competence of Generation MZ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beyond the premise that people only acquire social skills offline through face-to-face interactions. This was accomplished by reviewing the theory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divers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petence. This study referred to existing studies that outlined the concept of social competenc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characteristics. The definition of social competence in this study was refined to be someone with a personality capable of successfully engaging and maintaining social interactions in a social context, comprehending the social skills needed for engaging in social relationships, functioning in social situations, and being able to adapt to their society. In categorizing the definition of social competence, 13 subfactors were added: empathy, self-control, assertiveness, cooperation, sociability, autonomy, diligence, stability, leadership, responsibility, compliance,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Based on existing studies and expert peer reviews, a questionnaire and instruments were develop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ocial competence of youth and early adults from Generation MZ. An FGI (Focus Group Interview) and a survey was also conducted. Two groups of a total of 39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in the FGI, each group consisting of 5 different social groups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University student, Entry-level employee, and Management-level employee). For the survey, the sample size is 5,271 (1,471 youth students, 400 drop-out youth, 800 university students, 1,300 (male and female) Millennials, and 1,300 (male and female) Generation X). The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their social

competence, their preference for online or offline social interaction, and their values regarding these two methods of socializing, as well as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ir organization and daily routines, and their psychological sense of well-being.

The study then examined literature that introduced policies that Generation MZ received to advance their social competence to date. For the Millennials, two sets of questions were asked, one in school before graduation and the other during adulthood after graduation. During each period, they were asked about the social skills that were emphasized and the policies that supported them. The timeline for Generation Z focused on the type of social competence they demonstrated the strongest during their youth and the policies that supported such competence before and after COVID. The research also included foreign case studie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we consulted several groups of field experts (middle/high school teachers,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out-of-school youth program staff, professors, youth center staff, and corporate HR recruiters) who play critical roles in developing the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and youth of Generation MZ. These experts provided information on the social traits of that generation, guidelines and practic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generation. By examining these processes, this study identified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used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and development of Generation MZ's social competence.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 22-기본01    |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 연구보고 22-기본02    |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 연구보고 22-기본03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 연구보고 22-기본04    |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 연구보고 22-기본05    |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 연구보고 22-기본06    |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 연구보고 22-기본07    |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 연구보고 22-기본08    |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 연구보고 22-기본09    |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 연구보고 22-일반01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 연구보고 22-일반01-01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 연구보고 22-일반01-02 |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 연구보고 22-일반02    |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 연구보고 22-일반02-01 |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 연구보고 22-일반03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 연구보고 22-일반03-01 |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 협동연구과제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4)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br>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4-01)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br>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5)    |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br>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5-01) |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br>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5-02) |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br>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6)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br>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7)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br>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8)    |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br>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br>박광옥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8-01) |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br>김지연·백혜정·김미향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8-02) |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br>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br>박한보·최종학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8-03)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br>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8-04) |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br>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9)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br>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br>(자체번호 연구보고 22-일반09-01) |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br>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

##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 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 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 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 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 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 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 탁 과 제

### 〈 일 반 〉

- 연구보고 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 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 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 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 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 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 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 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 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 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 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 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 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 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 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 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                 |                                                          |
|-----------------|----------------------------------------------------------|
| 연구보고 22-수탁17    |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 22-수탁18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 22-수탁19    |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
| 연구보고 22-수탁20    |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
| 연구보고 22-수탁21    |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
| 연구보고 22-수탁22    |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
| 연구보고 22-수탁23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
| 연구보고 22-수탁24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연구보고 22-수탁24-01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 22-학폭01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 22-학폭02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 연구보고 22-학폭03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 22-학폭04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
| 연구보고 22-학폭05 |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
| 연구보고 22-학폭06 |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
| 연구보고 22-학폭07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
| 연구보고 22-학폭08 |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 22-대안01 |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 연구보고 22-대안02 |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 연구보고 22-대안03 |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 연구보고 22-대안04 |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 자 료 집

### 〈 세 미 나 〉

- 세미나 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 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 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 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 워크숍 〉

- 워크숍 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 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 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 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 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 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 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 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 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 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 포럼 〉

- 포럼 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 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 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 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 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 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 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 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 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 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 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 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 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 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 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 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 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 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 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 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 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 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 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 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 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 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 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 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 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 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 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 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 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NYPI Bluenote 통계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70호 디지털 성범죄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2-기본03

---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52-7

연구보고 22-기본03

#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2-7